

평택군수 오횡묵의 산문집 散文集

평택 총쇄 平澤叢瑣

저자 오횡묵 역자 허경진



역자 허경진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를 거쳐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객원교수로 재직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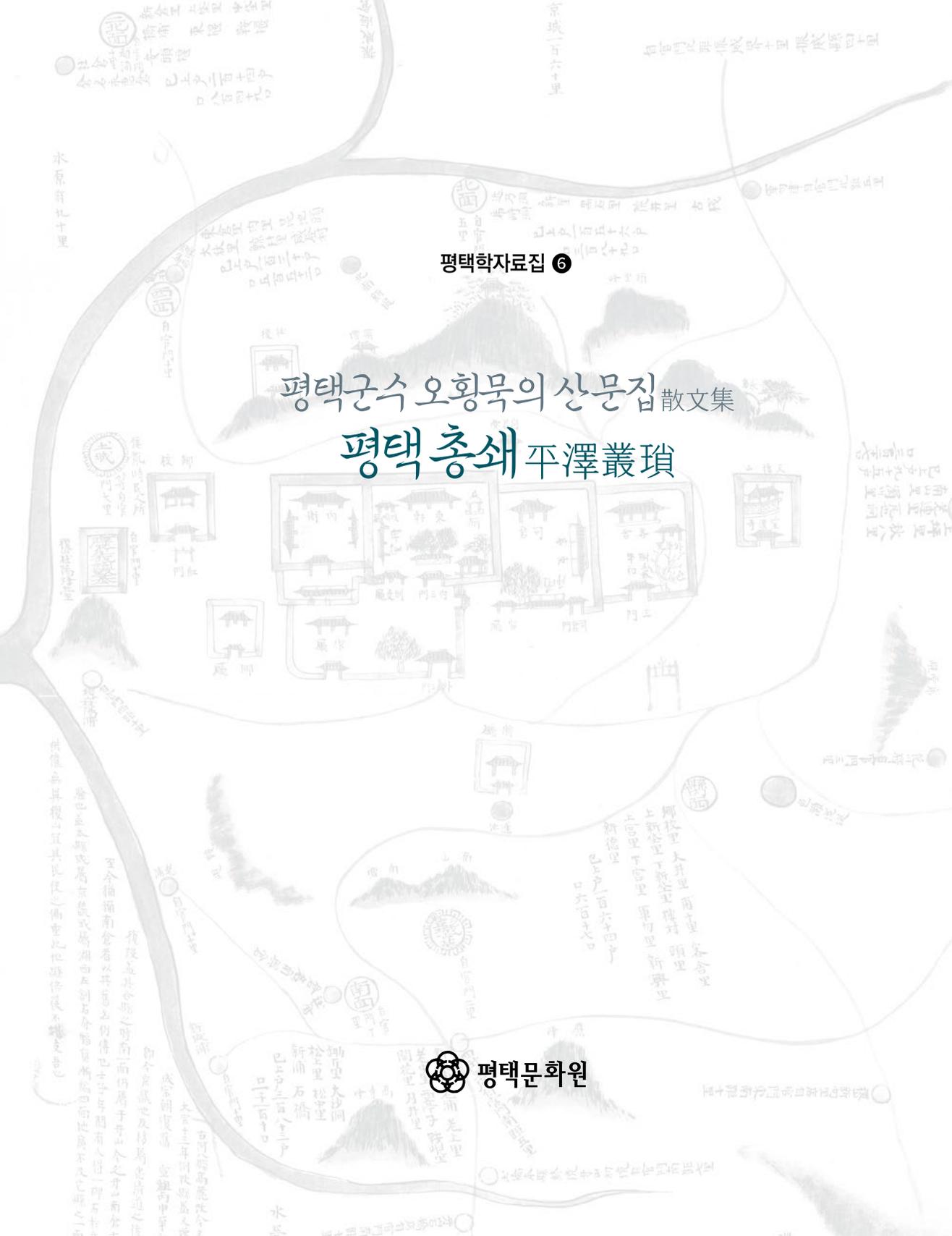
주요 저서로 《조선위향문학사》, 《한시 이야기》, 《허균평전》,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기독교의 편린들》 등 10여권이 있고
역서로는 《다산 정약용 신문집》, 《연암 박지원 소설집》, 《매천야록》,
《서유견문》, 《삼국유사》, 《택리지》, 《허난설현시집》,
《고문 최치원 시집》, 《정일당 강지덕 시집》, 《진교일기》, 《평택세언》 등
50여권이 있다.

평택학자료집 ⑥

평택군수 오홍묵의 산문집 散文集

평택 총쇄 平澤叢瑣

평택문화원



水源距九十里

京城一百六十里

自官門距縣城界十里限城縣四百里

新會里 法安里 東原 轉眼里
全名 卷數 卷數
已上戶二百十四戶
口八百四十九口

東原里 戶數
本原里 戶數
已上戶二百三十三戶
口六百四十九口

法安里 戶數
東原里 戶數
院井里 戶數
古校

官勿建昌官門距五里

德風時之所
門五
門五

枝柳
門五

街內
井安
官司
官署
門三
門四
門五
門六
門七
門八
門九
門十

門五

口六百三十八口
已上戶一百六十四戶
新德里 戶數
上宮里 戶數
軍勿里 戶數
新界里

德風時之所
門五

復我其合縣之時而併屬於于今之方而實土之
至今猶稱南倉者以其舊名仍傳已上戶年間有人得一碑石上
卷已五之顯氏屬京畿或高湖西左則右分屬高湖西而地不
併復其復山其長使之尚重此他碑併後不備支也

復我其合縣之時而併屬於于今之方而實土之

德風時之所
門五

新山
官前

德風時之所
門五

新德里 戶數
上宮里 戶數
軍勿里 戶數
新界里

門五

門五

新浦 戶數
石橋
已上戶三百八十三戶
口一千一百九十四口

浦老上里
松里 戶數
新浦 戶數

德風時之所
門五

德風時之所
門五

德風時之所
門五



오형묵의 평택 산문집, 번역을 통한 새로운 연구의 확장

평택문화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사를 발굴하여 평택학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지역의 삶과 문화를 살펴보고, 과거를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 관련 기사자료집, 삼학사, 진교일기, 평택군수 오형묵의 정무일기 평택 설편, 평택군수 오형묵의 한시집 평택총쇄를 발간하였고 뒤를 이어 6번째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오형묵은 지방관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며 지역의 이야기를 일기와 시, 문 등으로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현재 각 지역에서는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택에 대한 오형묵의 기록인 일기와 시를 비롯해 이번에 번역한 산문은 앞으로 평택에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평택학자료집6-‘평택군수 오형묵의 산문집 평택총쇄’의 원 제목은 《총쇄》로 24책 가운데 제19책과 제20책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형묵은 평택군수로 재임하는 다양한 글을 써왔습니다. 여기에는 평택 관아의 명칭이나 지방관으로 지역의 사회사 등을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번역 발간한 평택학자료집6-‘평택군수 오형묵의 산문집 평택총쇄’는 평택의 관아, 지명, 인물, 행정, 사건 등에 대한 서술이 포함되어 있어 근대평택 연구하는데 사료적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시민에게는 지역에 대한 역사적 배경 지식을 높이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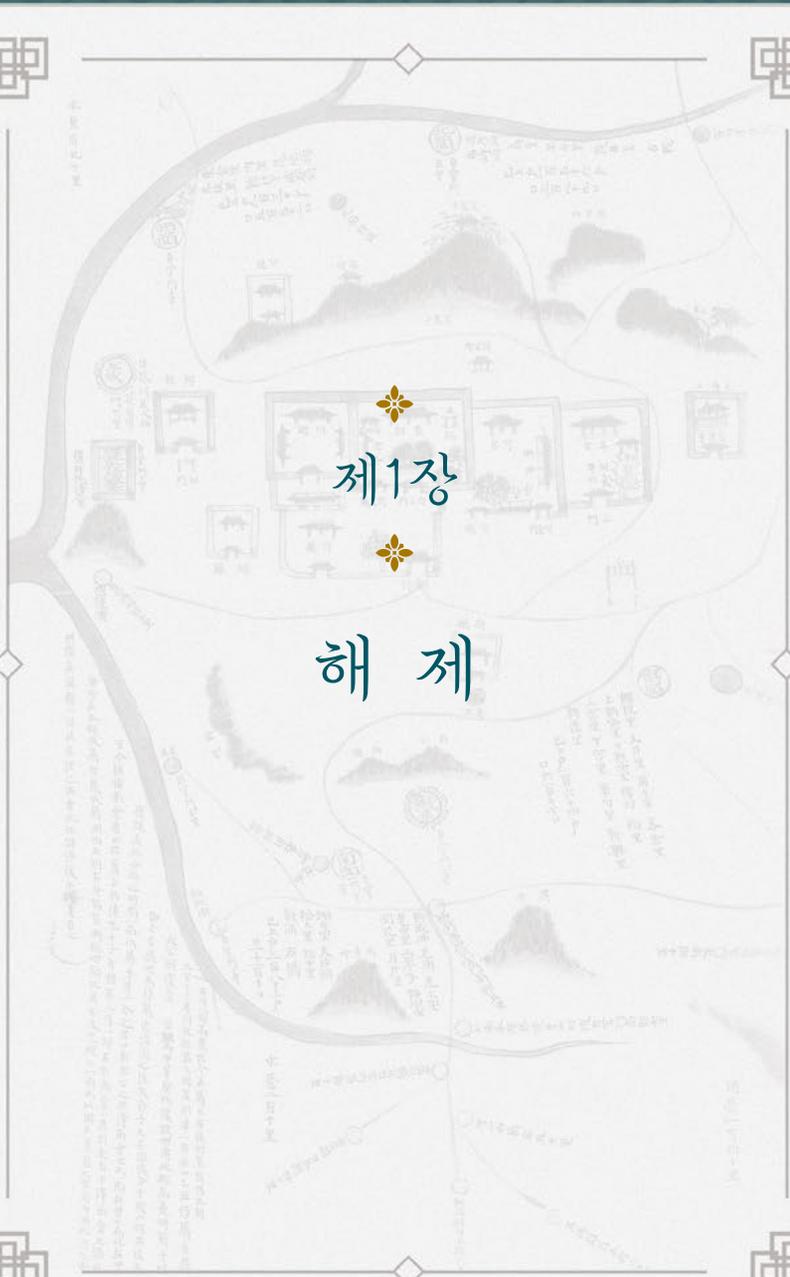
끝으로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번역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허경진 교수님,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평택문화원은 지역사 연구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고 발전을 거듭해 가겠습니다.

2023년 12월

평택문화원장 이 보 선

❖ 목 차 ❖

제 1 장	해제	7
제 2 장	총쇄 제19책	13
제 3 장	총쇄 제 20 책	121
부 록	총쇄 제19책 영인본	215
부 록	총쇄 제 20 책 영인본	253



✧
제1장



해 제



제1장



해제

상의하달(上意下達) 하의상달(下意上達) 목민관의 기록을 담은 평택 산문집

조선시대 과거시험 과목으로 진사시에서는 시(詩)와 부(賦)를 짓게 하였다. 문과 초장에서는 사서삼경을 비롯한 경학(經學)에 대한 이해를 시험하고, 중장에서는 문장을 짓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표(表)·전(箋)·부(賦)·송(頌)·명(銘)·잠(箴)·기(記) 등을 짓게 하였으며, 종장에서는 사회 현안을 인식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대책(對策)을 짓게 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글짓기 시험을 치렀는데, 관원이 되면 임금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상의하달(上意下達), 백성의 여론과 지역의 상황을 나라에 전달하는 하의상달(下意上達)의 글쓰기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해마다 몇 차례씩 중국에 파견하는 사신이 가져가는 국서도 역시 글쓰기 능력의 결과물이다.

1902년 6월 23일 평택군수에 임명되어 1906년 5월 28일에 의원면직한 오홍묵(吳弘默, 1834-1906)은 문과가 아니라 무과에 급제한 무인이었지만, 무과 역시 무예(武藝) 시험만 치른 것이 아니라 강서(講書) 과목을 통해 기본적인 문장 독해력을 시

험하였다. 그는 왕희지가 계축년(353) 삼짓날 산음현의 난정(蘭亭)에서 명사 42명과 함께 수계(修禊)를 치른 것을 기념하여 20세가 되던 계축년(1853년) 삼짓날 자신의 집인 채원(菴園)에서 친척 친구 시인들과 계회(禊會)를 열어 시를 지으며 즐겼고, 이후 1866년까지 지속적으로 모일 정도로 시 짓기도 좋아하였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후손이나 제자들이 모여서 유작을 수집하여 문집을 편집하였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원으로서 지은 행정 관련의 문장들은 문집에 넣지 않았다.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몇몇 문집에 상소문이나 전(箋)·책(策) 등이 보일 정도이다. 그런데 오홍묵의 문집인 《총쇄(叢瑣)》에는 목민관이 직책상 지어야 하는 다양한 문체(文體)의 글들이 모두 실려 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지은 모든 글을 문집에 넣기 원했던 것이다.

오홍묵은 목민관으로 가는 곳마다 다양한 기록을 남겼는데, 크게 분류하면 일기·시·산문이다. 평택군수로 재임하는 기간에는 일기 1권, 시 652제(題) 799수, 산문으로는 서(序) 5편, 기(記) 7편, 발(跋) 1편, 문(文) 1편, 잠(箴) 1편, 명(銘) 1편, 찬(贊) 2편, 설(說) 4편, 해(解) 1편, 발사(跋辭) 4편, 제사(題辭) 20편, 판결서(判決書) 1편, 보고(報告) 10편, 조회(照會) 1편, 하첩(下帖) 1편, 전령(傳令) 11편, 조규(條規) 1편, 서(書) 106편을 짓고 썼다.

그는 4년 동안 날마다 일기를 쓰거나 1편 이상의 시나 산문을 지은 셈이다. 일기를 보면 그는 부지런히 관내를 순시하면서 공적이고 사적인 글을 썼는데, 공문서로 본다면 그 가운데 상당수가 그의 문집인 《총쇄》에 실린 편이다.

그의 문집은 지금까지도 간행되지 못하고 미정고(未定稿)가 다양한 필사본으로만 전하는데, 체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73세 되던 1906년 5월말까지 평택에서 왕성하게 글을 짓다가, 의원면직하고 집으로 돌아가 5개월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 여기저기 전해오는 필사본들이 서로 다른 체제로 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가 지은 시는 《총쇄(叢瑣)》 제17책과 제9책, 산문은 제19책과 제20책에 실려 있는데, 고전문집총간에서는 시기 순에 따라서 시는 제13책, 제14책으로, 산문은 제

22책, 제23책으로 재편집하여 소개하였다. 이 번역서 뒤에 덧붙인 영인본에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원래의 번호대로 총쇄 제19책, 총쇄 제20책으로 표기하였다. 산문은 제목을 자세하게 붙여서, 제목만 보아도 글의 내용이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호 가운데 택방(澤舫)은 평택에서 지은 것인데, 자호 '택방'에 대한 해설을 적은 「택방설(澤舫說)」이 장서각본 《총쇄》 제19책에 실려 있다.

정무일기의 제목은 '쇄언(瑣言)'인데, '자질구레한 글, 자질구레한 기록'이라는 겸양의 표현이다. 문집명을 '총쇄(叢瑣)'라고 하였으니, '자질구레한 글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겸양의 표현이다. 한나라 문장가 양웅(揚雄)이 문집명을 '부부(覆瓿 장독뎡개)'라고 지은 것만큼이나 겸손하면서도 해학적인 표현이다.

그가 평택군수로 재임하던 시기(1902-1906)는 조선왕조가 아니라 대한제국 시대이어서, 그는 선배 평택군수들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했다. 하나는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어 공주관찰부에 속하던 작은 고을 평택군이 경기도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과정의 변화와 충돌이고, 다른 하나는 통감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협조를 요구하는 일본 헌병과 경찰, 철도회사의 간섭 등이다. 조선시대 지방관의 기록에서 볼 수 없는 사건들을 그는 숨기지 않고 담담하게 기록하였다.

평택군수 산문집인 《평택 총쇄》를 읽어보면 그는 평택군 동헌에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내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민정을 살폈고, 공주관찰부나 이웃 고을에 불러다니며 도정(道政)에도 협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글을 지었기에 평택의 주민이나 다른 고을의 친지들에게 지어준 산문도 있지만 상의하달(上意下達) 하의상달(下意上達), 즉 상급관청의 뜻을 주민들에게 전달한 글도 있고, 평택 주민들의 실정을 상급기관에 보고한 글들이 특히 많이 실려 있다.

평택산문집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대한제국 마지막 평택 군수로 재임하면서 평택 관아의 여러 건물과 정원, 평택의 주민들과 풍광에 대해 서술하는 전통적인 산문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평택의 근대화와 조국의 주권 강탈이라는 양면을 담담하게 기록했다는 점이다. 부수적으로 날마다 부지런히 관내를 돌아다니며 행정을 감독하고 군민들과 원활하게 지내는 목민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산문집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평택이 근대화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 2) 편액도 알려지지 않았던 평택 관아의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다.
- 3) 지방관이 이웃고을의 재판에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4) 일제의 침략상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 5)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군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6) 평택의 명승지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다.
- 7) 평택군에서 거두지 못한 세금을 군수 개인에게 강제로 부담시켜 의원면직시키는 불합리한 행정 관습을 엿볼 수 있다.

오형묵 군수 부임 2주갑(120주년)을 맞으면서 2021년에 평택군수 정무일기, 2022년에 시집, 2023년에 산문집까지 모두 간행된 것도 뜻깊은 일이다. 앞으로 그가 남긴 평택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근대 평택 기록의 아카이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여 백



❁
제2장

❁
총쇄
제19책





제 2 장



총쇄 제19책

◆ 서(序)

- 십의대(十宜臺) 서(序) [十宜臺序]
- 오위장 벽하 방대철에게 주는 『채인시초』의 서문
[贈碧下方五衛將大輶茵人詩抄序]
- 의관 이종돈 수연시의 서문 [李議官鍾敦壽宴詩序]
- 석성자 수연시의 서문 [石醒子壽宴詩叙]
- 죽성 정은교의 『춘우당실기』 시품제평에 대한 추서
[鄭竹醒聞教春雨室實記詩品題評追序]

◆ 기(記)

- 십의대기 [十宜臺記]
- 취석이 다시 출토된 것에 대한 기록 [醉石重出記]
- 향반기 [香磐記]
- 평이당기 [平易堂記]
- 강산일초정기 [江山一草亭記]

- 경정리 포의단 공역 완성 기문 [鯨井里褒義壇功畢記]
- 춘우실 사적과 산천의 경계에 관한 실기 [春雨室事蹟及山川疆形實記]

◆ 발(跋)

- 남강 상치회첩의 뒤에 쓰다 [南岡尙齒會帖後]

◆ 문(文)

- 망한사 모연문 [望漢寺募緣文]

◆ 잠(箴)

- 두죽장잠 병인 [杜竹杖箴 并引]

◆ 명(銘)

- 고자다관명 병인 [古磁茶罐銘 并引]

◆ 찬(贊)

- 시경에 대한 찬 [詩境贊]
- 괴이한 돌에 대한 찬사 [怪石贊]

◆ 설(說)

- 택방에 대한 설 [澤舫說]
- 자문와에 대한 설 [自問窩說]

- 평이당에서의 수작에 대한 설 [平易堂間酬酌說]
- 만회당에 대한 설 [晚悔堂說]

◆ 해(解)

- 일섭원에 대한 풀이 [日涉園解]

◆ 발사(跋辭)

- 천안군 소동면 궁리에서 죽은 남성 정현범 옥사의 복검 발사
[天安郡小東面宮里致死男人鄭鉉凡獄事覆檢跋辭]
- 전의군 북면 중대부리에서 죽은 남성 김상렬 옥사의 삼검 발사
[全義郡北面中大夫里致死男人金相烈獄事三檢跋辭]
- 직산군 삼곡리 광부가 소요를 일으킨 뒤 안핵사의 사혁 발사
[稷山郡三谷里礦夫作擾後按覈使查覈跋辭]
- 아산군 현내면 공세지에서 죽은 남성 박정보의 복검 발사
[牙山郡縣內面貢稅地致死男人朴正甫覆檢跋辭]

◆ 제사(題辭)

- 아산 정두진의 산송 도형장에 대한 제사 [牙山鄭斗鎭山訟圖形狀題]
- 포의사 단장 창녕현감 정태규 등의 품장에 대한 지령
[褒義祠壇長鄭昌寧泰珪等稟狀指令]
- 근효곡 정필석의 처 경주 김씨가 효열(孝烈)한 일로 전 교리 홍사필 등의
품장에 대한 제사 [勤孝谷鄭必錫妻慶州金氏孝烈事 前校理洪思弼等稟狀題]
- 명례궁 수세파원 한용기의 장문에 대한 제사 [明禮宮收稅派員韓用冀狀題]
- 호치동 한도형 집안의 일을 조사한 보장에 대한 지령
[虎峙洞韓道衡家事查報狀指令]

- 근내동 안희천의 의송장이 도착한 데 대한 지령
[近乃洞安熙天議訟狀到付指令]
- 신성포에 장시를 설치해달라는 소장에 대한 제사 [新成浦設場訴狀題]
- 서근리의 두민 박인규의 소장에 대한 제사 [鋤斤里頭民朴仁圭訴狀題]
- 남면의 면장 이윤직이 도약장으로서 대신할 면장을 택정하여 개차하고자 하는 장문에 대한 제사 [南面長李允植以都約長 擇定代面長改差狀題]
- 내수사전(內需司田)을 조사할 때 서북 양면의 대소 인민들이 올린 소장에 대한 제사 [內需司畓查檢時 西北兩面大小民人等狀題]
- 신창 이반의 소장에서 마을의 정덕수에게 추대(推貨)와 관련한 답송 제사
[新昌李班訴狀內里鄭德洙處所推畓訟題]
- 김교철의 장문에 대한 제사 [金敎哲狀題]
- 원정리의 농기(農旗)와 두레에 관한 등장에 대한 제사
[院井里農旗頭例等狀題]
- 군물포의 편재규 등이 장시를 설치해 달라는 소장에 대한 제사
[軍勿浦片在奎等設場市訴狀題]
- 소북면 동쪽 방죽의 수구 완축장에 대한 제사 [小北面東堰水口完築狀題]
- 수원 김은성의 소장에 대한 제사 [水原金殷成狀題]
- 김은성을 사품한 장문(狀文)에 대한 배제 [金殷成查稟狀背題]
- 직산 향장 정양석의 도부장에 대한 제사 [稷山鄉長鄭養錫到付狀題]
- 경양 장연의 소장에 대한 제사 [慶陽張燕訴狀題]
- 서면 창내 보리 경작인 등의 소장에 대한 판결제
[西面滄內牟耕作人等訴判決題]

◆ 판결서(判決書)

- 판결서, 북면의 면장 및 근내동의 정씨 종중에 고시함
[判決書 告示北面面長及近乃洞鄭氏宗中]

◆ 보고하는 글(報告)

- 농형 보고문 [報告農形文]
- 공주부에 재정(災政)을 보고하는 개장(槩狀) [槩狀報府災政文]
- 일본인 군용 인부 모집의 일로 인한 훈령이 도착한 후 보고하는 글 [因日人軍用人夫募集事訓令到付後報告]
- 인부를 모집하는 일로 사실에 근거해 공주부에 보고하는 글 [因人夫募集事 據實報府]
- 인부를 모집하는 일로 공주부에 보고하는 글 [因人夫募集事報府文]
- 갑진 연분 개장 보고 [甲辰年分槩狀報告]
- 해일을 공주부에 보고하는 글 [因海溢事報府文]
- 소북면의 해일 상황을 보고하는 글 [報小北面海溢事狀]
- 소북면 우박 재해 보고서 [小北面雹災報告書]
- 세전의 수봉 및 상납하는 일로 인하여 대략을 들어 탁지부에 직보함 [因稅錢收捧及上納事舉槩直報度支部]

◆ 조회(照會)

- 익산군의 신축년 세전을 대신 납부한 일로 인하여 해당 군에 조회하는 글 [因益山郡辛丑稅錢替納事 照會該郡文]

◆ 하첩(下帖)

-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쌀과 고기를 돈으로 대신하여 반급(頒給)한다는 첩유문 [年七十以上人米肉代錢頒給帖諭文]

◆ 전령(傳令)

- 조가전을 지나치게 거둔 일로 인하여 각 면의 대소 인민에게 영칙하는 글
[因租價錢濫捧事 令飭各面大小民人文]
- 좌우 지사의 장무원에게 영신하는 글 [令申左右支社掌務員文]
- 모리배의 무미가 폐단이 심한 것으로 인하여 조사하여 각 면에 영칙함
[因侷利輩貿米多弊 措辭令飭于各面]
- 호치동 한도형 집안으로 인한 전령 [因虎峙洞韓道衡家傳令]
- 순교가 폐단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하여 각 면의 대소 인민들에게 영칙함
[因巡校作弊 令飭各面大小民人]
- 박준대의 선가를 장연에게 추심한 일로 인하여 본래 동에 있던 사람들에게 사질하는 글 [因朴準大船價推尋於張燕事 查質于本在洞文]
- 비 내린 뒤 이양하는 일로 인하여 대소 인민들에게 영칙함
[因雨後移秧事 令飭大小民人]
- 소장(訴狀)을 잘 써서 바치는 방식 고시(告示) [訴狀繕呈事告示]
- 길 닦는 일을 수교에게 고시하는 글 [因治道事告示首校]
- 평택정거장(平澤停車場) 역장(驛長) 코노미 사토지로(許斐里次郎)를 대신하는 시장(市場) 설치 광고(廣告) [代平澤停車場驛長許斐里次郎廣告]
- 군물리의 존위, 동장, 감고에게 장시를 신설하는 데 대한 훈령
[軍勿里尊位洞長監考處新設場市訓令]

◆ 조규(條規)

- 고복 서원을 신척하는 조규 [申飭考卜書員條規]

십의대(十宜臺) 서(序) [十宜臺序]

내가 일찍이 승람(勝覽) 등의 책들을 모두 수집하여 『여재촬요(輿載撮要)』 10책을 편찬하였으므로, 책을 한번 열면 여러 고을의 지형과 명승(名勝)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또렷하게 알았다. 팽성(彭城)에는 다른 명승이 없고 다만 관가정(觀稼亭) 하나만 있었으며, 그 정자마저 또한 폐허가 되었다고 알고 있었다.

이 고을에 부임해 보니 과연 지상(紙上)으로 보았던 것과 같아, 거처하는 당우(堂宇)가 역시 낮고 비좁아서 겨우 무릎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 공무를 보는 여가에 비록 잠시 물러나 머리를 식히고 싶어도 답답하여 갈만한 곳이 없었다. 참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나게 하는 정자가 없는 것이 반드시 수령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때금 올라가 보면서 놓고 수고와 편안함을 조절하는¹⁾ 것을 또한 고을에서 소홀히 여길 수는 없다.

올해 봄 오류관(五柳館)의 북쪽 창문 바깥에 거칠고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히 쓸어내어 작은 트랙을 만들고 나서, 흙을 쌓아 대(臺)를 만들고 이름을 십의대(十宜臺)라고 하였다. 봄에 놀고(遊春), 더위를 피하며(避暑), 농사짓는 것을 보고(觀稼), 눈 내리는 것을 즐기며(賞雪), 산을 바라보고(看山), 바다를 바라보며(望海), 달을 구경하고(翫月), 종소리를 듣는(聞鍾) 이 여덟 가지는 남들과 같이 즐기는 경치이지만, 은택을 길어올리고(挹澤), 성을 구원하는(援城) 이 두 가지는 오직 (군수인) 나만 느끼는 정(情)이다.

하나의 대(臺)가 열 가지 마땅함을 갖추었으니, 내가 남과 아울러 정·경(情景)을 갖춘 것이라 대(臺)라고 할 만하다.²⁾ 어찌 반드시 하늘을 넘어³⁾ 초연하게 높고 큰 정자

1) 나라에 대(臺)를 두는 것은 나쁜 기운과 상서로운 기운을 보고 재앙과 상서로움을 관찰하여, 때로 올라가 보면서 놓고 수고롭고 편안함을 조절하기 위함이다. [國之有臺 所以望氛禳災祥 時觀游節勞佚也.] - 『시경(詩經)』 「대아(大雅) 영대(靈臺)」 주(注)

2) “대(臺)라고 할 만하다. [臺斯可矣]”는 ‘논어’, 「공야장(公冶長)」에 나오는 문투이다. “노(魯)나라 계문자(季文子)가 어떤 일든 ‘세 번 생각한 뒤에 행한다. [三思而後行]’라는 말을 공자가 듣고는 ‘두 번이면 된다. [再斯可矣]’라고 말하였다.”

3) 소동파의 「전적벽부(前赤壁賦)」에 “일엽편주가 가는 대로 만경창파를 넘어서니 호연한 기상은 마치 허공에 의지하여 바람을 타고 가는 듯하여 그칠 바를 모르겠고, 표연한 마음은 속세를 버리고 홀로 서서 학이 되어 신선이 되는 듯하였다. [縱一葦之所如 凌萬頃之茫然 浩浩乎如憑虛御風而不知其所止 飄飄乎如遺世獨立 羽化而登仙]”라고 하였다. 진희량(陳希亮)이 봉상(鳳翔) 태수로 있을 때 관사 후원에 능허대(凌虛臺)를 짓자, 소동파가 시와 기문을 지어주었다.

를 지는 뒤에야 만족할텐가? 이 대는 외지고 고요해서 정신을 집중하기에 알맞으니, 관아에서 퇴근하여 묵묵히 앉아 정무를 올바르게 했던가 생각해보면 얻는 바가 있다. 그렇다면 그 마땅함이 또 몇십 가지인지 아직 못하겠으니, 이 마땅함을 다 알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다. 뒤에 올 나보다 현명한 사람⁴⁾이 반드시 이 대(臺)에 오르면 생각함이 있으리라.

오위장 벽하 방대철에게 주는 『채인⁵⁾시초』의 서문 [贈碧下方五衛將大轍箇人詩抄序]

세상에서 뛰어나고 무리 가운데 빼어난 재주를 품고 또 행하고서도 능히 스스로 감추는 모습을 내가 방벽하(方碧下) 영공에게서 보았다. 벽하는 문장 실력이 넉넉하여 일대의 여러 공과 함께 나란히 명에하고 치달리다가 얼마 뒤에 탐스러운 세속에서 벗어나 출사(出仕)하기 전에 입던 옷을 손질하고 은거하였다. 주옥이나 비단처럼 아름다운 시문을 감추어서 없는 듯이 하였다.

이 때문에 내가 여기에 부임하고 해를 넘긴 뒤에야 비로소 고을에 벽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공적인 일이 아니면 찾아온 적이 없음을 본 뒤에야 벽하는 문장 실력만 넉넉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러니 이 어찌 세상에서 뛰어나고 무리 가운데 빼어난 재주를 품은 자가 아니겠으며 또 행하고서 능히 스스로 감추는 자가 아니겠는가. 다만 금란지계(金蘭之契)⁶⁾가 너무 늦어 부평초와 같은 인연을 쉽게 잃으니, 영

4) 나보다 현명한 사람[賢於隳者]은 『사기(史記)』 권34 「연소공세가(燕召公世家)」에서 나온 말이다. 전국시대 연(燕)나라 소왕(昭王)이 즉위하여 곽외에게 어진 인재를 천거하도록 하니, 곽외가 “임금께서 현사(賢士)를 초빙하려고 하신다면, 먼저 저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저보다 현명한 사람들이 어찌 천리 길을 멀다 하겠습니까. [王必欲致士 先從隳始 況賢於隳者 豈遠千里哉]”라고 하였다. 소왕이 그를 후대하고 스승으로 모셨으며, 이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을 등용하여 부국(富國)을 이루었다.

5) 채인(箇人): 오횡목의 호 가운데 하나이다. 오횡목이 여수군수로 있던 시기(1897-1899)에 채인(箇人)을 호로 삼고, <채인설(箇人說)>을 지었다.

6) 금란지계(金蘭之契): 뜻을 함께하는 벗과의 우정을 말한다. <주역> <계사전 상(繫辭傳上)>에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면 그 예리함이 쇠를 자를 만하고, 마음을 함께한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二人同心，其利斷金，同心之言，其臭如蘭.]” 하였다.

지(靈芝)의 이별⁷⁾에 떠남이 장차 반드시 이르는데 가져다주어서 그리움을 위로할 만한 게 없는 것이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아! 사람이 서로 알아줄 때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귀하니, 마음이 드러나서 볼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기술한 것보다 나은 것이 있겠는가. 이는 비록 공졸(工拙)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마음에서 발하고 그 자취에서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시를 보고 글을 읽고서도 그 사람에 대해 모를 수가 있겠는가.’ 한 것이다.

이에 내가 이른바 총쇄록(叢瑣錄) 중 시 몇 편을 초록(抄錄)하여 한 책자를 만들어 벽하에게 봉정(奉呈)하였으니, 한편으로는 가르침을 청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훗날 만남을 대신할 자료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무염(無鹽)의 추함을 드러내어 서시(西施)의 눈을 거처게 하였으니⁸⁾ 어리석은 게 아니라면 망령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벽하가 나에 대해 시로써가 아닌 마음으로써 대할 것임을 아니, 어찌 다시 유속(流俗)이 돌아볼 것을 생각하겠는가.

의관 이종돈 수연시의 서문 [李議官鍾敦壽宴詩序]

장수하여 연회하는 것은 인가(人家)의 지극한 경사이다. 자식된 자가 베풀어 단장하는 것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꾸미는 의리는 대소(大小)와 원근(遠近)의 차이가 있다. 반찬을 성하게 차리고 술을 풍성하게 하되 어른을 기뻐하게 하여 볼거리를 꾸미는 것은 단장함이 작고도 가까운 것이고, 하례함을 노래하고 그 송

7) 영지(靈芝)이 이별 : 영지사는 중국에 있는 절 이름으로, 주자(朱子)가 이곳에서 사원(史院)의 동료들과 전별연을 하였는데, 좌중의 어떤 사람이 심약(沈約)이 지은 <범범안성(別范安成)>이라는 시를 읊자 주자의 제자인 이계장(李季章)이 나도 평소 이 시를 매우 좋아하였다고 말하였다. 그 후에 주자가 이계장에게 편지를 보내 “나는 그 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대는 아직 아니다.” 하였다. 《晦庵集 卷29 與李季章書》

8) 무염(無鹽)의 ... 하였으니 : 무염(無鹽)은 전국시대 제 선왕(齊宣王)의 부인이 되어 나라를 크게 안정시킨 무염 고을의 추녀(醜女)이다. 진(晉)나라 유량(庾亮)이 주위(周顛)에게 “사람들이 모두 그대를 악광(樂廣)에 견주고 있다.”라고 하니, 주위가 “어떻게 무염을 화장 시켜서 서시의 앞에 내세운단 말인가. [何乃刻畫無鹽 唐突西施也]”라고 답변한 각화무염(刻畫無鹽)의 고사가 전한다. 《晉書 卷69 周顛列傳》 무염과 서시는 각각 대표적인 추녀와 미녀의 이름이다.

(頌)을 읊되 전축(箋軸)을 사치스럽게 하여 후세에 빛내는 것은 단장함이 크고도 먼 것이다.

그러므로 무릇 이 연회를 하는 자는 이미 필요한 것을 갖추는 데 힘을 다하고 또 성대한 작품을 많이 얻어서 엮고 시첩(詩帖)에 실어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읽게 하여 요연(瞭然)하게 마치 그 일을 목도(目睹)하는 듯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詩)를 통해 살필 수가 있다.[詩可以觀]”⁹⁾라고 하였으니 그렇지 않은가.

고(故) 중추원(中樞院) 의관(議官) 이종돈(李鍾敦) 씨는 하팔(河八)¹⁰⁾ 고을의 어진 대부이다. 성품은 욕심이 없고 깨끗하며 충성스럽고 도타우며, 은거하여 덕을 기를 때는 세상과 함께하기를 구하지 않았다. 그 그윽한 향이 있는 빼어난 시문은 절로 감출 수가 없는 바가 있었다.

내가 임인년(壬寅年, 1902) 가을에 이곳에 부임하여 벼슬을 하였는데, 수레에 내리자마자 먼저 방문하여 드디어 만년(晩年)의 계합을 맺었다. 산음(山陰)의 흥을 타고 노를 저어 간”¹¹⁾ 것과 공사(公事)로 인해 수레 타고 내게 방문한 것이 끊임없었으니 지금까지 4년째였다.

공의 회갑은 곧 을사년(乙巳年, 1905) 6월 4일인데 돌아가신 부인 생일이 3월 17일이므로 공이 이날에 함께 활을 걸고자 생각하였다. 그 맏아들 모보(某甫)는 아버지를 매우 잘 따라서 뜻을 어기지 않고 술자리를 베풀어 널리 초대하였는데, 나는 마침 병에 걸려 가지 못하였다. 며칠 뒤에 연회에서 돌아온 자가 있었는데 당일의 행사가 매우 성대하였다고 흥미롭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하루는 공이 나에게 이르기

9) 시(詩)를 통해 살필 수가 있다.[詩可以觀] : 시를 통해 득실을 살필 수 있다는 말로, 《논어》(양화(陽貨))에 공자가 한 말로 실려 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시를 배우지 않느냐? 시는 일으킬 수 있으며, 살필 수 있으며, 무리 지을 수 있으며, 원망할 수 있으며, 가까이 어버이를 섬길 수 있고 멀리는 임금을 섬길 수 있으며, 새와 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한다. [小子! 何莫學夫詩?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10) 하팔(河八) : 평택의 옛이름이다. “옛날에는 하팔현(河八縣)이라 불렀던 것을 고려 때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천안부(天安府)에 붙였으며, 뒤에 감목(監牧)을 두었는데, 본조 태종 13년에 예에 의하여 현감으로 고쳤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9권 [평택현(平澤縣) 건치연혁(建置沿革)]

11) 산음(山陰)의 … 저어 간 : 산음(山陰)에 살던 명필 왕휘지가 어느 겨울날 밤에 눈이 펄펄 내리자, 흥에 겨운 나머지 멀리 섬계(剡溪)에 살고 있는 친구 대규(戴逵)가 보고 싶어 밤새 배를 저어 그의 집 문 앞까지 찾아갔다. 그런데 정작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발길을 돌려 되돌아왔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내 본디 흥이 나서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온 것이다.[吾本乘興而行 興盡而返]”라고 하였다 한다. 《世說新語》(任誕)

를, “그날 얻은 시가 많게는 70편에 이르는데 자식 녀석이 엮어서 축수(祝壽)하고자 하는 뜻을 막을 수가 없으니 그 서문(序文)을 삼가 군후(君侯)에게 부탁하려 한다.” 하니, 내가 웃으면서 허락하였다.

공의 병에 차도가 있기를 기다려 시일을 끝였으나 차도가 없었으니 어찌 진년(辰年)의 재앙으로 캄캄한 데 엮드리지고, 또 이른바 인사(人事)를 기약할 수 없는 것이 그 사이에 있을 줄을 알았겠는가. 5월에 공을 고복(臯復)¹²하는 소리가 갑자기 이르니 나는 경악하며 슬픔에 빠져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다. 이윽고 스스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장수와 단명은 천명(天命)이니 때가 되어 떠나간 것을 어찌 공에게 한스러워 하겠는가. 또한 한마디 위로할 만한 말이 있으니 지난번 6월에 군수가 되었을 때 3월의 생신 때가 아니었으니 이는 회갑이 되어 단장하거나 기쁘게 하는 일을 빠뜨린 것이다. 효자에게 있어 돌아가신 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슬픔을 안고 이에 능히 여름을 끌어당기고 봄에 나아가 연인(延筓)을 쫓아 뇌상(牢觴)을 권함에 마치 자연스러움이 있는 듯하니 이 어찌 선인(善人)에게 복 주고 하늘에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만 나는 미처 부응하지 못할 빛을 잘못 부탁받고 또 진실로 슬픈 일을 들었으니 또한 이 일이 필시 나를 기다린 것이다.

아! 이는 받은 것이 있으니 또 어찌 저버릴 수 있겠는가. 이에 유명(幽明)을 굽어보고 우러름에 눈물을 닦고 붓대를 쥐니, 그 문사(文辭)가 거칠고 비루함에 있어 부처의 머리에 오물을 발랐다는 비난을 절로 부를 터이니 어찌하겠는가. 그러나 공의 명덕(名德)이 흠어져 남쪽 고을의 인사들의 입에 있고 책에 실려 이 시에 있으니, 그 전함과 전해지지 않음은 한 서문의 공졸(工拙)과 상관없음이 마땅하다. 이것이 내가 끝내 사양하지 않은 이유이다.

12) 고복(臯復): 상을 당하였을 때 죽은 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초혼(招魂)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臯)는 길게 뻗어 부르는 소리를 뜻하고, 복(復)은 초혼하는 것을 뜻한다. 《예기(禮記)》〈예운편(禮運篇)〉에 사람이 죽었을 경우 “지붕 위에 올라가 혼을 불러 말하기를, ‘아아, 무개여 돌아오라’ 하고 소리친다. [升屋而號告曰 臯某復]”라고 하였다.

다음과 같이 만사(輓詞)를 잇는다.

長夜成千古. 긴 밤 천고를 이루니,
 哭君淚滿巾. 그대를 곡함에 눈물이 수건 가득합니다.
 同心同病苦. 마음을 함께하고 병고도 함께하였는데,
 一死一生辛. 삶과 죽음은 저마다이니 괴롭습니다.
 可笑桑榆晚. 해가 떨어지는 늙그막에¹³⁾
 復歎唇齒因. 다시 순망치한 탄식하니 우습습니다.
 筋骸雖化土. 근골(筋骨)은 비록 흙이 되었으나
 名德不爲塵. 명덕은 티끌이 되지 않았습니다.
 頓覺添新恨. 새삼 새 한이 더해짐을 깨달으니
 須知少舊親. 모름지기 친구가 적음을 알아야겠습니다.
 佳城今已閉. 묘소는 지금 이미 닫혔으니
 回憶黯傷神. 돌이켜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수연(壽宴)에 서문을 쓰고 애사(哀辭)를 붙였는데 편치 않을 듯하다. 오늘날 처지에 있으면서 공 때문에 경사스러워하는 뜻이 얇고 그쳤으나 공 때문에 슬퍼하는 뜻은 깊고 절실하니 이는 또 내가 그치고자 하나 그칠 수가 없는 것이다.

석성자 수연시의 서문 [石醒子壽宴詩叙]

석성자(石醒子)는 이미 임인년(壬寅年, 1902) 인일(人日)에 성산(星山)의 본집에서 축수하는 술잔을 베풀었는데 시로써 하례하는 자가 많았다. 나는 비록 멀어서 갈 수 없었으나 시는 또한 일찍이 지어서 드렸다. 그 후 4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엮지 못하고 말하기를, “맹교(孟郊)와 가도(賈島)가 한산(寒酸)함과 수척(瘦瘠)함을 병통

13) 해가 떨어지는 늙그막에 : 인생의 말년이 된 것을 말한다. 상유(桑榆)는 해가 질 때 햇빛이 뽕나무와 느릅나무의 꼭대기에 비치는 것으로, 《태평어람(太平御覽)》 권3에, “해가 서산으로 떨어질 때 햇빛이 나무의 꼭대기에 비치는 것을 상유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으로¹⁴⁾ 여겼으니 시가 그것의 빌미가 되었다. 가령 나의 명(命)이 종잇장처럼 박하여 한 묶음을 마련하여 축수시를 신지 못한다면 또한 시가 그렇게 하게 한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가난을 가슴 아파하고 분격(憤激)해서 한 말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는 비통해하고 종이를 주어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일찍이 소나무를 본 적이 있는가? 바야흐로 소나무가 나서 자랄 때 쑥대밭 밑에서 곤란을 당하고 서리와 눈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한 이후에 곧 능히 뒤늦게 시드는 절개를 이루고 집을 지탱하는 재목이 된다. 그렇다면 지난날 쑥대밭 밑에서의 곤란은 곤란함이 아니고 곧 그 정함을 굳게 하는 것이요, 서리와 눈에서의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고 곧 그 몸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길, ‘사물이 변을 당하지 않으면 재목을 이룰 수 없고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지혜가 밝아지지 못한다.’ 한 것이다. 또 말하길, ‘빈천과 걱정은 그대를 옥처럼 완성해 주려는 것이다.’ 하였고, 내가 또한 말하길, ‘시가 석성자에게 있어 그를 궁하게 하여 통달하게 하였고 병통이 되게 하여 장수하게 하였다.’ 하였다. 청컨대 돌아가 실어서 반드시 옥유향(玉蕤香)을 피우고 장미로(薔薇露)에 손을 씻기를 기다려 읽기¹⁵⁾를 바란다.

14) 맹교(孟郊)와 … 병통으로 : 송나라 시인 소식(蘇軾)이 당나라 시인들을 평가하면서 “맹교(孟郊)의 시격은 한산(寒酸)하고, 가도(賈島)의 시격은 수척하며, 원진(元稹)의 시격은 경박하고, 백거이(白居易)의 시격은 비속하다.[郊寒島瘦 元輕白俗]”라고 하였다.

15) 옥유향(玉蕤香)을 … 읽기 : 경건한 마음으로 읽는다는 말이다. 당(唐)나라 풍지(馮贄)의 《운선잡기(雲仙雜記)》 권6 〈대아지문(大雅之文)〉에 “유종원(柳宗元)이 한유(韓愈)가 부쳐온 시를 받으면 먼저 장미로(薔薇露)에 손을 씻고 옥유향(玉蕤香)을 피운 뒤에 읽었다. [柳宗元得韓愈所寄詩, 先以薔薇露灌手, 薰玉蕤香後發讀.]”라고 하였다.

죽성 정은교의 『춘우당실기』 시품제평에 대한 추서 [鄭竹醒闇教春雨室實記詩品題評追序]

죽성(竹醒) 정은교(鄭闇教)는 영남의 밝고 뛰어난 사람이다. 계묘년(1903) 여름에 금강산을 유람하였는데 서호(西湖) 쪽으로 길을 나섰다. 내가 마침 그의 친족으로 전 창녕군수를 지낸 정태규(鄭泰珪)의 별장에서 묵으면서 한 번 보고는 문득 인연을 맺었다. 일찍이 글 쓰는 일로 인하여 술을 마신 적이 있었고, 한두 번 평성(彭城)의 평이당(平易堂)으로 나에게 들렀다.

하루는 『춘우당실기(春雨堂實記)』의 여러 작품들을 보고 탄상하여 마지않으며 말하기를, “한 글자 한 글자가 진정으로 효성스런 사람이 피눈물을 뿌린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당신의 평을 얻어서 운색하기를 원하는데 가능합니까?”라고 하니, 죽성이 말하기를, “잘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뭉클한 느낌에 감동되어 공졸(工拙)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한 수 한 수에 글을 적어 민간 가요와 짧은 노래에 문득 양춘곡(陽春曲)에 대한 것과 같은 품제(品題)를 늘렸으니, 그 은혜는 진실로 전자(篆字)의 송가(頌歌)로 기리기에 충분하다. 짐짓 그 전말을 위와 같이 개략하여 설명한다.

십의대기 [十宜臺記]

(평택)군에는 여덟 가지가 없는데, 산이 그 가운데 하나이다. 치소의 뒤에 부용산(芙蓉山)이 있다. 산은 비록 작으나 바라보니 수려해서, 한 송이 연꽃이 물에서 솟아 나와 우뚝 서 있는 것과 같았다. 그러니 이 이름이 붙여지고 한 고을의 진산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머뭇머뭇 걸으며 몇 무(武) 쯤에 이르니 흙이 쌓이고 모여서 산등성이가 굽은 형태를 이룬다. 마치 남쪽을 향해서 열려 있는 듯한데, 오류관(五柳館)이 바로 그 아래에 있다. 오류관의 북쪽 창은 산등성이와 마주 보고 있으니, 음식을 먹거나 기거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접하며 그곳의 가죽나무나 떡갈나무 같은 쓸모없는 나무와 이런저런 꽃들이 우거지고 거칠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왕안석(王安石)으로 하여금 납극(臘屐)의 흥을 게을리 하도록 하고, 왕자유(王子猷)로 하여금 홀로 턱을 괴는 흥취¹⁶⁾가 줄어들게 하는 것을 내가 병통으로 여긴다. 곧바로 도예(徒隸)들에게 명하여 오로지 대나무만 남기고 다른 것은 모두 베고 뽑아 버리고 대패로 민 것 같이 하라고 하였다. 이에 한 구역의 땅이 깨끗이 정리되어 완연히 도끼로 깎아낸 것 같다. 사방에서 진달래와 개나리 및 각종의 꽃 가운데 사랑할 만하다고 이름이 난 것들을 나란히 줄지어 심은 뒤에 그 높고 또 중간쯤 되는 곳에 흙을 쌓아 대(臺)를 만들었다.

여러 종사(從事)들을 데리고 한 번 올라가 조망해 보니, 사방의 경치가 대에 모여 들어서 사람에게 매우 마땅한 것이 열 가지 있었다. 대개 바야흐로 동풍이 따듯하게 불어 손수 심은 여러 꽃들이 다투어 피니 이를 ‘봄에 놀기 마땅하다’고 하고, 삼경(三庚)의 뜨거운 더위에 양쪽 가의 느티나무 그늘이 넓게 펼쳐져 있으니 이를 ‘더위를 피하는 데에 마땅하다’고 하고, 저 온갖 곡식들이 고루 익어서 누런빛이 교외에 두루 펼쳐져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이 말한 대로 ‘들은 이미 깊은 가을이라 벼가 풍족하다[野已深秋足稻稭]’고 한 때이니 이는 ‘농사지은 것을 보기에 마땅하다’고 하고, 눈이 내려서 옥가루 같이 쌓인 눈이 밝고 맑으니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이 말한 대로 ‘어제는 바람 불고 눈 내려 문을 닫는다[昨日閉門風雪中]’고 한 때이니 이는 ‘눈을 감상하기에 마땅하다’고 한다.

이 군에 이르러 보니 산이 없었는데 이 대에 오르니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둘러 있어 산을 보기에 마땅하고, 땅이 비록 육지에 있으나 이 누대에 오르니 만경의 푸른 바다가 보이니 이에 바다를 바라보기에 마땅하다. 들의 절에서 텅그렁거리는 소리는 귀로 들으니 음악소리가 되고, 좁은 터에서 배회를 하다가 눈에 담아 빛이 되는 데

16) 왕자유(王子猷)로 하여금 홀로 턱을 괴는 흥취 : 진(簞) 나라 왕자유(王子猷)가 환온(桓溫)의 참군(參軍)이 되었을 때, 환온이 “경은 부(府)에 오래도록 있었으니 일을 잘 처리할 줄로 믿는다.”고 하니, 자유가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판(手板) 즉 홀(笏)을 턱에 괴고는 “서산의 아침 기운이 삼상하다. [西山朝來 致有爽氣]”고 응대한 고사가 있다. 《世說新語 簡傲》 관아에 오래 있으면서도 일은 처리할 줄 모르고 먼 산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감흥을 일으켰다는 말이다

에 이르니, 이것이 어찌 종소리를 듣는 마땅함과 달을 즐기는 마땅함이 아니겠는가? 종사들이 나머지 두 가지 마땅함도 청하므로, 내가 비유적으로 읊어 말하기를, “음택(挹澤)’이라 하고, ‘원성(援城)’이라 했던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일찍이 군지(郡誌)를 살펴보니 감동지(感動池)가 동쪽 5리쯤에 있는데, 세상에서 영이(靈異)하다고 전한다.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 매년 상원(上元) 하루 전날 밤에 용이 같이 하는 것[龍耕]이 보이면 농사가 풍년이 들거나 흉년이 드는 것을 징험할 수 있다고 한다. 돌아보니 나는 재주가 없어 백성들을 운택하게 할 방법이 없으므로, 저것을 떠다가 이것에 붓고자 한다.

또 들으니 현(縣)의 서쪽 5리쯤에 토성이 있는데, 옛 어른들이 전해오기를 삼국시대 전쟁하던 때에 거주하던 백성들이 이 성을 쌓고 곡식을 저장하여 약탈을 막았다고 한다. 나는 늘상 옛 유적을 좋아하여, 이것을 이끌어 올 수 있다는 상상을 한다. 무릇 이 두 가지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실로 앞의 여덟 가지 마땅함과 병칭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백성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관계가 있는 것이니, 도리어 앞의 여덟 가지 마땅함보다 크다. 내가 모아서 죽히 열 가지는 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그 대의 이름으로 청하면서 그 이야기를 쓴다.

취석이 다시 출토된 것에 대한 기록 [醉石重出記]

나는 평소에 옛 유적을 좋아하여 길을 가다가 기이한 것을 만나면 반드시 채취하고 방문하고야 만다. 이는 욕구가 다른 사람보다 많기 때문이 아니고 대개 성품이 그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찍이 동남방의 여러 군에 있을 때에 군의 유적 가운데 오래 되어 없어진 것들이 가끔 나에게서 시작되어 내가 찬한 『총쇄록(叢瑣錄)』에 모두 실려 있는데, 마침내 이것을 이르는 곳에서 해야 할 상규(常規)로 삼았다.

이 군에 이르니, 군은 작고 일은 간단하였고, 또 참고할 만한 문헌이 없었다. 이듬해 봄 공무의 여가에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자 정원을 정리하고 화훼(花卉)를 심어서 날마다 읊조리는 흥취를 부쳤다. 그러나 채집하여서 나의 상규를 채울 고적이 없는

것을 홀로 한스럽게 여겼다.

그래서 종사(從事)에게 물었다.

“팽성(彭城)이 이름난 군이고, 오류(五柳)라고 관에 이름을 붙였으니, 앞의 현령이 도연명에게서 취한 것이 응당 이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없으니 어찌된 까닭인가?”

종사가 대답하였다.

“옛날에 취석(醉石)¹⁷⁾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하는 말이 그러한 지 아닌지 얻어 들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마주하고 있는 담장 아래를 바로 쳐다 보니, 곧 비석 뒷개가 있었다. 내가 웃으며 말하였다.

“나막신을 가리켜 삼태기라 하면, 어찌 그러한 지 아닌지를 살피기에 족하리오?”

시험 삼아 그 밑을 한 지쯤 파도록 하여서 돌 하나를 얻었다. 바야흐로 아직 세우기 전에는 구경꾼들이 다투어 저것인가 이것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꺼내보니 명나라 홍치(弘治) 기유년(1489) 가을 7월에 송계흥(宋繼興) 현감이 관우(館宇)를 창건한 사적비였다. 이것이 또한 이 군에도 옛 유적이 적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얻은 바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취석(醉石)은 끝내 얻어 볼 수가 없다는 말인가? 억지로 이어서 파도록 하여 반 길 남짓에 이르렀을 때 쟁그랑 소리가 났다. 일으켜 세워 깨끗이 문질러서 자세히 살피니, 그 다듬은 것은 그리 반들반들하지는 않았지만, 겉면이 부드럽고 윤색이 나는 담청색이었다. 바위를 쪼개어 편평하게 깎았는데 길이는 3척 5촌이고, 넓이는 3척 9촌이었다. 앞면에는 ‘취석(醉石)’이라 두 자가 전서(篆書)로 새겨져 있었다. 또 두 글자가 그 앞의 양쪽 가에 있었는데 깎여나가 알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하여 자단향(紫檀香) 세 그루 아래에 안치하였다. 그 제목이며 윤격(韻格)이 상우

17) 취석(醉石) : 동진(東晉) 때 여산 동림사(東林寺)의 고승 혜원법사(慧遠法師)가 일찍이 도연명(陶淵明)에게 술을 마시게 해 주겠다고 하여 도연명이 동림사를 찾아갔던 고사가 있다. 《蓮社高賢傳 惠遠法師》도연명이 술에 취하면 그 위에 눕곤 해서 파인 흔적이 남게 되었다는 이른바 ‘연명취석(淵明醉石)’이 여산에 있다고도 한다. 《朱子語類 卷138》

인(尙友人)¹⁸⁾이 사랑하기에 마땅하였다. 이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사물이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모두 때가 있으나,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의문을 갖는 것은 진실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마당에 시험 삼아 발굴하는 것도 또한 어렵습니다. 발굴을 하여 돌 하나를 얻고도 그치지 않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어려움을 거치면서 마침내 하고자 하는 바를 얻는 것은 하늘이 우리 현감님을 피어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고을에 짝이 없는 기이한 길조이고, 경건하게 여길 지극한 보배입니다. 앞 사람이 매몰한 것이 그 까닭을 따질 필요도 없이 지금 출토가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마땅히 오래도록 전해져서 읍과 함께 존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뒤 시대에 징험한 글이 없어서는 안 되니, 현감께서 기록하십시오.”

내가 말하였다.

“뒤틀림의 사람들이 도연명에 대해서 걸핏하면 사모하고 본받고자 하는데, 하물며 이 군에 부임해 있으면서 이 일을 하지 않겠는가? 끌어당길만한 일이 매우 많지만 취석(醉石)은 반드시 취해야 하는 까닭은 이것이 그 기미(氣味)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돌을 다듬음에 그 자연스런 형태를 남겨두고 그것에 새김에 반드시 전서(篆書)로서 하니 또한 예스럽다. 새긴 연월과 이름조차 없으니, 또한 후대에 전하는 것에는 소홀히 하고 옛날의 뜻을 돈독히 한 것이다. 지금 비록 우연히 내가 얻은 바가 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의 옛것을 좋아하는 훌륭한 일을 빼앗아서 내가 오래도록 전하고자 하는 밑천으로 삼으려고 도모할 것인가? 나는 지금 사람이라서 하루하루 도모하는 것이 대개 지금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다. 예컨대 십의대(十宜臺), 일섭원(日涉園)도 단지 현재의 놀며 보는 경치를 취한 것일 따름이다. 그러나 향반(香磐)에 채노(菴老)의 ‘시경(詩境)’이라 새겨 넣고, 옥으로 된 석상에 ‘택방(澤舫)’이라 새겨 넣는 일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일에 뜻이 있음을

18) 상우인(尙友人) : 위로 옛날 사람과 친구가 되려는 사람. 《맹자(孟子)》 〈만장(萬章) 하(下)〉에 “이것으로 그 세대를 논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상우다 [是以論其世也是尙友也].” 하였다.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옛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점이 또한 이것에 있으니, 이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바이다.”

향반기 [香磐記]

나무가 있는데 노송나무도 아니고 잣나무도 아닌 것이 곳곳하게 소오현(嘯傲軒) 앞에 우뚝 서 있으니, 자단향(紫檀香)이라 한다. 돌이 있는데 곱자로 그린 듯 네모나고 수준기(水準器)로 잰 듯 편평한 것이 깊숙하게 단향수(檀香樹) 아래에 버티고 누워있으니 향반(香磐)이라고 한다.

어찌하여 향반이라고 하는가? 단향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생기기는 소반과 같다. 돌이 어찌 나무 아래에 있는가? 채노(菴老)가 그곳에 둔 것이다. 이름을 붙인 사람은 누구인가? 채노가 스스로 명명한 것이다. 채노는 기이하고 예스러운 것을 좋아하는데 마음에 드는 것을 만나면 문득 침식조차 잊으며, 인간세상의 규율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한다.

이 군(郡)에 이르렀을 때 뜻에 맞는 것이 없었고, 오로지 이 나무만이 사랑할 만한 것이었다. 날마다 와서 서성이며 휴식을 하였지만 구하는 바는 없었다. 이 돌을 그 아래에 안치한 것은 공무에서 물러나는 여가에 반드시 이곳에서 휘파람 불고 거만하게 굴며 까마득히 채노인 줄도 잊기 위해서다.

채노(菴老)는 누구인가? 소오현(嘯傲軒)의 주인이다. 소오현은 오류관(五柳館)의 동쪽 편액이다. 이것을 알면 채노가 어떠한 선생에게 배우고자 하고, 여릉(廬陵) 구양수(歐陽脩)를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 줄을 알 것이다.

평이당기 [平易堂記]

당(堂)이나 실(室)의 편액(扁額)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언제나 눈으로 바라보는 곳에 있어서 그 이름을 돌아보고 뜻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군(本郡 평택군)의 정당(政堂 동헌)에 처음 정했던 이름을 고증할 문헌이 없지만, 중년(中年)에 김두열(金斗烈) 현감이 오류선생관(五柳先生館)이라는 편액을 걸었으며, 그 뒤에 권택수(權宅洙) 현감이 오류관(五柳館)¹⁹⁾이라고 고쳤다. 이 두 이름은 비록 글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차이는 있지만, 모두 고을 이름 팽성(彭城)의 고사에서 도연명(陶淵明)을 가져다 쓴 것이다.

산곡(山谷)이 “팽택(彭澤)은 천재인(千載人)이요, 동파(東坡)는 백세사(百世師)라” 하였으니²⁰⁾, 옛사람이 도연명을 보고 사모한 것이 대개 이와 같았다. 지금 도연명의 호(號)로 팽성(彭城)의 당(堂)에 이름을 삼으니, 그 누가 안된다고 하겠는가? 높다면 높다고 할 수 있고, 화려하다면 화려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당(政堂)의 뜻으로는 무관하다.

무릇 정당(政堂)이란 백성을 가까이[近民]하는 곳이니, 주공(周公)의 가르침에 “평이(平易)하게 백성을 가까이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부드러워진다[平易近民民必和]”고 하였다. 하물며 이 고을을 이제 평택(平澤)이라고 부르게 되어, 지명(地名)으로 인하여 성인(聖人)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으니, 아울러 행하며 서로 어긋나지 않게 된 것이다.

내가 참람하고 망녕됨을 헤아리지 않고 김현감과 권현감의 두 편액을 그대로 두고, 다시 평이당(平易堂) 석 자를 동헌(東軒) 상인방에 걸었다.

이는 감히 남에게서 많은 것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보잘 것 없는 몸과 열은 식

19) 1780년 12월에 평택현감으로 부임한 남명학(南溟學, 1731-1798)이 「평택 동헌에서 우연히 짓다[平澤東軒偶題]」라는 시가 그의 문집인 『오룡재유고(五龍齋遺稿)』에 실려 있다.

부용산은 그림 같고

오류관은 배 같구나.

芙蓉山似畫, 五柳館如船.

20) 송나라 황정견(黃庭堅)이 「소자침이 해남에 유배되다 [子瞻謫海南]」라는 시에서 “팽택은 천년의 인물이요, 동파는 백세의 선비이니, 출처는 비록 같지 않으나, 풍도는 마침내 서로 같도. [彭澤千載人, 東坡百世士. 出處雖不同, 氣味乃相似.]”라고 하였다.

견으로 외람되게 백성과 사직의 막중한 임무를 맡아, 백 가지를 시행하고 조치해도 칭찬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 이 한 가지 일에 힘쓸 수 있다면 아마도 이번에 부임한 치적이 되어 때로 다시 마음에 남으리니, 혹 백성들에게 임하여 하나의 도움은 될 것이다. 게다가 이 고을의 민속이 본디 화평하고 다스리기에 쉬우니, 이 또한 평이(平易)라는 말의 한 가지 뜻이다.

아아! 나의 나이가 이제 칠순이 되어 팔뚝은 나무같아지고 눈도 희끗해져 참으로 서각(書刻)을 감당할 형편이 아니지만,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쓴 까닭은 참으로 고심 끝에 심신을 다하여 나온 것이니, 솜씨가 낮고 못함을 가릴 겨를이 없었다. 후세의 군자가 어리석다고 웃지나 않으면 다행이겠다.

강산일초정기 [江山一草亭記]

내가 이미 치평(治平)의 해에 나이가 칠순에 가까웠으니, 부들이나 버들과 같은 잔약한 재질인들 무슨 손익이 있겠는가? 물방울이나 먼지의 만분의 일이라도 값고자 게으른 마음을 경계하고 독려하여 물러난 여가에도 사람들이 듣는 것처럼 하였다. 관우(館宇)를 창건한 일을 기록한 비석과 취석(醉石)이란 아름다운 박옥을 얻고서 십의대(十宜臺)를 지었다.

십의대 위에 고요히 앉아 조용히 말하고 생각하니 산수는 어진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즐거움²¹⁾이고, 정대(亭臺)는 올라온 사람의 흥취를 돌아주는 것이니, 대성인 및 전배(前輩)들이 하였던 것을 외람되게도 사모하지만 이것은 곧 옛날의 마음의 자취이다. 요즘까지 19년 동안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건너고, 고개를 넘고 호수에서 배를 타면서, 바쁘고 정신없이 지냈으니 왕황주(王黃州)²²⁾가 분주했던 4년 정도가

21) 산수는 ... 즐거움: 공자(孔子)가 일찍이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智者樂水, 仁者樂山.]”라고 하였다. 《論語 雍也》

22) 왕황주(王黃州): 송나라 한림학사 왕우칭(王禹偁, 954-1001)이 만년에 황주(黃州)로 좌천되어 갔기 때문에 왕 황주(王黃州)라고도 불렀다.

아니다.

아! 한 말의 쌀에는 마음이 없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슬플 뿐이니, 다시 수레를 타고 나간들[駕言出遊] 이것 이외의 것을 어디에서 구하랴? 이곳에서 성덕을 노래하고 이곳에서 병든 몸을 부호(扶護)함에, 기거와 음식이 이것에 근접해 있으니, 어찌 만년의 한 즐거움이 아니라?

수서기(首書記) 박덕순(朴惠淳)이 나의 휴식을 위해 대의 동쪽 위에 정자 하나를 세웠다. 시험 삼아 지팡이 짚고 늙은 몸을 이끌고 날마다 가서 놀며 쉬었다. 소나무와 대나무는 들쭉날쭉하고 느티나무와 버드나무는 아른거리고, 마을의 가로 세로 밧고랑은 베를 짠 듯 뒤섞여 있었다. 언덕과 산등성이 시내와 계곡은 감돌아 만나면서 함께 어우러졌다.

북쪽으로 화성(華城)의 능을 바라보며 송백이 울창한 것에 감격하고, 동쪽으로 위례성(慰禮城)을 가리키며 풍우에 씻기고 갈린 것을 생각한다. 남쪽으로 외로운 절에 나가니 지봉(芝峯)의 나무꾼 소리 끊이지 않고, 서쪽으로 광덕(廣德)에 물이 모이니 계양(桂洋)의 어부의 노래 멀리서 들린다. 새벽이슬 맞은 꽃을 보니 연꽃은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다. 가을의 시원함이 교외에까지 전해져 갈대는 회포를 품게 한다. 우단(霧壇)에서 감응하는 것에 힘입어 농사 이야기 위로가 되고, 망한사(望漢寺)에서 고요한 가운데 울려 퍼지는 소리 들으니 설법을 바야흐로 깨우치네.

만약 저 철길에 수레의 바퀴가 번쩍번쩍 덜컹덜컹 구르면, 이에 사다리로 산을 오르고 배로 바다를 가는 먼 이웃 지역임을 알 수 있는데, 노잣돈으로 부옥산(浮玉山)과 몰우전(沒羽箭)과 같은 귀한 보배라야 그곳에 이른다. 다만 그 요진(要津)은 동쪽으로 하나의 이정표 거리쯤 돌아가면 이름 하여 “군문(軍門)”이란 곳이다. 이곳을 따라서 가면 흑포(黑浦)와 곤지진(昆池津)에 접하고, 돌아서 가면 백석포(白石浦)와 둔포(屯浦)로 휘돌아 흐른다. 육지는 소사(素沙)와 청평(淸坪)에 이어져 있고, 경계는 칠원(柒院)과 주행(周行)으로 통한다. 위로는 황성(皇城)과 통하고 아래로는 호남에 이른다. 평탄한 길이면서 굴곡이 저서 길을 다니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 쟁걸음으로 혹은 거만한 걸음으로, 덜컹덜컹 혹은 따각따각 길을 가는데 모두들 이 안에서부터 재촉하니, 모두 이 가운데의 늙은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오호라! 세간의 어떤 일도 누가 바쁜 뒤에 그르치지 않는 사람이 있으랴? 만약 그렇다면 이 늙은이와 더불어 조용하고 고요하게 휴식하는 것을 병 되게 여기는 사람이 일을 빠르게 하고 천천히 하는 것의 득실은 과연 어떠한가? 진실로 그칠 줄 모른다면 웅장한 큰 집인들 또한 무엇하리요? 세상의 근심을 없애고자 우연히 한가한 갈매기가 강을 건너는 것과 게으른 새가 산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마침내 '내 집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일초정기(一草亭記)」를 기술한다.

경정리 포의단 공역 완성 기문 [鯨井里褒義壇功畢記]

일찍이 듣건대 가장 으뜸은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다음은 훌륭한 설을 세우는 것이고, 그다음은 공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만일 그렇듯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어찌 단지 이(彝)·종(鍾)·정(鼎)²³⁾과 한죽간(汗竹簡)²⁴⁾에 기록되는 것에 그치겠는가마는, 집안의 제기로 약상(禱嘗)²⁵⁾을 지내는 것도 그런대로 괜찮을 것이다.

무릇 우리나라가 병자년(1636)의 난리 때에 한 가닥 머리카락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위태로워 당시의 집정자들이 모두 심히 두려워하였는데, 오직 홍공(洪公), 윤공(尹公), 오공(吳公)²⁶⁾만은 분연히 일어나 천하에 대의를 펼치고, 시퍼런 칼날을 밟고 끓는 물과 타는 불 속에 뛰어들어 죽음에 이르러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 충의의 기상이 일월과 빛을 다룰 정도였으니, 사적이 국사(國史)에 실린 것에 감히 군말을 붙일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조정에서 사당을 세워 그들을 제사 지내고자 하였으니, 평택군 서쪽 경정리가 곧 홍공이 왕래하던 곳이어서 세 분 선생을 여기에 배향하였다.

23) 이(彝)와 종(鍾), 정(鼎)은 상고 시대의 제례에 사용되던 보기(寶器)로, 그 표면에 공적을 기린 글을 새겼다.

24) 한죽간(汗竹簡): 사책(史冊)을 가리킨다. 옛날에는 죽간(竹簡)에다 글을 썼기 때문에 한죽(汗竹) 또는 한칭(汗靑)이라고 한다.

25) 약상(禱嘗): 약사증상(禱祠蒸嘗)의 준말로, 중요에 지내는 사계절의 제사 이름이다.

26) 홍공(洪公), 윤공(尹公), 오공(吳公): 1636년 병자호란 때 삼전도에서 조선이 청나라에 항복하고 맺은 화친조약 때 척화(斥和)를 주장해 청나라 수도 심양으로 잡혀가 처형된 삼학사 홍익한(洪翼漢, 1586~1637), 윤집(尹集, 1606~1637), 오달제(吳達濟, 1609~1637)이다.

병인년(1866)에 사당이 훼손되고 말아서 참으로 비참하였으나, 광무(光武) 4년(1900)이 되면서 임금께서 특별히 제단을 세워 분향하게 하셨으니, 비단 공들의 해를 꺾는 충성이 신명을 감동시킬 만해서일 뿐만 아니라, 임금의 선조로서 하늘에 계시는 신령이 진실로 비취 강림하시어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전(前) 창녕(昌寧) 현감 정태규(鄭泰珪)가 실제로 일을 주관하여 재물을 모아 제단을 세워 올렸고, 평택군의 인사(人士)들이 이어받아 그 일을 마쳤다. 전(前) 군수 남만리(南萬里)²⁷⁾가 보조금을 연출해주었고, 나 오횡묵 역시 약간의 금전을 보조해주어 담장을 쌓는 데 보태었다.

분향하기를 엄숙하게 하고 제사 올리기를 예에 따라 하였으니, 비록 조정의 명령으로 인해 여유롭게 거행할 겨를은 없었으나 사람마다 공경하고 본받는 바가 있었다. 이렇듯 조정의 길러주는 교화가 주현(州縣)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 작은 팽성(彭城)에 문학에 뛰어난 선비들이 성대히 많이 나고 출세하여 조정에 일하면서 세상에 이름난 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춘우실 사적과 산천의 경계에 관한 실기

[春雨室事蹟及山川疆形實記]

흰 띠풀 덮인 집 한 채가 동음군(洞陰郡)²⁸⁾ 이동면(二東面)의 백운산(白雲山) 가운데 있으니 ‘춘우실’(春雨室)이라고 부른다. 이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증직 받은 효자 고(故) 소계(昭溪) 오공(吳公)과 그 배필인 정경부인(貞敬夫人) 김씨(金氏)²⁹⁾

27) 남만리(南萬里) : 거창 군수로 재직중이던 1899년에 경상남도양무감리(慶尙南道量務監理)를 겸하였다. 1902년 3월 1일에 평택 군수로 부임했다가, 6월 23일 대정군수로 전임하였다.

28) 동음군(洞陰郡) : 경기도 영평현(永平縣)의 옛이름이다. “본래 고구려 양골현(梁骨縣)인데, 신라에서 동음(洞陰)이라 고쳐서 견성군(堅城郡) 속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현종 9년(1017)에 동주(東州)에 예속시켰고, 예종(睿宗)이 비로소 감무를 설치하였다. 뒤에 위사공신(衛社功臣) 강윤소(康允紹)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승격하여, 영흥 현령(永興縣令)을 두었고, 본조 태조 3년(1394)에 지금 명칭으로 고쳤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1권 〈영평현 건치연혁〉

29) 소계(昭溪) 오공(吳公)과 그 배필인 정경부인(貞敬夫人) 김씨(金氏) : 소계(昭溪)는 오횡묵의 아버지 오산수(吳山秀)의 호이고, 김씨는 용궁김씨(龍宮金氏) 김광언(金光彦)의 딸인 오횡묵의 어머니이다.

두 분의 묘상각(墓上閣)으로, 불초고(不肖孤)인 나 오횡목이 지은 것이다.

처음에 이곳은 본군 향교의 향탄(香炭)을 생산하던 곳³⁰⁾이었는데, 내가 아버이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매번 땅을 빌리는 혐의를 무릅쓰다가 마침내 한 해 수확량 만큼의 자본을 끌어와 땅과 맞바꾸고, 조정과 민간에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모두 알게 하였다. 대개 일찍이 관아에 속했던 곳이기도 하고 지세도 험준하여 풍수가(風水家)들도 결눈질만 하고 지나갈 뿐이었으니, 이 때문에 오래도록 한 번도 무덤이 훼손되지 않았으나, 나무숲이 뻗뻗하게 드리워 있고 암석과 멧부리가 멀고 아득하여 그곳을 바라보노라면 혼돈하여 아직 개벽되지 않은 때를 보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그래서 내가 마침내 일산처럼 덮여있던 우거진 초목을 깨끗이 깎아내고,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고 결합 있는 것을 보수하였으며, 골짜기 입구부터 무덤 부근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다지고, 늪암동(廩巖洞)에 무덤 지키는 집 몇 가구를 따로 두어 생업을 도와주며 그곳을 맡아 지키게 하였다.

또 두 무덤 근방과 그곳까지 가는 길 좌우에 소나무·회나무·잣나무 수만 그루를 손수 심었으니, 지금은 모두 황무지의 모습을 벗고 하늘 높이 치솟아 울창한 것이 볼만하다. 다만 배선동(拜仙洞)과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어서 순찰하고 참배하러 가는 길이 구불구불하여 힘이 갑절로 드는지라 향 피우고 술 따르는 도구를 갖추기가 매우 불편하니, 이는 춘우실이 두 개의 산고개가 마주 보는 곳 부근에 지어져서 그런 것이다.

이곳 비탈진 골짜기의 샘과 바위에 두루 다 이름을 짓고 화초와 과일수를 남김없이 심었으며, 석물(石物)과 묘지명, 묘갈명에 이르기까지 선산에 진심을 다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힘을 다 쏟았고, 아직 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실상을 기록하는 한 가지일 뿐이다.

내가 보건대 옛사람들은 하나의 아름다운 산수경관을 만나면 왕왕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기술하였으며, 혹은 그곳에 살면서 노년을 마칠 때까지 돌아가지 않았다.

30) 향탄(香炭)을 생산하던 곳 : 향탄은 향불을 피우는 데 쓰이는 숯을 말하고, 향탄소(香炭所)는 능(陵)·원(園)·묘(墓)에 쓰는 향나무와 숯 굽는 참나무를 기르기 위하여 능·원·묘 부근에 지정한 금산(禁山)이다.

하물며 백운산은 나에게 있어 곧 돌아가신 부모님의 몸과 영혼이 안치된 땅인 데다가, 양봉래(楊蓬萊)³¹⁾와 김삼현(金三賢)³²⁾의 맑은 풍모와 향기로운 자취를 멀리 거슬러 올라가 스스로 족히 즐길 수 있는 곳이니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명리(名利)의 굴레에 아직 매여 있어 초복(初服)을 손질하지³³⁾ 못한 채 서리와 이슬을 밟는 슬픔³⁴⁾을 더하면서 원승이와 학의 조롱만 얻고 있는 지 참으로 오래 되었다. 혹여라도 하늘이 나에게 세월을 빌려주어 오랫동안 관직을 떠날 수 있다면, 선영(先塋)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의탁하여 구름 사이에서 <수초부(遂初賦)>³⁵⁾를 읊는 생활을 혹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물주의 처분을 아직 알 수 없으니, 이에 그 대강을 기록하여 이후의 일을 기다릴 뿐이다.

백운산은 금강산에 뿌리를 두고 경기 지역에 터를 잡고 있으니, 명산(名山)의 실질을 대략 살펴볼 수 있다. 산 정상에서부터 왼쪽으로 돌면 도마치(道摩峙)·신로령(新路嶺)·국망봉(國望峯)·도성현(道成峴)·강씨봉(姜氏峯)·청계산(淸溪山)·광평산(光平山)·현등산(懸燈山)·아차산(峩嵯山)·금주산(錦珠山)으로 수백 리가 이어지고, 오른쪽으로 돌면 광덕현(廣德峴)·자등령(紫藤嶺)·용화산(龍華山)·덕현(德峴)·호현(狐峴)·사향산(麝香山)·관음산(觀音山)으로 백여 리가 이어져 금주산과 맞닿게 된다. 여기로부터 이십 리 밖의 수구(水口)에 와룡암(臥龍巖)이 있고, 또 일동면(一東面)의 물과 만나 합류하여 일동·이동 모두의 수구가 된다.

백운산 중심에서 한번 돌면 신로령이 솟아있는데, 오른쪽으로 형제봉(兄弟峯)·석

31) 양봉래(楊蓬萊) : 봉래는 양사언(楊士彦, 1517-1584)의 호이다. 안변부사로 있던 1581년에 안변 지릉(智陵)에 화재(火災)가 일어나 황해도로 귀양갔다가 1584년 5월에 풀려나 돌아오다가 병으로 죽어 영평현 금오산(金烏山)에 정사 지냈다.

32) 김삼현(金三賢) : 영평에 살았던 안동김씨 김창협·김창흠·김창업 3형제를 가리킨다.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아버지 김수형(金壽恒)이 진도(珍島)에서 사사(賜死)되자, 벼슬을 사직하고 지금의 경기도 포천(抱川)인 영평(永平)에 은거하였다. 이들은 1694년 갑술옥사(甲戌獄事) 이후 아버지가 신원되면서 여러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직하고 문장과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33) 초복(初服)을 손질하지 : 초복은 벼슬하기 전 입던 옷으로, 곧 벼슬을 떠나 처음 은거하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굴원(屈原)의 <이소(離騷)>에 “물러가 다시 나의 초복을 손질하리. [退將復修吾初服]”라고 하였다.

34) 서리와 이슬을 밟는 슬픔(霜露之愴) : 돌아가신 부조(父祖)에 대한 생각을 말한다. <예기> <제의(祭義)>에 “가을에 서리와 이슬이 내리면 군자가 그것을 밟아보고 반드시 슬픈 마음이 생기나니, 이는 날이 추워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또 봄에 비와 이슬이 내려 땅이 축축해지면 군자가 그것을 밟아보고 반드시 섬뜩하게 두려운 마음이 생겨 마치 죽은 부모를 곧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된다. [霜露既降, 君子履之, 必有愴愴之心, 非其寒之謂也. 春雨露既濡, 君子履之, 必有怵惕之心, 如將見之.]”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35) 수초부(遂初賦) :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에 돌아와 숨어 살겠다는 뜻의 노래를 말한다. 진(晉)나라 손작(孫綽)이 십여 년 동안 산수(山水)를 유람한 뒤에, 산림(山林)에 은거하려고 마음먹은 처음의 뜻을 마침내 이루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수초부(遂初賦)>를 지은 고사가 있다. <晉書 卷56 孫綽傳>

름(石廩)·대취봉(大鷲峯)·소취봉(小鷲峯)이 있다. 소취봉에서부터 산기슭 하나가 우뚝 서 있으니 곧 늪암동의 뒷산으로, 증 판중추공의 묘가 간좌(良坐)에 있어 금주산을 마주 보고 있다. 춘우실은 바로 그 아래에 있는데, 현(軒)에는 ‘춘우실’이라는 현판이 걸려있고 실(室)에는 소계선생의 좌우명 판과 ‘연처초연’(燕處超然)³⁶⁾ 판, ‘옥례천’(玉醴泉) 판, ‘벽계청장관’(碧溪靑嶂館) 판, 주련(柱聯) 판이 걸려있다.

바위 골짜기 입구 비암(碑巖)에는 정문(旌門)을 세워두었고, 또 학비대(鶴飛臺)와 녹순석(鹿循石)을 두었으며, 실 동북쪽 모퉁이에 돌방아를 만들어 옥례천의 물을 끌어다 대었으니 술 따르는 도구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였다. 또 신로령에서 재차 돌면 국망봉과 선인봉(仙人峯)이 있는데, 선인봉에서부터 산기슭 하나가 우뚝 서 있으니 곧 저름동(儲廩洞)으로, 정경부인의 묘가 사위(巳位)에 있어 덕현과 나란히 조대(朝帶)³⁷⁾를 따라 늘어서 있다.

또 국망봉의 본줄기가 한 번 갈라져 들어와 외청룡(外靑龍)이 되니 이 산을 ‘어등’(魚登)이라 부르는데, 그 본래의 산줄기가 굽어져 돌아와 소취봉이 끝나는 지점에서 서로 막히니, 이것이 바로 안팎으로 청룡과 백호가 둘러싼 형상이라 그대로 틈워 두 부분으로 만들면 이른바 ‘산을 팔구십 리 두르고 있다’는 것이 된다. 또 어등산에서부터 정기가 다시 일어나 따로 뿔족한 산봉우리가 셋으니, 이름을 ‘사방산’(四方山)이라고 한다. 가운데에 둥근 봉우리 하나가 솟아있는데 이곳이 간좌(良坐)의 내안(內案)이다.

또 현등산에서부터 산줄기가 수십 리 갈라져 나와 옆으로 논배현(論拜峴)을 두르고 안으로 쌍 봉우리를 품고 있으니, 이곳이 보운(補運)의 금향(金向)이다. 또 아치산이 백여 리 구불구불 이어진 곳에 삼각봉(三角峯)이 우뚝 서 있으니 이곳이 생좌(生座)의 화향(火向)이다. 이들은 모두 간좌의 다섯 개 중안(重案)이다. 또 석름 한 줄기로부터 북쪽으로 치달려 가니산(迦尼山)이 되니 이곳이 간좌(良坐)의 언덕인 낙산(樂山)이다. 또 철원(鐵原)의 보개산(寶蓋山)이 의젓하게 우뚝 솟아 건방(乾方)의

36) 연처초연(燕處超然) : 외물(外物)의 구속을 벗어나 편안하게 거하는 것을 말한다. 《도덕경(道德經)》 제26장의 “비록 대단한 구경거리가 있다 해도, 편안히 거하면서 외물을 초월한다. [雖有榮觀, 燕處超然.]”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37) 조대(朝帶) : 조(朝)는 앞으로 들어오는 물, 대(帶)는 띠처럼 가로 두른 물을 말한다.

보공(補拱)의 형세를 이룬다. 또 소취봉과 등진 방향으로 산줄기 하나가 일어나 북쪽으로 이어지면서 서쪽을 향해 지면을 열었으니 배산동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말하는 ‘영평³⁸⁾ 고향집’이 바로 여기다.

신로령에서 나온 물이 복호동(伏扃洞)에 이르러 그곳의 물과 합류하여 아래로 세층의 용포(龍瀑)를 이루니 온통 반석이 늘어서 있다. 또 아래로는 선상천(仙相川)이 흐르니 곧 춘우실의 앞내로 울퉁불퉁한 바위가 절경을 이루는데, 나무통을 바위 꼭대기에 매달아 놓고 물을 끌어다 관개(灌溉)하여 이득을 얻는다. 선인봉으로부터 나온 것이 봉서(鳳棲) 폭포이니 내에 온통 반석이 가득한데, 사좌(巳坐)의 언덕 앞내를 지나 국망봉 아래의 저름동 왼편에서 나오는 물과 합쳐지고, 골짜기 입구의 교차 지점에 이르러서는 선상천과 합쳐져 오리를 간다. 응암(鷹巖)과 백운(白雲)의 물은 태평동(太平洞)에서 나오는데, 조계(曹溪) 폭포를 지나 곧장 내원암(內院庵)으로 내려가 선유담(仙遊潭)까지 이르고, 도리평(桃李坪)을 지나 구정탄(龜頂灘)으로 나오며, 휴암(鵝巖)을 따라서 장암(場巖)을 지나 탄금교(彈琴橋)로 돌아들고, 완의대(玩漪臺)로 들어가 응암에 이르러 선상천 하류와 합류하며, 칠송정(七松亭)을 지나 백룡담(白龍潭)으로 들어가 신관평(新觀坪)을 따라 와룡암에 이르러 일동면의 물과 합류한 뒤 사근교(沙根橋)로 돌아나오니, 이것이 그 산수(山水)의 대략이다.

또 광덕현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돌면서 산줄기가 나뉘어 명월령(明月嶺)과 홀조항(笏朝項)이 웅장하게 솟아있고, 또 독갈봉(蠶葛峯)이 서있으니 봉우리 아래 골짜기를 ‘후대동’(后垔洞)이라 부르는데, 그 뒷산에 동생 성중(聖中)의 묘와 아들 학선(學善)의 묘가 나란히 간좌(良坐)에 있다. 그 앞내의 동쪽인 선유담 앞 들판 위아래에 있는 도리평과 사향산의 한가운데 우각봉(牛角峯)이 솟아있는데, 그 아랫자락에 제수(弟嫂) 하씨(河氏)의 묘가 해좌(亥坐)에 있으니, 동 이름은 ‘보라매’[甫羅鷹]이다. 어등산 아랫자락에는 제수 최씨(崔氏)의 묘가 을좌(乙坐)에 있으니, 동 이름은 ‘용반’(龍蟠)이며 그 곁에 무덤 표지를 설치해 두었다. 석림의 오른쪽 옆 기슭에는 질부(侄婦) 지씨(池氏)의 묘가 묘좌(卯坐)에 있으니, 동 이름은 ‘상곡’(桑谷)이다. 또 광평산

38) 영평 : 영평현은 지금의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영북면·이동면·일동면·창수면에 해당된다.

오른쪽 기슭 아래의 유동리(柳洞里)에는 돌아가신 백부(伯父)와 백모(伯母)의 합묘가 계좌(癸坐)에 있으며, 왼쪽 기슭에는 중종씨(仲從氏) 완산공(玩山公)의 묘가 간좌(艮坐)에 있다.

청가장(聽稼庄)은 선한 행실을 돕고자 만든 임시거처로, 배선동에 건물 한 채가 있으니 이곳이 내가 머물러 쉬는 곳이다. 문미(門楣)에 증관중추공의 효행 정려문을 세워두었으며, 외사(外舍)를 ‘농성재’(農成齋)라 하고 또 실(室)에 ‘아침에는 나가 밭갈고, 저녁에는 돌아와 옛사람의 책을 읽는다[朝出耕暮歸讀古人書]’라고 적힌 편액을 달았으며 내사(內舍)를 ‘자이당’(自怡堂)³⁹⁾이라 하였다.

또 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으면서⁴⁰⁾ 은거하고자 실(室) 좌우에 꽃나무를 많이 심었으니, 앞산의 오동나무와 뽕나무 등이었다. 또 무덤 만드는 흙으로 대를 쌓아 떼를 입히고는 ‘망운대’(望雲臺)라고 불렀으니, 소취봉과 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실 동쪽 밤나무숲 아래 냇가에 대와 연못을 만들고자 냇물을 관개하여 깊은 못을 만들고는 ‘울담’(栗潭)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으니, 매번 촌로나 시냇가 벗들과 함께 기쁘게 즐기며 만족하였다. 이는 모두 우리 집안 묘역 안에 있는 것들이고, 불사(佛寺)와 도관(道觀)의 당과 대 및 전대의 고적(古蹟)에 관해서는 따로 시구(詩句)를 지어 붙여두었으니 여기서는 제대로 갖추지 않는다.

남강 상치회첩의 뒤에 쓰다 [書南岡尙齒會帖後]

『총옥(叢玉)』에 이르기를, “세상 일 가운데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

39) 자이당(自怡堂) : 남조(南朝) 시대 양(梁)나라 도홍경(陶弘景)의 시(조서(詔書)로 산중에 무엇이 있는나고 물으시길래 시를 읊어 답하다[詔問山中何所有賦詩以答])에 “산중에는 무엇이 있는가 물으시는데, 봉우리 위에 흰 구름이 많답니다. 하지만 나 혼자만 즐길 수 있을 뿐, 임금님께는 부질 길이 없답니다. [山中何所有, 嶺上多白雲. 只可自怡悅, 不堪持贈君.]”라고 하였는데, ‘自怡’ 두 글자를 따가 붙인 이름이다.

40) 돌로……삼으면서: 은거 생활을 뜻하는 수석침류(漱石枕流)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진(晉)나라 손초(孫楚)가 숨어 살려고 하면서, “돌을 베고 물에 양치질하련다. [枕石漱流]”라고 말해야 할 것을, “물을 베고 돌로 양치질하련다. [枕流漱石]”라고 잘못 말했는데, 왕제(王濟)가 그 말을 듣고는 잘못을 지적하자, 손초가 “물을 베는 것은 속진에 찌든 귀를 씻어 내기 위함이요[洗其耳], 돌로 양치질하는 것은 연화(煙火)에 물든 치아의 때를 갈아서 없애려 함이다. [礪其齒]”라고 대답했다. 《世說新語 排調》

고 하였는데, 지금 이 모임은 일부러 흥내 내는 데에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향산(香山)의 고사와 여러 가지로 비슷하다. 하지만 진실로 이것은 우연한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창산서(滄山序)」에 이미 자세하니 내용을 보태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백거이(白居易)의 일이 지금까지 환하게 빛이 나는 까닭은 그 일이 『장경집(長慶集)』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무리가 정무가 끝나는 날에 자취마저 텅텅 비어버린다면 어찌 애석하지 않으랴? 이에 여러 작품을 엮어서 책을 만들었다. 우리 종파와 이 모임에서 함께 보도록 승검초에 써서 조금 강하게 하여 오래 가도록 하였지만 진실로 또한 어리석은 계책이니, 한바탕 웃을 것이라 생각된다.

망한사⁴¹⁾ 모연문 [望漢寺募緣文]

불사(佛寺)에는 폐하고 흥함이 서로 이어지는 이치가 있습니다. 대개 양무제(梁武帝) 때부터 이미 그러하였으니, 군자들이 베풀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은혜를 귀히 여겨 시주를 행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혀 허무맹랑한 말은 아니니 한 번 진언(陳言)해보기를 청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외딴 망한암(望漢庵)은 실로 팽성(彭城)의 유일한 사찰로서 중생들이 기도를 발원할 곳이 오직 여기뿐이니, 결코 본군의 성쇠와 상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으니, 옛날 세 개의 둥근 보좌가 지금 한쪽 모퉁이의 허름한 받침대로 변하였고, 법전에는 가려줄 울타리가 없어 매번 행인들의 안타까움을 사며, 부엌에는 술 종류가 부족하고 일찍이 도둑을 맞은지라 석가에게 음식을 올리는 데 허물이 많아 늘 몸돌 바를 몰라 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곳은 왕세

41) 팽택시 팽성을 천덕산(天德山)에 있었던 절로, 삼국시대 200년대 초에 창건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중국에서 한(漢)나라가 망하자 고승과 장군들이 배를 타고 표류하던 중 아산만에 이르렀으나, 귀국길이 막연하여 이곳에 절을 짓고 고향인 한나라를 기리는 뜻에서 망한사(望漢寺)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때는 우리 나라에 불교가 전해지기 전이므로 전설에 대한 신빙성은 없다. '세자궁원당(世子宮願堂)'이라는 현판이 있어서, 조선시대에는 왕실과 인연이 깊은 사찰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절은 1973년에 비구니 법성(法星)이 중수하였고, 정무(正無)가 자비사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의 축원이 있는 곳이라 더욱 마땅히 하늘처럼 높여야 하니, 이 어찌 그저 승려의 근심거리로만 맡겨놓을 일이겠습니까? 온 마을의 구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요즘 재정이 궁한 것을 감히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마침 다행히 금년의 작물이 풍성하니,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면 안되겠지만 저절로 쇠락해감을 그쳐 누워서 기다리는 것은 이치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마침내 그치지 않는 행실을 시작하는 바이니, 진실로 밝게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수천 가구의 목탁’이니 누군들 ‘십시일반’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특별히 이렇게 모연문(募緣文)을 씁니다.

이 황금 대시주(大施主)는 참으로 부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곧 흰 장삼 입는 승려의 한 조각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담장을 보수하고 건물을 완전하게 하는 비용으로 삼게 한다면 보살이 어찌 그윽하게 감응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후로 종을 치고 술을 늘어놓고서 먹는 모습을 보게 되리니, 여염집들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곧 절의 격식이 손상되는 것을 면할 뿐만 아니라 고을의 운이 왕성해지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물 탄 것 같더라도 불도(佛道)가 허무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이를 심어 오이를 얻는 법이니, 저절로 밭에서 곡식이 나는 것 같은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름처럼 왔다가 새처럼 떠나가니 소승(小僧)은 한때에 지나가버릴 것이나, 봄에는 여기에서 완상하고 가을에는 여기에서 유람하면서 여러분께서는 이로부터 백 년 동안 다스리실 것이니, 이는 공도 없으면서 함부로 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선행하기를 가장 즐겨서 여겨 스스로 큰 복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녘의 절은 곧 도솔천(兜率天)⁴²⁾이라 특별히 넉넉한 은혜가 드리우리니, 평택은 공덕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42) 도솔천(兜率天) : 불교에서 말하는 육계 육천(欲界六天)의 하나로, 여기에는 내원(內院)과 외원(外院)이 있다. 내원은 바로 미륵보살(彌勒菩薩)의 정토(淨土)이고, 외원은 천상의 중생들이 사는 곳이라 하는데, 전하여 극락 정토(極樂淨土)를 뜻하기도 한다.

두죽장잡 병인 [杜竹杖箴 并引]

내가 이전에 금마군(金馬郡)⁴³⁾에 있을 적에 두죽(杜竹) 줄기 한 개를 얻어 다듬어 짧은 지팡이로 만들었는데, 조금 크게 생겨서 무거워 사용하기 어려움을 불만스럽게 여긴 지 여러 해였다. 그러던 차에 최근 팽성(彭城)의 촌로(村老)로부터 두죽 줄기 세 개를 얻게 되어 운초(雲樵), 석성(石醒)과 하나씩 나누어 가졌다.

숲속에 지팡이 삼을 만한 재목이 어찌 한이 있겠는가마는, 굳이 두죽을 취하는 까닭은 일찍이 《박물신지(博物新誌)》를 봤더니 ‘강태공(姜太公)이 이 지팡이를 썼다’ 하기도 했고, 또 겨울에도 푸르름을 변치 않으니 장수(長壽)의 증표이기도 해서이다. 그 오래감과 절개로 본다면 심상(尋常)한 초목에 견줄 바가 아니니, 이것이 내가 더욱 아끼는 점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잡(箴)을 짓는다.

我將箴爾.	내가 잡을 짓고자 하여
先論性質.	먼저 그 성질을 논하노니,
龜呈曲直.	거북처럼 옳고 그름 드러내고
龍闡堅節.	용처럼 굳은 절개 드러내며,
出爲人用.	외출해서는 사람에게 쓰여
便利咸適.	편리함에 모두 부합하니,
碧梧之几.	벽오동으로 만든 안석과
紋楸其局.	바둑판 위의 대국 있어도,
最要扶老.	노년 부지에 가장 필요한 건
惟杖而已.	오직 지팡이뿐이라네.

43) 금마군(金馬郡) : 익산군(지금의 전라북도 익산시)의 옛이름이다. “본래 마한국(馬韓國)이다. 후조선(後朝鮮)의 임금 기준(箕準)은 기자의 41대 손인데, 위만(衛滿)의 난을 피하여 바다에 떠서 남으로 내려가, 한지(韓地)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마한(馬韓)이라 하였다. 백제의 시조 온조왕(溫祚王)이 이곳을 병합하고, 이후부터 금마저(金馬渚)라 불렀다. 신라의 신문왕(神文王)이 금마군(金馬郡)으로 고치고, 고려조에 와서 전주(全州)에 부속시켰다. 충혜왕(忠惠王) 뒤 5년에 원(元) 나라 순제(順帝)의 황후 기씨(寄氏)의 외향(外鄉)이라 하여, 승격시켜 익주(益州)라 하였는데, 본조 태종(太宗) 13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군으로 만들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3권 〈익산군 건치연혁〉 오형목은 1900년부터 1902년까지 익산 군수로 재임하였다.

相隨似友. 서로 따르니 벗과도 같고
全恃若子. 온전히 모시니 아들과도 같지.
曰視可者. 적합한 재물을 살펴보면
無如杜竹. 두죽만 한 것이 없으니,
姜公以之. 강태공도 이것을 사용하여
終躋壽域. 끝내 장수를 누렸다네.
余雅好古. 내 단아하여 옛것을 좋아하는지라
採斲三莖. 세 개의 줄기 캐낸 뒤에
昂藏丁乙. 정을(丁乙)에 높이 간직해두어
存厥天形. 타고난 형태를 보존했으니
一我二誰. 하나는 내 것이요 둘은 뉘 것인가?
雲樵石醒. 운초와 석성이로다.
非惟效嘯. 그저 어쭙잖게 따라하는 것 아니라
可愛冬靑. 겨울에도 푸르름을 사랑해서이니,
不銘不贊. 명(銘)도 아니고 찬(贊)도 아닌
箴有義存. 잠(箴)⁴⁴⁾에 그 뜻을 담아둔다네.
乃職維何. 너의 직분은 무엇인가?
持護年尊. 나이 지긋하도록 지켜주는 것이니,
造次戒謹. 잠깐 사이에도 경계하고 삼가며
動輒相須. 움직일 때마다 곁을 함께하여,
如舟利楫. 배가 노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하고
若戶要樞. 문에 지도리가 필요한 것처럼 할 것이요,
用捨行藏. 써주면 나아가고 써주지 않으면 물러나⁴⁵⁾
無往匪宜. 어딜 가든 알맞지 않음이 없을지어다.

44) 잠(箴): 한문학의 한 형식으로, 반성하도록 훈계하는 내용의 글을 가리킨다. 대개는 운문으로 쓴다.

45) 써주면 나아가고 써주지 않으면 물러나 [用捨行藏]: 《논어》〈술이(述而)〉에 “등용되면 행하고 버림을 받으면 숨는다.[用之則行 舍之則藏]”고 하였다.

錫名靈壽. 이에 영수(靈壽)⁴⁶라는 이름을 하사하니
 偕造期頤⁴⁷. 우리 함께 백 세까지 살자구나.

고자다관명 병인 [古磁茶罐銘 并引]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磁器) 다관(茶罐) 하나를 들고 와 나에게 ‘팔아달라’ 하였다. 중앙부는 물 한 사발 들이요, 몸체는 팔각으로 깎여있으며, 옥색에 모난 무늬가 있으니, 고려시대에 만들어져 다관으로 쓰던 것인 듯했다. 이는 참으로 취석(醉石)이 마침 튀어나와 나를 마주친 것과 다를 바가 없는지라, 돈을 넉넉히 주면서 곧장 사 들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명(銘)을 짓는다.

郊用陶陶. 교제사에 질그릇과 바가지 사용함은
 所向者素. 질박함을 숭상해서라네.
 山出螺殼. 산에서 나는 소라껍질도
 可愛其古. 그 오래됨을 아낄 만한데,
 惟茲之磁. 여기 이 자기 그릇은
 素與古具. 질박함이 옛 물건과 같으니,
 價越雲疊. 운뢰(雲疊)⁴⁸보다 가치 있고
 用適翠釜. 취부(翠釜)⁴⁹만큼 쓰임새 좋지.
 不我後先. 마침 지금 내 앞에 나타나

46) 영수(靈壽): 한(漢)나라 때의 재상 공광(孔光)은 공자(孔子)의 41대손으로 원제 때부터 공보(公輔)의 직임을 두루 거쳤다. 그가 늙어 태사(太師)에 오르자 조회에도 참여하지 않게 하고 열흘 만에 한 번씩 음식을 하사하고 영수장(靈壽杖)이라는 지팡이를 내려 사부(師傅)를 위한 예우를 다하였다.

47) 期頤: 《예기(禮記)》〈곡례 상(曲禮上)〉에 “백 세가 된 자를 ‘기(期)’라 하니, 부양을 받는다. [百年日期, 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의 주에 따르면, “기(期)는 ‘요구한다(要)’는 뜻이고, 이(頤)는 ‘기른대(養)’는 뜻이다. 웃을 입고 음식을 맛볼 줄 모르기 때문에 효자가 봉양하는 도리를 다하기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였다.

48) 운뢰(雲疊): 구름과 용을 무늬 놓은 술항아리, 또는 술잔이다.

49) 취부(翠釜): 정교하게 잘 만든 푸른 술으로, 화려한 음식을 끓일 때에 사용하였다. 당(唐)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시 〈여인행(麗人行)〉에 “붉은 낙타의 혹살은 푸른 솥에서 나오고, 수정 정반에는 흰 생선 담아내네. [紫駝之峰出翠釜 水精之盤行素鱗]”라고 하였다.

千載一遇. 천재일우라 할 수 있으니,
 造曾其誰. 일찍이 누가 만든 것인가?
 晦亦甚故. 모르긴 몰라도 아주 오래됐으리.
 視同尙友. 상우(尙友)⁵⁰처럼 여기리니
 將子無怒. 청컨대 그대는 노하지 말지어다.
 聊之茶之. 편안히 차 마시는 것
 亦高之趣. 참으로 높은 흥취 아닌가!

시경에 대한 찬 [詩境贊]

저 일섭원(日涉園) 가운데 십의대(十宜臺) 곁의 한 조각 흰 돌이여! 이것은 초나라 박옥(璞玉)을 조탁하지 않은 것인가?⁵¹⁾ 금화산(金華山)의 양(羊)이 변화된⁵²⁾ 것인가? 어찌하여 변화(卞和)를 만나 19성과 잇따라 바꾸고자 하였던 보배가 되지 않았고, 황초평(黃初平)을 좇아서 요포(瑤圃)에서 놀지 않은 채, 이내 팽성(彭城) 노리(老吏)의 시경(詩境) 가운데 한 물건이 되었나?

그러나 지난 시절에는 진흙 속에 매몰되었다가, 오늘에 문원(文垣)에서 애상(愛賞)하는 것과 비교하면 반드시 형체가 있게 된 이후에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과) 한 번

50) 상우(尙友): 위로 옛사람을 벗하는 것이다. 맹자(孟子)가 “한 지방의 훌륭한 선비라야 한 지방의 훌륭한 선비들과 사귄 수 있고,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라야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들과 사귄 수 있으며, 천하의 훌륭한 선비라야 천하의 훌륭한 선비들과 사귄 수 있다. 천하의 선비들과 사귀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여 다시 위로 올라가 고인(古人)을 논하는 것이니, 그 시를 외고 그 저서를 읽고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까닭에 그 사람이 산 시대를 논하는 것이니, 이것이 상우이다. [一鄉之善士斯友一鄉之善士，一國之善士斯友一國之善士，天下之善士斯友天下之善士。以友天下之善士爲未足，又尙論古之人，頌其詩，讀其書，不知其人可乎?是以論其世也，是尙友也.]”라고 하였다. 《孟子 萬章下》

51) 초나라 박옥(璞玉)을 조탁하지 않은 것인가?: 춘추시대 초(楚)나라 사람 변화(卞和)가 형산(荊山)에서 박옥(璞玉)을 얻어 여왕(厲王)에게 바쳤는데, 여왕은 잘못 판정한 옥인(玉人)의 말만 믿고서 왕을 속인다는 죄목으로 그의 왼발을 베었고, 무왕(武王)도 알아보지 못한 채 가짜라고 의심하며 그의 오른발을 베었다. 그 뒤 문왕(文王)이 즉위함에 변화가 박옥을 안고서 3일 밤낮을 피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자, 문왕이 옥인에게 다시 조사하여 가공하게 한 결과, 천하제일의 보배인 화씨벽(和氏璧)을 얻게 되었다. 《韓非子 卷4 和氏》

52) 금화산(金華山)의 양(羊)이 변화된 : 한(漢)나라 때의 신선 황초평(黃初平)은 단계(丹溪) 사람으로 15세에 양을 치다가 신선술을 닦으러 도사를 따라 금화산(金華山) 석실(石室) 속에서 수도하였다. 그 후 40년 만에 그의 형 황초기(黃初起)가 수소문 끝에 그를 찾아가 만났더니 양은 보이지 않고 흰 돌들만 있었다. 황초평이 “양들은 일어나라.”라고 소리치자, 흰 돌들이 모두 수만 마리의 양으로 변했다고 한다. 《神仙傳 黃初平》

조우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내가 ‘택방(澤舫)’이라 너의 왼쪽에 이름을 붙이니, 네가 만약 영(靈)이 있다면 화리(花螭: 비석의 螭首를 말함)에게 먹히지 말고 함께 천년 동안 꽃다운 이름을 떨쳐라.

괴이한 돌에 대한 찬사 [怪石贊]

‘한산(寒山)의 한 조각 돌만 거론할 만하다’⁵³⁾는 것은 문장을 말한 것이다. 내가 이 돌에 대해 아끼는 마음이 깊으니, 아낀다면 그에 관해 말하고 싶은 법이고, 말하고 싶다면 문장을 버려두고 무엇으로 하겠는가? 이에 찬사(贊辭)를 지어 전거로 삼는 바이다.

隕自星精.	별의 정기에서 떨어져나와
結以雲根.	구름 뿌리로 뭉쳐졌으니,
其來迥凡.	그 탄생의 범상치 않음이
此已可尊.	이미 우리를 만하거늘,
矧爾賦形.	하물며 네 타고난 형상이
愈看愈奇.	보면 볼수록 기이함에라?
魁顏匹蔡.	불룩한 이마는 채택(蔡澤) ⁵⁴⁾ 과 맞먹고
菌頭學螭.	버섯 머리는 이무기를 닮았으며,
紋蒼絡白.	푸르고 흰 주름과 힘줄이

53) 한산(寒山)의……만하다 : 남북조 시대에 남조(南朝) 사람 유신(庾信)이 북방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여러 문사가 북방의 문장을 물었더니, 답하기를 “한산사(寒山寺)의 한 조각 돌만이 언급할 만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나귀 울음과 개 짖는 소리와 같다.” 하였다. 온자승(溫子昇)이 지은 한산사의 비문(碑文)만이 문장이 불만하였다는 말이다. 《御定淵鑑類函 卷200 碑文3》

54) 채택(蔡澤) : 전국시대(戰國時代) 연(燕)나라 사람으로, 지략이 많고 변설에 뛰어나 제후(諸侯)들을 찾아다니면서 유세(遊說)를 하고 다녔으나 모두 거절당하였다. 이에 당시에 관상을 잘 보기로 소문났던 당거(唐舉)를 찾아가서 관상을 보니, 당거가 얼굴을 자세히 살펴본 뒤에 말하였다. “선생은 모습이 아주 이상하게 생겼다. 내가 들으니 성인(相貌)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는바, 아마도 선생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이는 당거가 채택을 희롱하여 한 말이다. 채택이 다시 ‘얼마나 수(壽)를 누릴 것인가’를 묻자, 당거가 43년을 더 살 것이라고 하니, 채택이 웃으면서 사례하고 나왔다. 그 뒤에 채택은 진(秦)나라로 들어가 소왕(昭王)에게 유세하여 마침내 정승이 되었다. 《사기(史記) 제79권 〈범수채택열전(范雎蔡澤列傳)〉

項背腰肩. 목·배·허리·어깨에 가득하니,
胡不見知. 어찌 알아줌을 얻지 못하고
棄之若捐. 내팽개치듯 버려지겠는가?
我來相汝. 내가 와서 너를 마주한 것은
千載一遇. 천재일우라 할 수 있으니,
拔取壘築. 뽑아다가 돈대를 쌓아
置近堂宇. 당우 근처에 두었다네.
扞具袍笏. 도포와 홀 갖추어 절 올리니
孰云米顛. 누군가 미전(米顛)⁵⁵이라 하려나?
與郡不轉. 이 고을에서 변치 않고
捍守永年. 영원히 지키고 서 있으리.

택방에 대한 설 [澤舫說]

내가 ‘시경(詩境)’ 두 글자를 일섭원(日涉園)의 돌평상에 새기고서, 또 ‘택방(澤舫)’을 자호로 삼아 그 옆에 새겼는데, 어떤 객이 그 의미를 물으며 말했다.

“‘택(澤)’은 멈춰있는 물이고 ‘방(舫)’은 작은 배이니, 낮은 수준에 국한하는 격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 의미를 궁구하고자 한다면 설명이 길어질 것이니 내 우선 개괄적으로 말해보겠다. 무릇 사람이 세상에 처한 것이 마치 물 위에 있는 배와 같으니, 나루에 정박하거나 출발할 때에 두루 무사하고 순조롭기를 누군들 바라지 않겠는가마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까닭은 이른바 ‘재주와 운명’이라는 것이 끼어들기 때문이다.

55) 미전(米顛) : 송나라의 서예가 미불(米芾)이 행동거지가 과상한 까닭에 미치광이라는 뜻으로 ‘미전(米顛)’이라 불렀다. 그는 기암괴석을 매우 좋아하여 길을 가다가 이상한 돌을 보게 되면 하인에게 도포(道袍)와 홀(笏)을 가져오게 하여 정중하게 절을 하였다고 한다. 《宋史 卷444 米芾列傳》《石林燕語 卷10》

따라서 배를 노 저어 무사히 시내를 건넌다면 재주와 운명이 모두 완전한 것이고, 큰 배가 물길을 잃는다면 재주는 있으나 운명이 박복한 것이다.

그러나 재주의 있고 없음은 나에게 달려있고 운명의 박하고 후함은 하늘에 달려있으니, 군자는 나에게 달린 것에 힘을 뿐 하늘에 달린 것에는 힘쓰지 않는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비단 이름만 ‘택(澤)’일 뿐 아니라 쇠잔하고 곤궁함이 ‘택수곤(澤水困)’ 괘에 해당하는데, 그 단사(象辭)에 ‘곤궁하나 형통한 바를 잃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곤궁함에 처해도 형통할 수 있는 도리가 반드시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형통케 함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늘에 달린 것에 힘써서는 안 되고, 나에게 달린 것에 힘써야 할 뿐이다.

〈월령(月令)〉에 따르면 ‘방(舫)’은 물에 익숙한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니, 나이 70에 물에 익숙한 자가 되겠다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인 듯하나, 선유(先儒)의 말에 “백발에 사소한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늦지 않다.” 하였으니, 이 말이 어찌 나를 속이는 것이겠는가?

아니면 또 다른 설명도 있다. 귀종선사(歸宗禪師)가 말하기를 “수미산에 겨자씨가 들어있고, 겨자씨에 수미산이 들어있다.”⁵⁶⁾라고 하였으니, 만일 끊임없이 익혀 나에게 달려있는 재주를 죽히 무거운 것을 신고 멀리까지 갈 수 있을 만큼 뛰어나게 한다면, 물이 불로 바뀌매 범처럼 아름답게 변하듯이 겨자씨가 배로 바뀌매 수미산을 품게 되지는 않을지 어찌 알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택방(澤舫)’에 대해 ‘낮은 수준에 국한하는 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문와에 대한 설 [自問窩說]

자하산인(紫霞山人)이 만년에 스스로 ‘자문와(自問窩)’라는 호를 지었는데, 어떤

56) 수미산에 ... 들어있다 : 불가(佛家)에서 일체법(一切法)이 공(空)한 만큼 만유(萬有)에 대소의 구별 없이 모두 평등하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 《유마힐경(維摩詰經)》〈부사의품(不思議品)〉에 “수미산에 겨자씨가 들어 있고, 겨자씨에 수미산이 들어 있다. [須彌納芥子芥子納須彌]”라고 하였다.

객이 이렇게 따져 물었다.

“나면서부터 아는 성인이 아닌 이상 반드시 학문에 힘입어 앎을 얻게 된다. 그래서 경전에 ‘살펴서 자세히 물으라.[審問]’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⁵⁷⁾ 역사에 ‘문기를 좋아했다.’는 시호를 쓰는 것이다.⁵⁸⁾ 이는 모두 남에게 묻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를 통해 본다면 자문(自問)함에는 거울을 엮어두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는 것이다. 또 묻는다는 것은 응답을 구하는 행위인데 자기가 자기에게 물으면 응답하는 자는 누구란 말인가? 이를 통해 본다면 자문함에는 진흙을 이기는 것과 같은 혐의가 있는 것이다. 이는 모두 그대가 아는 바인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분명 이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 들어볼 수 있겠는가?”

이에 이렇게 말하였다.

“객이 자문함을 병통으로 여기는 것은 ‘자(自)’ 한 글자로 인한 것이니, 청컨대 나 스스로 빌미를 제공하는 점에서부터 설명해나가도 되겠는가? 아아, 유년에 겨를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 일찍부터 세상일에 힘썼으니, 한창 연소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던 시기에는 일을 만나면 곧장 행동하여 경거망동하면서 평탄함과 험난함을 갈게 여기고 깊음과 얕음을 하나로 여겼으며, 오직 눈앞의 즐거움만 구하느라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을 헤아리지 않았다. 그래서 넘어지고 빠져들을 겨우 요행으로 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윽고 세상사를 다양하게 또 오래 겪어오면서 마음이 작아지고 기가 위축되며 점점 지난날을 돌이켜보고자 하는 뜻이 생겨났으니, 이에 비로소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세상만사가 모두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거늘 나의 지난 세월은 지팡이로 더듬는 어둠 가운데 내뺨개쳐졌으니 애석하다. 이 노년에 이르러 수습할 수 있는 바는 오직 묻고 행하는 데 달렸건만, 항시 따를 밝은 스승이 없으니 어찌할 것인가?’

57) 경전에 ... 있는 것이고 : 《중용장구》에 군자가 성(誠)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박학(博學)·심문(審問)·신사(慎思)·명변(明辨)·독행(篤行)의 다섯 가지를 들었는데, 박학은 널리 배우는 것이고, 심문은 살펴서 자세히 묻는 것이고, 신사는 신중히 사려하는 것이고, 명변은 밝게 분변하는 것이고, 독행은 독실히 실행하는 것이다.

58) 문기를 ... 것이다. : 시법(詩法)에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문기를 좋아하는 [勤學好問]’ 것을 ‘문(文)’이라 하였다.

또 스스로 변쩍 깨우치며 생각하기를 ‘하늘이 이미 나에게 똑같은 본성을 주시매 마음이 그 주재가 되니, 이를 ‘천군(天君)’이라 부른다. 천군이 이미 나에게 있으즉 내 어찌 이를 도외시하고 다른 것을 구하겠는가? 이제부터는 사양하거나 받고 취하거나 주고 퍼거나 굽히고 밀거나 당기는 것과 같은 범사의 불명확한 문제들이 면전에 닥쳐올 때 반드시 먼저 스스로 마음에 물어보아 도가 있는 이를 찾아가 질정 받는 것처럼 하여, 정말로 편안하다면 행하고 불편하다면 내버려 두겠다.’ 하였으니, 이것이 곧 이른바 자문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점검해 보건대 공부를 시작한 초기에는 왕왕 정욕에 이끌리는 경우가 있어 교전하는 때가 없을 수 없었으나, 마음의 올바름으로 족히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 사악한 적은 날마다 한 집씩 물러나고 우리 군사는 날마다 한 번씩 승리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지금은 스스로 이 관문을 통과했다고 생각하며, 몇 겹의 미로가 또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진실로 한결같이 이 법에 의거하여 만나는 상황마다 자신에게 묻는다면, 한 번 물으매 한 걸음 나아가고 두 번 물으매 두 걸음 나아가 물음이 점점 많아질수록 성취도 점점 높아져 일의 기미가 저절로 드러나 눈으로 보는 것마다 환하여 자문함도 필요 없는 수준에 이르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옛사람이 말한 ‘능히 스스로 스승을 얻는 자’⁵⁹⁾ 또한 이러한 것이며, 거울을 엮어두거나 진흙을 이기는 것과 같다는 비난에도 해명할 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사람이 물을 마심에 차갑고 따뜻함을 저절로 아는 것과 같아서, 나처럼 허다한 경력이 없고 나처럼 허다한 고찰이 없다면 진실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말하기를 ‘아는 자와는 말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자와는 말할 수 없다.’⁶⁰⁾ 하는 것이다.”

59) 능히 스스로 스승을 얻는 자: 《서경》(중혜지교(仲虺之誥))에 “능히 스스로 스승을 얻는 자는 왕자가 되고, 남들이 자기만 못하다고 말하는 자는 망한다. 문기를 좋아하면 여유가 있고, 스스로 지혜를 쓰면 작아진다. [能自得師者王, 謂人莫己若者亡. 好問則裕, 自用則小.]”라고 하였다.

60) 아는 자와는 … 말할 수 없다: 《한서(漢書)》(사마천전(司馬遷傳))에서 “이것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말할 수 있어도 속인에게는 말하기 어렵다. [此可爲智者道, 難爲俗人言也.]”라고 하였다.

평이당에서의 수작에 대한 설 [平易堂間酬酌說]

대낮의 물시계 소리가 뜬하게 들려오고 설렁줄 미동도 없는 때에 궤안에 기대어 앉아 신문(新聞) 몇 장을 읽고 있었는데, 홀연 공주관찰부(公州觀察府)에서 본군으로 보내온 올해 봄여름 등의 근무 성적 평가를 접하게 되었다. 끝부분에 ‘중(中)’자가 적혀있었는데 마침 공조(工曹)에서 일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가 눈이 휘둥그레져 말하기를

“이 군에 무슨 중등(中等) 맞을 일이 있습니까?”

하였다. 내가

“그대는 내가 중등 맞은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는가?”

라고 하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제가 들으니, 명부(明府)께서 수령이 되신 이래로 일체의 정사에 은혜와 위엄을 아울러 행하고 청렴함과 명민함을 모두 지극히 하여, 전후로 아홉 군이 20년 동안 받은 근무 평가가 매번 상등(上等)에 매겨졌으니, 대개 이루 다 찬양할 수 없는 아름다움만 있을 뿐 어떠한 올라미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본군을 가지고 말하자면 삼 년 동안 화락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았으니, 비록 은유(恩諭)의 감격으로 인해 팽택(彭澤) 현령이었던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를 본받지는 못하였어도, 성읍이 작고 여유로워 급암(汲黯)이 방안에 누워있으면서도 회양(淮陽)을 잘 다스린⁶¹⁾ 것같이 하였습니다. 부지런히 일하여 위로 승진되는 포상이 있으니, 합군(合郡)의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혹여라도 잘못될 우려를 품고 있습니다만, 대도(大都)가 되면 좋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이번 성적 평가에 경계할 만한 단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마땅히 떠나야 한다는 뜻이 은연중에 담겨 있으니, 또한 심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61) 급암(汲黯)이 … 잘 다스린 : 한 무제(漢武帝) 때 동해 태수(東海太守) 급암(汲黯)이 병이 많아 누워서 다스렸는데도 동해가 크게 안정되었다. 그 뒤에 회양 태수(淮陽太守)로 임명하자 급암이 극구 사양하니, 무제가 “나는 단지 그대의 중망을 빌리려 하는 것일 뿐이니, 그대는 병을 치료하며 누워서 다스리기만 하면 될 것이다. [吾徒得君之重, 臥而治之.]”라고 설득하여 부임하게 하였다. 《史記汲黯列傳》

내가 말했다.

“그대는 참으로 앞면만 보고 뒷면은 보지 못하며, 겉면만 보고 속면은 보지 못하는 구려. 내가 그 문장을 보니, 말이 열두 마디 정도로 많지만 실제로는 ‘노(老)’ 한 글자를 말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네. 내가 늙어서 남들이 늙었다 하는 것을 어찌 경우 없다 하겠는가? 스스로 나의 다스림을 돌아보건대, 비록 심히 모자라지는 않으나 젊은 날에 비하면 차이가 있고, 나의 노쇠함이 비록 극히 야윈 지경까지 이르지 않는 않으나 20대일 때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다네. 몸과 정신이 모두 쇠해지지 않을 수 없으니, 이런 상태로 백성들 위에 있으면 공연히 닷 말의 곡식⁶²만 축낼 뿐이네. 등잔 밑이 어두우니 어찌 등 뒤에서 말이 없었겠는가마는, 관찰사(觀察使)가 작은 먼지와 흙까지 털어 찾아내는 붓을 내려놓고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해 줌으로써 나로 하여금 새장을 벗어나 구름 가에 놓고 계륵을 끊어내 물새와의 맹세를 찾아가도록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나를 아끼는 것이지 나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네. 그저 일찌감치 나 스스로 물러날 것을 시원스럽게 결단하지 못하여 머뭇거리고 쭈뼛대면서 지금까지 오다가 마침내 세속에서 일컫는 ‘붓으로 인한 곤경’을 당한 것이니, 이는 자업자득[滄浪]⁶³이지 남을 탓할 바가 아닐세. 내가 참으로 마음이 편안하니 그대는 좋게 여기게나. 근래 일록(日錄)에 쓸 만한 일이 없어 괴로웠는데, 공교롭게도 침묵을 지켜 말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을 만나 그대와 한바탕 한가로운 수작을 이루었으니, 《총쇄(叢瑣)》 중의 한 설(說)로 갖춰 넣는 것이 좋겠네.”

그리고는 왕양명(王陽明)의 시를 외우며 나 자신의 뜻을 빗대었다.

險夷元不滯胸中.	험난하든 평탄하든 가슴에 담아두지 않으니,
何異浮雲過太空.	허공을 떠가는 구름과 무엇이 다르리오?
夜靜海濤三萬里.	고요한 밤 삼만리 파도 소리 들리니,

62) 닷 말의 곡식 : 적은 녹봉을 가리킨다. 동진(東晉) 때 도잠(陶潛)이 팽택 영(彭澤令)으로 있을 때 나라에서 독우(督郵)가 내려왔는데, “내가 어찌 닷말의 녹에 얽매어 허리를 굽혀 독우를 만나겠는가?” 하고는 그날로 고향으로 돌아간 데서 나온 말이다.

63) 자업자득[滄浪] : 창랑은 수명(水名)인데, 춘추시대에 한 어린아이가 노래하였다.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으리라. [滄浪之水清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 공자가 그 노래를 듣고 말하였다. “소자들이, 들어 보거라. 맑으면 이에 갓끈을 씻고, 흐리면 이에 발을 씻게 되는 것이니, 스스로 하기 나름이다. [小子聽之! 清斯濯纓, 濁斯濯足矣, 自取之也.]” 《孟子 離婁上》 창랑가를 불렀던 뜻은 처신을 정직하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천시(賤視)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月明飛錫下天風, 밝은 달 아래 바람 타고 날아다니리.
-이 장은 마땅히 〈만회당설(晩悔堂說)〉 다음에 있어야 한다.

만회당에 대한 설 [晩悔堂說]

내가 어렸을 적에 사람들이 나에게 타고난 자질이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나 또한 자부하였었기에, 곧 “하늘이 나를 어찌하라?” 하는 마음에 병든 노인이 있게 되었다. 그러다가 요새 조금씩 질병과 짝이 되었고, 무엇보다 현기증이 몹시 심하였다. 부질없이 약 달이는 도구를 쓰면 쓸수록 다시 병세가 심해져서야 비로소 놀라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인가? 이는 필시 유래한 바가 점차 진행되어서일 것이다. 상서 이헌영(李憲鏐) 씨는 예전에 나에게 대해 인물평하기를, ‘재주는 바다 같이 크고 마음은 터럭만큼 가늘다.’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농담 같아도 또한 자못 일리가 있다. 가느다란 터럭을 가지고 큰 바다에 골몰하였으니 궁극에 어찌 침잠하고 쇠약하여 질병이 그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실로 후회할 만한 일이니, 일찍 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그리하여 ‘만회당(晩悔堂)’이라고 자호(自號)하였다.

어떤 객이 그 의미를 물어보며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보기에 ‘회(悔)’라는 한 글자는 아마도 딱 들어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는 일흔을 넘고 지위는 재상을 넘었으며, 효성에는 유감이 없고 모책(謨策)에는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출사하여 백성들에게 임해서는 칭송이 높았고, 귀향하여 집안에 들어가서는 화목하였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이미 충분하니 무슨 후회가 더 있겠습니까? 다만 그대는 후회할 만한 일이 있다면 아마도 이 때문이겠지요.”

내가 “무엇이요?” 하고 묻자, 객이 말하였다.

“그대가 궁궐을 출입할 때 사람들은 그대를 상제(上帝) 곁의 선랑(仙郎)인 양 바라

보았습니다. 그대가 당시에 실로 사사로운 이득을 도모하는 데 뜻을 두었다면 한번 눈 깜짝할 새에 산 같은 재물을 불러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마침내 청렴결백으로 자신을 지켜 부정한 재물을 탐하는 유속(流俗)을 넘어서고 금전을 잊고 산다는 가문의 명성을 이었습니다. 공상소 감동(工桑所監董)을 지낼 때 주관하는 재해로 뽑힌 나무의 값이 3, 4만 금이었습니다. 이는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물건이었는데도 초개와 마찬가지로 보아 이웃에 나눠주었습니다. 내 보기에 요즘 세상 사람들은 실로 한번 부신(符信)을 잡으면 바로 집안이 풍족해지거늘, 그대는 아홉 번 지방 수령을 지냈으면서도 집안은 교외에 밭 한 이랑조차 없습니다. 그밖에는 서원에 떼어주고 농가에 베풀며 가난한 족속을 구휼하고 곤궁한 친우들을 도왔습니다. 한 평생 그렇게 행하기를 마치 한 판에서 찍어 낸 것 같았습니다. 이 또한 흠여주면 미미하나 모아놓으면 매우 큼니다. 지금 그대는 빛이 많아 갚지 못하고 집은 작아 겨우 몸을 겨우 담을 정도이니 이는 후회할 만한 듯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후회가 어찌 그대의 후회이겠습니까?”

내가 말했다.

“아, 내가 어찌 그 때문이겠소? 말리지 않는다면 차근차근 말해보겠습니다. 책을 읽고서 문장을 이루고 학교를 지어 영재를 길러내며, 벼슬자리에서 과감히 물러나고 전원에서 뜻을 즐겁게 하는 일 등이 모두 내가 뜻을 두었으나 이루지 못한 것이니 응당 후회할 바입니다. 그러나 더욱 이보다 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야흐로 약관의 나이였을 때 뜻과 기상이 샘처럼 솟고 하늘을 찌르는 듯하며 재주와 생각이 얼음과 달이 새겨진 듯하였습니다. 청색, 자색의 인끈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말하고,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도 본래 가진 것처럼 보았으니, 마치 사마상여(司馬相如)가 다리 지날 때의 포부⁶⁴⁾와 같았고, 등우(鄧禹)의 책훈(策勳)⁶⁵⁾을 압도하여 한번 뛰어올라 선두를 먼저 차지할 듯하였습니다.

64) 사마상여(司馬相如)가 다리 지날 때의 포부 : 전한(前漢) 때의 문장가 사마상여(司馬相如)가 다리에 글자를 적은 것을 가리킨다. 사마상여가 정안을 가는 길에 고향 촉군(蜀郡)을 지나다가 승선교(升仙橋) 기둥에 “다른 날 만일 사마의 높은 수레를 타지 못하면 이 다리를 지나지 않겠다. [他日若不乘高車駟馬 不過此橋]”는 13글자를 써 붙였다.((성도기(成都紀)))

65) 등우(鄧禹)의 책훈(策勳) : 등우(鄧禹)는 본래부터 한나라를 창업한 광무제(光武帝)와 친한 사이로, 광무제를 도와서 천하를 평정하여 대사도(大司徒)에 이르렀으며, 운대(雲臺) 28장(將) 가운데 제일공신(第一功臣)이 되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여 목민관(牧民官)으로 약간 시험해 보았을 뿐이고, 나이가 겨우 중년이 되었을 때 뜻은 아직 그치지 않았으나 문득 광주 자사(廣州刺史) 도간(陶侃)이 벽돌을 운반하던⁶⁶ 고사를 동경했던 것은 무릇 근골을 수고롭게 하고 마음과 등골을 애쓰게 하려 반드시 친히 손으로 집었던 것과 관련 있으니 어찌 스스로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즐거워하며 피로를 잊었던 것은 대개 훗날 힘을 다하리라는 기대가 있어서인데, 불행히 뜻처럼 채 다 되지 않았는데 시국이 변하였습니다. 이에 국난을 근심하며 눈물 흘리고 주제님께 근심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분발하여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나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며 어리석음이나마 다하여 말하고자 하나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몇몇 망령된 생각이 가슴 속에 얽어매어져 온 것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60년이 되었습니다. 작은 한 몸에 온갖 근심이 공격하여 마치 아교가 옷칠에 달라붙고 불이 기름을 끓이는 듯하였으니, 원기가 안에서 마르고 정신이 점차 소모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온갖 병이 서로 침탈하여 현기증 하나 치료하기 어려우니 이는 과연 내가 크게 후회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 후회가 조금 빨랐더라면 유유자적하며 남은 생을 지키고 아끼는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몸에 깊은 병이 들어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 후회하며 고치고자 하여도 형세로 볼 때 이미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차 호연하게 귀거래사 읊으며 가래나무와 오동나무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어부와 나무꾼을 보며 희롱하며 혹은 당호(堂號)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랄 것인데, 이는 조물주의 처분에 달린 일이니 또 나와 그대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66) 광주 자사(廣州刺史) … 운반하던 : 도간이 광주 자사(廣州刺史)로 재임 중에 한가할 때면 매일 아침에 벽돌 100장을 집 안에서 밖으로 운반하고, 저녁에는 다시 밖에서 안으로 운반하면서 신체를 단련하고 뜻을 가다듬곤 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너무 한가하면 중원을 통일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다고 하였다. 《플북 卷66 陶侃列傳》

일섭원에 대한 풀이 [日涉園解]

일섭(日涉)은 그 동산에 이름을 붙인 것이니, 이는 도연명(陶淵明)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산을 날로 거닐어 흥취를 이룬다⁶⁷⁾’는 것은 도연명이 전원으로 돌아온 뒤의 말이다. 지금 도연명을 배우면서 전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배우지 않고 먼저 동산을 만드는 것을 배우니, 이른바 한퇴지(韓退之)가 학문을 거꾸로 배웠다는 것이 아닌가? 말하기를, “전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배워서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산을 만드는 것은 배워서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 불교를 배우는 사람이 돈오(頓悟)를 버리고 먼저 염송(念誦)을 하니, 어찌 삼승(三乘)을 초월해야 마침내 부처가 되어 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있는 줄을 모르는가?

또한 높은 곳을 오르려면 낮은 데에서부터 시작하고 먼 길을 가려면 가까운 곳부터 가야하는 뜻이다. 유독 이른바 가능한 것이 도리어 또한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을 근심해야 한다. 저 동산을 배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는 바가 동산에 있지 않고 흥취를 이루는 데에 있다. 만약 한갓 동산을 배울 줄만 알고 흥취를 이루는 일을 배울 줄 모른다면, 이는 꺾꽂을 사면서 구슬을 버리는⁶⁸⁾ 것과 같으니, 어디에 그 배우는 것이 있는가? 내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동산을 만들면서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매우 많다. 그러나 흥취가 이루어진 바가 동산을 만들지 않았을 때보다 보태진 것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러므로 말하기를, “벼슬하는 사람은 소식(蘇軾)이 된 이후에야 ‘열흘 관리로 있는 동안 9일은 호숫가에서 노니는 것’이 가능하고, 얼굴을 꾸미는 사람은 서시(西施)가 된 이후에야 ‘눈썹을 찡그리는 것’이 가능하다⁶⁹⁾.”고 한다.

67) 동산을 날로 거닐어 흥취를 이룬다 :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동산을 날로 거닐어 즐거운 정취 이루고, 문은 달려 있으나 항상 닫아 놓았네. [園日涉以成趣, 門雖設而常關.]”라고 하였다.

68) 꺾꽂을 사면서 구슬을 버리는 : <한비자(韓非子)> <외저설(外儲說)>에 “초나라 사람으로 정나라에 구슬을 파는 자가 목란의 꺾을 만든 다음, 계수와 산초의 향을 입히고, 주옥을 엮어 장식하고, 붉은 옥으로 꾸미고, 비취의 깃을 엮어 장식하여 주었더니, 정나라 사람은 그 꺾만 사 가고 그 구슬은 돌려주었다. [楚人有賣其珠於鄭者, 爲木蘭之櫃, 薰以桂椒, 綴以珠玉, 飾以玫瑰, 輯以羽翠. 鄭人買其櫃而還其珠.]”라고 하였다. 세상사람들이 근본적인 것을 버리고 말단적인 것만 좇아 취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69) 서시(西施)가 된 이후에야 ... 가능하다 : 월(越)나라의 미인 서시(西施)가 가슴이 아파서 얼굴을 찡그리자 그 마을의 추녀(醜女)가 이를 보고 아름답게 여겨 자기도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자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이 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가 하면 처자를 데리고 그 곁을 떠났다.” <장자> <천운(天運)>

천안군 소동면 궁리에서 죽은 남성 정현범 옥사의 복검 발사 [天安郡小東面宮里致死男人鄭鉉凡獄事覆檢跋辭]

모두 각 사람의 초사(招辭)입니다.

일에 임하여 두려운 일이니 어느 일인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옥사를 살피는 일은 어려우니, 이 옥사는 더욱 어렵습니다. 범인이 “공범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상흔(傷痕)은 확실하게 보기 어려우니, 조금 가볍고 조금 중한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정상은 참혹하고 사안은 의문스러우니, 이 같은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 원인을 단정하는 것은 시신에 질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범물(法物)⁷⁰⁾을 준비하여 밝은 곳에 꺼내 놓았습니다. 시신은 온몸이 썩고 녹아 살갗은 없고 뼈만 남은 데다가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어 상흔의 유무를 애초에 논할 수 없었습니다. 왼쪽 늑골에 작은 조각의 피부가 한 곳에 붙어 있는데, 모양은 감나무 잎과 같고 둘레는 9촌 3분입니다. 손가락을 눌러보니 조금 굳었고 색은 검었습니다. 그러므로 범물을 따로 부착하여 오랜 뒤에 제거하니 손가락으로 한번 일으키면 그 색이 예전처럼 되었습니다. 이는 발로 차인 상흔에 가깝습니다.

앞면이 녹고 무너져 이미 이처럼 살필 것이 없었으니, 뒷면에 징험할 것이 없는 것은 저절로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만, 신중히 살피는 도리에 있어서 따지지 않을 수 없기에 여러 사람의 손으로 잡아 붙들어 힘겹게 뒤집어 보니 다만 실 같은 근골이 보였는데 뼈의 연결이 풀어지려 하였습니다. 다만 그 등과 배 한 조각 썩은 흠이 겨우 등과 위에 붙어 있었는데 둘레는 8촌 2분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부드럽고 색은 검었습니다. 모양은 수포(水泡) 같으니 아직 녹지 않고 남은 찌꺼기인 듯 하였습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실제 원인을 단정하겠습니까?

옥사(獄事)의 정황이 여기에 이르러 더욱 몹시 의혹스러웠습니다. 다만 증언에 근

70) 범물(法物): 검시(檢屍)에 사용되는 기물(器物). 죽음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도구 및 수단들이다.

거하여 추리하고 법문을 살펴서 감단(勘斷)⁷¹⁾하였습니다. 《무원록(無冤錄)》⁷²⁾ 사봉(四縫) 조의 보주(補註)에 이르기를, “아래쪽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상흔이 모두 위에 나타난다. 남자의 상흔은 위아래 치아 뿌리 속 뼈에 나타나니, 왼쪽을 다치면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을 다치면 왼쪽에 있으며, 가운데를 다치면 중앙에 있다.”라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치아가 빠지며 아랫배에 상처를 입어도 마찬가지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신은 가운데 탈락한 윗니가 5개이니 아랫배를 손상당한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사증(詞證)을 가지고 말하자면 정씨(鄭氏)가 이씨(李氏)의 상투를 잡고 계단 아래로 넘어졌고, 이씨의 무릎이 정씨의 가슴을 때렸다고 하니 사건의 형세가 그럴듯합니다. 그 무릎을 가지고 말해보자면 별안간 넘어짐에 따라 세계 때린 무릎이 앞을 보며 넘어지던 사람의 아랫배의 불두덩을 저절로 때린 것이니 또한 말이 됩니다. 몇 척의 아이가 아닌 데다가 또 상투가 잡힌 사람의 무릎이 어찌 가슴에 닿겠습니까? 만약 여러 초사(招辭)대로라면 가슴을 때린 것이니, 가슴은 반드시 죽는 부위요 아랫배는 빨리 죽는 부위입니다. 그렇다면 아랫배 안쪽의 손상이 없었다면 정씨의 목숨이 어찌 하루도 보전하지 못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생전에 음낭과 오장을 끌어당기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하는 것은 고주(雇主)가 입증할 뿐 아니라 김봉학(金奉學)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자의 가슴과 배를 두 번 타격했다는 범인의 자복, 떨어진 치아의 증거가 아랫배의 내상의 조문과 딱 들어맞으니, 아랫배 내상은 더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인은 타격당하여 내상을 입어 죽음에 이른 것으로 현록(懸錄)하였습니다.

사자(死者)인 정헌범(鄭鉉凡)은 일개 부랑배로 부모를 모시거나 처자식을 보살피

71) 감단(勘斷) : 죄상을 심리하여 해당하는 형률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72) 무원록(無冤錄) : 원(元)나라 왕여(王與)가 송대(宋代)의 《세원록(洗冤錄)》·《평원록(平冤錄)》·《결안정식(結案程式)》 등의 법의학서(法醫學書)를 유취(類聚)하여 만든 책이다. 조선에서는 1419년부터 수용하다가 1438년에 세종(世宗)이 최치운(崔致雲) 등에게 명하여 주석을 붙여 간행한 것이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이다. 그러나 이 책은 조선의 실정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영조(英祖) 때에 구택규(具宅奎)가 증수(增修)하고 구윤명(具允明)이 보주(補註)한 것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이다. 이 《증수무원록》과 《무원록 언해》는 1792년 11월 교서관(校書館)에서 간행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1796년에 간행하였다. 왕명으로 교정과 번역을 담당한 이는 서유린(徐有隣)이며, 원서 2권, 언해 2권이다. 《弘齋全書 卷184 羣書標記6 增修無冤錄, 無冤錄諺解》《正祖實錄 16年 11月 20日》

는 일은 돌보지 않고 서남 방면을 표류하다가 여기에 들어와 고용되어 농사에 종사하여 오직 주인의 지위를 기다렸습니다. 나그네로 한가한 자취 때문에 고슴도치 가시가 모이는 듯한 의견을 주장하고자 하여 처음에는 담뱃대로 찌르려 하였으니, 취하고 분하여 먼저 실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끝내 상투를 잡고 스스로 넘어졌으니, 성명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어찌 생각했겠습니까? 마흔 살의 강성한 몸으로 갑자기 하룻밤에 물거품처럼 목숨을 잃었으니, 비록 자초한 것이라 해도 사정이 실로 참혹하고 측은합니다.

이경직(李景直)은 말을 듣고 모습을 살펴보건대 반드시 악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내기를 아직 마치지 못하였기에 김매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하다가 뜻하지 않은 분노를 만나 취한 사내가 상투를 잡고 스스로 넘어져 몸뚱이가 따라 넘어져 그 몸 위에 올라갔으니, 일의 형세가 곧 그러했습니다. 갑자기 넘어지던 무릎이 엮어진 사람의 아랫배를 때린 것 또한 그 형세입니다. 비록 마음먹고 사납게 때린 것은 아니나 현범의 죽음은 하루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납게 때리지 않았다면 어찌 이리 빨랐겠습니까? 두 번 무릎으로 때렸다는 것은 이과(李寡)가 입증하였으니, 범인이 꺼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경직은 주범으로 논단해야 합니다.

이봉래(李鳳來)는 그의 숙부가 상투를 잡혔다가 곧 이전투구(泥田鬪狗)가 되는 것을 보고도 수수방관했으니 또한 인지상정이 아닌데, 그것은 숙부를 보호하고 분함을 씻으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한 번 차고 두 번 차는 사이에 차는 것은 통쾌하게 여긴 것은 아마도 이상한 점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발로 찼다면 발의 기세가 사나운 것은 말하지 않아도 분명합니다. 그가 말한 발길질이 방광(膀胱)에 닿았다는 것은 말이 이치에 가깝지 않습니다. 스스로 엮어진 사람이 자신의 숙부를 놓지 않았으면 그 숙부는 오히려 정씨의 배 위에 있으니, 분한 마음에 찬 것이 어찌 뒤쪽의 방광에 닿겠습니까? 줄곧 방광은 알 수 없다고 납초하였습니다. 마침내 삼초(三招)에서 비로소 갈빗대를 때렸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시신의 왼쪽 갈빗대의 썩다 남은 피부가 아직 늑골의 위에 남아 있었으니, 이것이 발로 찬 손상입은 흔적입니다. 한 번 찬 정황은 김봉학(金奉學)이 목격하였고, 두 번 찬 정황은 이과가 주장하였으며, 범인이 자복하였습니다. 하나의 옥사에 두 명의 범인은 법 외일 뿐이 아닙니다. 발로 가

격한 것은 따로 긴혈(緊獸)이 있으며, 상흔에 이미 경중이 드러났습니다. 아랫배의 내상이라는 증거가 있고 주범이 누구인지 결론났으니 다행히 원흉이 되는 것은 피했으나 종범으로 지목되는 것을 그가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봉래는 종범으로 현 록합니다.

면임(面任) 빈영준(賓永俊)과 겨린[切隣]⁷³⁾인 김정문(金正文)은 따로 더 물을 단서가 없으므로 다만 재초를 받았습니다. 동임 오치운(吳致云)은 정씨가 죽은 뒤 제때 보고하여 한결같이 보고 들은 것을 물음에 따라 납초하였습니다. 정씨의 고주 이조이(李召史)는 정씨와 이씨 두 사람이 다룰 때 힘을 다해 말렸고, 정씨가 고통스러워 하며 누워있을 때 약을 써서 구료하려 하였습니다. 현납한 약방문은 당귀수산(當歸鬚散)이니 어혈을 푸는 약제입니다. 변이 난 후 사자의 친속 본가에 부고를 전하였으며, 이경직이 무릎으로 때리는 광경과 봉래가 발로 차는 정황을 사실대로 말하여 숨김없이 납초하였습니다. 이순보(李順甫)는 증인으로서 따로 동중(洞中)에 묶여 있는 자인데, 농사일에 골몰하여 본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니 따로 물을 만한 단서가 없습니다. 김봉학은 정씨와 이씨가 다룰 때 몸 바쳐 말렸고, 정씨를 부축하여 돌아와 주인집에 눕혔습니다. 고통에 부르짖는 증상을 목격하여 검정(檢庭)에서 납초(納招)하였습니다. 한결같이 보고 들어서 숨기는 것이 없었으므로, 오치운·이조이·이순보는 아울러 재초(再招)를 받고 증인으로 두었습니다.

사자의 친속은 애초에 와서 기다리지 않았으므로 해당 고을의 형쇄(刑鎖)에 신칙하여 와서 기다리게 하였으나, 아직 와서 기다리지 않아 취초하지 못했습니다. 경직의 형은 이미 나와 증초(證招)하였고, 마땅히 질문해야 했을 일이나 또한 아우와 아들에 대해 증언한다는 혐의가 있으므로 묻지 않은 채로 두었습니다.

본 고을의 천자호(天字號) 시장(屍帳) 세 건을 대조 검토하여 보냅니다. 한 건은 사자의 친속을 기다려 내어주라는 뜻이니, 해당 고을의 형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한 건은 관상하고, 나머지 한 건은 함께 수감된 무리들을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73) 겨린[切隣]: 살인 사건을 저지른 범인의 아주 가까이 사는 이웃을 말한다. 송사·옥사의 증인이 되는 사람으로, 세 사람을 내세우기에 '세 겨린'이라 한다.

모두 올려보냅니다.

종범인 이봉래와 주범인 이경직은 규격을 갖추어 해당 고을의 옥에 나누어 수감하였습니다.

농사철의 백성들의 사정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하는 바이므로 면임 빈영준과 동임 오치운, 고주 이조이와 겨린 김정문은 아울러 우선 보방(保放)⁷⁴⁾하였습니다. 증인 이순보·김봉학은 모두 남을 위해 고용되는 공인(工人)으로서 이미 담당하는 사자가 없어 보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해당 고을의 옥에 그대로 가두어 두었습니다.

시신은 복검 후 도로 방 안에 넣고 회인봉표(灰印封標)⁷⁵⁾하고 잘 지키게 하였습니다. 군수가 여기서부터 고을에 돌아온 연유로 이에 두 사건을 성안(成案)하여 보고 하니 조사하여 대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전의군 북면 중대부리에서 죽은 남성 김상렬 옥사의 삼검 발사 [全義郡北面中大夫里致死男人金相烈獄事三檢跋辭]

모두 각 사람의 초사(招辭)입니다. 대개 옥사를 안핵(按覈)⁷⁶⁾하는 방법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곳에서 의심을 일으키고 감춰진 정황에서 정황을 끌어모아 의혹이 어지럽지 못하고 정황이 감히 달아나지 못하게 된 뒤에야 비로소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옥사는 두 사람이 함께 다투다가 하룻밤 사이에 남은 실이 마침내 끊어져 머지않아 목숨을 잃었으니, 여러 초사가 똑같이 그렇습니다. 여러 검시의 결과 드러난 상흔을 잡기 어려웠으니, 그중에서도 의혹이 더욱 심하였습니다.

살인을 단정하는 것은 시신에 질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신을 꺼내어

74) 보방(保放): 보증인(保證人)을 세우고 죄인을 석방시키는 것을 말한다.

75) 회인봉표(灰印封標): 변사자(變死者)의 시체를 검사한 뒤에 시체의 사면에 석회를 편 다음, 여러 군데 도장을 찍고 나서 지워지지 않게 단단히 표를 하여 놓는 일.

76) 안핵(按覈): 매우 자세하게 조사하여 살피는 것인데,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할 때에 많이 쓰는 표현이다.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왕명으로 안핵어사를 자주 파견하였다.

두고 초조(醋糟)와 법물(法物)을 법대로 검시를 집행하였습니다.⁷⁷⁾ 피부와 살은 모두 사라졌고 해골이 드러났습니다. 앞면은 오히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으나 뒷면은 손이 닿는 대로 뼈가 흩어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근거할 피부와 살이 없어 드러난 상흔을 힘껏 찾았으니 형체 없는 그림자를 잡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죽게 된 목숨이 예로부터 얼마나 많겠나마는 이 시신처럼 급히 죽은 자는 없습니다. 밤중에 다투다가 편안히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걸어가 귀가하였다가 오후에 운명하였으니 이는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만약 반드시 죽거나 빨리 죽는 부위에 손상을 입은 적이 없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발에 차여 죽었다는 증거는 여러 조사에 한결같은 말입니다만, 발견된 상흔이 없으니 의혹의 단서가 많습니다. 소금물을 많이 마셔서 죽었다는 설은 범인의 한 입에서만 나왔으니, 한 단서의 의혹을 더합니다. 만일 과연 소금물을 마셔서 죽음에 이르렀는데 다른 사람에게 살해한 죄목이 돌아간다면 산 사람이 원통할 것입니다. 만약 발에 차여 죽음에 이르렀는데 범인이 요행히 달아난다면 죽은 사람이 원통할 것입니다. 이들은 더욱 마땅히 규명해야 하여 유명(幽明)⁷⁸⁾간에 기필코 원통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우로 힐문하고 조사하여 대질한 데 이르러서 소금물을 많이 마셨다는 설은 증거가 없는 것으로 귀결되었으니 더 고려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 치아가 탈락된 것을 보고서야 의혹의 단서를 깨뜨릴 만하여 실인을 단정할 수 있었습니다. 윗니 중에 탈락된 것은 9개에 이르고 아랫니에 탈락된 것도 4개입니다. 이는 발로 찬 것이 아래쪽에 영향을 주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무원록》 사봉(四縫)조의 보주에 이르기를, “남자의 상흔은 위아래 치아 뿌리 속 뼈에 나타나니, 왼쪽을 다치면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을 다치면 왼쪽에 있으며 가운데를 다치면 중앙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바깥에 드러나 피부와 살은 없더라도 마침내 가릴 수 없는 법문이 있는 것입니다.

77) 시신을 ... 집행하였습니다 : 오작(件作 관아에 맡겨 검시와 시신 매장을 담당한 사람)과 관노(官奴)가 시신에 입혀진 의복을 차례차례 벗겨내고 초조(醋糟)와 법물(法物)로 시신을 씻긴 다음 중인(衆人) 앞에서 시신을 둘러가며 검험(檢驗)하는 것이 절차이다.

78) 유명(幽明): 저승과 이승,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뜻한다.

갈비와 둔기를 찬 것은 범인이 자복한 것이고, 가슴과 배를 찬 것은 고주(苦主)⁷⁹⁾가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고주가 원한이 가득한 채 보고 한 말을 반드시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검장(檢帳)⁸⁰⁾을 살펴보자면 치아가 탈락한 것이 아랫배에 손상을 입은 증거가 절로 드러나니, 초사로나 증거로나 더 궁구할 것이 없습니다.

범인의 집안에서 소금물을 많이 마셔서 죽었다고 핑계 댈 설은 애매하고 불분명한 견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고통스러워할 때 미친 듯 괴로워하여 거품이 달여져 소금이 된 것입니다. 지금 검시장에서 소금물의 흔적이 이미 사라져 증빙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령 능히 서너 사발의 소금물을 마실 수 있었다더라도 소금물의 흔적은 발견하려 해도 되지 않고 발로 차였다는 증거는 법문에 현저하니, 소금물을 마셨다는 한 사안은 곧 실체가 없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실인은 발로 차여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현록합니다.

사자인 김상열(金相烈)은 형편이 본래 넉넉하지 않았으니, 7월의 궁핍함은 더욱 심하였습니다. 앞서 빌린 돌석(揆石 구들짱)의 값을 받으려 하였으나 값을 또한 받지 못하였고, 수량 또한 맞지 않았습니다. 산골짜 속 무식한 자질로서 늙은이를 우리 어른으로 모시는 의리를 깨치지 못하고, 그저 나는 따로 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침없는 말이 급히 입을 통해 나오는 바람에 그들의 분노를 샀으니, 발로 차여 가격당하고 상투를 잡혀 땅에 질질 끌렸습니다. 약한 힘으로 강한 이들을 상대하지 못하고 그 집에서 묵다가, 억지로 권유하는 화해에 따랐습니다. 분을 삼키며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말이 없다가 이미 정신을 잃은 채로 쓰러졌으니, 외롭고 쓸쓸하게 나그네로 지내는 처지에 골짜기에 웅크리고 있던 범의 분노를 건드린 꼴이었습니다. 이 청춘의 강건할 나이의 사람으로 하여금 갑자기 저승의 의지할 데 없는 낮이 되게 하였으니, 사정이 실로 애처롭습니다.

김상열의 처 엄조이(嚴召史)는 남편이 발로 차이는 것을 보고 몸을 바쳐 말리고자 생각하였으나, 반명(班名) 내외의 체면에 구애되어 주저하며 돌아섰다고 합니다. 아

79) 고주(苦主): 가까운 일가가 살해를 당했을 때에 고소하는 사람, 즉 살인사건의 원고(原告)를 가리킨다.

80) 검장(檢帳): 시체를 검안한 보고서.

마도 혹 괴이할 것이 없겠으나, 만약 곧장 앞으로 나아가 말리고 위로하고 보호하여 집으로 돌아갔다면 마루 위에서 발로 차인 것은 구제할 수 없었더라도 마당가에 끌려가 발로 차인 것은 막아낼 수 있었을 듯하니,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게 되지는 않았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만약 죽음의 빌미로써 말하자면 마루 위에서 밀고 발로 차인 것이 죽지 않았으리라고만 말할 수 없고, 마당가에서 끌려가 발로 차인 것이 반드시 죽었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짝으로서의 의리와 배우자로서의 정에 있어 다만 구구한 체면을 생각하여 주저하다 돌아왔으니, 인정과 천리가 함께 사라졌다고 할 만합니다만, 우매한 시골 아낙을 심히 주벌할 것은 못 됩니다.

사자의 친속인 김상목(金相穆)은 변을 듣고 와서 황망한 가운데 발고(發告)하였습니다. 몸의 반쪽이 베어지는 듯한 고통에 비통해하면서도 형제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들은 것에 따라 납초하였습니다. 따로 더 물을 단서가 없었으므로 다만 재초를 받았습시다.

윤창진(尹昌鎭)은 이미 위원(委員)의 재갈을 거쳐 자중하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 김상열이 비록 반명과 마찬가지로는 하나 밭에 경작하고 산에 곡식을 거두어 이고 지며 생계로 삼았습니다. 평소 교유하고 대접하는 것이 반드시 선하고 후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갑자기 친속을 대하여 패설하는 것을 보고 성을 내어 일어나 먼저 발로 차고 이어 잡아 끌어내라 호령하였으니, 형은 발로 차고 아우는 붙잡았습니다. 이때 광경의 기묘이 높고 컸을 것입니다. 죽을 처지에 살기를 도모하는 피로 소금물을 많이 먹어서 그리되었다는 설을 핑계로 대었으나, 대질까지 한 끝에 실체가 없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두 번 발로 찬 것은 그가 이미 자복하였고, 치아가 탈락한 것은 법문에 밝게 실려 있으니, 주범의 죄목을 그가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윤창진을 주범으로 현록하였습니다.

본 고을에 지자호(地字號) 시장(屍帳) 세 건을 대조 검토하여 작성하여 보냅니다. 한 건은 사자의 친속에 주고, 한 건은 관상하며 한 건은 아울러 함께 수감된 무리들을 책으로 만들어 올립니다.

법을 시행할 때 사정 또한 살펴야 합니다. 친속에게 패륜적인 욕설을 한다면 누군들 귀를 막고 못 들은 체하며 수수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잠시 분풀이할 뿐 어

찌 다음날 기필코 죽을 것이라 헤아렸겠습니까? 아마도 죄를 가볍게 해주는 은전이 합당할 듯합니다.

관령(管領)⁸¹⁾ 풍헌(風憲)⁸²⁾ 고진덕(高鎭德)은 이 살인 사건을 듣고 뒤미처 해당 마을로 가서 들은 대로 납초하였습니다. 따로 더 물을 단서가 없으므로 다만 단초를 받았습니다. 겨린[切隣] 유원보(柳元甫)는 싸우는 소리를 듣고 가서 그 일의 원인을 물었으며, 다툼이 그친 뒤 화해를 권하고 함께 묵은 자입니다. 증인 유문중(柳仲文) 유명길(柳命吉) 등은 모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참견하여 본 자들인데 보고 들은 것에 따라 납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겨린과 아울러 재초만 받았습니다.

윤길뢰(尹吉雷), 윤응칠(尹應七)은 윤창진의 족속이며, 김상춘(金相春)은 김상열의 사촌이니 모두 소금물을 먹었다는 등의 설을 묻고 답하며 전파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울러 한 차례 상세히 심문하였으나 따라 깊이 조사할 단서가 없었으므로 다만 단초만 받았습니다. 색목(色目)을 채우지 않고 여러 초사의 말단에 첨부하였습니다.

윤창진의 아우 응진(雄鎭)은 다툼이 일어났을 때 김상열의 상투를 잡고 마당가로 끌고 내려온 자입니다. 가까이서 도운 혐의가 있습니다만 말렸다고 말하며, 또한 직접 범행은 없고, 형이 이미 수악(首惡)을 범하였기에 논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시신은 도로 방 안에 넣고 회인봉표(灰印封標)하고 잘 지키라 신칙하였습니다. 주범 윤창진과 증인 유중문 유명길, 겨린 유원보 등은 모두 해당 고을의 형쇄(刑鎖)에 맡겼습니다. 군수가 돌아가는 연유로 우러러 보고하니 조사하여 대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81) 관령(管領) : 조선시대 한성부·개성·평양의 각 부(部)에 소속된 각 방(坊)의 책임자이다. 장정(壯丁)의 동태와 호구 수를 파악하고, 도둑을 체포하는 등 치안 유지를 담당하였다. 이 글에서는 한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 정도의 뜻이다.

82) 풍헌(風憲) : 조선시대에 수령을 보좌하여 백성에 대한 권농(勸農), 부세(賦稅), 교화(教化), 호구(戶口) 파악, 관령(官守)의 전달 등을 담당하던 말단 책임자이다.

직산군 삼곡리 광부가 소요를 일으킨 뒤 안핵사의 사핵 발사 [稷山郡三谷里礦夫作擾後按覈使查覈跋辭]⁸³⁾

모두 각 사람의 초사(招辭)입니다. 15대의 태장(笞杖)은 본래 지나친 형벌은 아닙니다만, 수백 명이 칼날을 빼 들었으니 어찌 그리 원수가 많은 것입니까? 5년동안 금광(金鑛)의 감리를 맡았었으니 법을 만든 폐단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하루아침에 재앙의 기미가 모두 자기가 초래한 바입니다. 온 고을이 흉범을 다투어 살해한 일은 비록 의기가 풍속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삼곡리에서 점막(店幕)을 연소(延燒)한 것에서 금광의 폐해가 백성들에게 해를 입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은 우연이 아니니 정사에서 혹 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릇 복수와 관련된 옥안은 먼저 원한을 맺은 근원을 살펴야 합니다. 채원실(蔡元實)이 애초 장(杖)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님은 여러 사람의 말에 똑같이 그렇습니다. 서리관이 먼저 행검을 행했는데 상흔이 매우 작았고, 4일동안 움직이다가 하룻밤에 죽었으니 이러한 이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가서 자라를 사다가 국을 끓여 한꺼번에 마셨다고 하니, 머지않아 죽을 사람의 행동은 결코 아닙니다. 삼가 의서(醫書)를 살펴보니 '자라 고기를 계란과 함께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원실이 스스로 자라탕을 끓이면서 계란을 잘못 섞었다면 아마도 괴이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만, 증언할 사람이 없으니 억측하기는 어려우나 장독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님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남의 아내를 겁탈한 광부는 중죄로 처분해야 하니, 가령 태형을 맹렬히 시행하여 우연히 폐사했다고 할지라도 그 아우가 어찌 감히 보복하고자 수령을 멋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채인석(蔡仁石)은 죄가 법기(法紀)를 범하였으니 잠시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다

83) 조정에서 직산 금광에 안핵사를 파견한 사유가 승정원일기에 실려 있다. 의정부 참정 신기선(申箕善)이 삼가 아뢰었다. “충청남도 관찰사 심건택(沈健澤)이 내부에 보내온 전보(電報)에 따르면, 직산군(稷山郡)의 광부(礦夫) 수천 명이 감히 동헌(東軒)을 부수고 군수 유병응(劉秉應)을 난타한 다음 찢러 죽였으니 또한 사관을 정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래 지방의 소요가 뒤를 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장리(長吏)를 살해하는 일은 전에 없던 변고입니다. 수령 혼자 조사하고 말아서 안 되니, 중2품 안종덕(安鍾惠)을 안핵사로 차하하여 그로 하여금 즉시 출발하여 먼저 시흥을 조사하고 이어 직산에 가서 사변의 연유를 엄히 밝혀낸 다음 합당한 징계 조치를 강구해서 보고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승정원일기》 고종 41년(1904) 8월 6일

만 그 형의 죽음이 별도로 다른 원인이 있었다면 그 아우의 원한은 응당 진정이 아닌데, 사람들을 규합하여 관아에 난입하여 곧장 독수를 썼으니 어리석은 백성이 스스로 행한 바가 아닌 듯합니다. 아마도 중간에서 중용하여 격하게 화변을 만든 자가 있었을 듯한데, 동시에 짓밟아 죽였고 흉도들이 달아나 흩어져 끝내 실정을 규명하고 소굴을 깨뜨려 주범과 중범을 분별하여 전형(典刑)을 밝히고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한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성재(趙聖才)의 공초가 한번 나오자, 길찬실(吉贊實)의 죄상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4, 5년간 친밀했던 것은 이미 이익으로 만나 6천 냥을 가로채 말아 혹 사이가 멀어졌던 것인지, 시신을 끌고 가는 행차를 뒤늦게 따라와 화를 구제한다고 말하며 뒤늦게 배를 찌른 뒤에 이르러 마치 때리고 쫓아내는 척하였습니다. 그가 만약 진정으로 화를 구제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능히 때리고 쫓아내는 권한을 집행했다라면, 어찌 삼곡리에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금하지 않고 만사가 이미 잘못된 이후에야 비로소 내쫓았겠습니까? 배가 갈려 장차 목숨이 끊어질 뉘으로 하여금 도리어 손을 잡고 살려달라 비는 슬픔이 있도록 한데 이르렀으니, 그 정상을 조사해 보면 지극히 처참합니다. 마침내 북도에서 마주하고 또 어두운 곳에서 밀어를 주고받았으니, 오히려 죄상이 중하지 않은 하수인을 의심하고 다시 후환을 면하지 못할까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상부(相府)에 들어가 곧장 찌른 것은 혹 엄중자(嚴仲子)의 원한을 복수해주는 격이요, 병가에서 잘 달아난 것은 단공(檀公)의 삼십육계(三十六計) 쓸 것을 생각했던 것이니 하나의 악한 생각에 두 사람이 함께 죽은 것입니다. 길찬실은 그 정황을 논하자면 인식보다 지나쳤는데, 교묘한 혀가 상황과 같아 오로지 빠져나가려고 어금니를 물고 장(杖)을 참아가며 끝내 자복하지 않고 땅에 맹세하였습니다. 오직 아전 노비가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주변인의 눈이 더는 없었습니다. 비록 유경지전(惟輕之典)⁸⁴⁾을 시행하려고 하나, 중범에게 주는 형률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84) 죄가 의심스러워 경중(輕重)의 두 가지 의논이 있을 때에는 경(輕)한 편에 따라 죄를 다스리는 특전(特典).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에 “죄가 의심스럽거든 가벼운 쪽으로 다스리고, 공이 의심스럽거든 후한 쪽으로 처할 것이니,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상적으로 법을 쓰지 않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낫다. [罪疑惟輕 功疑惟重 與其殺不辜 寧失不經]” 한 데서 온 말이다.

김성권(金聖權)은 숲에서 흰 두건을 쓴 채 서로 이끌고 함께 왔으나 홍살문 밖에서 무슨 마음으로 홀로 돌아갔겠습니까? 광부들이 구타하고 위협한 것은 두목에게서 시행된 바가 아니지만 아정(衙庭)에서 제멋대로 날뛰며 횡행한 것은 끝내 그 종적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먼저 들어가 흉악한 짓을 행하였으니 비록 채인석의 수법에는 손색이 있으나, 시신을 짊어지라고 크게 소리친 것은 마침내 구상현(具相鉉)과 대질에서 드러났습니다. 범행을 도운 죄상이 드러났으니 중률(重律)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김창준(金昌俊)은 인석의 복수를 돕고 성권과 함께 돌아가 정황에 참여하였으니, 대략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의 세 사람은 모두 칼을 씌우고 충청남도 재판소로 이감하였습니다.

그밖에 서춘보(徐春甫), 양용서(梁用西), 박기선(朴奇先), 원용준(元用俊), 조칠성(趙七成), 이원일(李元一), 문명원(文明元) 등 7명은 모두 무지몽매한 자들로서 함께 광부가 되었습니다. 이미 고을에 들어갈 때 참여하지 않았는데 뒤섞여 잡히는 바람에 감옥에 있었으니, 대부분 비슷하게 자세히 심문하였으나 끝내 죄상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재초한 뒤 효유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수서기(首書記) 이제형(李濟亨)은 자신이 수리(首吏)면서 먼저 우환을 방지하지 못했으니 죄가 없다고 하지는 못하겠으나, 변란이 일어난 창졸간에 먼저 붙잡혀 매를 맞고 이고 지며 관아로 들어가더라도 이미 구할 수 없었으니 그 사정을 살펴보건대 혹 용서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호장 서기 송계옥(宋季玉)은 집에서 변란을 듣고 창황하게 문으로 들어와 먼저 인석을 묶고 또 찬실을 잡았습니다. 관리들이 감히 손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홀로 책객(冊客)을 불러 모아 죄가 없음을 전하되 항변하여 굽히지 않았으니, 의용이 남보다 뛰어나며 일을 잘 처리한다고 칭할 수 있습니다.

순교 구상현(具相鉉)은 직분이 순찰에 있는데 이미 먼저 기찰하지 못한 데다가 적들이 관문에 들어왔을 때 또 구차히 달아나 숨는 것을 면치 못했으니 정상이 나쁘지만, 무지하고 용렬하여 깊이 책임을 물을 것도 없습니다.

향장(鄕長)⁸⁵⁾ 정양석(鄭養錫)은 변란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들어가 내아에서 유언으로 남긴 부탁을 받았습니다. 기미를 알고 민첩하게 대응하여 서둘러 향교의 유생들에게 알렸는데, 나는 듯한 통지가 섬광처럼 나가서 온 지역이 진동하니 한나절이 되기도 전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군수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며 먼저 흉괴(凶魁)를 붙잡아 명을 기다렸는데 창상이 점점 심해져 이들을 넘기지 못하니, 의분(義憤)이 일제히 격해져 마침내 한바탕 통곡하고 크게 부르짖으며 일어나니 사람들의 분노가 산처럼 솟아나 일거에 발로 차니 흉수가 다져지듯 짓밟혔습니다.

신이 처음 일을 조사할 때 먼저 함부로 살해한 사람을 묻자 정양석이 의연히 자수하였으니 강개하게 의에 나아가는 마음이 있는 듯하였고, 온 고을의 많은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원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의 처사를 보자면 자못 임기응변하는 재주가 있고, 그의 사기(辭氣)를 살펴보자면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볼 수 있으니, 살인을 하였으나 의로운 경우에 거의 가까운 자입니다. 사실 수많은 주먹이 일제히 분격하여 누가 먼저 손을 썼는지는 알 수 없으니, 멋대로 살인한 것에 대한 형률은 아마도 쓸 수 없을 듯합니다. 이상의 네 사람은 모두 재초하고 석방하였습니다.

세감(稅監) 김종익(金鍾益)은 애초 광부들의 소요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한 민회(民會)에서 발명하는 것을 면 원훈(院訓) 언기를 도모했다는 것은 그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광부들을 불러 모은 것 또한 실제로 시행된 것이 없었으니, 한번 공초를 받고 바로 석방하였습니다.

광부 김영서(金永西), 한창신(韓昌信), 지연백(池連白), 이시명(李時明), 오소성(吳小成), 최윤관(崔允寬), 배봉익(裴奉益), 김창용(金昌用), 정용묵(鄭容默), 오길명(吳吉明), 김태산(金太山), 박계근(朴啓根) 등 13명은 죄수들의 초장에 자주 나오니 변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분명하지만, 모두 다른 도의 백성으로 도망 중에 아직 잡히지 않았으므로 취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해당 군(郡)에 신칙하고 각

85) 향장(鄕長) : 조선시대에 지방의 자치 기구인 향청(鄕廳)의 우두머리를 좌수(座首)·수향(首鄕)·아관(亞官)이라고 하였는데,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수령의 권력을 견제하면서 향원(鄕員)의 인사권과 행정 실무의 일부를 맡아보았다. 갑오개혁 후 1895년에 향장(鄕長)으로 고치면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

면에 고시하여, 나타나는 대로 체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금광의 폐해가 어느 땅인들 없겠습니까만 본 고을의 경우는 극심합니다. 신은 금광의 폐해에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토의 결수가 날로 줄어들어 잃은 것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전야가 파헤쳐지니 농민들이 원망합니다. 셋째, 유랑민이 모여 도적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예전 명나라 말에 광민(鑛民)의 폐해가 끝내 유랑하는 도적을 만들어냈으니 거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신이 사건을 조사하던 어간에 직산군 동쪽으로 7여 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삼곡리 광소에 말을 타고 가서 몸소 지형을 살펴보았는데, 석광(石鑛)이 아니라 토광(土鑛)이었습니다. 좋은 밭과 기름진 땅이 곳곳에 파헤쳐져 높은 것은 구릉이 되고 깊은 것은 시내와 천이 되었으니, 이것들은 세대가 지나도 다시 전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온 군을 통틀어 계산해 보니 광진(鑛陳)은 92결 36부 6속이며, 같은 금광으로 경계를 접한 천안군의 광진은 24결 75부 1속인데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하여 결민(結民)들이 원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대체로 땅속에서 금이 나는 것은 본래 유한하여 곡식이 해마다 씨앗이 나와 끝이 없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유한하게 나는 것을 구하고자 하여 무궁한 이익을 잃으니, 그 득실이 과연 어떠합니까? 더구나 소비되는 것은 국고의 원액(原額)이요 소득은 간소한 소인배들의 전대입니다. 그리하여 각 금광에서 얻은 것이 번번이 소비된 바를 갚지 못합니다. 위로는 나라의 회계에 손해를 입히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생업을 해치는 것으로는 금광 같은 것이 없습니다. 간악한 백성들이 모여들고 이익 때문에 왔다가 이익 때문에 가니 살인과 강도짓과 같은 변란이 일어날 근심이 모두 여기에서 나옵니다. 대저 금광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가 듣기로 성충으로 이미 금광의 폐해를 깊이 살피시고 폐쇄하라는 영을 이미 삼남(三南)에 내렸다고 하니, 어린아이 같은 백성들이 다시 살아난 듯 기뻐하고 있습니다. 신의 발길이 닿는 곳에 덕의(德意)를 포고하고 백성들과 함께 축하하였거니와, 신은 청컨대 직산군과 천안군 두 고을의 광진 170결 11부 5속에 대한 세금을 속히 감면하라고 해당 부에 명하여 조정에서 백성을 근심하고 구휼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사의에 맞을 듯하옵니다.

신은 시흥군(始興郡)에서 이미 많은 날을 소비하여 본 고을에 늦게 당도하였는데, 주범은 폐사하였고 남은 무리도 이미 도주하였습니다. 허둥지둥 성안하여 안핵한 사실이 미비하니 삼가 황송한 마음 이길 수 없습니다. 신이 이로부터 돌아가는 연유로 삼가 상주하여 성지를 받들겠습니다.

아산군 현내면 공세지에서 죽은 남성 박정보의 복검 발사 [牙山郡縣內面貢稅地致死男人朴正甫覆檢跋辭]

모두 각 사람의 초사입니다. 옥사를 조사하는 법은 사안이 의심스러우면 터럭만큼의 차이가 천리나 잘못될 수 있고, 실정을 조사하면 한마디 말로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 옥사는 의심할 만한 것이 없고 정황은 조사할 것이 없습니다. 살해에 몽둥이와 칼이 사용되었고 손상은 초사와 증언에 모두 드러나, 부계(符契)⁸⁶처럼 명확하며 주범도 결론 났습니다.

실제 원인을 단정하는 것은 시신에 질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밝은 곳에 시신을 꺼내 놓고 먼저 마른 채로 검안하고, 이어 법물을 써서 준식대로 때를 기다렸다가 눌러보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앞뒤 양면에 곧 온전한 피부가 없고 오른쪽 가슴 아래에서부터 오른쪽 갈비까지 피멍이 단단하고 검게 들었는데, 모양이 큰 신발 같았으며 둘레 길이는 1척 4촌 5분이었습니다. 아랫배의 피멍도 단단하고 검게 들었는데, 둘레 길이는 또한 1척 4촌이었습니다. 뒷면의 오른쪽 넓적다리에 장흔(杖痕)이 남아서 피부와 살이 문드러졌으며, 붉은 부종이 앞뒤 넓적다리를 둘러싸고 오른쪽 무릎과 종아리, 오금과 장단지에 뻗었습니다. 이는 독기가 공격에 들어간 것입니다. 왼쪽 넓적다리의 장흔은 피부가 벗겨져 색이 붉으며 둘레는 또한 8촌이니, 이들이 허다한 증상의 상흔인 듯합니다. 6일 동안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던 것

86) 부계(符契) : 사신(使臣)이 외방으로 나갈 때에 지니고 가던 물건. 대나무를 두 쪽으로 갈라서 한 쪽은 조정(朝廷)에 두고 한 쪽은 사신이 지녀서 거짓을 예방하였다. 일반인들도 나무조각이나 두꺼운 종이조각에 글자를 쓰고 증인(證印)을 찍은 뒤에 두 조각으로 찢겨어 한 조각은 상대자에게 주고 다른 조각은 자기가 보관하였다가 뒷날 서로 맞추어 증거로 삼았다.

도 또한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실제 원인에 대한 판단은 발에 차여서라고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고, 장창(杖瘡) 때문이라 판단하여도 가능할 것입니다.

《무원록》에 이르기를, “빨리 죽는 곳에 치명상을 입으면 3일을 넘기지 못한다. 맞은 상처가 꽤 크면 대략 1~2일만에 죽게 된다. 상처의 크기가 깊고 중하면 즉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 갈비는 반드시 죽는 곳이고 아랫배는 빨리 죽는 곳인데, 오른쪽 갈비와 아랫배의 상흔의 크기가 이와 꽤나 크며 깊고 중합니다. 손상된 것으로 논하자면 즉시 죽었을 수도 있고, 또 3일을 넘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타격을 받은 후 걸어서 10리 떨어진 모언(牟堰)에 가서 두 개의 망건을 고쳐 만들고 6일 뒤에 죽었으니, 아마도 발에 차인 것이 아니라면 실인은 절로 장창으로 귀결됩니다.

《무원록》 장창사(杖瘡死) 조에 이르기를, “장창의 주위에 독기가 몰려 청흑색이 된다. 더욱 음낭과 양 옆구리의 갈비와 허리, 아랫배 등의 부위에 피멍이 있는지를 살핀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장종(杖腫)이 이처럼 넓고 크며 오른쪽 갈비와 아랫배의 피멍이 장창사조와 딱 맞으며 위아래로 비녀의 색을 살펴보니 모두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실인은 장창(杖瘡)으로 죽음에 이르렀다고 현록하였습니다.

사자인 박정보(朴正甫)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여 신세가 처량하였으며 동서로 돌아다니며 생애가 조잔(凋殘)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병이 입구를 막듯이 못하고 도끼 같은 혀를 놀렸겠습니까? 이는 몇 년 동안 주객의 정에서 나온 것이니, 뜻밖의 화색(禍色)이 평일 친지의 정에서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한(韓)나라에서 입이 신중하지 못하면 끝내 들끓는 듯한 재난을 만나게 되어 위(魏)나라의 구원이 미치지 못하는 법이니, 누가 몽둥이 놀란 혼을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이 나이 오순의 병 없는 몸으로 갑자기 구천의 제명에 죽지 못한 혼이 되도록 하였으니 사정이 실로 황당하고 참혹합니다.

사자의 친숙인 박하영(朴夏永)은 사촌이 흉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친족과 달려왔습니다. 나무 머리에 당도하자마자 사촌 형의 원통한 죽음을 탐문하여 곧장 모언(牟堰)으로 달려갔고, 마침내 최광률(崔光律)의 말을 통해 비로소 원통한 죽음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어코 복수하고자 하여 도로를 분주히 다니며 들

은 것을 납초하였으니, 따로 더 물을 단서가 없으므로 다만 재초를 받았습니다.

박봉순(朴奉順)은 본래 젊고 완악한 사내로 서교(西敎)⁸⁷⁾의 권문에 투탁(投托)하여 무고한 평민들에게 뱀이나 전갈 같이 굴어서 항상 속임수를 쓰고 싸우는 것이 습성을 이루었습니다. 당일의 행동은 완악이 모두 갖춰졌으니, 잡초를 김매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못하듯 악인이 곁에 있으면 양민이 불안한 법입니다. 박정보의 패악한 말이 그의 어머니에게까지 미쳤으니,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자가 드물 것입니다.

이미 낳아 기른 어머니가 아니라면 그 아버지가 힘들게 기른 것인데, 단지를 들고 술집을 마주하여 이미 정(鄭)나라 여인이 길을 따른 것과 같은 행색을 하고 문에 기대어 손님을 맞으니 어찌 위(衛)나라 아낙이 웃음을 판다고 욕하겠습니까? 설혹 수치심과 분노가 번갈아들어 경계하고 꾸짖는다면 무슨 할 말이 없을까 근심하여, 심지어 죽이려는 마음으로 살수를 써서 필시 살해하는 데 이른 뒤에야 그만두겠습니까? 처음에는 장작으로 때리고, 이어 돌덩이로 때렸는데도 오히려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때로 벌할 때 부자가 힘을 합치니 아버지는 묶고 자식은 몽둥이를 잡았습니다. 사랑이와 같은 성정으로 벌이나 전갈의 독을 휘두르려고 하였으니, 참나무로 된 몽둥이를 가지고 좌상이 호령이 내리기를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몇 대인지를 세지도 않고서 마음대로 난타하였으니, 사람의 모질고 독함이 어찌 이리 극심합니까? 그가 비록 도망 중이나, 몽둥이를 잡고 난타하는 것을 그 아버지가 꺼리지 않았던 것은 여러 초사에 또한 그러합니다. 흥한 입으로 우선 자복하지 않았더라도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범으로 박태순을 현록하였습니다.

또 죽일 만한 점은 백 가지가 있으나, 용서해야 할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식의 완악함은 생각하지 않고 끝내 범을 아끼는 듯한 자애로 그 자식이 죄를 범할 때 자신의 몸을 끌고 함께 저질러 장차 사지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고초를 겪고 있음에도 오히려 그림자도 비추지 않고 있으니, 윤리와 의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앞뒤로 저지른 흥한 짓이 만약 진정으로 어머니를 위해 그러한 것이라면 어

87) 서교(西敎) : 흔히 천주교(天主敎)를 가리키지만, 이 글에서는 당시 평택 지방에 교세가 왕성했던 성공회(聖公會)를 가리킨다.

미를 위하는 마음이 그 아비에게도 옳아가 마땅히 앞다투어 죽으려 해도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곧바로 도피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갖 악행은 죽일 만한 점을 모두 갖춘 사내이니 만약 나타난 곳에서 법대로 피살당한 사람의 목숨을 그의 목숨으로 갚지 못한다면 힘없는 백성들에게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해당 고을의 형교(刑校)에게 신칙하여 특별히 탐문하여 붙잡도록 하였습니다.

박치관(朴致官)은 본래 아버의 몫쓸 종자로서 여러 말이 두려워할 만하였는데, 양관(洋館)에 투신하여 호가호위(狐假虎威)하였으니 시류를 탈 만하다고 여겨 거문고를 뜯으며 쟁힐(爭詰)하며 방 안에 있었습니다. 미친 사내의 무례한 말은 뜻밖에서 나온 것인지라 분한 기운이 속에서 가득하고 성난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서 뺨을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이어 그의 자식이 발로 타격하였으나 남은 화가 풀리지 않고, 유씨(劉氏) 집안 묵은 화가 다시 불타오르며 평지에 풍파가 다시 일어나는 듯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리를 알았다면 그 자식이 앞뒤로 흉악한 짓을 한다면 마땅히 금지해야 할 터인데 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힘을 합쳐 함께 때렸습니다. 혼자서 사마귀가 수레를 당해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독수를 쓰기를 어찌 그리 낭자하였겠습니까? 그 아버가 병장기를 좋아하면 그 자식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전후의 정황은 형구를 쓰지 않고 물어보는 자리에서 한 번의 공초에서 자복하고는 오직 속히 죽기를 바라니, 그 신령의 눈이 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악이 이미 가득하기는 하나 그의 아들 봉순과 그 죄를 따지자면 양쪽에 경중이 없습니다. 실제 원인은 이미 장독으로 판단하였으니, 주범은 절로 몽둥이를 들고 난타한 봉순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옥안에 양범을 두는 법은 없으므로 다행히 주범이 되는 것은 면하였으나 중범의 죄목을 그가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박치관을 중범으로 현록하였습니다.

해당 동네의 이른바 좌상(座上)인 유성진(劉成辰)은 갑자기 박정보의 패악한 말을 듣고 분하여 주체하지 못하는 도리를 보였으니 그를 책망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떨어졌다면 설혹 해피망측 말이 취하여 거리낌 없는 입에서 나오더라도 듣고서 귀를 막을 수 있었고 몰래 입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 포구 모퉁이의

부랑자로서 감히 주처(周處)⁸⁸⁾와 같은 완악한 향리가 되어 그 패악한 말을 듣고 분노를 일으키고, 마음으로 전율하여서는 어리석고 완악한 봉순에게 크게 소리쳐 양관에 가서 고하게 하였습니다. 태벌(笞罰)을 가할 때는 봉순의 사나운 매질에 맡겨두고서 좌당에서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명이 원통하게 죽은 뒤에 죄목을 벗어날 계획으로는 다만 좌상의 명색이 있을 뿐인지라 가는 곳마다 해명한다고 하는데, 말이 이미 궁색하고 계교 또한 졸렬합니다. 만약 양관에 고하는 행동이 없었다면 절로 태벌이 없었을 것이고 태벌이 없었다면 절로 살변(殺變)은 없었을 것인데, 저 지극히 사납고 독한 사내에게 과중하고 과격한 매질을 맡겨 이 살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번의 이 살변은 한편으로는 성진이 양관에 고한 데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진이 좌당에 있으면 만류하지 않은 데서 말미암았습니다. 그 정상을 따지자면 죄가 봉순과 같습니다. 당시 광경으로 좌당자가 곧 자리에만 있었다는 것은 그가 진술한 바이니 비록 믿을 수 없습니다만, 곁에 있던 김영선(金永先)이 부지런히 매질을 독촉하고 그는 시종 말렸다고 하니, 애초에 손수 범행하지는 않았으나 중범이라는 죄목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유성진을 중범으로 현록하였습니다.

겨린[切隣]인 심순돌(沈順玆), 박천봉(朴千奉) 등은 하나는 남을 위해 고용되는 장인이고 하나는 동서로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으로, 해당 동네에서는 겨우 하루를 묵다가 붙잡힌 자들입니다. 그들이 진술한 것은 횡설수설하여 그렇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하니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어서, 열 번 물어도 취할 것이 없습니다. 관령풍헌 이정유(李正由)는 물은 대로 납초하여 따로 물을 만한 단서가 없으므로 겨린들과 아울러 다만 단초를 받았습니다.

최광륜은 우연히 친지인 박정보를 만나 다친 몸이 위중함을 보고 다방면으로 구료하였고, 박정보가 사망하자 그의 사촌에게 통보한 자이니 따로 물을 만한 단서가 없습니다. 사자의 친속의 초사에 나오므로 우선 연루된 것으로 두었으니, 사자의 친속

88) 주처(周處): 진(晉)나라 양선(陽羨) 사람으로, 자는 자은(子隱)이다. 젊어서는 용력(勇力)이 두드러져 향리에서 행패를 부리는 탓에 사람들이 남산(南山)의 호령이, 장교(長橋) 아래의 교룡(蛟龍)과 함께 '삼해(三害)'라고 칭하였는데, 뒤에 주처가 호령이와 교룡을 모두 죽인 다음 자신은 개과천선하여 학문 공부에 독실하였다. 관직이 어사중승(御史中丞)에 이르렀으며, 제만년(齊萬年)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토벌하려 갔다가 전사하였다. 저서로는 《풍토기(風土記)》 등이 있다.

과 아울러 다만 재초를 받았습니다.

장언범(張彦凡)은 망건을 고치기 위하여 그의 집에서 박정보를 맞아들였으니 이를 동안 함께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자의 친속의 진술에 따라 불러들일 점이 있었으나 옥사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차례 자세히 심문한 뒤 항목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공세지에 거주하는 서생인 김영선(金永先), 이명운(李明云), 김성순(金聖順), 김성근(金聖根), 임정원(林正元) 등 다섯 사람은 여러 조사에 나오므로 모두 물어볼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울러 영을 내려 불러들였는데, 어떤 이는 도주하고 어떤 이는 양관에 숨어서 한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증이 이로 인하여 미비하니 옥안이 소홀함을 면치 못하여 실로 황송합니다. 대저 호민(湖民)의 고충은 오로지 박치관 무리가 효시(嚆矢)이자 전모(前矛)인 것에 말미암을 뿐입니다. 이들을 만약 특별히 싹트기 전에 막고 물이 스미기 전에 막지 않는다면 말류의 폐해는 필시 장차 무성히 줄기를 내린 뒤 구제하기 어려운 꼴이 될 것입니다.

본 군의 지자호 시장(屍帳) 세 건을 대조 검토하여 작성하여 보냅니다. 한 건은 사자의 친속에게 주고, 한 건은 관아에 올리며, 한 건은 아울러 함께 수감된 무리들을 책으로 만들었으니 모두 올려보냅니다. 시체는 복검 후 도로 방 안에 넣고 회인봉포하여 잘 지키라 신칙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추운 계절에 오래 머무는 것 또한 염려해야 할 바이므로 최광률, 장언범 등 두 사람은 아울러 각자의 식주인에게 보방(保放)⁸⁹⁾하였습니다. 겨린 심순돌, 박천봉 등은 이미 뿌리를 둔 자가 없으므로 박치관, 유성진 등과 함께 모두 해당 군의 형쇄에게 보내 맡겼습니다. 군수가 이로부터 임지로 돌아가는 연유로 보고 합니다.

89) 보방(保放) : 조선시대에 죄수의 건강이나 유교 윤리상 수금(囚禁)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죄인을 일정 기간 동안 보증인을 세우고 풀어 주던 것을 말한다. 병으로 인한 보방과 친상(親喪)으로 인한 보방 등이 있으며, 병이 낫거나 친상을 치른 뒤에는 재수감하였다.

야산 정두진의 산송 도형장에 대한 제사 [牙山鄭斗鎭山訟圖形狀題]

이 산송(山訟)은 금지한 자는 보수(步數)가 매우 가깝다고 하고, 장사 지낸 자는 앉거나 섰을 때 모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도형을 가지고 보면 장사를 지내는 것과 금지하는 것은 과연 각기 근거할 만한 단서가 있다.

그러나 장(張)씨가 이미 정(鄭)씨에게 산을 팔았으니 산은 정씨의 산이지 장씨의 산이 아니거늘, 도리어 이미 매각한 산에 몰래 장사를 지냈으니 어찌 법조문을 벗어나 고의로 저지른 죄가 아니겠는가. 응당 즉시 파내도록 해야 하겠지만 이미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무덤을 파서 옮길 것’이라고 슬픈 말로 간절하게 청하니, 정세(情勢)를 걱정하여 특별히 우선 석방한다. 만일 기한이 지나도 파내지 않는다면 반드시 응당 뒤미처 후회해도 미칠 수 없는 날이 있을 것이다.

포의사 단장 창녕현감 정태규 등의 품장에 대한 지령⁹⁰⁾ [褒義祠壇長鄭昌寧泰珪等稟狀指令]

이 품사를 보니 여러 장보(章甫)⁹¹⁾들의 현인을 사모하는 성대함은 참으로 흠양하는 바이지만, 이는 재정(災政)의 중요한 바와 관계되었으므로 여러 백성이 스스로 원하는 일이라 하여 갑자기 전이(轉移)할 수 없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도와줄 수 없는 일이다.

90) 지령(指令): 지령은 하급 관리의 질품서 및 청원서에 대해 상관이 지시를 내릴 때 사용하였던 서식으로,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제정되었다. 「공문류별급식양(公文類別及式樣)」에 따르면 지령은 “하급 관리의 청원서 및 질품서에 대해서 상관이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전에 사용하던 보장(報狀)에 대한 제사(題辭)는 폐지하고 지령이라고 개칭할 것을 지시하되, 단 하급 관리의 질품서 및 청원서 하단에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질품서 및 청원서를 받은 해당 관청의 인찰지(印札紙)를 따로 만들어서 작성하도록 하였다.

91) 장보(章甫): 유자가 쓰는 관인데, 검은 베로 만들었다. 공자(孔子)가 장보관(章甫冠)을 썼으므로, 후대에 유생(儒生)들이 장보관을 많이 썼다. 유생(儒生), 선비라는 뜻으로도 쓴다.

근효곡 정필석의 처 경주 김씨가 효열(孝烈)한 일로 전 교리 홍사필 등의 품장에 대한 제사

[勤孝谷鄭必錫妻慶州金氏孝烈事 前校理洪思弼等稟狀題]

정씨(鄭氏) 집안이 대대로 효도로 독실하다는 것은 전에 들어 알고 있는 바이지만 또 이 쌍전(雙全)의 효열이 있는 것을 보니 이 탁이(卓異)한 행실은 족히 일대에 풍성(風聲)을 세우고 백 대에 향기가 퍼질 듯하다. 아! 성대하다. 포양(褒揚)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삼가야 하는 바와 관계되니, 더욱 널리 채집하여 사체를 존중해야 할 일이다.

명례궁⁹²⁾ 수세파원⁹³⁾ 한용기의 장문에 대한 제사

[明禮宮收稅派員韓用冀狀題]

잡세를 혁파하여 상민의 혜택이 커졌지만, 영(令)이 있기 전에 거둔 것에 대해서는 빙자하여 내어주지 않는 것은 비단 인심에 근거할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의 사례를 알지 못하고 또 끝내 후회가 이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이 제작(諸作)이 어찌 모두 몰지각한 사람이겠는가. 그중에 반드시 물을 흐리는 한 마리 물고기가 있어서 전부 사리가 없게 된 것이니, 끝내 중인들의 해를 초래할 것이다. 순교(巡校) 1명이 입회하여 출송(出送)하고서 영이 있기 전에 거둔 조(條)는 날날이 찾아서 내어주어 즉시 올려보내도록 하되, 만일 다른 의견을 내며 완강히 항의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잡아들일 일이다.

92) 명례궁(明禮宮) : 왕비의 토지를 관리하는 궁방(宮房). 명례궁은 속궁(屬宮)으로서 비빈들이 사는 주거용 건물이나 소유주의 사유재산을 보관하고, 그 궁에 딸린 토지에서 거두어들이는 조세로써 소유주의 사적 경제 생활을 관리해 주던 곳이었다. 역대 명례궁의 주인공을 살펴보면 인목대비, 장렬왕후, 인현왕후, 해경궁 홍씨, 효의왕후, 순원왕후, 철인왕후, 명성황후 등이 있으며, 명례궁 소유 토지가 평택에 많았다.

93) 수세파원(收稅派員) : 평택에 있는 명례궁 소유의 농지에 조세를 거두러 파견된 관원. 오황목이 군수로 재임하던 시기의 명례궁 평택 추수 기록으로는 《명례궁추수기(明禮宮秋收記)》(1903), 《명례궁평택추수기(明禮宮平澤秋收記)》(1904), 《명례궁추수책(明禮宮秋收冊)》 등 3권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호치동 한도형 집안의 일을 조사한 보장⁹⁴에 대한 지령 [虎峙洞韓道衡家事查報狀指令]

사실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으니 비단 놀랄 뿐만 아니라, 신중을 다하는 도리에 있어서도 사화(私和)했다고 해서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본 동(洞)의 임장(任長)을 말하자면 즉시 달려와 보고하지 않아 관의 신칙(申飭)이 있는 뒤에야 대응하였으니, 합하여 경책(警責)하는 것이 옳다. 지금 우선 참작하여 용서하거니와, 한경팔(韓景八)은 해당 동에서 체포하여 잡아 올리기를 기약할 일이다.

근내동 안희천의 의송장⁹⁵이 도착한 데 대한 지령 [近乃洞安熙天議訟狀到付指令]

천 그루 나무를 심은 것은 정민(鄭民)의 공초에서 시종(始終) 변하지 않아 1000냥을 상환하였으니 두민(頭民)⁹⁶의 논의에서 모두 합당하다고 칭송하고 있으며, 수감 중인 백성을 풀어주라는 부제(府題)가 저녁에 도착하여 익일 아침에 석방할 것이니 너는 반드시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지금 의송장의 말을 보니 만약 그루의 나무를 심고 수만금을 청구했다는 말과 풀어주라는 부제가 도착했는데도 아직 돌아가게 하지 못했으니, 어찌 엄격함과 경책함이 없는 습속과 같은 것이 있는가 하고 운운하는 자는 이 얼마나 근거 없는 말인데, 너는 무고하고 날조하여 건송(健訟)⁹⁷하였으니 미루어 헤아릴 수 있다. 이와

94) 보장(報狀) : 하급 관아에서 어떤 사안을 논하여 상급 관아에 보고하는 공문으로, 오늘날의 보고서와 같은 의미의 역사 용어이다.

95) 의송장(議訟狀) : 소송에서 진 경우를 '낙송(落訟)'이라 하고 판결에 굴복하는 것을 '이굴(理屈)'이라 한다. 경우에 따라 소송에 진 사람은 기한 내에 처분을 이행하겠다는 다짐장을 작성하거나, 이것에 불복할 경우는 다시 상급관원인 감영에 절차에 따라 소장을 작성해 올린다. 이를 '의송장'이라 하는데, 원래 의송이란 말은 관찰사가 수령에게 내리는 제사(題辭)라는 뜻이었으나, 16세기 이후 관찰사에게 올리는 소장이란 뜻으로 변화했다. 소지를 작성할 때 수령을 거치지 않고 관찰사에게 바로 의송장을 올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96) 두민(頭民) : 나이가 많고 식견이 있어 한 마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토호(土豪)를 말한다.

97) 건송(健訟) : 《주역(周易)》《송괘(訟卦)》 단(象)에, “위는 강하고 아래는 험하여 험하고 굳센 것이 송이다.[上剛下險 險而健 訟]”라고 한 데서 나온 말로, 성품이 험악하여 특하면 남하고 쟁송(爭訟)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민습(民習)은 약하게 처벌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니, 다만 응당 보부(報府)하여 징계하여 처리할 일이다.

신성포에 장시를 설치해달라는 소장에 대한 제사 [新成浦設場訴狀題]

우리 군(郡)에 여덟 가지 없는 것[八無]을 일컬을 때는 장시(場市)⁹⁸가 없다[無市]는 것을 가장 먼저 꼽았다. 가령 역려(逆旅)의 관원이라도 또한 개탄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이곳에 거주하면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있어서랴.

여정(輿情)이 이미 이와 같고 상려(商旅)도 상품을 저장하기를 원한다고 하니, 이는 도모하여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할 만하다. 장시를 설치하는 일자는 지적(指的)하여 다시 소장을 올릴 일이다.

서근리의 두민 박인규의 소장에 대한 제사 [鋤斤里頭民朴仁圭訴狀題]

지난번에 이(李)가의 고소에서 그의 광패(狂悖)한 말을 미루어 알았는데, 즉시 초대(招待)하라고 명령한 것은 대개 참작하여 헤아린 것이 있는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대면하여 조사하는 자리에 미쳐서 이가의 무고한 정절(情節)이 십분 허황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초대하여 당장 풀어준 것이다. 너를 가두게 된 것은 무망(誣妄)

98) 장시(場市) : 농민·수공업자 등 생산자 및 보부상들이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물품을 매매하는 지방의 정기시(定期市)로, 15세기 후반 전라도 지역에서 발생하여 16세기에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18세기 중엽에는 전국적으로 1000개 소 이상이 개설되어 전국적인 유통망을 형성하는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장문(場門)·향시(鄉市)·허시(墟市)라고도 한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서울의 상설 시장 인 시전(市廛)을 중심으로 상업을 통제·독점하기 위해 장시를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농민들의 잉여 물자가 늘어 유통의 필요성이 커지는 한편 일부 농민들이 흉년으로 몰락하여 장시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금지할 수만은 없었다. 이 때문에 장시의 개설에 따른 폐단의 유무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을 믿고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바로 훗날을 징계하고자 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원통함을 호소하였으니 특별히 그 심정을 가련히 여겨 풀어주거니와, 이른바 집물(汁物)이 부서지고 상한 것은 또한 비급(備給)하여 다시 난리를 피우는데 이르지 않도록 할 일이다.

남면의 면장 이윤식이 도약장⁹⁹으로서 대신할 면장을 택정하여 개차하고자 하는 장문에 대한 제사 [南面長李允植以都約長 擇定代面長改差狀題]

향약(鄕約)¹⁰⁰ 한 항목은 모두 면장이 항상 행하는 규칙이다. 이에 근거하여 부약장(副約長)은 각 면의 면임(面任)이 겸임하는데, 어찌 유독 도약장(都約長)에게만 보고를 행하도록 하는가.

해당 면장의 풍의(風儀)와 논변(論辯)이 한 고을에 신뢰를 얻은 지 오래되었으니, 반드시 간사(幹事)를 겸하게 한다면 즉시 여력이 넉넉해질 일이다.

99) 도약장(都約長) : 조선시대 지방의 리(里) 단위의 행정 감독을 맡은 직책이다. “한 면(面)에는 도존위(都尊位)를 정하고 한 이(里)에는 도약장(都約長)을 두되, 반드시 면이나 이에서 신망할 만한 지별(地閥)이나 재행(才行)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향약의 규정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이들로 하여금 조정에서 농서(農書)를 반하(頒下)하기를 기다려 열두 달의 월령(月令)을 나누어 만들어서 농가(農家)에서 반드시 행할 일에 대해 매달 초에 농민들에게 방법을 읽어 주고 따져 묻게 하여, 농민들이 때를 앞서거나 때를 놓쳐서 월령을 어기지 말고 논밭으로 나아가는 것을 적절히 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 권하여 도와주게 하고, 농사를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은 모두 모아서 타이르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곧 면의 전준(田畧 권농관)이고 마을의 보계(保介 권농관의 보좌)입니다.” 《정조실록》 23년(1799) 2월 11일 기사.

100) 향약(鄕約) :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취지로 한 향촌(鄕村) 단위의 자치 규약(自治規約). 본디 중국 북송(北宋) 말엽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이 있었는데, 조선 태조가 즉위한 뒤 제정한 《풍패읍향약안(豊沛邑鄕約案)》이 있었고, 그 뒤에 퇴계(退溪)가 만든 예안향약(禮安鄕約), 울곡(栗谷)이 만든 해주향약(海州鄕約) 등이 있다

내수사전(內需司田)¹⁰¹을 조사할 때 서북 양면의 대소 인민들이 올린 소장에 대한 제사 [內需司畚查檢時 西北兩面大小民人等狀題]

양평(兩坪) 전답은 공토(公土)라는 2자(字)가 읍에서 근거할 만한 것이 없지만 어떤 연유로 사검(查檢) 중에 혼입되었을지라도 자호(字號)의 차례는 군(郡)의 양안(量案)에 분명히 실려 있으니 상전(桑田)이碧海(碧海)가 되는 큰 변화가 아니라면 또한 미루어 알 수 있다.

지금 공문을 가지고 검사한 땅에 대해 관에서는 감히 왈가왈부할 수 없으나, 사토(私土)임이 분명하다면 어찌 근거 없이 관청의 소유로 넘길 리가 있겠느냐. 반드시 분명히 밝혀질 날이 있어야 할 일이다.

신창 이반의 소장에서 마을의 정덕수에게 추대(推貸)와 관련한 답송 제사 [新昌李班訴狀內里鄭德洙處所推畚訟題]

너는 비록 빚으로 꾸어 주었으나 그가 자백하지 않으니 두 사람의 공초가 상반되어 즉시 판결하지 못하던 즈음에 ‘소장에 의거하여 추급(推給)하라’는 부제(府題)를 받았기 때문에 추급 차사(次使)를 함께 기다렸고, 네가 뜰에 들어오지 않아 또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한쪽 말만으로 갑자기 처단(處斷)할 수 없었다.

금일에 이르러 네가 부정(府庭)에 가서 처판(處辦)한 말로 도리어 논박(論駁)하니 너의 주견(主見)을 헤아리기 어렵지만, 부지(府指)가 내려와 지체되는 것이 염려스러우니 변론하고 대질하는 차에 피고를 다시 잡아들일 일이다.

101) 내수사전(內需司田) : 조선시대 국왕들은 본궁(本宮)에 사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내수사(內需司)에 부속된 전토를 말한다. 내수사는 1466년에 내수소(內需所)의 격(格)을 올려 개칭(改稱)한 관청으로, 궁중(宮中)에서 사용하는 미(米)·포(布)·잡물(雜物)과 노비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순조 연간에 편찬된 《만기요람》에 의하면 내수사전은 3,797결에 달했다고 한다. 내수사전은 면세지(免稅地)이며, 경작 농민에게는 국역(國役) 또는 환곡 등을 면제시켜주기도 하였다

김교철의 장문에 대한 제사 [金敎哲狀題]

너의 정세(情勢)가 불쌍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는 보수(步數)¹⁰²의 원근에 서로 관계된 것이 아니다. 다만 장사를 지낸 뒤에 한 동(洞)의 30호에서 우환이 계속되어 사망한 자가 6, 7명이 된다고 하니, 중정(衆情)을 염려하는 마음이 어찌 궁민(矜憫)하지 않겠는가. 특별히 해당 동의 생명의 존망을 위하여 중원(衆願)에 따라 이장(移葬)할 일이다.

원정리의 농기(農旗)와 두레에 관한 등장¹⁰³에 대한 제사 [院井里農旗頭例等狀題]

이른바 두레는 또한 농업을 권장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일찍이 다른 군(郡)의 수령을 지내면서 혹 분분한 폐단이 있으면 해당 동(洞)의 좌상(座上)들을 초치하여 화해하도록 타일러 신칙한 적이 많았다. 이제 이 소장을 보니 읍(邑)과 동을 자세(藉勢)¹⁰⁴하여 외부의 마을을 멸시하여 제어하고 능멸하여 선후를 구별할 수 없으니, 이 어찌 말이 되겠느냐.

사판(查辦)하는 마당에 미쳐서 읍과 동에서는 갑술년에 창설되었다고 하였으나, 일단 근거할 바가 없으니 그 말을 일임하여 판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전처럼 봉우의 예로 시행하고 기두(旗頭)와 기폭(旗幅)은 모두 해당 동에 돌려주도록 할 일이다.

102) 보수(步數) : 조선시대에는 뒷자리를 정할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집안의 무덤이나 가옥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었다. 기존의 무덤과는 품질(品秩)에 따른 소정의 보수(步數) 이상 떨어져야 하고, 이를 어겼더라도 2, 3년이 지나도록 문제 삼지 않았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정해진 보수 밖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무덤의 용호(龍虎) 안에는 무덤을 쓸 수 없고, 인가(人家)의 백 보 이내에는 무덤을 쓸 수 없다는 등이다. 《大典會通 刑典 聽理》

103) 등장(等狀) : 여러 사람이 연명(連名)하여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이나 청원서·진정서이다. 소지(所志)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올리지만, 등장은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올리는 점이 다르다. 등장(等狀)이라고 하게 된 연유는 소장의 머리에 “누구 누구 등은 아뢰니다.”고 한 데서 나온 듯하다.

104) 자세(藉勢) : 어떤 권력이나 세력 또는 특수한 조건을 믿고 세도를 부림.

군물포의 편재규 등이 장시를 설치해 달라는 소장에 대한 제사 [軍勿浦片在奎等設場市訴狀題]

장시(場市)라는 것은 읍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본 군에는 처음에 하나의 장 시도 없어서 항상 한스럽게 여겼는데, 지금 너희들의 올린 글을 보니 백성들의 똑같은 바람에서 나온 것임을 알겠다. 특별히 이에 허가하거니와 장시를 설치한 뒤에 규정이 엄정하여 흥왕(興旺)하는 지경에 순순히 이른다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러나 만약 도리어 이익만을 탐하고 공효가 세워지지 않고 폐단이 먼저 나타난다면, 일없이 일만 만들고 한갓 정령을 어지럽혔다는 죄를 너희들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알고 깊이 유념하여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

소북면 동쪽 방죽의 수구 완축장에 대한 제사 [小北面東堰水口完築狀題]

창상(蒼桑)의 변화는 항상 밀물과 썰물처럼 급작스러우니, 이것이 만약 이런 완축(完築)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것은 가깝고 저것은 멀다는 말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어찌 조석(朝夕) 간에도 보전하기 어렵다는 근심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른바 이서(二西)는 비록 멀다고 하지만 이는 백성과 크게 관련된 일인 듯하니, 어찌 남 일 보듯 하여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효칙(曉飭)을 여섯 각 동에 가져다가 일제히 힘을 합하여 이른 시일 내에 완축하되, 혹 고집스럽고 어리석어 따르지 않는 백성이 있다면 즉시 잡아 올 일이다.

수원 김은성의 소장에 대한 제사 [水原金殷成狀題]

과연 소장의 말과 같다면 비록 몹시 원통하더라도 어찌 차마 해를 넘길 수 있었는가? 지난 가을과 올봄에 소장을 올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무슨 일로 은피(隱避)하다가 지금 또 오니 이것이 무슨 사리(事理)인가? 또 빼앗긴 소의 주인은 그대로 있는데 대신하는 사람이 원통해하니, 전후 사정의 흔적이 심히 의심스럽다. 명백히 조사한 뒤 입품(入禀)하여 원통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할 일이다.

김은성을 사품한 장문(狀文)에 대한 배제 [金殷成查稟狀背題]

송사를 온당하게 판결하는 것은 반드시 명백한 증거로 하여야 한다. 지금 이 사질(查質)은 서로 모순이 되니 스스로 의심스러운 점이 한 가지만이 아니다. 대저 나의 물건을 잃고 도리어 도둑이라는 이름을 뒤집어쓴 것이 첫 번째 의심스러운 점이다. 원통함을 가지고도 밤을 무릅쓰고 도망하여 몸을 감추는 것이 두 번째 의심스러운 점이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면서도 농사에 힘쓴다고 핑계대고 은닉하여 드러내지 않은 것이 세 번째 의심스러운 점이다.

일찍이 수원시(水原市)에서 짐을 싣고 남양(南陽)을 향해 돌아왔다고 하더니, 지금은 수원장에서 판매하고자 하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편포(片浦)로 옮겼다고 일컬으니 어찌 그리 언단(言端)의 전후가 서로 어긋나는가? 그러나 또 장사에서 매각하였다면 응당 짐을 싣는 안구(鞍具)가 없었을 것이고, 만약 남양으로 돌아왔다면 필시 우회하는 길로 가지 않았을 것이니, 네 번째 의심스러운 점이다.

그중에 은비녀 같은 종류는 본래 향곡에서 소를 파는 무리가 지니고 다닐 물건이 아니니, 어찌 그 속의 참과 거짓을 알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일용하는 농우(農牛)를 버려두고 몸에 보물을 지니고 다녔는데, 하물며 극악한 이름을 뒤집어쓴 지 이제 17개월이 되었으나 한만(汗漫)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으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던 말이나. 연사가 이치에 어긋나고 실정이 근거가 없으니 다섯 번째 의심스러

운 점이다.

이 다섯 가지 의문점으로는 급작스레 판단할 수 없으니, 실정에 근거한 호소를 기약하여 혹 숨은 원통함이 없도록 하되, 만약 또 말을 꾸며내어 잘못을 가린다면 당연히 해당하는 율(律)이 있으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직산 향장¹⁰⁵⁾ 정양석의 도부장¹⁰⁶⁾에 대한 제사 [稷山鄉長鄭養錫到付狀題]

지난번 김민(金民)의 발괄(白活)¹⁰⁷⁾로 폐단을 일으킨 예졸(隸卒)을 잡아 올렸다. 구류(拘留)된 백성을 풀어주는 일은 만 하루만에 전령(傳令)하였으나 예졸이 기다리지 않고 백성을 풀어주지 않았으니, 그가 단련(鍛鍊)한 것이 더욱 심했다. 김(金)의 호소가 거듭 이르자 다시 순교(巡校)를 파견하였으니, 그 거행에 있어 어찌 이처럼 흐지부지 넘긴단 말인가.

또 와서 보고한 것을 보니 사람을 상해한 김반(金班)을 집류(執留)한 것은 혹 관참지만 옥졸은 구류하는 폐단이 없어야 한다고 원만하게 신칙한 뒤에 연이어 상해를 입은 사람의 병상(病狀)을 탐지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예졸 두 명을 잡아 올리는 한 항목은 애초에 거론되지 않았으니, 이 같은 겸관의 권리로 애초에 예졸을 징계하는 예가 없었는가라고 할 일이다.

105) 향장(鄉長): 조선시대에 지방의 자치 기구인 향청(鄉廳)의 우두머리를 좌수(座首)·수향(首鄉)·아관(亞官)이라고 하였는데,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수령의 권력을 견제하면서 향원(鄉員)의 인사권과 행정 실무의 일부를 맡아보았다. 갑오개혁 이후 1895년에 향장(鄉長)으로 고치면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

106) 도부장(到付狀): 공문을 접수하였다는 보고서이다.

107) 발괄(白活): 조선시대에 일반 백성들이 관부에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기 위하여 올리는 청원서이다.

경양 장연의 소장에 대한 제사 [慶陽張燕訴狀題]

이 송사를 담당하면서 참으로 지리함을 느낀다. 선가(船價) 중에 3천 냥에 해당하는 돈은 이미 네가 갚아야 할 것인데, 이리저리 핑계 대어 끌다가 일 년이 다 되었다. 이제 와서 고경숙(高景叔)과 서로 힐문하던 즈음에 수수료[中費] 1천 2백 냥이 있다고 핑계 대며 갚지 않았다고 하였다. 너의 당초에 이 돈을 설계하면서 장차 앞으로 부비(浮費)로 모두 없애려는 계획이었느냐? 고경숙의 온당(穩當)한 수표(手票)가 이미 박준대(朴準大)에게 있는데 추후에 너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남을 가리켜 강도라고 하니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 할 만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상원(上院)의 지칙(指飭)이 있으니 직산(稷山)의 관원이 너의 아들을 잡아 가두었다고 한다. 기한을 넘겨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선박 집물(什物)의 임무에서 해제된 것이다. 지금 이미 환관(還官)하였으니 끝까지 가서 하소연하되, 선박의 장물(裝物)은 이미 겸무(兼務)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우선 내어줄 일이다.

서면 창내 보리 경작인 등의 소장에 대한 판결제 [西面滄內牟耕作人等訴判決題]

면보(面報)와 물의(物議)로써 참작하고 증초(衆招)와 대질(對質)로 상고하여 시비가 즉시 판가름 났다. 예덕민(芮德敏)이 그의 전답으로 물을 댈 적에 은혈(隱穴)이 새서 인근의 보리에 퍼진 것은 곧 의도치 않은 과실이지만, 이공선(李公先)은 새는 것을 보고도 고의로 물을 통하게 하여 일평(一坪)의 보리밭이 곧 물바다가 되었으니 이는 무슨 까닭으로 한 것인가? 의도치 않은 과실은 그래도 혹 용서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재앙을 일어나게 한 것은 피할 길이 없다.

그 경중을 따져보면 보리 모종 8석 16두는 이치상 진실로 이공선에게 이징(移

徵)¹⁰⁸⁾하여야 한다. 예덕민이 일찍이 물을 그 전답에 흐르게 한 것으로는 담장의 모퉁이에 불과하다는 혐의가 없을 수 없지만, 5석의 모종을 징급(徵給)한다는 뜻으로 이미 약조가 되어 있다고 말하였으니 그 나머지 3석 16두는 이공선에게 이징한다. 여기저기서 두 사람의 과실로 연유하여 백성들의 결실이 없게 되었으니,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 매우 근심스럽다. 지나간 일은 이미 좃을 수 없으니 각각 생업에 편안할 일이다.

판결서. 북면의 면장 및 근내동의 정씨 종중에 고시함 [判決書 告示北面面長及近乃洞鄭氏宗中]

본 동(洞)에 거주하는 정태신(鄭泰新)이 사적으로 정태형(鄭泰亨) 처의 무덤을 파낸 일로 정태형의 고소한 바에 따라 정태신을 잡아 가두었거니와, 이 같은 사람은 효우(孝友)하는 가문으로 일컬어져서 받을 양보한다는 풍조를 듣지는 못하였는데 도리어 산을 다투는 변고가 생겼다. 다만 평소의 기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또한 문을 닫으려는 마음도 없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일에는 대소가 있고 법에는 경중이 있으니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내는 것은 참으로 군(郡)에서 직단(直斷)할 것이 아니고 응당 상부에 보고하여 논감(論勘)해야 하지만, 이미 종중에서 사화(私和)한다고 등소(等訴)하였고 또 정태형의 풀어달라는 청원이 있으니, 송사를 없게 하려는 뜻에 있어서 짐작하여 헤아릴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형률로 논하자면 경법(經法)을 크게 위반한 것이요,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내고는 해당하는 형률을 면하고자 하니, 이를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차마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까닭에 정태신을 지금 감옥에 가두었으니, 폐습을 징계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대개 정태신으로 말하자면 죄가 무덤을 파는 것을 범하였으니 의당 즉시 자수해야 하는데도 편안히 집에 있었다. 마치 집안에서 당연히 하는 일로

108) 이징(移徵) : 세금이나 부담금 등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매겨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인식하고 있었는가? 이것은 또한 헤아리기 어렵다.

또 정태형으로 말하자면 형제간의 싸움에서 번고가 발생한다면 의당 외부의 모욕을 생각하여야 하는데 뜰을 지나 관청에 고소한 것은 혹 화가 나서 생각하기 어려웠던 까닭인가? 이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대저 같은 조부를 둔 같은 손자는 그동안 서로 장사 지내고 지켜주는 것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너와 나를 말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데에 이르렀으니 만약 선영(先靈)이 지각이 있다면 생각건대 응당 구원(九原)에서 슬피 곡하실 것이며, 또 후손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여 필시 응당 백 대 뒤에서도 혀를 찰 것이니.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옥(獄)에 가둔 지 이미 한 달이 넘었으니, 죄는 진실로 충분히 징계하였다. 그러므로 특별히 처벌이 가벼운 법을 적용하니, 정이 두텁고 화목해지는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다. 수감 중인 정태신은 호소에 따라 풀어주고, 정태형의 처 무덤을 환장(還葬)할지의 여부는 오직 여러 정씨들의 종의(宗議)가 어떠한지에 달려 있다. 관에서는 피차의 사이에서 권장하거나 금지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살펴 알고 조치할 일이다.

농형 보고문 [報告農形文]

본 군(郡)의 농형(農形)¹⁰⁹⁾은 이미 차례로 조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보리는 삼농(三農)¹¹⁰⁾의 바탕이 되는 근본이자 반년의 명맥인데, 황모(黃蠡)의 재해를 입어 수확이 전혀 없었으니 설령 가을에 추수를 하더라도 가을을 앞두고 굶어 죽는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달에 폭우가 내려 양판(秧坂)이 탁한 물결에 유린 되어 홀로 모종의 연약한 줄기만이 따라서 썩어 문드러졌으니 비록 단비가 내리더라도 모가 부족하여 논이 진폐(陳廢)된 것이 거의 반이나 됩니다.

109) 농형(農形) : 농형은 농사(農事) 형편(形便)의 준말로서, 농사의 진행 상황 또는 작황을 말한다. 지방관은 농사가 시작되는 춘분에서 추분 사이에 대체로 열흘 간격으로 농형을 보고하였다.

110) 삼농(三農) : 언덕과 습지(濕地)와 평지(平地)의 농사를 말한다. 《주례(周禮)》〈천관총재(天官冢宰) 태재(太宰)〉에 “삼농에서 아홉 가지 곡식을 생산한다.[三農生九穀]”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이 “삼농은 평지와 산과 못이다. [三農平地山澤也]”라고 해설하였다.

지금 두 달 동안 극심한 가뭄을 보니 사방의 들판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약간 옮겨 심은 것은 미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바로 말라버렸습니다. 소서(小暑)가 이미 지나가 초복(初伏)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비가 내릴 뜻이 아득하니, 농사일과 백성의 마음이 모두 매우 불쌍합니다. 이상의 연유를 이에 보고합니다.

공주부에 재정(災政)을 보고하는 개장(槩狀)¹¹¹⁾ [槩狀報府災政文]

본군의 농사가 참혹한 흉년을 면하지 못한 실태는 이미 보고하였습니다만, 대개 이러한 재정(災政)은 백성과 나라에 아울러 관계되어서 감히 추호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으므로, 군수가 각 면(面)에 재해당한 곳을 곳곳마다 몸소 점검하여 정실하게 집총(執摠)¹¹²⁾한 후, 연분(年分)¹¹³⁾과 응세(應稅)¹¹⁴⁾ 성책(成冊)을 둘 다 수정하여 우두머리 아전에게 가지고 올리게 하였습니다.

본군이 본래 바닷가 들판이어서 수원(水源)이 본래 없고 지력(地力)이 몹시 척박하니, 요행히 비와 햇볕이 알맞더라도 풍년의 즐거움을 바라기 어려운데, 올해는 못자리가 처음부터 두 달이나 가물어 바짝 말라붙은 뒤에 열흘이나 큰 비가 내려 파묻혔으니, 모[稭]가 부족하여 모내기를 하지 못한 곳이 절반이나 됩니다. 그 나머지는 윤 5월 17일에 비가 내렸기에 물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중복이 지난 뒤에 늦게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철이 이미 늦어져서 알갱이가 생겨도 쪼그라들어 자라지 못하고, 어찌다 이삭이 맺혀도 시들어 늘어지지 못하니, 들판이 아직도 푸른 빛이고 누런 곳이 라곤 거의 없습니다. 눈길이 닿고 보이는 것이라곤 모두가 참담하고 민망할 뿐이기에, 그러한 연유를 보고합니다.

111) 개장(槩狀) : 대개장(大槩狀)이라고도 하는데, 개략적으로 중요 내용을 적은 문서이다. 주로 군현(郡縣)에서 매년 토지의 연분(年分) 등급을 기록하여 보고하는 문서를 말한다. 각 지방 수령은 매년 추수 뒤 관할 지역의 재해 총액과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실제 결수(結數)를 조사하여 감영에 보고하였는데, 이 대개장이 국가에서 각 도의 면세율을 책정하는 기본 자료가 되었다.

112) 집총(執摠) : 농작물의 잘되고 못된 상태를 조사하여 세금의 총수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113) 연분(年分) : 전세(田稅)를 결정 수납하는데 있어서, 그 해 농사의 형편을 보아 세납액을 정하는 것. 즉 매해 9월 보름 전, 지방의 도백(道伯)과 수령(守令)이 연사 관계를 조사 심의해서 보고함에 따라 시행한 것인데, 농형에 따라 상상년(上上年)에서 하하년(下下年)까지 9등으로 나누고 세납액은 1결(結)에 대하여 상상년에는 2두(斗), 이어 2두씩 체감하여 하하년에는 4두를 거두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財用編) 연분(年分)」.

114) 응세(應稅) : 징세(徵稅)에 응하는 것.

일본인 군용 인부 모집의 일로 인한 훈령이 도착한 후 보고하는 글 [因日人軍用人夫募集事訓令到付後報告]

방금 도착한 내부(內部) 훈령(訓令)¹¹⁵에서 훈령의 대략에 근거하면 “일본(日本) 병참감부(兵站監部)의 공함(公函)의 대략에, 이번에 의주(義州)와 안동현(安東縣)의 부근에서 사용할 군용 한국(韓國) 인부의 모집을 위하여 바야흐로 당부(當部)의 대창조(大倉曹 오오쿠라쿠미)가 위임하였다고 하니, 좌기(左記)한 각 지방은 매우 급히 훈령을 서로 살피라.”라고 하였고, “민정(民情)을 상세히 살펴서 자원에 따라 모집하라.”라고 하였으며, “이에 준하여 본 군의 인부 50명을 배정하여 음력 7월 10일 이내에 군수가 영솔하여 전의군(全義郡)에 교부(交付)할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받은 것에 의거하여 즉시 이교(吏校)를 파견하여 훈칙에 의거하여 별도로 모집을 행하려고 해아렸는데, 인부를 모집하는 일로 일본 헌병 평정매길(平井梅吉 히라이 우메키치)가 아국(我國)의 통역가 1인을 데리고 군아(郡衙)로 와서 광고를 보여주고 모집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역가는 바로 중학교 교관 이능우(李能雨)라고 하였는데, 역부의 모집은 중간에 신문을 보고 그 요청을 이미 알았습니다. 이는 이름을 지명하여 강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 따르는 것과 관계되니, 상부의 훈칙 없이는 안된다고 줄곧 강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리하여 이면에 대략 서술하여 부득이하게 고시(告示)¹¹⁶를 성급(成給)하여 ‘일은 가볍고 보수는 후하다’는 뜻으로 순교(巡校)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엿을 입 안에 머금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 백방으로 포유(佈諭)하였으나 지금 이틀 동안에 끝내

115) 훈령(訓令): 「공문류별급식양」에 따르면 훈령은 “상관이 관할하는 관리와 감독하는 관리에게 내리는 명령”이라고 규정되었고 이전에 사용하던 관칙(關勅), 칙칙(勅勅) 및 관하에 내리는 전령(傳令), 감결(甘結) 등은 모두 폐지하고, 칙령에 의해 제정한 훈령으로 개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중 관칙과 칙칙은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사용된 문서이며, 전령과 감결은 주로 지방의 관찰사나 수령이 관하 관리들에게 사용하였던 문서였다. 즉 훈령은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모두 사용하도록 기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896년 8월 7일 반포된 칙령 제45호 「지방관리응행체제」를 통해 지방관리들이 주고받는 문서는 훈령, 지령, 보고, 질품으로 통일되었다.

116) 고시(告示): 「공문류별급식양」에서는 고시를 “각 관청에서 인민(人民)에게 고지(告知)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전에 사용하던 민간전령(民間傳令)과 계방(揭榜) 등을 폐지하고 고시라고 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전령(傳令)은 관원이 관하의 관리, 면임(面任), 민(民)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이고, 계방은 방문(榜文)이라고도 하며 여러 사람에게 어떤 일을 공지하기 위해 길거리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써 붙인 글을 말한다. 대표적인 방문으로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의 성명을 기록한 것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방목(榜目)이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전령이 본래 명령서였음을 감안할 때 고시는 소식을 고지하는 것 외에 민에게 정부의 지시나 명령을 전달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사람도 자원하는 이가 없습니다. 대부분 아버이를 모시고 자식을 거느리며 농사를 짓느라 잠시도 떠나기 어려우며, 본 군은 들판에 위치하여 다른 말기(末技)가 없고 농업에만 종사하기 때문에 비록 가마꾼이나 짐바리도 후한 보수로 구하기가 어려운 와중에 이미 진위(振威)에서 먼저 모집하고부터 사방으로 도망가고 흩어진 백성이 본 군에 모여드니, 안심하고 일하던 백성들이 곧 바람맞은 학처럼 놀란 듯합니다. 대부분이 황당해하며 짐을 지고 우두커니 서 있는 중에 이 훈령을 받게 되니 이것이 어찌 매우 송민(悚悶)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원에 따라 모집하면 애초에 자원하는 자가 없고, 억지로 잡기를 행하고자 하면 또한 강행하기 어려운데, 일이 이에 이르러도 감히 낮추거나 높일 수 없는 것은 훈령의 말이 정중하나 기한은 또 이렇게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위엄을 보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면서 모집하는 방법을 널리 베풀고 있으나, 이 같은 목하(目下)의 정세가 뜻에 맞추기 어려울까 염려스러워 군수의 정종(情踪)이 매우 송구스러우며, 사후(嗣後)의 상황을 차례대로 치보(馳報)하여 헤아리는 연유를 보고합니다.

인부를 모집하는 일로 사실에 근거해 공주부에 보고하는 글¹¹⁷⁾ [因人夫募集事 據實報府]

인부를 모집하는 절차는 이미 연차(連次)로 보고 하였습니다. 본 군(郡)은 기호(畿湖)의 사이에 있어 이 일로 먼저 경기 고을에서 다툼이 있으면 소요와 유언비어가 더욱 거세고 놀라움이 더욱 극심하여, 만일 소집하는 명령을 들으면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려는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면(面)의 면장(面長) 및 동(洞)의 두민(頭民)을 일제히 초치하여 모집할 방법을 논의하여 정했습니다만, 만약 자원을 따른다면 한 사람도 모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의 크기를 고려하여 수효를 헤아려 나누어 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 스스로 모집하여 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

117) 원문의 보부(報府)는 공주 관찰부에 보고하는 문서이다.

한 곧 강제로 모집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단지 소요만 일으키면서 끝내 실효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5일이 되었는데 한 사람의 역부도 얻지 못하였으니 단지 달아나거나 숨은 것만 거의 과반에 이르며, 사람들이 울부짖고 등소(等訴)가 몰려듭니다. 이렇게 농사일이 한창 바쁠 시기에 백성을 성가시게 할까 두려우니 무익(無益)한 모집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응당 사실에 근거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처분의 뜻을 기다립니다. 다시 각 면장들을 신칙하여 떠난 자는 불러들이고 떠나려는 자는 만류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선 정돈하게 하였습니다. 이미 자원하는 사람이 없고 인하여 책립(責立)¹¹⁸⁾하여 한 경내가 흠어지는 것을 당장 볼 수 있을 것이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 송구합니다. 이에 보고하오니 특별히 군의 형편과 백성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조(査照)하고 전보(轉報)해 주시어 인부의 모집을 특별히 그만두게 되기를 삼가 바랍니다.

인부를 모집하는 일로 공주부(公州府)에 보고하는 글 [因人夫募集事報府文]

이번 달 1일에 접수한 제86호 훈령(訓令)을 승인받은 뒤에 역부(役夫)들을 모집하려던 일이 어렵게 된 상황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하였습니다. 내부(內府)의 지침을 전달받은 뒤에 흠어졌던 자들은 다시 돌아오고 동요되었던 자들도 조금은 침착해졌습니다.

훈령이 도착하기 전에 위임받은 일본인(日本人) 이마쵸 덴시치(今城傳七)가 먼저 평택군 관아에 도착하여 인부를 모집하였는데, 날짜를 정하여 요구하자 우매한 촌민(村民)들이 임금도 주지 않고 강제로 동원하는 줄 알고 한 마을이 놀라서 흔들리고 한 지경이 소요를 일으켜, 남쪽 사람들은 북으로 달아나고 북쪽 사람들은 남으로

118) 책립(責立) : 필요한 인원·우마 등을 책임지고 차출하던 일. 책출(責出).

달아났습니다.

모두들 달아나 효상(效象)¹¹⁹이 참담하였으므로 군수가 걸어다니면서 몸소 이들을 만나 “이는 강제 모집이 아니라 자원(自願)하는 것이며, 전쟁터에 끌고가는 것이 아니라 노임(勞賃)을 주고 일하러 가는 것이니,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달래어보았지만, 자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들 달아나 숨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갖추어 아뢰며 일본인에게도 사과하오니, 지금의 민심으로는 비록 갑절의 노임을 주면서 권유하더라도 실로 모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에서 거행하고도 다만 송구스러울 뿐이어서 연유(緣由)를 보고합니다.

갑진 연분 개장¹²⁰ 보고 [甲辰年分槩狀報告]

본 군(郡)의 갑진조(甲辰條) 연분(年分)¹²¹의 응세(應稅)에 대한 성책(成冊)을 두 건 수정하여 실도리(實都吏)에게 상송(上送)합니다. 금년에는 못비가 중복의 즈음에 있어 농사가 때를 잃었습니다. 이미 또 말한 것은 없으나 7, 8월 사이에는 비 내리고 해가 비치는 것이 늘 알맞아, 화서(禾黍)를 만종(晩種)하고는 조금 추수를 거둘 수 있을 듯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 미처 이삭이 패지도 않았는데 서리가 내리고 한로(寒露) 전까지 계속 혹독하여, 반은 머금고 반은 팬 이삭이 곧게 선 채로 말라 시들어버렸습니다. 약간 조종(早種)한 것은 이삭이 팬 뒤에 미처 결실을 맺는 데 미치지 못하고 충해(蟲害)를 혹독하게 입어 대부분 준축(蹲縮)

119) 효상(效象) : 좋지 못한 물결. 역괘(易卦)에서 길흉을 나타내는 상(象)이다.

120) 개장(槩狀) : 대개장(大槩狀). 개략적인 중요 내용을 적은 문서. 주로 군현에서 매년 토지의 연분(年分) 등급을 기록하여 보고하는 문서를 말한다. 각 지방 수령은 매년 추수 뒤 관할 지역의 재해 총액과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실제 결수(結數)를 조사하여 감영에 보고하였는데, 이 대개장이 국가에서 각도의 면세율을 책정하는 기본 자료가 되었다.

121) 연분(年分) : 전세(田稅)를 결정 수납하는데 있어서, 그 해 농사의 형편을 보아 세납액을 정하는 것. 즉 매해 9월 보름 전, 지방의 도백(道伯)과 수령(守令)이 연사 관계를 조사 심의해서 보고함에 따라 시행한 것인데, 농형에 따라 상상년(上上年)에서 하하년(下下年)까지 9등으로 나누고 세납액은 1결(結)에 대하여 상상년에 20두(斗), 이어 2두씩 체감하여 하하년에는 4두를 거두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財用編) 연분(年分).

하였으니, 거둔 곡식이 거의 없습니다. 모내기하지 못한 논은 땅이 본디 척박할 뿐만 아니라 흉년 끝에 민정(民情)은 힘이 미치지 못하고 농사는 제때에 맞추지 못하며 모내기 또한 부족하니, 끝내 진황(陳荒)되는 것은 반드시 이르게 되는 형세입니다. 몸소 논밭을 다니며 정실(精實)하게 집재(執災)¹²²하여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기를 삼가 바랍니다.

해일을 공주부에 보고하는 글 [因海溢事報府文]

본군의 서면(西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소북면(小北面)의 각 동에서 보고한 내용이 대략 이러합니다.

음력 3월 18일 새벽에 바람과 우박이 크게 들이쳐 아침 내내 개이지 않더니, 조수(潮水)가 밀어넘쳐들어 흰 풍랑이 높이 솟구쳐 (들판이) 넓은 바다로 변하였습니다. 보리와 밀이 형태도 없이 매몰되어 지극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에 군수가 몸소 가서 살펴보고 지금 떠나는 길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살펴본 결과가 정리 되는대로 차례차례 빨리 보고하겠다는 연유를 우선 보고하오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북면의 해일 상황을 보고하는 글 [報小北面海溢事狀]

본군 소북면 면장에게 보고받은 봉해진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음력 8월 초2일에 밀물과 썰물 두 차례나 해일이 일어나 벼를 심은 논 60여 섬지기¹²³가 모두 침몰되었습니다. 이삭이 달릴 때가 되어 이미 곡식이 여물었는데 이같이 비상한 재앙을 당했으니,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놀랍고도 송구할 뿐입니다.

122) 집재(執災) : 지방 수령이 관내의 전지 중에 재해를 입은 재결(災結)을 조사 파악하는 일이다.

123) 섬지기(石落)은 논밭의 면적을 헤아리는 단위로, 한 섬의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를 말한다.

초4일 자시(子時)쯤에 급한 바람과 사나운 비가 갑자기 크게 들이쳐 초6일이 되어 서야 그쳤으니, 숲에 나무가 꺾어진 것을 이루 다 셀 수가 없고, 인가가 무너져 백성들이 깔린 소식 또한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강과 시내가 범람하여 배들이 육지에 떠다니고, 고을 북쪽의 두 면(面)이 소사평(素沙坪)인데 한눈에 보이는 십리의 수백 섬지기 논밭에 흰 파도가 하늘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미 달린 이삭은 죄다 꺾어지고, 배태된 벼는 대부분 썩어버렸습니다. 먹을거리를 바랄 수 없게 되었으니, 가을 수확¹²⁴⁾이 아주 끊어졌습니다. 예부터 없었던 재앙이 어찌 이같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해일이 덮친 곳을 몸소 조사해보고, 차례차례 헤아리고 달려가 보고하겠다는 연유를 보고합니다.

소북면 우박 재해 보고서¹²⁵⁾ [小北面雹災報告書]

본군 소북면 면장 송학수(宋學洙)가 보고한 봉해진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본면의 바닷가 한 쪽에 올여름 해일이 이미 덮쳐 60여 섬지기의 논이 모두 바닷물에 잠겼고, 얼마 안 남은 땅이나마 먹을거리를 얻을까 바랐더니, 뜻밖에도 이번 음력 9월 12일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급해지며 햇빛마저 어두워졌습니다. 홀연히 우박이 한참동안 사납게 떨어져 논밭의 여러 곡식들이 하나도 이삭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등인(等因)¹²⁶⁾으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우박의 재해가 이와 같이 심혹하여 놀라움을 이길 수 없었으므로 군수가 달려가서 살펴보니, 우박이 지나간 곳에는

124) 원문의 '서성(西成)'은 가을에 성취하는 일로 가을 수확을 뜻한다. 『서경(書經)』 「우서(虞書) 요전(堯典)」에 “들어가는 해를 공격히 전송하여 가을에 수확하는 일을 고르게 차례대로 하였다. [寅饑納日, 平秩西成.]”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25) 보고서(報告書)는 대한제국 시기에 하급 관리가 상관에게 보고할 때 사용하였던 서식이다.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제정되었다. '보고'라는 정확한 문서명은 1886년 일본의 공문식 개정 이후 나타났다. 그런 의미에서 갑오개혁 이후 나타난 조선의 보고서 또한 일본의 공문서 체제를 참조하여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문류별급식양(公文類別及式樣)』에 따르면 하급 관리가 상급 관리에 보내는 문서로 보고서·청원서·질문서를 제시하였으며, 보고서는 “하급 관리가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었다. 그리고 이전에 사용하던 보정(報狀)·유장(由狀) 등은 모두 폐지하고, 각각 문서의 성격에 따라 위 세 개의 문서 형식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126) 서면으로 알려 준 사실에 기인하였다는 뜻으로 회답하는 공문(公文)에 쓰이는 문투(文套).

거들 것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습시다. 콩¹²⁷⁾이 짓밟힌 것은 물론이요, 땅에 가득 덮혔던 익은 벼이삭이 알알이 흩어져 떨어지고, 마른 벼줄기만 하늘을 올려다보며 쓸쓸하게 서 있습니다. 재생(災甞)¹²⁸⁾이 생긴 이래로 어찌 이같이 참혹한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재앙을 입은 상황은 이제 성책(成冊)하여 달려가 보고하겠습니다만, 바닷가 한귀 통이의 창생들이 농업을 바라며 살다가 지난번에 해일 피해를 입고 이번에는 우박이 거듭 때려대니, 그 많던 곡식 가운데 먹을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백성의 참상을 생각하면 만만 시름겹고 비참할 뿐입니다. 피해 상황을 살펴느라고 날짜가 많이 걸려 송구하고 민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살펴보고 처분하시어, 이같이 올부짓는 백성들이 머물러 살 방도를 얻게 해주시기를 엿드려 바랍니다.

세전의 수봉¹²⁹⁾ 및 상납하는 일로 인하여 대락을 들어 탁지부에 직보함

[因稅錢收捧及上納事舉槩直報度支部]

10월에 개봉(開捧)하는 결전(結錢)¹³⁰⁾을 바치는 대로 납부하라는 것은 어길 수 없는 신식(新式)일 뿐만 아니라 또 끌어올 만한 근례(近例)가 있으니, 군(郡)에서 거행하는데 어찌 감히 마음과 몸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본 군(郡)의 금년 농사는 수재와 한재로 이미 먼저 흉년이 들었는데, 더구나 거듭 해일을 입었고 또 우박으로 인한 재해를 만났으니 곡형(穀形)이 참담하며 민정(民情)은 굶주려 얼굴이 누렇게 떠서 거의 살아갈 방도를 세울 가망이 없습니다. 게다가 화폐가 막히어 백성들이 손을 들

127) 원문은 두태(豆太)이다. 두는 소두(小豆)를 이르고 태는 대두(大豆)를 이르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콩을 총칭하는 말로 쓰인다.

128) 재앙, 환란을 말한다. 『주역(周易)』 「복괘(復卦) 상육(上六)」에 「돌아옴에 혼미하므로 흉하니 재생이 생긴다. [迷復, 凶, 有災眚.]」라고 하였다.

129) 수봉(收捧) : 세금이나 빌려 준 돈을 거두어들임. 수쇄(收刷).

130) 결전(結錢) : 결세(結稅)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다. 결작전(結作錢)이라고도 한다.

곳이 없으니, 세전을 개봉한 것이 이미 근 한 달인데 만 번 죽겠다는 호소는 있어도 한 푼도 납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실정을 살펴보면 비록 가여우나 법으로 헤아려보면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엄을 보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면서 방략(方略)을 많이 베풀어 가령 백성들에게 잡자마자 납부하게 하더라도, 신화(新貨)가 아직 유통되지 않았으니 바치는 것이 반드시 악화(惡貨)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악화가 그래도 어렵지만 정전(正錢)을 요구하는 것은 곧 연목구어(緣木求魚)¹³¹⁾와 같습니다. 비록 해가 바뀌고 달이 지나더라도 진쇄(振刷)하기 어려울까 염려되니 국계(國計)와 민정이 모두 매우 두렵습니다.

세전을 탁지부의 금고에 옮겨 납부하는 것은 이미 정식(定式)이 있으니 감히 거역할 수는 없으나, 군에서 군산(群山)과의 거리가 거의 4백 리에 이르는데 배를 타고 가려 하면 해적이 뒤따르고 육로를 통해 가면 토구(土寇)가 길을 가로막으니, 운납(運納)하는 것은 수로와 육로 모두 어렵습니다. 서울과의 거리가 불과 이틀이 걸리는 노정이니 바치는 대로 직접 중앙금고에 납부한다면 편리함은 있고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분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131) 연목구어(緣木求魚): 욕망에 눈이 멀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세태를 풍자하여 한 말이다. 전국시대 제 선왕(齊宣王)이 일찍이 전쟁을 벌여서 토지를 넓히고 진(秦)나라와 초(楚)나라를 호령하고자 하는 야욕을 품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맹자(孟子)가 “이와 같은 소행으로 이와 같은 소원을 구한다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은 비록 물고기를 얻지 못하더라도 뒤에 재앙은 없거니와, 이와 같은 소행으로 이와 같은 소원을 구한다면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더라도 뒤에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以若所爲, 求若所欲, 猶緣木而求魚也. …… 緣木求魚, 雖不得魚, 無後災. 以若所爲, 求若所欲, 盡心力而爲之, 後必有災.]”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연목구어(緣木求魚)’는 행동과 목적이 상반되어 수고롭기만 하고 소득이 없는 것을 비유하게 되었는데, 이를 인용하여 한 말이다. 《孟子 梁惠王上》

익산군의 신축년 세전을 대신 납부한 일로 인하여 해당 군에 조회¹³²⁾하는 글 [因益山郡辛丑稅錢替納事 照會該郡文]

귀 군(郡)이 신축조(辛丑條) 결전(結錢)을 거두지 못하였는데, 한 해가 이미 흉년이 들고 직책도 경체(徑遞)되어 추징할 세금을 모두 장부에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폐직(弊職)은 체직되어 기신(起身)한 날에 이납(已納)과 미납(未納), 이봉(已奉)과 미봉(未奉)을 구별하여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 한 부는 관찰부에 보내고 한 부는 군에 보존하였습니다.¹³³⁾

우러러 생각건대 모두 읽어보고 거두지 못한 것 중에 폐직이 가지고 온 조(條)는 이미 출자(出尺)¹³⁴⁾를 상납하였으니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으나, 이번에 탁지부(度支部)가 조사하여 현록한 1만 5천 냥은 군에서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폐직은 이미 경체되었고 귀군은 담당하고 있으나, 함께 돕고 함께 공평하려는 뜻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이것과 다르고 저것과 다른 이치가 없습니다. 폐직은 온 생각이 여기에 있어서 항상 우려하여 연차(連次)로 탐문해보니 작년 7, 8월에 이미 다 징수하여 차인(差人)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公事)의 만 번 다행이라고 여겼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찌해서 아직도 건납(愆納)한 것입니까?

이제 상부(上部)가 사정(查正)하는 날에 귀군에서 신축년(1901)에 거두지 못한 것이 폐직의 이름에 걸려서 갑자기 주면(奏免)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허둥지둥하며 명백하게 분별하는데 미치지 못하고 급급하여 발명할 여가도 없이 먼저 6천 냥을 매 낭당 매달 1전(錢)의 이자로 빚을 저서 대신 납부하여 우선 중한 견책은 면하였고, 남은 수는 빠른 시일 내에 만약 준납(準納)하지 않으면 그때는 생경(生梗)

132) 조회(照會): 갑오개혁 때 제정된 「공문류별급식양(公文類別及式樣)」에 따르면 조회·조복은 “대등한 관리(對等官) 사이에 왕래하는 공문으로 반드시 회답을 요구한다. 종래의 이문(移文)·회이(回移)·공이(公移) 등을 폐지하고 조회로 개칭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등한 관리에 대해서는 “중앙관리의 경우 대신이 대신에게, 협판(協辦)·참서관(參書官)·비서관(秘書官)·국장(局長)·주사(主事)가 협판·참서관·비서관·국장·주사에게”라고 규정하여 각 부처 간 동일 관직의 관리들만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 지방관리의 경우 “관찰사가 관찰사에게, 참서관(參書官)이 군수에게, 재판경무등관(裁判警務等官)에게도 등급에 따라 이 규례를 적용함”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법관이나 순검 등 갑오개혁으로 새롭게 배치된 관리들의 행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133) 귀 군(郡)이 … 보존하였습니다. : 귀군(貴郡)은 오형목이 신축년(1901)에 군수로 재임하던 익산군을 가리키고, 폐직(弊職)은 자신의 직분(職分)을 낮춰 부르는 말이니 익산 군수로 재임하였다가 인계 인수를 마치고 떠난 오형목 자신을 가리킨다.

134) 출자(出尺): 자문(尺文)을 발급하는 것으로, 자문은 조세의 영수증을 이른다.

하여 어떤 지경에 이를지 모릅니다. 만약 문비(問備)하는 날을 당하면 어찌 귀군과 폐군의 구별이 있겠습니까. 부디 굽어 살피십시오.

이번에 빚을 저서 대신 납부한 조는 형세상 완만(緩晚)할 수 없고 이치상 응당 시일을 끌어서는 안 되기에 이에 위인(委人)과 위교(委校)를 통해 원전과 이자 아울러 식태(息駄)와 그간의 경비를 날날이 추송(推送)해야 합니다. 작년에 폐직이 출발할 때에 최성환(崔成煥)에게 영거(領去)한 것이 군산항 상납전(上納錢)의 축조(縮條) 47냥과 그의 식비 16냥 1전이고, 김태현(金泰鉉)에게 영거(領去)한 것이 군산항 상납전 건몰조(乾沒條) 1백냥으로 모두 그들이 납부해야할 것이었으니 어찌 감히 모른다고 말한단 말입니까? 또한 일체 엄히 신칙하여 추송해야 합니다.

당해 도리(都吏) 김지환(金智煥)이 비록 당년에 담당자였으나 그의 아들 김정하(金鼎夏)가 외부에서 대행하였습니다. 지금 생경한 날에 그의 죄와 관계되어 책임이 관장에게 미쳤으니, 죄는 참으로 당감(當勘)하고 납부는 반드시 진쇄(振刷)해야 합니다. 읍에서 수쇄(收刷)하는 것은 그의 아들이 그대로 있으니 그 아버지 김지환이 이제 순교에게 가서 붙잡아 압송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완비하기를 바라는 것은 귀군과 폐군이 한가지이니 사사로움을 따라 공도를 해칠 리가 없을 듯합니다. 만약 압송하지 않으면 경부(京部)에 보고하여 순검(巡檢)을 파송(派送)할 수밖에 없으니 조량(照亮)하여 저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쌀과 고기를 돈으로 대신하여 반급(頒給)한다는 첩유문 [年七十以上人米肉代錢頒給帖諭文]

올해에 흉년이 든 것은 바로 오랜 옛날에도 없던 것이고, 이번 겨울의 혹한은 또한 근세에 처음 보는 것이다. 생민(生民)의 일대겁(一大劫)¹³⁵에 폭죽 소리를 몰아내려

135) 일대겁(一大劫) : 이 세계가 한 차례 성(成)·주(住)·괴(壞)·공(空)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보통 일대겁(一大劫)이라고 하는데, 《구사론(具舍論)》에 “인간의 수명이 10세에서 시작하여 1백년마다 1세씩 늘어나 8만 4천 세가 되는 것을 1증(增)이라 하고, 이런 식으로 8만 4천 세에서 10세로 감소하는 것을 1감(減)이라 하는데, 1증 1감이 1소겁(小劫)이요, 20소겁이 1중겁(中劫)이며 4중겁이 1대겁(大劫)이다.” 하였다.

고 하니, 이는 우리 백성들과 도소주(屠蘇酒)¹³⁶를 따라주며 서로 하례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건대 가난한 집에 사는 백성들의 마음은 한해가 끝나가는 즈음에 더욱 괴로울 것이다. 자목(字牧)의 직임을 맡은 이 몸이 어찌 평소의 갑절이 되는 걱정이 없을 수 있겠으며, 다만 긴 이불을 덮고 너른 집에서 살면서 어찌 빈말로 보탬이 없을 수 있겠느냐.

스스로 돌아보건대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지만 일찍이 여러 번 말았으니, 70세 이상의 노인 및 효열 문학인(孝烈文學人)은 반드시 해마다 문안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 상규로 삼았었다. 이제 이 군에서도 감히 앞뒤가 다른 사람이 되지 못하여 삼가 일정한 규례를 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하여 이불을 잡으려 하면 팔꿈치가 드러나니 종종 일과 마음이 어긋난다는 탄식을 하였다.

겨우 경내의 70세 이상에게 1인당 엽전 7전씩으로 문의(問儀)를 표한다. 아! 술을 강물에 풀어 마시도록 하는 것과 같으니 물건이 비록 변변찮아 부끄럽지만, 바닷물을 맛보고 짠맛을 아는 것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으니 부디 살펴 알아주기를 바란다. 간략히 이를 윤고(輪告)하라.

조가전을 지나치게 거둔 일로 인하여 각 면의 대소 인민에게 영칙하는 글 [因租價錢濫捧事 令飭各面大小民人文]

군(郡)에 부임한 초기에 면(面)과 리(里)를 순행하면서 거주민들의 농사 상황을 대개 이미 헤아려 알았다. 묵은 병폐를 우선 상세히 알지 못하지만 먼저 근심하는 것은 빈민이 빚을 갚는 한 항목이다. 흉년이 든 때에 남은 묵숨은 밥을 먹을 길이 없어 부유한 사람의 전곡(錢穀)을 중변(重邊, 높은 이자)으로 빌려 썼다가 타조(打租)하는

136) 도소주(屠蘇酒): 《오주언문장전산고》〈도소주변증설(屠蘇酒辨證說)〉에 “백출(白朮)·대황(大黃)·길경(桔梗)·천초(川椒)·계심(桂心)·호장근(虎杖根)·천오(川烏) 등의 약초를 썰어서 붉은 주머니에 넣어, 선달 그림에 우물에 담가 두었다가 정월 보름날 이른 새벽에 꺼내 청주(淸酒)에 넣어 끓여서 동쪽을 향하여 마시는데, 어린 사람부터 순서대로 한 잔씩 마신다. 그 찌꺼기는 다시 우물 속에 담가 두고 물을 떠 마신다.” 하였다.

마당이 되면 일 년의 농사가 빚을 갚는데 돌아가니, 주머니와 전대가 모두 비고 춥고 굶주림이 눈앞에 있게 되어 부부가 울며 탄식하는 상황이 반드시 없으리라 보장하기 어렵다.

먼저 읍하(邑下)¹³⁷⁾에서 별도로 염탐해보니 상민 박원삼(朴元三)이 올해 7, 8월에 빈민들에게 조전(租錢)을 뿌려 본모(本牟)를 빌려주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자 본전 13냥에 1석을 대조(代租)하고, 본모 1석에 2석씩을 대조하여 수봉(收捧)하였다고 한다. 이를 시세로 삼아 그 이자를 헤아려보면 3배 가까이 되니, 빚을 거두는 것을 이처럼 무절제하게 하는가? 모리(牟利)하는 폐습을 살펴보면 의당 형벌을 주어야 하나, 당시의 상황으로는 빌려다 쓴 자가 잘못이다. 그러므로 우선 용서하고 잡아다가 엄히 신칙한 뒤에 읍의 각 동의 두민과 여러 관속이 공정하게 회의하였으니, 전(錢)과 모(牟)는 모두 장리(長利)¹³⁸⁾의 예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여 중의(衆議)가 하나로 모아졌다. 조전 13냥에 19냥 5전을 상환하며, 본모 1석에 1석 10두를 대조하며, 본조 1석에 1석 10두씩을 환보(還報)하도록 참작하여 결정하고 아울러 대조는 시가대로 빚을 갚도록 하라.

또 작년 봄에 빌려 쓴 것으로 말하면 작년의 흉년은 이전에 거의 없던 일로 거의 죽게 되었던 백성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막중한 정공(正供)¹³⁹⁾을 때에 따라 납세를 중지하였으나, 지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저 돈이 많으면서도 이익을 노리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욕심을 채워 준봉(準捧)¹⁴⁰⁾하게 하겠는가. 지난 가을의 이자는 절대 거론하지 말고 이번 가을부터 시작하여 장리로 수봉하되, 공정하게 결정된 뒤에 만일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잡아 와 엄히 징계하고 상부에 보고하여 처판(處辦)할 것이다. 각기 유념하여 각 동에 돌아가며 보인 뒤에 거리의 벽에 걸게 하고 각 동에 문서가 도착한 상황을 날날이 보고하라.

137) 읍하(邑下): 주(州)·부(府)·군(郡)·현(縣) 등의 관아. 이 글에서는 평택군청이다.

138) 장리(長利): 곡식이나 돈을 꾸어 주고 회수할 때 덧붙여 받는 변리. 흔히 춘공기에 꾸어 주고 추수 후에 회수할 때 본 곡식의 5할의 이식을 합하여 회수하였다.

139) 정공(正供): 정당한 부담이라는 뜻으로, 정식으로 조정에 바치는 부세(賦稅)와 방물(方物)을 말한다.

140) 준봉(準捧): 원 수량대로 맞추어 받아들임.

좌우 지사의 장무원¹⁴¹⁾에게 영신하는 글 [令申左右支社掌務員文]

도둑을 단속하는 한 가지 일은 관부의 별훈을 받들어 이미 우사(右社)¹⁴²⁾ 쪽에 배치된 기교(譏校)¹⁴³⁾에게 명령하여 더욱 탐찰(探察)하고, 그들로 하여금 10일 간격으로 과보(課報)하도록 하였다. 대저 비류(匪類)가 행색을 거짓으로 꾸미는 것은 비단 보상(裨商)¹⁴⁴⁾ 뿐만이 아니니 수상한 자를 끝까지 찾아내어 염탐하는 것이 어찌 유독 우사뿐이겠는가. 또 본 군(郡)은 일경(一境)으로 헤아리면 보상은 적고 각 동에서 보면 부상(負商)¹⁴⁵⁾은 많이 편성되어 있다. 만약 도둑을 단속하는 일에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다한다면 힘은 들이지 않고도 공(功)은 배가 될 것이다.

이에 각 면(面)과 각 리(里)에 별도로 신칙하여 반드시 근면하고 영리한 보부상 중에 별도로 기교를 정하고, 형찰(巡察)하고 체포하는 절차는 한결같이 좌기(左記)한 대로 거행한다면 혹시라도 소홀하거나 생경(生硬)하지 않을 것이다. 각 동 기교의 성명은 즉시 가려서 보고하여 관에서 차첩(差帖)을 성급(成給)하는 바탕으로 삼고, 지금 이 영시(令示)는 각 동에 돌아가며 보인 후에 변화가의 벽에 게시하여 늘 눈에 보이는 곳으로 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 재차 기교의 성명은 명령이 이른 그날에 양사(兩社)¹⁴⁶⁾의 장무원이 회동하여 상의하여 그 자리에서 선택해 정한 뒤 수보(修報)하라.

○ 누구든 막론하고 행색을 살펴서 혹 수상한 점이 있다면 거주지 및 어떤 일로 어떤 곳에 가는지 묻고 몰래 행적을 따르다가 앞에 있는 동에 돌아가 해당 동의 기교로 하여금 또다시 이처럼 하게 하고, 차차 뒤따르다가 경계를 넘어가면 그만둔다.

141) 장무원(掌務員): 장관이나 수령 밑에서 직접 사무를 보는 관원.

142) 우사(右社): 대한제국 시기이던 1899년에 상업과 국제무역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상무사(商務社)라는 기관을 설립하였다. 상무사는 전국 보부상단(裨負商團)의 업무도 관장하였는데, 부상(負商)을 좌사(左社), 보상(裨商)을 우사(右社)로 하였다.

143) 기교(譏校): 포도청(捕盜廳)에 소속되어 죄인의 탐정 수사를 맡아보던 벼슬로, 기찰포교(譏察捕校)의 준말이다.

144) 보상(裨商): 주로 기술적으로 발달된 정밀한 세공품이나 값이 비싼 사치품 등의 집회를 취급한 상인인데, 보자기에 싸서 들거나 짚뿔에 걸머지고 다니며 판매하였다. 붓짐장수라고도 하였다.

145) 부상(負商): 주로 조잡하고 유치한 일용품 등 가내수공업품을 지계에 얹어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판매한 상인으로, 등짐장수라고도 하였다.

146) 양사(兩社): 상무사의 하위 조직인 좌사(左社, 등짐장수)와 우사(右社, 붓짐장수)를 말한다.

해당인이 혹 동쪽을 가리켰는데 서쪽을 향하여 가 말과 행동이 같지 않으면 이것이 과연 수상한 자이다. 그런 뒤에 묻고 다그치면 의심할 만한 행적이 꽤 있을 것이니, 즉시 관정(官庭)으로 잡아들일 일이다.

○떠돌아 다니는 거지로 말하면 수척하고 잔병이 있고 귀가 먹고 말을 못하며 눈이 보이지 않고 걷지 못하는 등의 불수자(不遂者) 이외에 만약 나이가 젊고 기력이 왕성하여 지체(肢體)가 온전한 자가 양식을 구걸한다고 핑계 대면서 시골 동네를 출몰하며 위협하고 공갈한다면, 낮에는 다니고 밤에는 숨어서 흩어지면 거지가 되고 모이면 도적이 되는 비도(匪徒)들이 아닌 줄 어찌 알겠는가. 더욱 상세히 살피고 또한 즉시 잡아 들일 일이다.

○행려(行旅)와 촌리(村里)를 막론하고 도적의 경보가 있으면 해당 동의 기교는 동민(洞民)을 일어나게 하여 사람들을 인솔하여 뒤쫓아가 체포한다. 만약 도적이 눈앞에 있는데도 경보가 이웃에 있는데 듣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것처럼 하며 또 힘이 부족해 미치기 어려워 댁댁하게 좌시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참으로 정적(情跡)을 아는 자이다. 해당 기교는 지정률(知情律)¹⁴⁷로 시행하고, 이로써 법식을 삼아 각자 경척(警惕)¹⁴⁸할 일이다.

○이번에 동(洞)에 기교를 두어 법을 마련하여 도둑을 단속하려는 것은 바로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려는 뜻이니, 어찌 보부상(負祿商)에게만 일임하여 해당 동의 두민(頭民)과 동장(洞長)들이 태연히 돌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 개의 동이 방비하여 힘을 합하되 만약 형찰(巡察)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죄를 심의하고 처분하는 근거로 삼아 해당 기교 및 두민과 동장을 일체 당감(當勘)할 것이니, 이 점을 각 동에 별도로 신칙할 일이다.

○도둑을 만난 물품의 수효를 헤아려 부근의 각 동에 분징(分徵)하되, 이미 단속하는 규정을 앞서 이미 포고하였다면 백성들도 잘 알 것이다. 만일 이러한 지경을 만나더라도 규정대로 분징하는 것을 결코 그만두어서는 안 되니, 또한 모름지기 늘 눈

147) 지정률(知情律): 불고지죄(不告之罪)로 그 범죄의 사정을 알면서도 관(官)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숨겨둔 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148) 경척(警惕): 미리 경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주자어류(朱子語類)》 권97에 “담박하게 순일한 것을 재라고 하고, 속연히 경계하는 것을 계라고 한다. [湛然純一之謂齋 肅然警惕之謂戒]”라는 내용이 있다.

에 두어 명심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할 일이다.

○각 동의 기교가 도둑을 단속하는 근태(勤怠)와 여리(閭里)와 행려(行旅)에서 도적 경보의 유무를 본 장무원이 10일 간격으로 고거(考據)하여 과보(課報)하고, 그것을 상부에 보고할 일이다.

모리배의 무미¹⁴⁹⁾가 폐단이 심한 것으로 인하여 조사하여 각 면에 영칙함 [因侷利輩貿米多弊 措辭令飭于各面]

무천(貿遷)¹⁵⁰⁾과 교역은 각기 정해진 자리가 있어 장시(場市)가 있고 객주(客主)¹⁵¹⁾가 있는데, 물건의 귀천(貴賤)에 따라 그 가격의 높고 낮음이 정해진다. 지금 들으니 모리배가 각 곡식이 드나드는 요충지에 자리를 깔고 귀천과 고혈을 따지지 않고 값을 부르는 대로 주고서 만나기만 하면 억지로 사들이니, 산모퉁이의 논이 문득 인해(人海)의 장시가 되어 여각(旅閣)¹⁵²⁾에서는 조금의 곡식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 가을이 끝나가는 때에 곡식의 가격이 이처럼 뛰어오르니,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이는 태연하게 내버려 둘 수 없으므로 이에 영칙하여 지금부터는 거리에서 무곡(貿穀)하는 것을 일체 엄금한다. 이렇게 한 뒤에 또 모범(冒犯)하는 자가 있으면 그 곡식은 객주(客主)에게 주어 처분과 조처를 기다리게 하고, 그 범죄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히 중하게 다스릴 것이니 깊이 유념해 지행하여 일의 형편을 급히 보고할 일이다.

149) 무미(貿米) : 무곡(貿穀)이라고도 하며, 이익을 보고 팔려고 많은 곡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150) 무천(貿遷) : 물건을 매매하고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151) 객주(客主) : 다른 상인의 물건을 위탁받아 팔아주거나 매매를 거간하며, 여러 가지 부수 기능을 담당한 상인. 현재의 상법에서는 주선행위에 속하는 위탁매매인(委託賣買人)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다른 나라에도 있으나, 우리나라 고유의 객주제도는 그 주업무인 위탁매매 외에 위탁자를 위한 숙박 금융 창고 또는 운송 등 여러 가지 주선행위나, 일부의 부수 또는 전문 업무에 따라서 독립된 업종으로 그 유형이 나누어졌다.

152) 여각(旅閣) :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거간하며 그 물품 임자를 목계 하는 곳으로, 여객(旅客)이라고도 하였다.

호치동 한도형 집안으로 인한 전령 [因虎峙洞韓道衡家傳令]

본 동(洞)에 거주하는 한도형·한공익(韓公益)의 집안에 괴이한 일이 있었는데, 입문(入聞)되어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일이다. 그 일을 듣고 매우 놀라서 즉시 잡아 가둔 지가 이미 3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당한 자가 한 번도 하소연하며 변명한 것이 없고 여러 갈래로 염탐해도 진실된 행적을 듣기 어려우니, 판결하는 데 있어 의혹됨이 더욱 심하다.

근본 원인의 유무와 결말이 어떠한지를 필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할 리가 없을 것이니, 본 면의 면장과 상세히 조사하여 사실대로 와서 보고할 일이다.

순교가 폐단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하여 각 면의 대소 인민들에게 영칙함 [因巡校作弊 令飭各面大小民人]

순교(巡校)를 설치한 것은 전적으로 수상한 것을 경계하여 살피고 백성들의 생업을 보호하려는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본 군(郡)의 순교들이 애초에 경계하고 살피고 보호하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 알지 못하고 오직 침탈(侵奪)하고 주구(誅求)¹⁵³에만 종사하여, 한번 민간으로 나가면 백성들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이 낭자하였다. 그러므로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내보내지 않았다. 무릇 민사(民事)를 심리하는 것과 관계된 일은 혹 주인에게 파견하기도 하고, 혹 장민(狀民)을 대신하기도 하여 일찍이 그 근원을 영영 막지는 않았었다.

근년에는 순교들이 공문(公文)을 지니지 않고 몰래 스스로 출몰하여 평민을 집탈(執頭)하고 전재(錢財)를 요구하여, 백성들이 가산을 탕진하여 원성(怨聲)이 길에 가득하였다고 한다. 이는 과연 늙은이로 하여금 간악함이 일어나게 하는데 관에서는

153) 주구(誅求) : 가렴주구(苛斂誅求)의 준말인데, 백성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다. 《좌전(左傳)》 양공(襄公) 31년에 “조그마한 폐읍(敝邑)이 대국의 사이에 끼어 있어 시도 때도 없이 주구(誅求)를 당하므로 평안하게 지낼 수가 없다. [以敝邑褊小, 介於大國, 誅求無時, 是以不敢寧居.]” 하였고, 그 주에 “주(誅)는 책(責)의 뜻인데, 남에게 책하여 욕망을 구한다는 뜻이다.” 하였음

계속해서 신칙하지 못하여 그런 것인가. 생각이 이에 미치니 매우 통탄스러워서 여러 순교들을 우선 엄히 장(杖)을 쳐서 징계하였다.

이에 또 별도로 신칙하니, 지금부터 이후로는 관례(官隸)가 마을로 나갈 때에는 먼저 가지고 있는 문적(文蹟)을 요구하여 만일 공문이 있으면 다만 폐단을 금하는 것만을 행하고 그만두며, 애초에 근거할 만한 것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잡아 온다. 도박판을 금지하는 것 또한 경계하고 살피는 것에 있으나, 만약 혹 관정(官庭)에 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단련(鍛鍊)을 행한 자는 이 또한 법을 벗어난 것이다. 차후에는 도박하는 무리가 비록 혹 현장에서 잡히더라도 만일 공적인 문적이 없으면 이른바 장전(贓錢)의 예로 지급하게 하고, 한 번이라도 갇지 않으면 관결(官決)을 기다리게 한다. 그렇게 되면 우매한 백성이 위세에 겁을 먹고서 구차하게 안사(顏私)¹⁵⁴하기를 꺼릴 것이다.

우항(右項)의 여러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여 시행하지 않다가 별도로 염찰(廉察)하게 되면 당해 존위(尊位)¹⁵⁵와 동장(洞長)은 명을 어긴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해당 백성과 순교는 또한 동률(同律)로 징치(懲治)할 것이다. 모름지기 각자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녀, 이것을 가져다가 벽에 걸고 모두 잘 알아야 할 일이다.

154) 안사(顏私) : 서로 안면이 익숙하여 생기는 사사로운 정리(情理).

155) 존위(尊位) : 군현의 행정 명령을 백성에게 알리고 조세의 납부를 지휘하는 동(洞)·리(里)·촌(村)의 장(長)이다. 각 고을 향소(鄉所)의 좌수(座首)·별감(別監)의 천거에 의해 수령이 임명하였다. 《송정원일기》 영조 1년 4월 17일 기사에 “각 읍(邑)의 경내에 각 면(面)이 있고 면 안에는 상임(上任), 하임(下任)이 있으며, 각 면에 각 동(洞)이 있고 동 안에도 상임, 하임이 있으니, 동의 상임이 바로 ‘존위(尊位)’라 일컬어지는데 존위도 사대부이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박준대의 선가를 장연에게 추심한 일로 인하여
본래 동에 있던 사람들에게 사질하는 글
[因朴準大船價推尋於張燕事 查質于本在洞文]**

본 군(郡) 소재 내장원(內藏院)¹⁵⁶에 상납하는 둔도미(屯賭米) 23석은 본 면(面)에 거주하는 이준경(李俊京)의 선척(船隻)에 장발(裝發)하였다. 동(同) 준경은 그의 외숙 이용보(李用甫)의 경채(京債) 상납미(上納米) 23석에 부당하게 걸려 끝내 포흠(逋欠)¹⁵⁷하였고 후에 선척으로 값을 계산하여 대신 납부하였는데, 해당 선척을 새로 구매한 사람인 본 동의 장연(張燕)이 값을 넘겨주기를 준행(準行)하지 않아 상납이 생경(生梗)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직산(稷山)에 이조(移照)하여 장가(張哥)를 잡아 가두어 대사(對查)하고 질판(質辦)한 뒤에 선가(船價)를 납부하기를 독촉하였으나, 추후에 그의 소장을 보니 횡수수설하여 전혀 두서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미 지어 올린 소장 중에 이른바 부비(浮費)¹⁵⁸를 운운한 것은 곧 선척을 추환(推還)하는 차에 몇 차례 상경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미 선척이 어긋남을 알고 도로 물리려는 마음을 먹었으면서 시종 쫓아가 수차례 비용을 쓰니 또 무슨 생각이란 말인가?

이미 선척을 물렸으니 응당 선급전(先給錢)을 도로 지급하여야 할 뿐인데, 서울에서 선척을 매각하려는 때에 장가가 경강(京江)으로 뒤따라와 자기의 선척(船隻)이라고 일컬으며 방매(放賣)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필경 본 포(浦)로 돌아온 뒤에는 값을 넘겨주려는 뜻이 없이 부비로 계산하여 제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선척은 끝내 장가가 거저 얻은 물건으로 귀결되는 것이니, 상납은 없어지게 될 뿐이란 말인가.

156) 내장원(內藏院) : 갑오개혁 때 궁내부(宮內府) 산하에 설치된 왕실 재정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갑오개혁으로 국가 재정과 왕실 재정이 분리되면서, 왕실 재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대한제국기에는 황제권 강화와 함께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관리하면서 근대적인 사업에도 관여하였다. 1905년 이후 일제의 황실 재정 정리 과정에서 내장원은 폐지되고 경리원이 설치되었다.

157) 포흠(逋欠) : 포(逋)는 조세의 포탈이고, 흠(欠)은 관청의 재화를 사사ροι이 소비하여 부족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관물(官物)을 사스럽게 써서 모자라는 물건은 담당 관원이 보상해야 하였다.

158)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소요되는 비용으로, 물건이나 우마(牛馬)를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이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의 출장비 개념으로 썼다.

또 선가 중에 이준경에게 6백 냥을 제(除)하고 지급하는 것은 선척의 시비가 있고 난 뒤에 내어주지 않으면 공전(公錢)으로 환충(還充)한다는 뜻으로 이미 오래된 약 조가 있었다. 이준경은 푼돈을 아직도 추봉(推捧)하지 않았는데, 지금 선가 1천 6백 냥을 먼저 지급해준다는 뜻으로 변리(邊利)를 갖추어 추심하려 하니 이는 무슨 사람의 마음이란 말인가. 변리를 갖춘다는 등의 말로 말하면 선척은 영영 환추(還推)할 수 없으니, 혹 그런 말이 있더라도 선척을 이미 추급(推給)하여 그는 도로 물러나는 처지에서 무슨 변리를 논할 겨를이 있단 말인가. 일마다 참고해도 말을 구명(究明)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본 동의 존동(尊洞)과 모모(某某)의 일을 아는 사람에게 전령(傳令)하여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송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장가의 옳고 그름, 비용이 얼마인지를 의견과 논리를 갖추어 보고하라. 부비(浮費)한 수입이 얼마인지, 동에서 비록 정확하게 알기 어렵더라도 해당 선척의 사공(沙工)과 격졸(格卒)은 필시 상세히 알 것이니 이른바 사공 등을 또한 일체 입회하여 조사하여 결단하는 마당에서 착오가 없도록 할 일이다.

비 내린 뒤 이양하는 일로 인하여 대소 인민들에게 영칙함 [因雨後移秧事 令飭大小民人]

초여름 이후로 한결같이 심한 가뭄이 들어 사방의 들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서 잠깐 동안 근심스러웠는데, 한번 단비가 쏟아져서 삼농(三農)을 위로하고 흡족하게 하였으니 관민(官民)이 기뻐하며 손뼉을 친 것이 이보다 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절기가 늦어짐에 미쳐서는 모내기 일을 속히 마친 연후에야 풍년이 있을 희망을 점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건대 곤궁한 백성의 형세는 부유한 사람은 좋은 쪽에 가까우나 가난한 백성은 근심스럽다.

만근(挽近) 이래로 속습(俗習)이 이웃 간의 정의(情誼)를 완전히 잊어 작은 이익을 탐취(探取)하니, 이른바 소를 먹인다는 것이 이것이다. 자기의 농사가 겨우 끝나자

다른 동의 세가(勢家)에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곳으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이웃의 곤궁한 집에서 사고(使雇)를 하려 하지 않으니 폐농(廢農)을 자초하는 것이 가는 곳마다 있었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어찌 개탄하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각 동은 일제히 달려가 일을 도와서 이웃 간의 정의(情誼)를 돈독히 하도록 하라. 지금 모내기¹⁵⁹⁾ 일과 김매는 법을 보건대 모두 당무와 관계되니, 또한 힘을 나누어도 미칠 수 없다는 탄식이 있다.

조종(早種)하고 선운(先耘)하는 습속은 일체 엄격하게 막아서 차례를 따르고 선후를 따르는 법을 보존하도록 하며, 소가 없는 동(洞)에 대해서는 부근의 동리(洞里)와 화호(和好)하고 상의하여 가능하면 공평한 쪽을 따라 빌려서 쓰라. 지금 이 영신(永申)을 형식적으로만 여기고 잘못을 고집하며 따르지 않는 백성은 응당 적발한 것을 따라 중벌(重辟)으로 시행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말아야 하는데, 해당 존동(尊洞)은 살피고 신칙하지 못하였으니 엄한 징계를 면하기 어렵다. 만 배 더 창념(暢念)하여 영칙이 도착한 상황을 각각 즉시 보고할 일이다.

소장(訴狀)을 잘 써서 바치는 방식 고시(告示)¹⁶⁰⁾ [訴狀繕呈事告示]

모든 소장(訴狀)을 인찰지(印札紙)¹⁶¹⁾에 2부를 잘 써서 바치면, 1부는 존안(存案)¹⁶²⁾에 둔다. 일반적인 백지(白紙)나 단장(單張)으로 와서 바치는 것은 일체 접수하지 않

159) 모내기(移秧) : 농민들은 김매기의 편리함 때문에 이앙을 선호하지만, 가을 때문에 이앙할 시기를 놓치면 아예 벼농사를 짓지 못하는 폐단이 심하다는 이유로 조정에서는 이앙을 금지하였다. 《景宗實錄 1年 2月 4日》《承政院日記 肅宗 30年 8月 26日》《承政院日記 英祖 50年 3月 10日》

160) 고시(告示)는 각 관청에서 민간에 고지할 때 사용하였던 문서이다.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제정되었다. 1895년 3월 칙령에 의해, 고시는 “관청에서 일정한 사항을 때때로 인민에게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었다. 그리고 6월 1일 관보에 발표된 「공문류별 급식양(公文類別及式樣)」을 통해 그 양식이 확정되었다. 「공문류별급식양」에서는 고시를 “각 관청에서 인민(人民)에게 고지(告知)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전에 사용하던 민간전령(民間傳令)과 계방(揭榜) 등을 폐지하고 고시라고 개칭할 것을 지시하였다. 전령(傳令)은 관원이 관하의 관리, 면인(面任), 민(民)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이고, 계방은 방문(榜文)이라고도 하며 여러 사람에게 어떤 일을 공지하기 위해 길거리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써 붙인 글을 말한다. 대표적인 방문으로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의 성명을 기록한 것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방목(榜目)이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전령이 본래 명령서였음을 감안할 때 고시는 소식을 고지하는 것 외에 민에게 정부의 지시나 명령을 전달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1) 종이에 가로와 세로로 선을 그어 만든 종이로, 글씨를 쓸 때 이를 밑에 받치고 쓰면 반듯하게 쓸 수가 있다.

162) 존안(存案)은 뒷날에 참고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문서철이다.

는다. 판결서(判決書)를 받지 않고 법정에 상소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징벌할 것이다. -이는 계시(揭示)이다.

모든 소장(訴狀) 지본(紙本)을 반드시 인찰지(印札紙)로 2부를 갖춰 바쳐서, 1부는 존안(存案)에 두어 뒷날 증빙으로 삼고, 양척(兩隻)¹⁶³이 불복하는 사안은 판결서(判決書)를 작성해 주어서 상소(上訴)하기 편하게 한다. 이렇게 법도를 정해 놓아도 민심이 옛 제도에 익숙하여 일반 백지에 단장(單張)으로 써서 바치고, 판급(判給)할 겨를도 없이 법정을 거쳐 관찰부에 상소하므로 장정(章程)을 어겨 여러 차례 상부의 엄훈(嚴訓)을 받게 된다. 아무리 우매하다고 한들 개정된 법령을 들은 자가 이미 오래 되었건만 어찌 이같이 미혹하여 법을 준수하지 않는가. 이제부터는 백지나 단장 소장(訴狀)은 일체 접수하지 않겠으며, 판결서도 없이 가서 상소를 하는 자는 따로 징계할 것이니, 모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이는 각면(各面)에 고시한 것이다.

길 닦는 일을 수교에게 고시하는 글 [因治道事告示首校]

지난번에 길 닦는 것을 고시하면서 ‘흐릿하게 감독하는 순교(巡校)에게는 엄중하게 징계하겠다’고 하였다. 어제 관아에서 북로(北路)로 행하면서 또 거듭 직접 신척하며 길 닦는 것에 관해 말한 것이 열 가운데 한둘이 아니었다. 길을 닦는데 풀이 번잡하게 싹이 트고 경계가 차츰 줄어들어 탄탄대로가 문득 나무꾼이나 목동이 다니는 좁은 길이 되고 양쪽 길가의 밭은 방죽같이 높이 쌓아 한 가닥 길바닥에 물이 터져 내를 이루었으니, 한 걸음도 건너기가 어렵다. 이런 길을 관아에서 공무로 닦은 길이 라고 할 수 있겠느냐? 거행한 것을 살펴보니 참으로 놀랍고도 탄식스럽다.

제대로 거행하지 않은 순교는 당연히 엄하게 징벌하되, 잠시 앞으로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특별히 너에게 당부한다. 우선 남북 대로부터 각처에 이르기까지 예전의 경계를 따라 널찍하고 평탄하게 닦되, 양쪽 가장자리에는 개울을 만들고 가운데 바

163) 양척(兩隻)은 송사(訟事)의 양쪽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를 가리킨다.

닥에는 흙을 부어서 볼록한 곳은 깎아내고 오목한 곳에는 채워넣어, 마치 기와를 덮은 것처럼 길을 닦아서 사람들이 다니기에 편하게 하라.

이와 같이 따로 신칙한 뒤에도 혹시 미진한 곳이 있으면 너에게 결단코 별도의 중벌을 내리리니, 만 배나 경계하고 두려워하라.

평택정거장(平澤停車場) 역장(驛長) 코노미 사토지로(許斐里次郎)를 대신하는 시장(市場) 설치 광고(廣告) [代平澤停車場驛長許斐里次郎廣告]

경부선(京釜線) 철도(鐵道) 가운데 평택정거장 아래에 있는 군문포(軍門浦)는 기호(畿湖) 지방의 갈림길이고 수륙(水陸)의 교차로이며, 관방(關防)에도 긴요한 곳입니다. 오른쪽으로는 호서(湖西)의 큰 바다와 통하고, 왼쪽으로는 안성(安城)의 큰 시장과 이어져 수산물(水産物)과 육산물(陸産物)이 모여드는 도회지(都會地)가 되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그러나 한산한 들판에 (도회지로) 발전하지 못해, 지금 교통(交通)이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을 확장하여 본사(本社, 경부철도회사)에서 군문포에 새로 시장(市場)을 설치하여 물건을 사고 팔며 옮기기 편하게 하려 하니, 그러면 일대 장관(壯觀)이 될 것입니다.

평택은 본래 시장이 없는 고을이어서 온갖 물건을 사고 팔려면 언제나 멀리 다른 고을로 가야만 했으므로, 곤란이 막심하였습니다. 이제 시장을 설치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일대 인사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환희(歡喜)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군문포) 시장에 오가는 사람이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물산(物産)이 (군문포 시장으로) 밀려드는 것을 뵈히 볼 것이니, 시장이 확장되는 것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장사꾼과 여행객들이 멀고 가까움을 헤아리지 않고 이 시장에 물건 쟁여놓기를 바란다면 조금도 어려움 없이 열갑절이나 흥정하여 판매하는 이익이 있으리니, 이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군물리의 존위, 동장, 감고¹⁶⁴에게 장시를 신설하는 데 대한 훈령 [軍勿里尊位洞長監考處新設場市訓令]

본 포(浦)는 곧 기호(畿湖) 지방이 교차하는 경계이자 수로와 육로의 통로로 옛날에 번창했던 땅이다. 지금은 적막한 시골이 되어 여러 해 동안 비어 오랫동안 발달하지 못하였다. 포운(浦運)의 회복은 공론이 모두 같은데 이번 20일부터 장시(場市)를 신설하려 한다고 한다. 이처럼 장시가 없는 마을로서는 귀를 기울여 들을 만한 것이니, 생각하고 힘써서 부디 유시유종(有始有終)하여 장래의 공효를 기대하라.

무릇 신설되는 장시는 법망이 느슨하면 단지 실질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말썽이 생기게 되어 허다한 폐단이 따라서 중첩될 것이다. 이는 별도로 더욱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응당 행하여야 할 조건을 좌기(左記)하여 훈령을 낸다. 너희 세 소임은 두루 다니며 단속하여 혹 조금의 소홀도 없도록 하고, 또한 응당 별도로 살피는 방도를 두어서 유념하여 거행하라.

1. 신설되는 장시는 술 마시고 도박하는 것을 비록 일체 엄단할 수는 없지만, 심하면 끝까지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거나 절도가 발생하여 술집이나 도박장을 따라 나올 것이니 더욱 엄히 단속할 일이다.
1. 물건의 가격은 절로 시세가 있으니, 혹 혈값에 억지로 사거나 혹 외상으로 강제로 가져가서 더욱 불화의 단초를 만드는 자는 모두 엄금하고, 만일 따르지 않으면 잡아 가두어 즉시 달려와 보고할 일이다.
1. 무단으로 주사(酒肆)나 기장(技場)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노니는 군속(郡屬)은 행동거지가 형편없는 자이니, 비단 엄히 금지할 뿐만 아니라 지명하여 은밀하게 보고할 일이다.
1. 장시가 철도 곁에 있으니 욕을 하고 패악한 말뭉이꾼인 이른바 역부들이 반드시 없다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특별히 엄금할 일이다.

164) 감고(監考) : 조선시대 전곡(錢穀) 출납의 실무를 맡거나 지방의 전세(田稅)·공물(貢物) 징수를 담당하던 아전을 말한다. 중앙에서는 서리(胥吏)가, 지방에서는 향리(鄕吏)들이 이 일을 맡았으므로, 감고 서원(監考書員) 혹은 감고 색리(監考色吏)·감고 색장(監考色掌)이라고도 하였다.

1. 재물을 왕래할 때 도둑이 뒤따르는 것은 역시 필연적인 형세이다. 더구나 지금 신설하는 즈음에 원근의 인사(人事)가 폭주하고 개중에는 수상한 자도 뒤섞일 것이다. 이는 철저히 주목하고 충분히 염탐하여, 한가하면 관정(官庭)으로 잡아 오고 급하면 일본 순사(巡査)에게 가서 고하라. 혹시라도 소홀히 하여 빠뜨리게 되는 폐단이 없도록 할 일이다.
1. 곡물의 가격은 반드시 상하의 시가(市價)를 따라 공평하도록 힘써야 한다. 새 장 시라는 구실로 핑계를 대어 후하거나 박한 데에 치우쳐 백성의 원통함이 생기게 해서 안 될 일이다.
1. 나루를 건네주는 사공이 선가(船價)를 지나치게 요구하여 그 폐단이 이미 고질이 되었다. 그러므로 예전의 정식이 단지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근일에는 갈수록 더욱 심해져 폐단이 또 거듭 생기자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이 낭자하였다. 사공 몇 사람을 현재 곤장을 쳐 가두어 엄감(嚴勘)하였다. 나루를 건네주는 선가는 물정(物情)을 참고하여 알맞게 헤아려 정급(定給)하되, 이 밖에 또 혹 지나치게 거두는지 너희가 하나하나 사찰하여 각별하게 엄금할 일이다.
1. 보행(步行) 1인은 적동(赤銅) 2푼, 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적동 4푼, 짐을 실은 우마(牛馬)는 적동 7푼, 공우(空牛)는 매 필(匹) 당 백동(白銅) 1푼, 기마(騎馬)나 승교(乘轎)는 행하(行下)¹⁶⁵하는 처분을 기다려서 감히 선가(船價)를 말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165) 행하(行下): 일정한 급료(給料) 이외에 위로조로 더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고복¹⁶⁶ 서원을 신칙하는 조규 [申飭考卜書員條規]

결세(結稅)는 나라의 큰 정사이다. 그러나 법의 의미의 중대함을 생각지 않고 매번 간세배(奸細輩)들이 거래(去來)하는 것을 옳긴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허다하게 작간(作奸)하는 것을 다반사인 것처럼 여긴다. 이른바 복(卜)을 끌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이미 논할 만한 것도 없지만, 심지어 거두기 어려운 채전(債錢), 잡기전(雜技錢), 주채(酒債) 등은 부복(付卜)하는 폐단이 많아 막중한 정공(正供)이 갈등으로 돌아다니 사상(事狀)을 생각하면 어찌 통탄하지 않겠는가.

금번에는 다만 주판(籌板)¹⁶⁷에 따라 작부(作夫)¹⁶⁸를 결정해야 할 것이니 그리 알도록 하되, 만일 응당 가거나 응당 와야 할 복(卜)이 있으면 소상(昭詳)함을 다 갖추어서 비록 파속(把束)¹⁶⁹의 작은 단위라도 착오를 범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크게 받지 않도록 할 일이다. 모(某) 공전(公錢)을 막론하고 관직에 따라 지위(知委)¹⁷⁰하면 즉시 공정(公庭)에 납부하고 인척(印尺)을 받아서 가되, 만약 흑시라도 담당자가 사사로이 주고 받다가 탄로되는 지경에 이른다면 돈을 비록 이미 납부하였더라도 인척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응당 해당 백성에게 재징(再徵)한 뒤에 엄히 징계하는 뜻을 면면(面面)히 신칙할 일이다.

교량과 도로는 참으로 관정(官政)의 우선해야 할 것이니, 생민들이 날마다 이용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가는 곳마다 수축(修築)하여 통행하는 어려움이 없어야 하니 곧 각 동이 응당 행해야 하는 것인데, 일전에 관리가 면을 순행할 때 직접 살펴보니

166) 고복(考卜) : 서원의 고급조(考給租)를 말하는 뜻하다. 고급조는 고복채(考卜債)라고도 한다. 서원은 본래 아전이 아니었는데, 옛날에 전지를 담당하는 아전이 성안에서 놓고 있는 자 10여 인을 뽑아서 여러 마을에 보내 작황을 답사한 다음 돌아와 문서를 정리하게 한 것이 선례가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아전으로 발전하였다. 매년 7월 초에 서원들이 농지를 답사하며 재실(災實)을 미리 살피는데 부호들과 짜고 재실을 허위로 보고하여 중간에서 이익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아예 답사할 때 1결당 4말의 조(租)를 뇌물조로 받게 한 것이 규제처럼 굳어져 정세(正稅)가 되다시피 하였다. 《經世遺表 地官修制 田制7》

167) 주판(籌板) : 농지의 자호(字號)·결부(結負)·조세액 등을 열기한 문서인데, 깃기(袷記)·모음책(募音冊)이라고도 한다.

168) 작부(作夫) : 조선시대 결세(結稅)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으로 팔결 작부(八結作夫)는 토지 8결마다 1명씩의 부(夫)를 두어 각종 부역(賦役)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169) 파속(把束) : 논밭에 매기던 결세 단위로, 1파(把)는 1/10속(束), 1/100부(負), 1/10000결(結)이고, 1속(束)은 10파(把), 1/10부(負), 1/1000결(結)이다.

170) 지위(知委) : 통지나 고시 따위의 형식으로 명령을 내려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혹 조금 수치(修治)된 곳도 있고 또 버려져 다스려지지 않은 곳도 종종 있었다. 가을에 곡식이 익는 이때에 도로를 수치하는 것은 이 시기의 가장 급한 일이니, 반드시 각 해당 지방의 임장(任掌)에게 엄명(嚴明)하게 신칙하여 실효가 있기를 기약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할 일이다.

각 동(洞)의 문학인 및 생존한 효열(孝烈) 아무개의 성명을 기록해 올 일이다. 술주정하는 자 및 노름을 하는 자와 그 우두머리 아무개 및 부랑하는 패류(悖類)를 일일이 찾아 올 일이다. 각 동에 혹 알려질만 하거나 말할 만한 고적(古蹟)이 있으면 모두 소상히 탐문하여 기록해 올 일이다.¹⁷¹⁾

171) 읍지(邑誌)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사하였다. 이 시기에 작성된 《평택군읍지》는 《충청남도읍지》에 편집되어 있는데, 건치연혁(建置沿革)·별호(別號)·강계(疆界)·6면 촌명(六面村名)·관해(官廨)·객사(客舍)·제언방축(堤堰防築)·학교(學校)·역원(驛院)·불우(佛宇)·누정(樓亭)·인물(人物)·기문(記文)·팽성 총론(彭城總論)·발문(跋文)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여 백



❁
제 3 장

❁
총쇄
제 20 책





제 3 장



총쇄 제 20 책

◆ 편지 ○ 평택군

- 공주관찰부 정우섭 주사에게 드리는 편지 [與公州觀察府鄭主事友燮書]
- 창녕현감 정태규에게 답하다 [答鄭昌寧泰珪書]
- 오위장 방대철에게 주는 편지 [與方五衛將大轍書]
- 창녕현감 정태규에게 답하는 편지 [答鄭昌寧泰珪書]
- 창녕현감 정태규에게 답하는 편지 [答鄭昌寧泰珪書]
- 참봉 강난수에게 보내는 편지 [與姜參奉蘭秀書]
- 강참봉에게 주는 편지 [與姜參奉書]
- 오위장 방대철에게 주는 편지 [與方五衛將大轍書]
- 근효곡 이병좌에게 답하는 편지 [答勤孝谷李雅炳佐書]
- 예산 영장 강원회에게 답하는 편지 [答禮山姜營將源會書]
- 오위장 방대철에게 답하는 편지 [答方五衛將大轍書]
- 교리 홍사필에게 주는 편지 [與洪校理思弼書]
- 주사 오경묵에게 답하는 편지 [答吳主事敬默書]
- 방산 허훈에게 주는 편지 [與許舫山薰書]
- 조카 영선(永善)에게 답하는 편지 [答永侄書]

- 주서 김명수에게 답하는 편지 [答金注書鳴洙書]
- 보국 학부대신 민금래 대감께 올리는 편지 [上閔輔國學部大臣琴來台監書]
- 사세국장 이견영에게 주는 편지 [與司稅局長李健榮書]
- 위원 이교혁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委員喬赫書]
- 위원 남필우에게 답하는 편지 [答南委員泌祐書]
- 아사 이정현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雅士鼎鉉書]
- 창녕현감 정태규에게 답하는 편지 [答鄭昌寧泰珪書]
- 죽성 정은교에게 답한 편지 [答鄭雅竹醒間教書]
- 창녕현감 정규태에게 주는 편지 [與鄭昌寧泰珪書]
- 죽성 정은교에게 주는 편지 [與鄭雅竹醒間教書]
- 관찰부 주사 이한용에게 주는 편지 [與觀察府李主事漢容書]
- 정태규에게 주는 편지 [與鄭雅泰珍書]
- 정은교에게 주는 편지 [與鄭雅間教書]
- 의관 강영원에게 주는 편지 [與姜議官永元書]
- 연일 현감 이병권에게 주는 편지 [與李延日昞權書]
- 벽하 방대철에게 답하는 편지 [答方碧下大轍書]
- 주사 오경묵에게 답하는 편지 [答吳主事敬默書]
- 민 학부대신께 올리는 편지 [上閔學部大臣書]
- 교리 홍사필에게 답하는 편지 [答洪校理思弼書]
- 오위장 운초 이용의에게 답하는 편지 [答雲樵李五衛將容儀書]
- 송암 정태진에게 답하는 편지 [答鄭松庵泰珍書]
- 공주 주사 고양 이태원에게 주는 편지 [與公州主事李高陽泰元書]
- 방 령 벽하에게 답하는 편지 [答方令碧下書]
- 방 령 벽하에게 주는 편지 [與方令碧下書]
- 참봉 강난수에게 주는 편지 [與姜參奉蘭秀書]
- 고양 군수 김신묵에게 답하는 편지 [答金高陽信默書]
- 벽하 방대철에게 주는 편지 [與方碧下令大轍書]

- 이운초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令雲樵書]
- 일본인 와카마쓰 요시키치에게 보내는 편지 [與日人若松嘉吉書]
- 진위 군수 신석현에게 주는 편지 [與振威倅申錫賢書]
- 방벽하에게 답하는 편지 [答方令碧下書]
- 개화리 주서 김명수에게 주는 편지 [與開花里金注書鳴洙書]
- 이운초에게 주는 편지 [與李令雲樵書]
- 이병좌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雅炳佐書]
- 이운초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令雲樵書]
- 진위현령 방시영에게 답하는 편지 [答方振威時榮書]
- 주서 김명수에게 답하는 편지 [答金注書鳴洙書]
- 공주관찰부 고양 이태원에게 주는 편지 [與公州觀察府李高陽泰元書]
- 의관 강영원에게 주는 편지 [與姜議官永元書]
- 승지 한창수에게 답하는 편지 [答韓承旨昌洙書]
- 정은교에게 답하는 편지 [答鄭雅閻教書]
- 정은교에게 답하는 편지 [答鄭雅閻教書]
- 전의 군수 권택수에게 답하는 편지 [答全義郡守權宅洙書]
- 벽하 방대철에게 주는 편지 [與方碧下大轍書]
- 운초 이용의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雲樵容儀書]
- 벽하 방대철에게 주는 편지 [與方碧下大轍書]
- 정죽성에게 답하는 편지 [答鄭竹醒書]
- 공주 예라당 주사 이한용에게 주는 편지 [與公州禮羅堂李主事漢容書]
- 정죽성에게 주는 편지 [與鄭竹醒書]
- 내부 회계국장 이용복에게 주는 편지 [與內部會計局長李容復書]
- 방벽하에게 답하는 편지 [答方碧下書]
- 참서 민충식에게 주는 편지 [與閔參書忠植書]
- 전의군 의관 황두연에게 주는 편지 [與全義郡黃議官斗淵書]
- 고성군수 박진국에게 주는 편지 [與固城朴○鎮國書]

- 우룡당 채오에게 답하는 편지 [答雨龍堂彩五書]
- 죽산 승죽동 죽인 주사 경묵에게 답하는 편지 [答竹山勝竹洞族人主事敬默書]
- 직산군수 곽찬에게 답하는 편지 [答稷山倅郭璨書]
- 석성 김인길에게 답하는 편지 [答石醒金寅吉書]
- 공주 징청각에 머물고 있는 여산군수 정관희에게 주는 편지
[與公州澄清閣留鄭礪山觀喜書]
- 육영재 재장 죽성 정은교에게 주는 편지 [與育英齋齋長鄭竹醒閻教書]
- 방 벽하에게 답하는 편지 [答方碧下書]
- 주사 정태영에게 답하는 편지 [答鄭主事泰瑛書]
- 대신 김가진에게 답하는 편지 [答金大臣嘉鎭書]
- 진보 진사 허숙에게 답하는 편지 [答眞寶許進士壩書]
- 시종 엄석주에게 답하는 편지 [答嚴侍從錫周書]
- 정죽성에게 주는 편지 [與鄭竹醒書]
- 정죽성에게 답하는 편지 [答鄭竹醒書]
- 의관 김홍식에게 답하는 편지 [答金議官弘植書]
- 성주군수 남궁억에게 축하하는 편지 [賀星州郡守南宮億書]
- 석성 김인길에게 주는 편지 [與石醒金寅吉書]
- 전의 군수 권태용에게 답하는 편지 [答全義倅權泰容書]
- 석성 김인길에게 답하는 편지 [答石醒金寅吉書]
- 정죽성에게 주는 편지 [與鄭竹醒書]
- 장의 김장옥에게 주는 편지 [與金掌議章玉書]
- 비서승 민충식에게 주는 편지 [與秘書丞閔忠植書]
- 종인 파운 경묵에게 답하는 편지 [答坡雲宗人敬默書]
- 진보 참봉 방산 허훈에게 주는 편지 [與眞寶舫山許參奉薰書]
- 손자 유영에게 주는 편지 [與惟孫書]
- 벽하 방대철에게 주는 편지 [與方碧下大轍書]
- 죽성에게 답하는 편지 [答竹醒書]

- 예라당 주사 이한용으로 인한 편지 [因禮羅堂李主事漢容書]
- 아들 극선에게 주는 편지 [與克兒書]
- 아들 익선에게 답하는 편지 [答翼兒書]
- 죽성 정은교에게 답하는 편지 [答鄭竹醒闇教書]
- 죽산 승죽동 종인 경묵에게 주는 편지 [與竹山勝竹洞宗人敬默書]
- 죽성 정은교에게 주는 편지 [與鄭竹醒闇教書]
- 청풍에 머물고 있는 벽하 방대철에게 답하는 편지 [答淸風留方碧下大轍書]
- 미국 사들항에서 유학하는 손자 혼영(欣泳)에게 답하는 편지
[答米國사들港遊學忻孫書]
- 응교 홍사필에게 주는 편지 [與洪應教思弼書]
- 석성 김인길에게 주는 편지 [與金石醒寅吉書]
- 도적을 막을 의견서를 부기함 [附 戢盜意見書]

공주 관찰부 정우섭¹⁾ 주사에게 드리는 편지 [與公州觀察府鄭主事友燮書]

지난번 뵙고 어느덧 봄이 다하였습니다. 한 번 편지를 드릴까 하였습디만, 다만 무익하게 안부나 여쭙어 귀를 번거롭게 할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지금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디만 아쉬우면 심상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삼가 문사오니 근래 관직생활은 한결같이 평안하시고 형제분들의 여러 일들은 하나같이 강녕하시오지요? 아울러 멀리서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번 스스로 달려나갔던 이후 앓던 손톱 종기가 이로 인해 더욱 심하여져서 일어나 다니기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거듭된 탓에 왕왕 쓰러져서 쇠약함이 더욱 심하여졌으니 스스로 가련함을 어찌 말하겠습니까?

이제 삼가 전문(箋文) 차원(差員)²⁾에 대한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이러한 경사스러운 모임을 맞이하였으니 공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과연 달려가고픈 소망이 있을 텐데 더욱이 이런 하늘이 빌려준 기회가겠습니까? 병의 상태가 움직일 희망이 전혀 없으니 이에 감히 송구스럽게 탈이 났음을 보고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늙은 이의 병으로 갈 길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위에 잘 전달하고, 탈면(頓免)³⁾의 은택 입기를 기약한다면 집사께서 내려주신 것이 아닌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극히 바라옵고 바라옵니다. 삼가 이만 줄입니다.

1) 정우섭(鄭友燮) : 생몰년 미상. 1902년 충청남도 관찰부 주사에 임명되어, 9월 17일 부임하였고, 1903년 10월 5일 의원면직하였다.

2) 차원은 차사원(差使員)의 약칭으로, 중요한 사무로 임시 파견하는 직원이다. 전문(箋文) 차원(差員)은 고을 수령이 임금에게 전문(箋文)을 올리는 데 보내는 사자(使者)인데, 이 글에서는 공주 관찰사의 전문 차원이다.

3) 탈면(頓免) : 뜻밖의 일로 인하여 저야할 책임이나 의무에서 벗어남을 가리킨다.

창녕현감 정태규⁴⁾에게 답하다 [答鄭昌寧泰珪書]

자리의 향기가 잠시 뜸하더니 편지 구름이 홀연 떨어져 이미 지극히 기쁘네다, 더욱이 편지마다 구슬 같은 시가 가득하여 한꺼번에 짝하여 이른 것이겠습니까? 받들고 읽으며 음미하니 고기맛조차 잊게 만듭니다. 어찌 도잠(陶潛)과 사령운(謝靈運), 심전기(沈佺期)와 송지문(宋之問)이 한 집안에 다 모였습니까? 장하고 장합니다. 삼가 마땅히 궤안에 두고 읽어도 싫증이 나지 않겠습니다. 공경히 밤 참선에 깨달음이 즐겁고 형제분들이 더욱 왕성하시기를 청하며, 우러러 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전과 마찬가지로 졸렬하여 받들어 올릴만한 글귀가 없습니다. 이에 십의대(十宜臺)라 한 것은 풍속이 순박하고 일이 간단하여 괴롭게도 한가함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일없는 가운데 하나의 일을 만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시 갑자기 해서 안 되는데 경솔하게 이름을 내린 것이지만, 바로 내가 내 정자에 이름을 붙인 것일 뿐 남에게 들려주려고 한 것은 아니니 무슨 생각으로 마침내 귀를 번거롭게 해드려 시상을 떠올리느라 수염을 꼬는 수고가 있으시게 만들겠습니까? 스스로 행운이라 여긴 나머지 황공함이 앞섭니다.

이른바 대(臺)의 주인(主人)이란 삼으면 그만입니다. 제영(題詠)에 이르면 우선은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는데, 지난번 방문하였다가 돌아가셨을 때 지은 것과 봄이 끝나던 날에 얻은 것을 지금 먼저 베풀어주신 곳에 감히 도외시할 수 없어서 졸렬함을 잇고 올립니다. 혹시 고쳐주신다면 또 얼마나 이같은 다행이 있겠습니까? 자리가 소란스러우니 우선 이렇게 공경히 답장을 드립니다.

4) 정태규(鄭泰珪) : 생몰년 미상. 1891년 창녕현감을 거쳐 내금위장이 되었다. 평택시 평성을 내근리 일대에 세거하던 해주정씨 충정공파(忠靖公派)의 주요 인물이다. 제목에 '鄭昌寧泰珪'라고 쓴 것은 '창녕현감을 지낸 정태규'라는 뜻이다.

오위장 방대철⁵⁾에게 주는 편지 [與方五衛將大轍書]

방금 이방(吏房)을 통해 「십의대기(十宜臺記)」를 얻어 읽었습니다. 대를 만든 것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장정을 하고 윤색을 하여, 십의(十宜)로 하여금 몇 층이나 솟아오르게 만드셨는지요. 십의대에 번번이 방문하여 어디로부터 왔는지 안 연 후에 비로소 집사 같은 훌륭한 분이 이 고을에 계신 줄 알게 되었으니, 소문을 일찍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 따라서 보옥 같은 재주를 품고서 스스로 깊이 감추고 계심을 알게 되니 더욱 흠모하여 우리를 만하였습니다.

식형(識荊)⁶⁾의 소원에 급급하여 이에 면식을 트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는 혐의를 피하지 않으니,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러러 몸이 평안하시기를 깊이 바랍니다. 저는 쌓인 고민이 하나가 아니니, 고을이 작고 일이 간략한 줄 특히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남기고 이만 줄입니다.

창녕현감 정태규에게 답하는 편지 [答鄭昌寧泰珪書]

시를 우러러 읊은 일이 잠시 적조하던 즈음에 편지를 받으니 위로와 감격이 특히 깊습니다. 삼가 근래 몸이 건강하심을 살피고 구구한 제 바람에 흡족하였습니다. 저는 오로지 게을러서 들려드릴 만한 시구가 없습니다. 이른바 운어(韻語)라는 것도 한가로움을 푸는 가운데 정하지 못한 초고이니 어디로부터 가져와 들려드리겠습니까? 이미 보여드린 것은 어찌 질정을 내리지 않으시는지요? 다만 버릇이 된 대로 쓴 것일 뿐이니 우습고 우습습니다.

동봉하신 말씀에서 성대한 의론을 알게 되었으니, 어찌 감복함을 이기겠습니까?

5) 방대철(方大轍) : 1885년 전주 경기전(慶基殿)을 개수할 때에 영감관(營監官) 출신(出身)으로 참여하고, 1887년 윤4월 27일에 오위장에 임명되었으며, 윤4월 29일 첨지(僉知)에 임명되었다.

6) 식형(識荊) : 상대의 명망이 높아 한 번 보고 싶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백(李白)이 형주자사(荊州刺史) 한조종(韓朝宗)에게 보낸 편지 <여한형주서(與韓荊州書)>에 “태어나서 만호후에 봉해지기보다는 단지 한번 한 형주를 알기를 원한다. [生不用萬戶侯 但願一識韓荊州]”라고 한 말에서 연유하였다.

다만 이는 명목이 절로 구별되는 물건에 매어있어 감히 허락하는 뜻을 드러내 보이지 못합니다. 품목에 쓴 것은 우선 이를 가지고 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알선해서 이루어지는 일의 상황이 십분 어그러지는 일이 없다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는 여러 유생들에게 성대한 계획에 달린 것이니 다만 눈을 씻고 공경히 기다려야 할 따름입니다. 『금강유록(金剛遊錄)』을 이에 다 올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창녕현감 정태규에게 답하는 편지 [答鄭昌寧泰珪書]

삼가 편지를 받고 맥량(麥涼 : 4월)에 평안하시고 형제분들도 건강하시다는 것을 알고 우러러 기쁘고 기뻐하였습니다. 저는 한결같이 전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시문을 차례로 받들고 읽으니 입안에 향기가 생겨나고 누대와 동산에 광채가 더하여 주신 것이 진실로 많으니 어찌 다만 백봉(百朋 : 많은 재화)의 가치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포의단기(褒義壇記)」⁷⁾가 이미 상세한데다 통쾌하게 서술되었으니, 읽다가 저도 모르게 무릎을 쳤습니다. 제 생각에는 받들어 서안에 두고 때때로 다시 보며 완상하여 마음속을 적실 계획입니다. 며칠 더 기다려주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보내주신 신선한 음식이 소박하고 담박한 저로 하여금 밥을 더 먹게 하니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이만 줄입니다.

7) 홍익한(洪翼漢)·오달제(吳達濟)·윤집(尹集) 등 삼학사의 충절과 유덕을 기려 이 고장 유림들이 1661년 평성을 함정리 서원말에 건립한 포의사(褒義祠)는 1704년에 사액되어 1871년 서원철폐령으로 헐릴 때까지 유생들의 교육과 함께 배향된 선유(先儒)들에 대한 제향을 행하였다. 오횡묵이 평택군수로 있는 동안에 경정리(鯨井里)에 포의단(褒義壇)을 설치하여 제사하였으며, 「포의단기(褒義壇記)」를 지은 정태규가 포의단장으로 공역을 추진하였다. 이때 오횡묵이 지은 「경정리포의단공필기(鯨井里褒義壇功畢記)」와 「포의사단장정창녕태규등품장지령(褒義祠壇長鄭昌寧泰珪等稟狀指令)」이 『총쇄(叢瑣)』 제19책에 실려 있다.

참봉 강난수⁸⁾에게 보내는 편지 [與姜參奉蘭秀書]

당(堂)에서 축수연(祝壽宴)이 열리고 하늘에서는 또 단비가 내렸습니다. 존가(尊家 : 상대방 집안)의 오늘 경사는 원만하다 이틀만 하니 우러러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삼가 바라건대, 부모님이 건강하시어 장수를 더욱 향유하시고 색동옷 입고 춤을 추어⁹⁾ 즐겁게 해드려 많은 경사와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축수드립니다.

저는 예전과 같이 객지의 주방에 배를 주리며 오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만, 하늘이 장난을 치는 것을 어찌겠습니까? 우러러 우습고 우습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강 참봉에게 주는 편지 [與姜參奉書]

비가 지나치게 내린 듯 합니다. 삼가 생각하오니, 밤새 상당(上堂)께서 평안하시고 어제 응수한 끝에 별 탈은 없으셨는지요? 별탈 없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실컷 잘 먹고 이어서 또 평안히 자서, 현재 상태가 매우 정신이 맑습니다.

이에 시를 지어 바치니 형편없어 말할 것이 못됩니다만, 경하드리는 일을 그만둘 수 없어 보잘것없는 재주를 잊고 억지로 흥내를 냈습니다. 비웃으며 보시고 나서 고쳐주시면 어떠실지요? 남은 얘기는 정토(淨土)에서 인사드리며 하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8) 강난수(姜蘭秀) : 생애 미상. 평택 팽성읍 남산리에 거주하였다. 1904년 남산리에 개량서당을 열어 운영하였는데, 현재 팽택성동초등학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9) 색동옷 입고 춤을 추어 : 춘추시대 초(楚) 나라의 효자인 노래자(老萊子)가 나이 70에 어린애처럼 채색옷을 입고 부모 앞에서 재롱을 부려 부모를 즐겁게 했다고 한다.

오위장 방대철에게 주는 편지 [與方五衛將大轍書]

밤에 돌아와 삼가 건강하심을 생각하니 우러러 송축하여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저의 상태는 여전합니다. 손자의 혼사에 나아가 힘써 인도해주심을 깊이 입고 허락해주심을 받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성사(星使)를 일으켜 먼저 귀댁에 가게 하여 김씨 집에 데리고 가서 일에 따라 가르쳐주도록 하셨으면 합시다만 어떠신지요? 강의(剛儀)¹⁰는 요즘 행하는 예가 없다고 하기에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근효곡 이병좌¹¹에게 답하는 편지 [答勤孝谷李雅炳佐書]

격조했던 끝에 소식을 받으니 얼굴을 한 번 뵈 것처럼 기쁩니다. 편지를 받들고 근래 신체가 평안하심을 알게 되니 바라던 바에 흡족하여 기쁩니다. 저는 하루가 일년처럼 길어 아송(峨松)¹²을 흉내내고자 하나 매번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어찌겠습니까? 대단히 우습고 우습습니다.

성대하게 지으신 시문을 한 번 받들어 읽으니 신선의 음악을 들은 듯 하였습니다. 십의대(十宜臺)의 경물이 이제야 품제를 얻었으니 우러러 감사드리고도 스스로 기뻐함이 끝이 없습니다. 문인의 수단을 다하면 사람을 고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마주하여 펼 수 있을지 정말로 서글프기만 합니다. 나머지는 멀지 않은 다음에 남기고 이만 줄입니다.

10) 강의(剛儀): 청혼편지를 가리킨다. 『가례』에 따르면 혼인이 정해져 납채의식을 행할 때 신랑측에서 먼저 사당에 고하고 신부집에 청혼하는 편지를 내는데, 이것을 강의 혹은 강선(剛先)이라 한다.

11) 이병좌(李炳佐): 생애 미상. 원제목의 이(雅)는 존칭이다.

12) 아송(峨松): 벼슬살이하며 한가로운 소나무를 읊음을 뜻한다. 한유(韓愈)의 <남전현승청벽기(藍田縣丞廳壁記)>에 나오는 말로, 최사립이 소나무 사이에서 시를 읊조리면서 묻는 사람이 있으면 공사가 있으니 가라고 했다고 한다 《韓昌黎文集 卷13 雜著 藍田縣丞廳壁記》

예산 영장 강원회¹³⁾에게 답하는 편지 [答禮山姜營將源會書]

어디에선가 편지 한 통이 와서 누구인지 살피지 못하였다가 봉함을 뜯고 세 글자를 보고나서야 비로소 영집(令執)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댁에 가서 뵈었던 일이 여전한데 이미 십여년 전의 일입니다. 받들고 한 번 읽고 나니 기쁨과 서글픔이 나란히 교차합니다. 다만 편지가 삼월에 보낸 것인데 이제야 도착하였으니 어느 곳에서 떠돌다가 여기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로 달이 벌써 두 번 반달이 되었는데 몸과 정신은 건강하시고 타향살이의 모든 일에 너무 생소한 탄식이 있으신 것은 아닌지요? 여러 가지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쉬어야 하나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녹봉에 매어 있으니 다만 스스로 부끄럽고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곳에 온 이후 귀 집안의 참봉과 끊임없이 왕래가 있다고 할 만합니다만, 영집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이 닿은 적이 없으니, 실로 헤어진 지 너무 오래되어 거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만간 광림하신다는 말씀은 좋은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할 때가 말할 때만 못할까 걱정일 따름입니다.

이 읍은 고을은 작고 일은 없어 오직 화훼 등으로 스스로 즐깁니다. 게다가 취석(醉石)이라는 고적을 얻은 바 있기에 실재를 기록하여 기문을 썼습니다. 이것이 이곳에 와서 한 일입니다. 이에 기록하여 드리니 후시라도 한 번 웃을 거리로 삼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릎을 맞대지 않고서는 하지 못할 말이 많아서 모두 남겨두고 이만 줄입니다.

13) 강원회(姜源會) : 생애 미상. 1870년 6월 15일 오위장(五衛將)과 첨지(僉知)에 임명되었고, 1881년 9월 26일 충익위장(忠翊衛將)에 임명되었으며, 1888년 하양현감(河陽縣監)을 역임하였다. 진주강씨 평택 입향조(入鄕祖)인 강호보(姜浩溥, 1690-1778)의 현손이다.

오위장 방대철에게 답하는 편지 [答方五衛將大轍書]

방금 편지를 받고 평안하심을 알게 되니 우러러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취석기(醉石記)」는 다른 마음이 이를 쌓아두었다가 묘사하려해도 할 수 없었는데, 어찌 묘사하는 것이 여기에 이르렀을까요? 매우 성대하고 성대합니다.

판본의 서체는 자유(子猷)¹⁴가 왕우군(王右軍)¹⁵의 집안에서 나온 것과 같을 줄 헤아렸겠습니까? 축하하고 축하하니 축하할 일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만 줄입니다.

교리 홍사필¹⁶에게 주는 편지 [與洪校理思弼書]

오래동안 뵙지 못해 그리워하며, 근래 뵙지 못하였으니 건강하시기를 우러러 기원하고 기원합니다. 저는 여전할 따름입니다. 포의단(褒義壇) 일은 그 사이 과연 완성되었는지요?¹⁷ 표재(褒災)¹⁸가 발령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혹은 찾아간 자가 있는지, 혹은 전연 오지 않은 곳이 있는지요? 과연 밖에서 주선할 방도가 있어서 그런 것 일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다행이고 다행인지요.

근래 괴롭게도 소일할 방법이 없어 시동(侍童)을 시켜 옆에서 책을 읽게 하고 베개에 기대 들으니 심심풀이가 될 만하였습니다. 읽고 있던 소미사(少微史)¹⁹ 7권은 이미 끝나서, 제8권을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으니 읽기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저 흘러가는 세월은 애석할 것이 없으나 제 한가함은 깨뜨릴 방도가 없는 것이 답답합니다.

14) 자유(子猷) : 진(晉)나라 명필 왕희지(王羲之)의 아들인 왕휘지(王徽之, ?-387)의 자인데, 역시 명필이다.

15) 왕우군(王右軍) : 우장군(右將軍)을 지낸 동진(東晉) 때의 명필 왕희지(王羲之, 307-365)를 가리킨다.

16) 홍사필(洪思弼) : 1856-?. 본관은 남양. 평택에 살았으며, 1893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홍문관 응교, 시강원 시독관, 홍문관 부수관 등을 역임하였다. 홍익한(洪翼漢, 1586-1637)의 봉사손이자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첫째 사위이다.

17) 홍사필이 1893년 문과에 급제하자, 고종이 6월 3일에 전교하였다. “이 두 집안에서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은 매우 기특하고 기쁜 일이니 새로 급제한 홍사필(洪思弼)과 오장환(吳長煥)의 방방일(放榜日)에 충정공(忠正公 : 홍익한(洪翼漢)과 충렬공(忠烈公 : 오달제(吳達濟)의 사판(祠板)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하라.”

18) 표재(褒災) : 흉년에 조세를 감세해 주는 일을 가리킨다.

19) 소미사(少微史) : 「통감절요(通鑑節要)」를 가리킨다. 송나라 때 강지(江贛)가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줄여 만든 50권 15책의 역사서이다. 강지의 호가 “소미선생(少微先生)”이므로 일컫는 말이다.

혹시 좀먹거나 망가졌더라도 상관없으니 댁에 있는 것을 잠시 빌릴 수 있다면 열흘을 넘기지 않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아리시어 반드시 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주사 오경묵에게 답하는 편지 [答吳主事敬默書]

이별 후 울적하고 그리운 마음이 만나지 못했을 때보다 곱절이었는데 심부름꾼이 와서 몸과 정신이 건강하시고 댁내가 모두 평안함을 알게 되니 얼마나 위안이 되고 기쁘지요. 족중(族從)²⁰⁾은 여전히 쇠잔한 사람입니다만 손자 수영(壽泳)의 혼인이 그 저께 잘 이루어졌고, 모든 절차가 매우 조화로워 스스로 기쁘고 다행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두 편 지으신 작품을 보니 한양의 거장을 앞서 어찌 몰랐겠습니까만, 이번에 지으신 것에 비단을 짠 듯 이루어진 문장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취석(醉石)과 십의대(十宜臺)가 이로 인해 더욱 빛나게 되었으니 받은 바가 큼니다. 부지런히 감사를 드려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향반(香磐)이 시경(詩境)과 같은 손에서 나온 작품이 없었다면 어찌 향우지탄(向隅之歎)²¹⁾이 없겠습니까? 부디 문체에 구애받지 마시고 성대한 뜻에 따라 지어 나오는 대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하신 중매는 그 사이 과연 여러 곳에서 의논해온 곳이 있었습니까만, 상쾌하게 괜찮은 곳은 우선 없었습니다. 다만 마땅히 널리 탐색해야 반드시 계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요량에 딱 맞는 곳을 찾기 어려우니 이해해주시어 어떠신지요? 나머지는 돌아갈 길이 바빠 이만 줄입니다.

20) 족중(族從): 같은 집안 사람에 대한 겸칭.

21) 향우지탄(向隅之歎): 홀로 곤경에 처한 탄식. 한(漢)나라 유향(劉向)의 「설원(說苑)」 「귀덕(貴德)」에, “지금 당에 가득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홀로 쓸쓸히 구석을 향하여 운다면 온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즐겁지 않을 것이다. [今有滿堂飲酒者有一人獨索然向隅而泣則一堂之人皆不樂矣]”라고 하였다.

방산 허훈²²⁾에게 주는 편지 [與許舫山薰書]

한 번 이별한 이후로 뵈을 길이 없었고, 편지를 써 놓아도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비록 이곳이 바쁘다 하여도 동쪽을 향해 울적해 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더욱더 흘렀습니다. 삼가 건강은 한결같이 왕성하신지, 아드님 역시 평안하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안부가 궁금하고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른바 벼슬이 도리어 계륜(鷄肋)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가을 금마(金馬)에서 이곳으로 옮겨온²³⁾ 이래 모든 일을 그럭저럭 보내는데, 모양새가 잔박(殘薄)한 것이 진성(眞城)²⁴⁾보다 비교적 심합니다. 한적하여 하는 일이 없으므로, 봄 사이 관아의 동산을 넓혀 축대를 쌓고 십의대(十宜臺)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때때로 석성(石醒)과 함께 술을 가져오라 하여 대작하다가 문득 다시 말이 귀하게 이르면 진실로 알 길이 없는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이 고을에는 옛날에 취석(醉石)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있는 곳을 몰랐습니다. 우연히 한 번 파보아 이른바 취석이라는 것을 얻어 옛 전자(篆字)로 '취석(醉石)' 두 글자를 새겼습니다. 바위의 품질이 푸른 옥 같아서 보배로 여겨 아낄 만합니다. 이것이 이 고을의 고적이었을 텐데 몇 백년 동안 매몰되어 있다가 지금 비로소 나온 것입니다.

말하는 자들은 기이한 일이라 하며 모두 실재를 기록하여 오래도록 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일단은 글을 잘 지을 사람이 없어 못하고 있습니다. 적이 이 일을 우러러 부탄드리고 싶습니다만 감히 하지 못하니, 매우 한탄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답신

22) 허훈(許薰) : 1836-1907.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순가(舜歌), 호는 방산(舫山). 경상북도 선산군 임은(林隱) 출생. 성호학파 허전(許傳)의 문인이다. 1896년 경상북도 진보에서 창의하여 진보의진(眞寶義陣)을 결성한 의병장으로, 전담 3천여 마지기를 팔아 아우 허위의 의병 활동을 지원하였다. 개항기 의병 활동을 통해 국권회복을 위한 구국운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1907년 봄 도산서원(陶山書院)과 병산서원(屏山書院)의 원장에 추대되었으나, 그 해 8월에 사망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23) 지난 ... 옮겨온 : 금마(金馬)는 익산군의 옛이름이다. 오횡목이 1902년 6월 익산 군수에서 평택 군수로 전임되었으니, 이 편지는 1903년에 썼음을 알 수 있다.

24) 진성(眞城) : 오횡목이 1899년 6월부터 1900년 12월까지 군수로 있었던 경상북도 진보(眞寶)를 가리킨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청송군에 병합시켜 진보면이 되었다.

하는 길은 이번에 가면 이령(李令)에게 반드시 본택에 가는 인편이 있을 것이니, 이를 통해 혹시라도 답장을 해주시려는지요? 부디 잘 보양하시어 이 멀리 있는 바람에 부합하시기를 빕니다. 예를 갖추지 못하고 이만 줄입니다.

조카 영선(永善)에게 답하는 편지 [答永侄書]

직접 쓴 편지를 받으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움에 많은 위로가 되는구나. 편지 후 한동안 지났으니 집안 어른들은 한결같이 평안하시고 집안 식구들은 모두 잘 지내는 지 모르겠다. 멀리서 염려하는 마음이 끝이 없다. 이 가운데 쇠약한 모습은 마치 해가 산 아래로 지는 듯하여 답답하고 답답하다. 다만 증손자 수근(壽根)의 혼인은 이 고장에서 치렀으니, 들어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모든 절차가 매우 좋았으니 다행일 뿐이다.

너의 아들 혼사는 이미 가을로 미루었으나 딸의 혼사는 납채에 이르렀으니, 날짜 정하는 일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느냐? 본래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혼자의 힘으로 어찌 조처하고 대비할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멀리에 있어 함께 걱정할 수 없으니 한탄스럽고 한탄스럽구나. 가까운 편에 서울 집에 통기하여 얼마간 보내줄 계획이지만, 너의 근색함이 심한데 마음처럼 해줄 방법이 없으니 다만 상재지탄(傷哉之歎)²⁵⁾이 간절할 뿐이다.

이른바 세 사람이 산지(山地)의 일 때문에 운운한 것을 들으니 놀라움이 이길 수 없구나. 심(沈)은 본래 무학(武學)에서 쫓겨나 부랑자라 불리는 자인데, 지금 화복을 가지고 겁주는 말을 하니 진실로 부랑함이 더욱 심해진 것을 보는구나. 네가 좋은 말로 답하여 보냈다 하니 정말로 잘 조처하였다. 그러나 신(愼) 아(雅 : 존칭)가 양보하여 주어도 무방하다고 한 것은 비록 땅이 곧 우리 집안의 땅이고 동리의 땅이

25) 상재지탄(傷哉之歎) : 가난을 탄식함을 가리킨다. 자로(子路)가 공자에게 “슬픕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제대로 봉양할 수 없고 돌아가신 뒤에는 예(禮)를 갖추어 줄 수 없으니 말입니다. [傷哉貧也 生而無以供養 死則無以爲禮也]”라고 한 말에서 연유하였다. 《禮記·檀弓下》

아니기 때문에 이렇듯 완곡하고 좋게 말한 것일 지라도, 다른 사람이 장사를 치르는 지경에 이르면 어찌 한 동리의 요해처를 그냥 남에게 빼앗아서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칠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땅에 장례를 치른 적이 있었는데 돌 때문에 낭패를 당해 그만 두었다고 들었으니, 이제 여기 김 지사가 풍수보는 무리에게 속임을 당한 것인지 헤아려 볼 바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허비하고 나서야 깨달을 것이라 금하지는 못하고 스스로 그만둘 것이다. 오늘 우리 집안이 해야 할 것은 좋은 말로 굳게 거절하여 스스로 일 어났다가 자멸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니, 어찌 부당하게 이장(移葬)하여 억지로 사리와 인정에 크게 미안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내 뜻은 분명히 정해졌으니 이 뜻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저들이 만일 꺾어내고 위협하여 더욱 어지럽힐 단서가 있다면 오직 좋은 말로 물리치는 것이 가장 괜찮을 것이다.

우선 이 편지를 동리의 사람들에게 돌려 보여주어서 일을 이해시키면 모든 성원들이 반드시 같은 배를 탄 심정으로 헤아려줄 것이다. 비록 말과 표정일지라도 절대 능력이 달려서 먼저 누워버리는 상황은 보이지 말기를 지극히 바라고 바란다. 임기응변하는 것은 너 하나로 족하다. 나 같이 멀리 있는 사람이 쓸데없이 염려하는 것을 어디에 쓰겠느냐? 어수선한 마음이 많지 않구나.

주서²⁶⁾ 김명수²⁷⁾에게 답하는 편지 [答金注書鳴洙書]

일전에 민(閔) 아사(雅士)를 통해 훌륭하게 지으신 「십의대기(十宜臺記)」를 받잡고 이미 비루하지 않음에 감동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송사(頌辭)에 머리 숙여 감사드렸는데, 곧바로 또 은혜롭게 안부를 물어 선대로부터의 교분이라는 문자로 아껴주시

26) 주서(注書) : 조선시대 승정원의 정7품 관직이다. 승정원의 기록, 특히「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담당하여 청요직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초기에는 사관(史官)을 겸하지 않았으나 1457년 7월부터 비로소 춘추관기사관을 당연직으로 겸임하게 하여, 사초(史草)의 기록이나 실록편찬에 참여하였다. 또 의금부·전옥서(典獄署) 등에 중요 형옥이 있을 때에는 그 심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27) 김명수(金鳴洙) : 승정원일기 고종 24년(1887) 6월 18일에 부사용(副司勇)으로 이름이 보이기 시작하여 30년(1893) 10월 19일 문과에 급제하고 주서(注書)가 되었다.

니 놀랍고 기쁘면서 겸연쩍고 부끄러운 마음을 뭐라 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래 더위가 심한데도 타향에 계신 몸과 정신이 평안하시니 구구한 제 바람에 흡족합니다. 저는 한결같이 어리석어 요강을 받들기에도 부족한 자입니다.

이른바 십의대 역시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만든 것이었으나, 필묵으로 운색하는 수고를 받기에 이르자 한 조각 흙으로 쌓은 대가 어느새 설령(雪嶺)에 오른 이단단(李端端)²⁸⁾이 되었으니 받은 것이 본디 이미 많습니다. 더욱이 「춘우실기(春雨室記)」는 포치하여 서술함에 법식이 있고 정경 양쪽을 다 하였으니, 묘하여 신의 경지에 든 글솜씨가 아니라면 어찌 몸이 그 가운데 노니는 듯하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보불(黼黻)²⁹⁾ 같은 아름다운 문장에 과거에 급제하였다는 향기로운 명성을 거둬하였으나 먼 외지에 빠져 있으니 평온하지 못하여 스스로 올림을 면치 못하였으니, 하늘이 문인을 곤궁하게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탄식과 애석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자리를 함께하여 평온하게 이야기로 풀 수 있을까요? 보잘 것 없는 집에 왕립하시는 것은 본디 감히 바라지 못합니다만, 산음(山陰)의 흥³⁰⁾ 역시 가뭄 때문에 어그러졌습니다. 괴롭고 괴로운 일은 모두 남겨두고 조만간 뵈겠습니다. 감사하다는 예는 갖추지 못합니다.

28) 이단단(李端端) : 기녀 이름. 당나라 양주(揚州)의 최애(崔崖)와 장우(張祐)가 시명(詩名)이 높아, 좋게 평가한 기녀에게는 손님이 몰려오고 나쁘게 평가한 기녀에게는 손님이 끊겼다고 한다. 낮은 평가를 받은 기녀 이단단(李端端)이 두 사람을 찾아가 애걸하여 결국 좋은 시를 받아내니 손님이 문전에 넘쳐났다. 그러자 어떤 이가 “묵지(墨池)를 벗어나자마자 곧장 설령(雪嶺)에 올랐으니, 어찌 하루 사이에 흑백(黑白)이 달라진단 말인가.”라고 탄식하였다고 한다. 《古今事文類聚 後集 卷17 媚詩毀譽》

29) 보불(黼黻) : 옛날에 임금의 대례복(大禮服)인 곤복(袞服)에 수놓았던 화려한 문양을 말한다. 보(黼)는 흰색과 검은색으로 자루 없는 도끼 모양을, 불(黻)은 검은색과 푸른색으로 ‘아(亞)’자 모양을 수놓은 것으로, 전하여 유려하고 찬란한 문장(文章)을 비유한다.

30) 산음(山陰)의 흥 : 벼를 방문함을 가리킨다. 진(晉) 나라 왕휘지(王徽之)가 눈발이 그치고 달이 청량하게 빛나는 밤, 친구인 대규가 홀연히 생각나서 작은 배를 타고 집 앞까지 왔다가 흥이 다하자 친구도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간 고사가 전해 온다. 《晉書 王徽之傳》《世說新語 任誕》

보국 학부대신 민금래³¹⁾ 대감께 올리는 편지

[上閱輔國學部大臣琴來台監書]

오랫동안 안부를 여쭙지 못하여 항상 마음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삼가 가뭄이 심한 지금 시중의 건강과 침식이 근래 다시 평안하신지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우선 일자리를 보존하고 있으나 어지러운 재앙이 상쾌하게 떨어져 나가지 않아 삼가 개인적인 고민이 절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자 이영(怡泳)이 오늘 초하루에 이 고장에서 혼인을 하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 우례(于禮)³²⁾는 가을쯤 할까 하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영은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으므로 보고서 바로 서울 집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만 줄입니다. 삼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³³⁾

부임하여 온 후 공사간에 합하여 한 번 상경하였고, 세 군의 체납(替納)³⁴⁾은 한 푼도 추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조(利條 : 이문)과 허다한 부비(浮費 : 경비)가 또 수만여 냥에 이릅니다. 스스로 제 분수를 돌아보고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일의 상황에 이르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으로 간신히 지내면서 우선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경에는 어느 지경에 이를까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한 평생 근신하게 지냈다고 여겼는데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정을 진작에 한 번 얼굴을 뵈고 전달하고 싶었으나, 한 번 가는 일을 비록 대략 따져보아도 비용이 1백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에 이루지를 못하였으니 다만 간절하게 탄식할

31) 민금래 : 금래(琴來)는 민영소(閔泳韶, 1852-1917)의 호로, 본관은 여흥(驪興)이며, 자는 순악(舜若)이다. 1878년 문과에 급제한 뒤에 학부 대신, 공내부 대신, 농상공부 대신, 박람회사무소 위원장, 중추원 의장, 규장각 지후관 등 주요 관직을 역임했다. 1894년 병조 판서로 재직하면서 홍종우를 시켜 망명 중인 개화파 김옥균의 암살을 사주했다. 일제강점 이후 한일합병 공로로 1910년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으며, 1911년 1월 5만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대한제국으로부터 1907년 팔괘장을 받았으며, 일본정부로부터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과 1915년 다이쇼(大正)대례기념장을 받았다. 보국(輔國)은 품계가 정1품 보국승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해당되므로 이른 말이다.

32) 우례(于禮) : 신부가 처음 시집으로 들어가는 예식을 가리킨다.

33) 이 아래 편지 2건은 문집 원본에서 줄을 바꿔 한 글자 내려 썼기에, 별개의 편지로 편집하였다.

34) 체납(替納) : 세미(稅米)를 돈이나 비단 같은 것으로 바꾸어 납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뿐입니다.

올해 가뭄은 보리 흉년의 끝에 나왔으니 백성들의 사정이 황급합니다. 비록 대체로 같지는 않지만 본 군에는 본래 수원(水源)이 없어서 반드시 빗물을 기다린 후에야 모내기를 못할 걱정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5월초 일리우(一犁雨)³⁵⁾가 온 이후로 먼지 적실 비 한 번이 온 적이 없습니다. 약간 옮겨 심은 모는 이미 거북이 등 겹질처럼 갈라지는 데 이르렀고, 그 나머지 옮기지 못한 모는 심지어 모판에서 허영게 말라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비록 비가 내려도 농사는 이미 흉년으로 판결이 났고, 하늘의 뜻은 막연합니다. 만약 며칠 더 지난다면 콩 등속 역시 결실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물가는 곧장 날마다 올라서 돈이 있어도 사기 어렵다고 합니다. 목하 위험한 상황이라 장차 아침저녁도 보장하지 못할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고 두려워 형용해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세국장 이진영에게 주는 편지 [與司稅局長李健榮書]

에는 생략합니다. 근래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못하고 우러러 그리워하여 안절부절 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삼가 근래 지독한 더위에 몸은 한결같이 건강하신지, 공무는 크게 번민하여 신경을 쓸 것이 없으신지 알지 못하여 우러러 기도하는 구구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병으로 쇠약하고 더위에 고생하여 스스로 가련하게 여기기에 족할 것이 없으나, 보리 흉년 끝에 가뭄이 또 이와 같으니 눈에 울부짖는 형상이 넘쳐나 참담하여 차마 보지를 못하겠으니 이를 앞으로 어찌해야 합니까?

익산의 세색(稅色)³⁶⁾ 김정하(金鼎夏)가 잡아 올린 일에 관해서 집안 편지를 통해,

35) 일리우(一犁雨): 쟁기질을 하기에 알맞게 내린 봄비를 가리킨다.

36) 세색(稅色): 조세를 맡아보던 구실아치를 가리킨다.

또 훈령이 발령되었고, 겸해서 순검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삼가 매우 감사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뜻대로 잡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반드시 아래로부터 피하기를 피할 우려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따라서 방편을 더한 후에 사람이 잡을 수 있고 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사정을 살펴주시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부디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익산 군수의 답장을 보니, ‘어떠한 명목으로 체납(替納)을 하였느냐’고 하였는데 말이 나무라고 조롱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본래 그 일은 그가 담당한 것인데 갑자기 저에게 미쳤습니다. 지금 도리어 덕을 원한으로 갚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이 문제는 제가 헤아려보면 이미 봉납하였다고 말할지라도 익산군수의 입장에서 보면 미납인 것입니다. 비록 저의 사례를³⁷⁾ 써서 잡아서 추고하여도 역시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십분 특별히 헤아려 주셔서 죽음에 다다른 목숨을 구해주시기를 부디 바랍니다.

평택의 세전(稅錢)은 지금 거의 정산이 끝났으나 여수군(麗水郡)·진보군(眞寶郡)·익산군 세 군의 체납조(替納條) 2만여 냥은 일찍이 한 푼도 건어들인 것이 없으니, 이식이니 부비니 하는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입니다. 정세가 만일 존망의 지경이 아니라면 어찌 이러한 슬프고 괴로운 말로 귀하신 귀를 번거롭게 해드리겠습니까? 허물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나머지는 줄이고 예를 소략히 합니다.

37) 저의 사례를 : 오형묵이 익산군수로 부임하기 전에 여수군 1만6천냥, 지도군 7천냥, 진보군 2천냥 등 세전을 납부하지 못하여 평리원(平理院)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아, 아들이 빚을 내어 대신 갚은 일이 있었다.

위원 이교혁³⁸⁾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委員喬赫書]

우리를 길이 없어 안절부절하던 중에 편지를 받게 되니 직접 만나 회포를 펴는 것 만큼이나 위로가 되고 기뻐합니다. 그 사이 또 며칠간 날마다 가뭄이 혹독해지는데 살피지 못하고 있다가, 몸은 건강하시고 다행은 두루 평안하시다니 우러러 기도한 대로인 것에 기쁩니다. 그러나 천수(天水 : 빗물)의 혼란과 흉년의 우려로 실로 구구한 염려를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흉년의 근심이 눈에 넘쳐나 지금 바야흐로 비늘방석이 앉은 듯 하니 이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신 위원이 복직하신 것은 얼마나 기쁘고 기쁘지요? 그리고 각 위원이 지체한 것이 어찌 그리 편안하게 이에 이르렀는지요? 이는 추심을 한 연후에야 생경함을 면할 것입니다. 부디 이를 헤아려 따로 일이 끝나도록 기한을 독려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석성(石醒)은 4월에 이곳에 왔는데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태경(泰卿)이 와서 머문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현재는 또 서울로 돌아갔으니, 내일이나 모레 사이일 것입니다. 석성이 말하기를, “함께 서울에 살아 합석한 날이 저절로 많았으나, 내가 이 서천(怨泉 : 이교혁의 호)을 다시 볼 날이 아마도 없을 것 같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서글픔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일전에 손자의 혼사를 이 고장에서 치렀으나 손자는 막 태경과 함께 상경하였습니다. 남은 얘기는 모두 남긴 채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38) 이교혁(李喬赫) : 1898년 대한제국에서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기 위한 양지아문(量地衙門)을 설치하여 한성부의 토지조사에 착수하였다. 1899년 아산군을 대상으로 하여 시범적으로 지방의 토지조사를 행하였다. 이때 진의군수 정도영(鄭道永)이 충청남도 양무감리(量務監理)를 맡아 4인의 양무위원(量務委員)을 비롯한 학원(學員) 22명을 대동하고 6월 20일부터 약 3개월간 양전을 실시하였다. 이교혁은 이 양무위원 가운데 한 명이다.

위원 남필우에게 답하는 편지 [答南委員泌祐書]

지난 3월 본 군에서 서울로 가는 인편을 통해 답장을 부쳤습니다. 근일 그 사람이 그 편지를 돌려주면서 '병 때문에 서울에 가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일의 형편 때문일지라도 죄송스러운 제 마음은 형용할 말이 없습니다. 이에 다시 감사드리는 편지를 드리나 어찌 실상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까?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삼가 문자오니, 근래 더위에 집을 떠나있으면서 몸과 정신은 건강하시고 귀댁이 평안하다는 소식은 계속 받고 계시며 상무(桑務)는 과연 실효가 있으신지요? 구구한 마음으로 우러러 기립니다. 저는 어지러운 재앙은 여전하여 이미 지극히 스스로가 가련한데, 보리흉년 끝에 가뭄이 또 이와 같으니 앞일이 막연하게 아득하니 근심과 한탄을 어찌하겠습니까? 언제쯤 고향에 돌아가겠습니까? 뵈올 기약이 없어 다만 한 장 편지로 대신합니다. 편지를 대하니 더욱 암담합니다. 모두 남겨둔 채 감사하는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아사 이정현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雅士鼎鉉書]

지난 편지에 위로를 받고 머리숙여 감사하며 울적하게 우러러 보았습니다. 삼가 가뭄이 심한 요즘 건강은 한결같이 왕성하신지 살피지 못하니 우러러 빌며 구구한 심정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노쇠한 상태가 심하게 되어 이미 지극히 스스로가 가련한데 가뭄의 일이 이와 같으니 걱정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듯 하니 어찌겠습니까?

지난 편지에 여전히 감사를 드리지 못하였으니, 할 만한 방도를 기다려주신다면 다소간 우러러 부응하는 계책이 있습니다. 여수·진보·익산 세 군의 체납 조가 점차 층층 곡절이 생겨나고 좌우에서 변통해서 꾸며대니 골몰하여 시간이 없어, 마음을 펴는 등의 일에 이르면 과연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필경 빈 문서를 써서 올리는 일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헤아려 바다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어찌 바

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부끄러워 형용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세속의 악착같은 무리가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심하게 책망하지 않으시기를 생각할 따름입니다. 이만 줄이고 감사를 갖추지 않습니다.

창녕현감 정태규에게 답하는 편지 [答鄭昌寧泰珪書]

가뭇에 몸조리가 오히려 더디게 회복하고 있으니 비록 짧은 시일에 효과를 거두는 병이 아닌 줄 알고 있었으나, 늘 기원하는 바가 과연 실체가 되는 것을 곧 받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갈증에 고생하는 것이 심해져서 앓지 못하는 병이 없을 수가 없으니, 유독 가련함을 어찌 말하겠습니까?

춘우실(春雨室)의 송(頌)과 시(詩)는 미령한 중에 어찌 이런 부지런한 기세에 이르렀는지요? 깊이 감동하여 뭐라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죽성(竹醒) 응과 송암(松菴) 제씨가 나란히 지어서 보여준 것이 있는데, 훌륭한 뜻이 이른 바가 아닌 것이 없어 우리 선재(先齋)³⁹⁾에 불후의 보물을 간직하게 해주었습니다. 삼가 마음에 새겨 영원히 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만 줄이며 사례를 갖추지 못합니다.

죽성 정은교⁴⁰⁾에게 답한 편지 [答鄭雅竹醒闇教書]

우연히 면식을 트게 되어 지금도 충만하였는데, 또 절하게 되니 앞서 베풀어주신 것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풍류와 유아(儒雅)가 역시 제 스승이시구나 더욱 깨달았습니다. 가뭇에 객지에 계신 몸이 건강하심을 살피니, 진실로 우러러 바라던 바에

39) 선재(先齋) : 선친의 재실을 가리킨다.

40) 정은교(鄭闇教) : 자는 치학(致學), 호는 죽성(竹醒). 농포(農圃) 정문부(鄭文學)의 후손이다.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의 문인으로 진실되게 궁구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돈독한 행실을 실천했다. 고종(高宗)이 승하(昇遐)한 뒤로는 종신토록 흰 옷을 입었다. 유고(遺稿)가 있다.

흡족합니다. 고상하고 우아한 말씀과 해학에 이르면 위로가 되어 주인의 근심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러러 그 이익이 넓고 많음을 알게 되었으니, 실지로 하나의 일을 하는 것이 금강산 유람에 비해 나은 것이 계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본래 성기고 게으른데 이런 건양(愆陽 : 기뻐)을 만났으니 오래 전에 「귀거래사」를 읊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섯 그루 버드나무와 취석 사이에서 즐기고 있어 도연명을 못나게 흉내내는 듯한 점이 있으니 어찌 부끄럽고 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

시와 글을 보내주셔서 받들고 한 차례 읽으니 마치 무고(武庫)에 들어간 듯 하니 맑은 서리와 붉은 번개가⁴¹⁾ 사람의 눈을 두렵고 어지럽게 합니다. 우선 감히 어떻게 형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앉아서 찾아오게 한다고 혐의치 마시기 바라오니, 한 번 찾아주셔서 사적으로 배우고 싶었던 바람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서답을 쓸고 오로지 기다릴 따름입니다. 많은 이야기는 대면할 때로 미루고 이만 줄입니다.

창녕현감 정태규에게 주는 편지 [與鄭昌寧泰珪書]

비가 이제 널리 적셔서 경사와 기쁨이 다 똑같습니다. 삼가 건강이 이로 인하여 점점 소생하게 되겠지요. 구구한 마음으로 우러릅니다. 저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드리는 몇 종의 과일은 지난번 댁에서 돌아온 후 오로지 서울집에서 보내온 것을 부친 것입니다. 능금 같은 것은 조금 일러서 약간 쉽니다. 그러나 이미 구해도 얻지 못했다는 말을 하셨다고 알고 있기에 이와 같이 하고, 청과자(淸菓子) 한 봉지도 함께 올립니다. 혹시라도 쓴 약맛을 가시게 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41) 무고(武庫)에 들어간 듯하니 맑은 서리와 붉은 번개가 : 무기고에는 없는 것 없이 다 갖추어져 있으므로 매우 다재다능함을 비유한 말이다. 당(唐)나라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홍과 봉황이 날아오르는 듯한 문장은 맹 학사의 문장 우두머리요, 번갯불과 서릿발 같은 기개는 왕 장군의 무기고로다. [騰蛟起鳳, 孟學士之詞宗 紫電淸霜 王將軍之武庫]”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문장의 훌륭함을 뜻한다.

죽옹의 객지생활은 한결같습니다. 비단 책을 만들어 매일 세 번씩 반복해 읽는데, 그 말에 맛이 있음을 더욱 깨닫습니다. 한 번 뵙고 싶습니다. 지난번 편지에 간절히 초청하였습디만, 독서하는 선비에게 붉은 대문을 나오도록 청하는 것은 본디 망령된 것이니 어찌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이미 아끼지 않고 글을 써 주셨는데, 나중에 하필 계을 깨뜨리는 것을 심하게 거절하겠습니까? 부디 한 번 오기를 권하니 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죽성 정은교에게 주는 편지 [與鄭雅竹醒闇教書]

하늘의 덕이 커서 한 번 내린 비가 넉넉하게 적셨습니다. 삼가 근래 여행 중 건강하시기를 우러러 빌고 빕니다. 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저번에 망령된 생각으로 경솔하게 모시고 싶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대변에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신으로 사귀고 말을 하지 않아도 맺은 교분이라 이미 틈이 없는 사이라 스스로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하늘은 개고 길은 깨끗하니 곧 한 번 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관찰부 주사 이한용에게 주는 편지 [與觀察府李主事漢容書]

그 사이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못하여 안절부절하였습니다. 중간에 관보(官報)를 통해 선당(宣堂)⁴²⁾께서 조정에 돌아가시게 되었고⁴³⁾, 아울러 뜻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삼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러러 섭섭하고 그리운 마음이 간절합니다. 삼

42) 선당(宣堂) : 선화당(宣化堂)의 준말. 본래 각 관찰사가 정무를 돌보던 정청 건물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충청남도 관찰사 심건택(沈健澤)을 가리킨다.

43) 조정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 심건택이 1904년 12월 27일(양력 1905년 2월 1일)에 비서원(秘書院) 승(丞)으로 승진하여 조정으로 돌아갔다.

가 근래 삼복 더위에 건강에 혹시 근심과 번뇌 때문에 손상이 있는 건 아닌지 살피지 못하였으니, 떠나시는지 남는지 역시 어떻게 된다고 하는지요?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삼가 천안군의 일을 복검(覆劍)⁴⁴하라는 말씀을 받들었으나 제가 봉행할 수 있는 여가가 없고, 저번 가뭄 때에 학질(瘡疾)에 걸려 여러 차례 고쳤으나 이것이 설사의 빌미로 변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망가져서 남음이 없으니 이런 병 상태로 일을 맡을 희망이 만무합니다. 그리고 본 군의 이른바 아전 무리가 옥사(獄事) 등의 일에 이르러서는 전혀 일머리가 없으니, 설사 병이 없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과연 검사를 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감히 써 올려 보고드립니다. 어찌 일이 엄중함에 관계된 것을 모르겠습니까만, 차라리 엄한 가르침을 받들지언정 감히 스스로 일의 구덩이에 넘어짐에 자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울러 이렇게 번거롭게 간청드립니다. 부디 특별히 옆에 전달을 잘 해 주셔서 탈면(頓免)⁴⁵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를 천만으로 바라옵고 바라옵니다. 이만 줄입니다.

정태규에게 주는 편지 [與鄭雅泰珍書]

예는 생략합니다. 요사이 또 상을 당했다 들은 듯합니다. 하늘이 재앙을 준 것을 후회하지 않고 어찌 이런 심한 지경에게 이르게 합니까? 근래 장마와 무더위에 살피지 못하였으니, 상복을 입는 중에 형제분들의 건강에는 손상이 없으시기를 구구한 심정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영성(寧城)에 다녀올 때 더위를 먹은 것이 빌미가 되어 어릿어릿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특히 가련한 것을 어찌 말하겠습니까? 이번에 드리는 삼첩(三疊)의 만시(輓詩)가 비록 매우 거칠고 서툴지만 아프고 애석한 마음이 간절하여

44) 복검(覆劍):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행하는 2차 검사를 가리킨다.

45) 탈면(頓免): 뜻밖에 일어난 사고(事故)나 변고(變故)로 마땅히 저야 할 책임이나 의무에서 벗어남.

익숙하지 못함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에 간절한 마음을 표하니 부디 받아주시면 어떠한지요?

석성(石醒)의 시 역시 함께 올립니다만, 따로 편지를 쓰지 않을 것은 허물하지 마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를 갖추지 못하고 이만 줄입니다.

정은교에게 주는 편지 [與鄭雅闇教書]

모진 세상을 다 겪고 이어서 더위에 무젓으니, 이런 사이 여행 중의 몸에 손상이 없으신 지 살피지 못해 여러 가지로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검사하러 갔다가 겨우 돌아와 멍하고 고민스러우니 갑갑함과 가련함을 표현하기 어려움이 어려하겠습니까? 창령(昌令)⁴⁶⁾이 돌아가시니, 오랄수록 상처와 슬픔은 더합니다. 삼가 만시(輓詩) 삼절(三絶)을 지어 송암(松菴)께 부칩니다만, 거칠고 서툴러 뜻을 다하지 못하니 다만 돌돌서공(咄咄書空)⁴⁷⁾일 따름입니다.

영감의 행차는 언제쯤 움직이실 계획이신지요? 장마와 무더위가 바다 같아서 다만 쉽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부디 한낮에 찾아주셔서 끝내지 못한 시문을 잇는 것은 어떠신지요? 바라고 바라옵니다. 이만 줄이고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의관⁴⁸⁾ 강영원에게 주는 편지 [與姜議官永元書]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하니 그리움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삼가 늦더

46) 창령(昌令): 창녕현감을 지낸 정대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47) 돌돌서공(咄咄書空): 실의하거나 회한의 심경을 비유하는 고사이다. 진(晉)나라 때 은호(殷浩)가 남의 참소를 입고 유배되어 대연한 기색으로 종일 허공에 글씨를 쓰기에 사람들이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쫓쫓 괴이한 일이다.’라는 뜻인 ‘돌돌괴사(咄咄怪事)’ 낙 자였다 고 한다. 《世說新語 黜免》

48) 의관(議官): 갑오개혁 때 설치된 중추원 소속의 관직으로, 50인 이하의 의관 가운데 1등 의관은 칙임, 2·3등 의관은 주임(奏任)으로 배정하였다. 임명 대상은 칙임관을 역임하였거나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 정치·법률·이재(利財)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위에 건강을 보전하시기를 청합니다. 서울로 가신 길에 평안하다는 소식을 그사이 과연 들을 수 있기를 문에 기대어 간절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과 마찬가지로입니다만, 가장 난감한 것은 가을밤이 점점 길어져 앉아서 새벽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닭소리에 한 번 시원하게 듣기를 생각합니다만 이를 얻을 수 없으니 진실로 우습기도 하고 한탄스럽기도 합니다. 덕의 마을 유씨(柳氏) 집에 건강하고 잘 우는 흰 수탉이 있다고 들은 듯 합니다. 흰 것은 더욱 기이하게 여길만 하지요. 값을 쳐서 바꾸도록 해주기를 구한다면, 마땅히 경계에 따라 구변⁴⁹⁾과 같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러러 곱곶 웃습니다. 덕의 햇대에 만일 색이 희고 잘 우는 놈이 있어 암컷과 함께 주신다면 좋은 놈을 택하여 둘 계획입니다. 아울러 헤아려주심이 어떠신지요. 이만 줄입니다.

연일 현감 이병권⁵⁰⁾에게 주는 편지 [與李延日晒權書]

갈대는 푸르고 이슬은 희니 이인(伊人)⁵¹⁾에 대한 그리움에 정말로 근심스럽습니다. 삼가 근래 몸과 정신이 건강하시고 역새풀 자란 물가에 추흥(秋興)이 흥룡하기를 구한 마음으로 우러러 생각합니다. 저는 전과 같습니다.

이번 25일 만수성절(萬壽聖節)⁵²⁾에 작은 술상을 차리고 미미한 정성이나 거칠게 펼 계획입니다. 부디 이날 잠시 왕림하시어 함께 축하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이렇게 하고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49) 구변(苟變): 자사(子思)가 구변(苟變)을 정수로 천거하자 위나라 임금이 그가 아전으로 있을 때 계란 두 개를 먹은 일을 들어 난색을 표하며 등용하지 않았다. 이에 자사가 남의 계란 두 개를 먹었다 하여 간성(干城) 같은 정수를 버리는 것은 이웃 나라에 알릴 수 없는 일이라고 한탄하였다고 한다. 《孔叢子 居衛》

50) 이병권(李炳權): 1889년 1월 연일현감에 임용되었고, 8월 내금위장에 제수되었다.

51) 이인(伊人): 그리운 벗을 가리킨다. 《시경》〈겸(兼)〉에 “갈대는 푸르고 푸르데, 흰 이슬이 서리가 되었네. 저기 바로 저 사람이, 물 저편에 있도다. [兼葭蒼蒼 白露爲霜 所謂伊人 在水一方]”라고 하였다.

52) 만수성절(萬壽聖節): 본래 황제의 생일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의 생일 7월 25일을 뜻한다.

벽하 방대철에게 답하는 편지 [答方碧下大轍書]

잠시 격조하니 매우 울적하였는데 그사이 주신 편지를 받드니 감사와 위로가 뭍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래 몸이 건강하심을 알게 되니 매우 기쁩니다. 저는 전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생선은 어디에서 얻으셨는지요? 이런 두터운 은혜와 함께 복용하여 원기를 북돋을 방법까지 보여주시니 매우 감격스러움이 어찌 반찬이 되는 데 그칠 뿐이겠습니까?

내일의 행차는 편지 가운데 어찌 언급하지 않으셨는지요? 서답을 쓰고 오로지 기다릴 뿐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주사 오경묵에게 답하는 편지 [答吳主事敬默書]

떨어진 채 장마와 더위를 겪으면서 막연하게 소식을 전할 길이 없으니 정말로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간절할 따름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큰 봉함(封函)에 절하게 되니 위로됨과 기쁨을 다 형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어 가을 추위에 몸과 정신이 모두 건강하심을 알게 되니 더욱 제 기도에 더욱 부합합니다.

저는 겉으로는 한적한 듯 하나 속으로는 실로 번민에 애가 탑니다. 여러 곳의 체납(替納) 일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안 편지가 계속 이르러서 별 일 없음을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향반(香盤)에 관한 대작(大作)은 마침내 지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 동산의 향기로운 풀들이 더욱 일어나는 광채가 읽으면서 모르는 사이 충만하였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혼인 부탁은 제가 할 수 있는 바가 아님니다만, 정중함을 저버릴 수 없어 따져보아 옥에 있는 말 잘하는 아전을 보내 그로 하여금 자세히 살피게 하니, 김 무관에게 16세, 13세 되는 두 딸이 있습니다. 장터에서 술래잡기하는 것을 보고 김 무관이 가리키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저 입에서 젖내나는 것 같은 애들에게 혼인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었다고 합니다. 아전이 돌아와서 여기에 온 종씨(宗氏)에게 똑 같이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규수가 있다는 말만 들었지 그 안에서 허락을 하였는지는 이처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어찌 다시 입에 올릴 만하겠습니까? 한 번 헛걸음을 한 것이 더욱 대신 고민스러운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윤옥(允玉)의 혼인 부탁에 이르면 그 사이 과연 특히 주의하여 널리 찾은 것이 서너 곳에 이릅니다만 하나도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제 빛이니 어찌 감히 마음에서 잊겠습니까? 헤아려주심이 어떠신지요? 석성(石醒)은 한결같이 태평합니다만, 편지 가운데 안부를 물은 것에 매우 감격한 모양입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민⁵³⁾ 학부대신께 올리는 편지 [上閱學部大臣書]

오랫동안 편지를 올리지 못하니 제 마음이 안절부절하였습니다. 엎드려 가을 날씨가 점점 서늘해지는 시기에 건강은 한결같이 평안하신지, 노안당(老安堂)의 침식은 이어서 강녕하신지 알지 못하니, 아울러 삼가 사모하는 구구한 마음은 지극함을 부칠 데가 없습니다. 소인은 여름에 현기증에 매우 고생하여 입맛을 잃었습니다. 삼료(蔘料)를 써보고자 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요 근래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니 엎드려 어디에 아뢰야 할지 한탄스럽습니다. 나머지는 남기고 이만 줄입니다. 엎드려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만수성결에 제가 마땅히 올라가야 하였으나 현기증에 억지로 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실로 오갈 여비를 구차히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멈추고 당일 간략하게 술잔을 차려 고을의 원로들을 불러 거칠게나마 미미한 심정을 펴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어찌 엎드려 전달하겠습니까?

53) 앞에 보이는 금래(琴來) 민영소(閔泳韶)이다.

제 현기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궁구한다면 모두 빗문서 한 건 때문입니다. 연래 체납으로 헛되게 쓴 비용이 수만 냥이나 됩니다. 형편이 본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보상하는 데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매번 그것에 생각이 미치면 정신이 혼미하고 기운이 막힙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살피지 않고 억지로 현기증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실재는 분노와 걱정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 한평생 삼가고 신중하다고 여겼으나, 얻은 것은 다만 산처럼 쌓인 빚 뿐입니다. 이러한 사정과 곡절을 어디를 향해 하소연하겠습니까? 다만 두려움이 간절할 뿐이니 어떻게 다 전달하겠습니까? 이 지경을 벗어나는 것은 다만 한 번 전환되어 옮겨가는 사이에 달려있을 뿐입니다만, 세월은 흘러 남은 삶이 점차 닳쳐오고 있으니 이를 장차 어찌 하여야 좋겠습니까? 환하게 헤아려주시기를 엿드려 바라옵니다.

엿드려 생각하니 소인은 날로 나이를 먹어 남은 생이 많지 않습니다. 바라는 바는 다만 어리석은 자식놈들이 진급하는 영광을 죽기 전에 보는 것입니다만, 계단이 하늘처럼 높아 오로지 운수가 닿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가 들으니 아어학교(俄語學校)⁵⁴ 교관에 판임관을 주임관에 서용한다고 하였으니, 기타 각 학교 역시 반드시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한어학교로 말하면 제 아들 극선(克善)이 수교관(首敎官)으로서 전례상 마땅히 서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력자가 있으면 급급하게 스스로 수선한 후의 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전에도 어학교관 주임 얘기 때문에 대감 앞에 가서 고하여, 극선이 되도록 주품(奏稟)하고 주선하겠다는 말씀을 받들었습니다만, 극선이 그 때 졸업한 후 판임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일 역시 중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승진하는 것과는 다르니 전례에 따라 안배하여 처분해주시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얘기를 들으니 편안히 자처할 수가 없어 감히 이렇게 욕됨을 무릅썼습니다. 대저 이번 기회는 곧 극선의의

54) 아어학교(俄語學校): 1896년 서울에 설립된 관립 러시아어 학교인 한성아어학교를 가리킨다. 1895년에 공포된 「외국어학교관제」에 따라 러시아어를 가르쳐 역관(譯官)을 양성하기 위하여 1896년 2월에 설치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군이 오랫동안 이 학교건물을 차지하게 되었고, 교관 비루코프(Birukoff)도 본국으로 돌아가자 문을 닫았다.

앞길이 꽃이 필지 말라죽을지 분기점이 되는 경계입니다. 삼가 엎드려 이 제 마음을 밝혀서 많지 않은 여생을 살피고 놓치지 어려운 좋은 기회를 생각하여 특별히 돌보아주셔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부디 엎드려 바라옵니다.

철도(鐵道)는 본 군의 땅에 특별히 범하여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만, 진위(振威)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일본인과 본 군민이 여러 차례 지엽적인 소란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기도 하고 말을 보내기도 하여 끝까지 관대한 뜻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믿는다고 할 만 합니다. 본 군에 관련하여 서로 교섭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먼저 상의하여 다른 마음을 가질 단서가 없어 잠시 편안하고 한가함을 느낍니다. 다행이고 다행입니다.

본 군의 토지 측량은 지난달 초순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지난해 함께 일했던 자가 있어서 우선 양원(量員)이 가는 읍마다 반드시 싫어하고 냉랭하게 보는 모욕을 받을 줄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양원이 경계에 들어가는 날에 측량 일에 관계된 모든 일은 특별히 정리나 안면 주선을 더하여 편하고 쉽게 하도록 힘을 썼습니다. 야역(野役)이 이르는 곳마다 지극히 공정하여 민폐를 끼치지 않음에 제 바람에 매우 걸맞습니다. 다만 본 군에서 기획한 양전(量錢)이 2천냥입니다만 공전의 상납이 이미 완료되어 기타 지탱할 방도가 없어 부득이 호포(戶布)를 내니, 곤궁한 백성들의 사정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발령하여 봉출하는 대로 지급하는 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도 절반이라 부족합니다. 앞으로 갈등이 생겨나게 될 형편입니다. 엎드려 탄식함을 어찌 전달하겠습니까?

교리 홍사필에게 답하는 편지 [答洪校理思弼書]

아은 자리의 향기가 가시기도 전에 봉함의 구름이 홀연 떨어졌습니다. 받들어 읽고 근래 서늘한 날씨에 몸이 건강하심을 알게 되니 구구한 제 바람에 흡족합니다. 저는

그날 한 번 회포를 편 것은 이미 다행한 천은이었으나, 겨우 하룻밤 지나 전과 같이 쓸쓸한 사람이 되었으니 스스로 가련하고 가련합니다. 두 작품을 받고서 낭독하니 입안에 향기가 가득하고 경축하는 시축(詩軸)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권 대아께서는 근래 건강은 더욱 왕성하신지요? 이만 줄이고 사례를 갖추지 못합니다.

오위장⁵⁵⁾ 윤초 이용의에게 답하는 편지 [答雲樵李五衛將容儀書]

밤에 돌아와 건강을 보전하여 어제 피곤으로 인한 손상이 없음을 알게 되었으니, 우러러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우연히 설사가 있어서 바야흐로 양위탕(養胃湯)⁵⁶⁾ 약제를 시험하였습니다. 쇠약한 몸 때문에 그러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가련하고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성대하게 지어주신 작품을 받들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전아(典雅)함과 가건(佳健)함이 갈수록 뛰어났으니, 숙련된 솜씨가 있음을 우러러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그 자리에서 시를 완성하지 못하여 스스로 허물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진실로 이를 수 없는 상객이십니다. 이제 이르러 바로잡아 베낀 두루마리를 올립니다. 일간 한 번 왕림해주시면 미리 서탑(書榻)을 깔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송암 정태진에게 답하는 편지 [答鄭松庵泰珍書]

에는 생략합니다. 바야흐로 비의 장난이 오늘날 맥의 근심과 한탄이 되었을 때 먼

55) 오위장(五衛將) :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에 속하여 숙직할 때 영내(營內)를 순검(巡檢)하고 각 문에 암호(暗號)를 전하는 정3품의 무관직.

56) 양위탕(養胃湯) : 비위가 허약하여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처방. 향사양위탕(香砂養胃湯)과 인삼양위탕(人蔘養胃湯)이 있다.

저 안부를 물어봐 주시니 실로 매우 감격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요즘 안부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위로 늙으신 어머님께서 친척을 잃으신 슬픔을 위로하고 아래로 상 당한 이의 슬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은 오직 존좌(尊座)께 달려있습니다. 평소 강구한 바가 있으나 깊은 사랑을 어리석은 짓에 쓰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친분을 살피면 즉시 장사지내는 곳에 가서 영결해야 합당합니다만, 이른바 현 기증이 근래 다시 발작하여 다만 서쪽을 향해 길게 탄식하는 데 그칠 뿐입니다. 이것이 어찌 본래 마음이겠습니까? 부디 장례를 잘 치르고 명복을 더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슬프고 어지러운 중에도 저에게 절수(節需)를 보내주실 생각을 하시다니 더욱 감사하기 그지 없어 도리어 불안합니다. 이만 감사의 표현을 줄입니다.

공주 주사 고양 이태원에게 주는 편지 [與公州主事李高陽泰元書]

겨우 면식을 얻길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더니 이별의 슬픔이 따라 실로 안절부절 근심하였습니다. 삼가 서리가 내리는 계절인 9월에 몸과 정신은 건강하시고 선화당(宣化堂)의 모든 일은 한결같이 강녕하신지 살피지 못하니 삼가 우러러 그리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기에 걸렸으나 여전히 낫지를 앓으니 스스로 가련한들 어찌겠습니까?

대강의 상황을 보면 관에 돌아온 후 누차 낱낱이 상세히 살펴서 십분 실정을 정밀히 알기를 기하였던 것이 오히려 이렇게 많게 되어 버렸습니다. 비록 지난날 우러러 아뢴 것일지라도 대다수가 풍년이라고 일컫고 저 홀로 재해가 있었다고 고하니, 어찌 감히 실정을 깊이 밝혀주기를 바라겠습니까? 다만 백성의 사정이 절박하다는 염려가 늘어날 뿐인 것을 어찌겠습니까? 부디 특별히 이해하여 은혜를 드리워주시를 바랍니다.

지난번 부탁한 저의 한 차례 상경하는 일은 일단 서울에서의 회답 기별을 보지 못하여 여전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별을 기다렸다가 거취를 정할 계획입니다. 아래로 살펴주시기를 특별히 바랍니다. 이만 줄이고 안부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방백하에게 답하는 편지 [答方令碧下書]

정말로 서글픔을 읊조리던 즈음 몸이 건강하다는 소식을 알게 되니 바라던 바에 흡족함이 기쁩니다. 저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모양입니다. 주신 세 가지 품목은 모두 다 입에 맞았습니다. 오류관(五柳館)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함께 배를 두드렸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래 가서 토벌하고자 하였는데 도리어 되치기를 당하였으니 어찌겠습니까? 우러러 꺾꺾 웃습니다. 감주와 김치의 맛이 더욱 좋았습니다.

섬돌의 국화가 중양절(重陽節)에 딱 좋을 것 같으니 반드시 그날에 잠시 왕립하시어 모자 떨어뜨린 사람⁵⁷⁾을 흉내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이만 줄이고 사례를 갖추지 못합니다.

방백하에게 주는 편지 [與方令碧下書]

밤사이 댁내는 어떠하셨는지요? 우러러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그 상태가 여전합니다. 두 항아리가 채워져서 왔다가 빈 채로 갔으니 몰염치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시어라는 것을 한가한 가운데 얻어서 애오라지 구슬 같은 시에 보답하는 의례를 대신합니다. 부디 웃으며 보시고 고쳐주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비가 오는 일이 이와 같으니 중양절 날씨는 우선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만, 심한 비가 아니라면 반드시 편지 중의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거듭 우러르고 우러립니다.

지금 서울에서 온 편지를 보니 신부의 우귀(于歸)⁵⁸⁾가 이번 17일로 정해왔습니다. 비록 매우 급박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달 안에 쓸만한 날짜가 더 없다고 하여 이날

57) 모자 떨어뜨린 사람: 맹가(孟嘉)를 가리킨다. 중양절 잔치 때 바람이 불어 맹가의 모자를 떨어뜨렸는데도 모르고 있자 손성(孫盛)이 글로 조롱하였다. 맹가가 즉석에서 그 글에 답하는 글을 지었는데 매우 훌륭하여 사람들이 탄복하였다고 한다. 《晉書·孟嘉傳》

58) 우귀(于歸): 신부가 처음으로 시집에 들어가는 일을 가리킨다. 《시경》〈빈풍(邶風) 동산(東山)〉에 “저 아가씨 시집가니, 누른 밀과 얼룩말이로다. 어머니가 항주머니 채워 주니, 그 위의 성대하도다. [之子于歸 皇駁其馬 親結其縵 九十其儀]”라고 한 말이 보인다.

로 완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14일쯤 여기에서 꾸러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뜻을 두정리(斗井里)에 전달해주셔서 군속(鎭速)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정신이 없어 예를 차리지 못합니다.

참봉 강난수에게 주는 편지 [與姜參奉蘭秀書]

공경히 일간에 건강하신 안부를 물은 것은 우리러 구구한 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상태입니다. 내일이 중앙절이니 적절하게 허투루 보낼 수가 없어서 국화를 술잔에 띄우는 모임을 한바탕 벌이고자 합니다. 운초(雲樵)와 벽하(碧下)가 허락하여 이미 초청하였습니다. 이에 잠깐 기별하니, 눈이 빠지게 기다리게 하지 말고 일찍 광림하여 주심이 어떠신지요? 많은 이야기는 만나서 펴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고양 군수 김신묵⁵⁹⁾에게 답하는 편지 [答金高陽信默書]

늡으니 벼를 그리는 마음이 젊은 시절 같지 않고 거둬하여 근래 가을 소리가 싸늘하니, 닿는 곳마다 운수겸로(雲樹靄露)⁶⁰⁾의 그리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형이 아니면 그 누구겠습니까? 함께 자리하여 재미있게 얘기하는 일은 이미 바랄 수가 없고, 한 글자 편지 역시 부칠 방도가 없으니 다만 답답하고 울적할 뿐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구름같은 봉함이 적적하여 즐거움이 없는 가운데 저를 일으켜서, 받들고 한 번 읽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모습이 눈에 선하고 듣고 싶은 말씀을 다 보여주시니 흥미진진하여 마치 직접 말씀을 듣는 듯하였습니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59) 김신묵(金信默) : 1896년 1월 12일(양력 2월 24일) 고양 군수에 임명되었다.

60) 운수가로(雲樹靄露) : 벼를 그리워함을 뜻한다. 운수(雲樹)는 두보(杜甫)의 「춘일억이백(春日憶李白)」의 “위수 북쪽엔 봄 하늘에 우뚝 선 나무, 강 동쪽엔 저문 날 구름. [湄北春天樹 江東日暮雲]”에서 유래하였고, 가로(靄露)는 「시경」 「겸가(兼葭)」에 “긴 길대 푸르는데, 흰 이슬이 서리가 되었네. 저기 바로 저 사람이 물 저편에 있다. 물길 거슬러 올라가나, 험한 길이 멀기도 하네. [兼葭蒼蒼 白露爲霜 所謂伊人 在水一方 溯洄從之 道阻且長]”에서 유래하였다.

어찌 이에 이르겠습니까?

다만 그간 경력에 듣기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승이 비록 고희(苦海)라 하지만 저와 같은 근심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찌 우리 형께 이런 일이 있을지 생각했겠습니까? 크게 탄식하고 탄식합니다. 이어서 집을 떠나 계시나 몸과 정신이 건강하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던 바에 흡족해 기뻐했습니다. 주간하던 가을 사무는 과연 모두 헤아린 대로 들어가 오래 지체되어 걱정을 끼치게 되는 일은 없었는지요? 실로 무익하게 우러러 하는 근심이 많습니다.

저는 벼슬에서 늙은 나이를 보내니 난감한 상황이 허다하여 논할 수가 없습니다. 재작년 지도(智島), 여수(麗水) 등의 읍(邑) 공전(公錢) 3만여 냥을 체납(替納)한 후로 모두 추심을 하지 않아서, 이자니 경비니 하는 것이 또 2만7천여 냥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얼마간의 장토(庄土)와 가사(家舍)가 다 녹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띠고 있는 형국이 다 스러져 형체가 없어졌으나 현금의 상황은 포위된 가운데에서 곤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의 대강은 친구 가운데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만 우리 형께서는 혹시 미처 듣지 못하셨는지요? 이에 멀리 격조하게 지낸 지 오래되었음을 알겠습니다.

지금 마음을 터놓고 보여드리는 점에 의분으로 살피 마땅히 추호도 애석한 마음이 없습니다만, 비록 좃고자 하여도 말미암을 길이 없음을 어찌겠습니까? 그러나 외양으로 보면 몸은 수령의 직분에 있으니 그 누가 이해하여 주겠습니까? 만부득한 일입니다. 다만 경전(京錢)⁶¹⁾ 2백냥을 몰염치를 무릅쓰고 우러러 바칩니다. 이것이 책임을 면한다고 하기에 부족하니, 어찌 감히 비웃으며 수령하여 토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정을 펴는 것은 다만 한 순간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다만 마땅히 좋은 바람이 불어와 속죄의 날이 있어 제게 훗날로 남겨놓기를 기약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즐기고 감사를 갖추지 못합니다.

61) 경전(京錢) : 대한제국 말기 서울의 당오전을 민간에서 셈하던 방식. 일전을 닷 돈, 이전을 한 냥으로 쳤다.

벽하 방대철에게 주는 편지 [與方碧下令大轍書]

삼가 요즘 건강이 더욱 좋아지셨으니 우러러 바라던 바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예전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김인수(金仁洙) 아(雅 : 존칭)께서 본 동 방대옥(方大玉) 님이 벼섬을 추심한 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절한 청구가 있었습니다. 일의 상황을 들으니 과연 마땅히 바쳐야 하는 것이어서, 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일을 매듭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제출한 지경에 이르면 비록 송사를 따라 다스려 해결할지라도 사적으로 좋아하는 데 아부하는 데서 나온 것 같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집(令執 : 상대에 대한 존칭)의 안면에 있어서도 역시 편안치 못한 바일 것입니다. 이에 재삼 생각하고 헤아려 끝내 이렇게 우러러 의논드립니다. 부디 귀 족인(族人) 가운 데 상관된 인물을 불러 깨우쳐 즉시 타결하여 처리해서 문서를 품고 머리를 맞대는 데 이르지 않는다면 어찌 일의 이치와 사람의 체면 다 평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귀 족인이 순종하지 않는 점이라면 형편상 앞으로 송사를 하면 그만입니다. 비록 영집(令執)이실지라도 깊이 허물하지 않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황공합니다.

이운초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令雲樵書]

지난 편지가 정신이 없었던 탓에 머리 숙여 감사하는 마음이 송구함에 미칩니다. 밤에 다시 물으니 병환이 쾌차하여 약을 쓰지 않았다 하니 우러러 염려하면서도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전히입니다.

집안의 심부름꾼이 어제 저녁 왔는데, 22일에 관아에 오기로 일정을 물렸다고 합니다. 형편상 28일에 다시 여기에서 심부름꾼을 보낼 계획입니다. 한 번 요란하고 어지러웠으니 역시 다시 그런들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몸조리가 순조롭기를 빕니다. 감사하는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일본인 와카마쓰 요시키치에게 보내는 편지 [與日人若松嘉吉書]

지난번 왕립하셨을 때 갑작스러움을 면치 못하여 지금까지 안타까웠습니다. 삼가 늦은 가을 객지에서서의 몸은 건강하고 공무는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지요? 너무 애태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우러러 빕니다.

저는 근래 가솔들이 내려와 정신없고 걱정스러운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형편상 어찌겠습니까? 저희 관아 설령줄⁶²⁾이 세월이 오래되니 낡아서 끊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보수하여 묶으려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귀소에 있는 전선(電線) 가운데 혹시 남아서 팔만한 것이 있는지요? 만약 변통할 수 있다면 28 묶음[把]이면 됩니다. 이번 에 가는 사람과 편리한 대로 의논하여서 가격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이것은 헛되이 주는 것과 다름이 없기에 해아려 베풀어주시기를 거듭 우러르고 우러립니다. 조금 전 서천공(西川公) 댁에도 역시 이 일을 부탁하였으니 당연히 말이 도착하여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이만 줄입니다.

진위 군수 신석현⁶³⁾에게 주는 편지 [與振威倅申錫賢書]

격조하여 거의 모습을 잊을 지경입니다. 지난 가을 익산에서 상경하였을 때 공교롭게도 관아가 비어 뵙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그해 9월에 평택에 부임하여 바쁜 일에 젖어 다만 망선각(望仙閣)을 바라보며 지났으니, 한 번 손 잡고 만난 일에 역시 운수가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편지 한 통 이르지 못하여 항상 섭섭하였는데, 혹시라도 기억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늦가을에 몸은 한결같이 건강하시고 고과가 바로 있는데 걱정은 없으신지 구구하게 바랍니다. 저의 쇠약함은 날로 심해지니 보답에 희망이 없습니다. 공사로 번민하고 두려워

62) 설령줄 : 처마 끝 같은 곳에 달아 놓은 방울을 설령이라고 했는데, 사람을 부를 때 설령줄을 잡아당기면 소리를 내어 알게 하였다.

63) 1883년 수문장, 1885년 부사과, 주부, 1888년 박산군수로 승진하다가 1902년 1월 28일에 진위 군수에 임명되었다.

한적함을 다행이라 여길 수가 없을 따름입니다.

저희 군 사인(士人) 김인수(金仁洙)는 제가 이곳에 온 이래 새로 사돈이 된 사이입니다. 다스리고 계신 곳의 성남면(城南面) 신리(新里)에 거주하는 우치홍(禹致洪)에게 추심해야 할 벼섬 10석이 있습니다만, 갚으라 해도 갚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소장을 올려 자료로 삼았습니다. 이에 우러러 번거롭게 해드리니, 소장을 바치기를 기다려 특별히 찾아서 지급하도록 엄칙하시어 제게 빛이 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은 곧 이치가 발라야 하고 정은 또 소홀히 하기 어려워 이렇게 아뢰니, 용서와 이해를 특별히 베풀어주시기를 거듭 우러르고 우러립니다. 나머지 문안은 갖추지 못합니다.

방백하에게 답하는 편지 [答方令碧下書]

만나 뵈고 몸과 정신이 건강함을 살피고 우러러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저는 공사에 무고하니 다행일 따름입니다. 땀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할만 합니다만, 본디 양쪽 다 온전할 상황은 없기에 먼저 보여주신 돈 가운데 1백98냥 4전을 보내 나온 것을 택해 사 두기를 바라고 바라옵니다.

훌륭한 시편(詩篇)은 읽다가 나도 모르게 ‘좋다! 좋다!’하며 무릎을 쳤으니, 어찌 갈수록 기이해지는지요? 제가 지은 것을 스스로 돌아보면 역시 가소롭습니다. 이 역시 올려 보여드리니, 고쳐주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못난 자식 역시 시를 써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석성(石醒) 노인의 작품과 함께 드립니다.

강원석(姜畹石)이 이달 5일 동창(東倉)의 작은 모임에 다 함께 가자는 뜻에 따라 헤어질 때 약속을 하였고, 영집(令執) 역시 허락을 한 바라 하였습니다. 당일 마땅히 기다렸다가 함께 갈 계획이니 헤어려주심이 어떠신지요?

여기까지 썼는데 운초(雲樵)의 시가 마침 왔기 때문에 이에 아울러 드립니다. 나머지는 남기고 감사를 갖추지 못합니다.

개화리 주서 김명수에게 주는 편지 [與開花里金注書鳴洙書]

지난 번 왕림에 감사합니다만, 사람이 많고 정신없어 평안하지 못한 채 이어서 헤어지게 된 것이 한스러워, 울적하게 우러르며 며칠 동안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삼가 가을철에 몸은 더욱 건강하신지 살피지 못하니 제 바람이 어긋나지 않기를 우러러 바랍니다. 저는 전에 비해 단란하게 모이는 즐거움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옛 사람이 식솔들을 따르지 않게 하였던 것을 살피면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하!

성북동(城北洞) 시고(詩稿)는 이미 보여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잠시 빌려주시기를 바라오니 어떠신지요? 이른바 제 시편은 이미 못남을 드러내 감히 끝내 숨길 수가 없으니, 부디 한 번 보시고 비평해주시기를 거듭 우러를 따름입니다. 나머지는 남기고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이운초에게 주는 편지 [與李雲樵書]

공경히 밤사이 평안하셨기를 우러러 바라고 바랍니다. 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시는 서툴게 지어서 드립니다만,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가 없으니 검려(黔驢)의 솜씨⁶⁴가 이에 그치는 것을 어찌겠습니까? 성대한 작품이 이미 완성되었다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64) 검려(黔驢)의 솜씨 : 겉모습만 그럴 듯할 뿐 솜씨가 없는 것을 뜻한다. 검주(黔州)에는 본래 나귀가 없어 범이 처음에는 나귀의 큰 체구와 큰 울음소리에 인해 대단히 무서워했으나, 마침내 다른 기량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물어 죽었다고 한다. 《柳河東集 卷19 黔之驢》

이병좌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雅炳佐書]

편지를 보내주신 데 놀라니 감격함이 위로보다 앞섭니다. 소춘(小春)⁶⁵에 건강하심을 받들어 알게 되니 더욱 제 바람에 흡족하였습니다. 저는 식솔이 늘어서 이미 지극히 머리가 무겁습니다만, 이어서 도둑이 들었으니 모두 다 재앙이라 차라리 한 번의 웃음에 부쳤습니다. 그러나 놀란 것을 진정시키는 데는 본디 재주가 없으니 사적으로 고민입니다.

일전의 작은 모임과 귀 동리의 정씨(鄭氏) 댁에 한 통의 편지로 나란히 초정을 받았는데, 다 실망시켰으니 섭섭함이 간절합니다. 못난 자식이 기한을 어기기 어려워 그저께 이미 짐을 꾸려 돌아갔습니다. 비록 잘 도착했다는 기별은 보지 못하였으나 기차(汽車)가 한양에 도착했음을 대략 헤아리니 쓸데없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모임에 석성(石醒)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 더욱 서글픕니다. 지금 나중 편지를 보니 깊이 유감이라고 합니다. 엄숙히 이렇게 답장을 드립니다.

이운초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雲樵書]

삼가 근래 병환이 나았다 들으니 우러러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결같은 모양입니다.

보내주신 두 수의 시는 모르는 사이 읊조리는 입에서 향기가 생겨나 “가슴 속의 비단 수를 눈 앞에 보고 붓 아래 구슬이 종이 위에 난다 [胸中錦繡眼前見, 筆下珠璣紙上飛.]” 시구를 볼 수 있으니 다시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두 시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다만 보내주시기를 기다렸다가 볼 계획입니다. 삼가 줄이며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65) 소춘(小春): 10월을 가리킨다.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10월은 날씨가 따스하여 흡사 봄과 같기 때문에 소춘이라 한다. [十月天氣和暖似春故名曰小春]” 하였다.

진위현령 방시영⁶⁶에게 답하는 편지 [答方振威時榮書]

창고에 가는 길에 스쳐지나가며 돌아오는 길이 있다고 하였으나, 돌아올 때 또 날이 저물어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다음날 서울로 가시는 줄 알았다면 날이 저무는 것은 고사하고 한밤중일지라도 결단코 들어가 인사를 드렸을 것인데 일찍 물랐던 것이 한스럽습니다. 이런 서글픔과 섭섭함에 이르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겨우 면식을 트게 되어 충분히 만나뵙지도 못하였는데 갑자기 얼굴도 뵙지 못하고 이별하게 되었으니, 뜬구름 같은 인생사는 진실로 깊이 탄식하기에 충분합니다. 삼가 근래 갑자기 추워졌는데 건강하시다니 제 바람에 흡족합니다. 서울로 가셔서 떨어져 있고 돌연한 추위가 걱정스러우니 구구한 심정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근래 봉환(捧還) 때문에 날마다 동분서주하고 있으니, 노인의 일이 특히 답답하고 가련할 따름입니다. 주신 여러 가지 물건들은 하나하나 감사하니 뭐라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이에 이르니 마음이 깊이 불안합니다. 여행길이 순조롭기를 바라며 감사하는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주서 김명수에게 답하는 편지 [答金注書鳴洙書]

계곡의 눈을 만나 흥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고 다만 그리움이 간절하던 즈음에 편지를 받고 구슬 같은 문장이 이어지니 실로 직접 아름다운 모습을 뵈고 훌륭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이어 문체가 왕성하심을 알게 되니 제 바람에 매우 흡족합니다. 서울로 올라가실 일이 가까이 있으니 잡다한 염려가 없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제 염려입니다.

저는 일간 봉환(捧還)에 골몰하다가 지금 다행이 누각에 기대 눈을 감상하며 한 번

66) 진위현령(振威縣令) 방천용(方天鏞)의 병이 심해져 관직에 복귀할 가망이 전혀 없으므로, 1889년 1월 27일에 “시흥현령(始興縣令) 방시영(方始榮)과 서로 바꾸라.”고 전교하였다. 원문의 ‘方振威時榮’는 진위현령을 지낸 방시영이라는 뜻이다. 승정원일기를 확인해 보니, 진위(振威)는 현령(종5품)을 파견하다가, 1895년 11월부터 군수(종4품)를 파견하였다.

맑은 풍경을 조금 맛보고 있습니다. 두 번 주신 시는 창건(蒼健)하고 청초(淸楚)하여 진실로 어떤 찬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이든 이를 위하고 나이에 따라 앞으니 순서에 법이 있다[尙齒序舖叙有法]”는 구절에 이르면 옛 작자의 체를 깊이 터득하였으니, 이번 모임이 이런 문장을 얻어 비로소 성대해졌습니다. 아름다움에 탄복하고 탄복합니다.

성북동 필첩을 그 사이 받들어 보면서 마음에 가득하여 진실로 손에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의 진귀한 보물을 빼앗는 것은 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이로써 완벽하게 합니다. 그러나 봄 누대에 제게 미칠 여파가 있을까 헤아리며 미리 간절히 기뻐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세전(稅錢)에 관한 일은 누차 석성(石醒)을 통해 전하여 부탁드렸습니다. 이미 해당 구실아치에게 분부한 것이 있을 것이니, 헤아려주심이 어떠신지요? 오가는 여행 길이 순조롭기를 빕니다. 이만 줄입니다.

공주관찰부 고양 이태원에게 주는 편지 [與公州觀察府李高陽泰元書]

오랫동안 소식이 없으니 그리움은 더욱 간절합니다. 삼가 근래 눈이 내리는데 몸과 정신이 건강하시고 형제분들도 한결같이 강녕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그리워하면서 기원드리니 즐거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근래 봉환(捧還) 때문에 몇 번이나 눈을 무릅쓰고 동분서주하였다가 독감에 걸려, 머리도 빚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펼쳐 일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노쇠함이 이렇게 만들지 않은 것이 없으니 불쌍하고 한탄스러움을 어찌 말하겠습니까? 오늘 엎드려 차원(使員)⁶⁷⁾에 예정되었다는 말씀을 보니 진실로 마땅히 곧바로 달려가 받들

67) 차원(差員): 차사원(差使員)의 약칭으로, 중요한 사무로 임시 파견하는 직원이다. 오형묵이 공주관찰부의 차원으로 예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병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알리는 편지를 쓴 것이다.

어야 합니다만, 현재 상태가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아 받들어 행할 희망이 없습니다. 매우 부득이하게 방보(防報)⁶⁸ 작성하기를 무릅쓰니, 생각이 도리에 미치면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부디 이 늙은이의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을 불쌍하게 여겨서 잘 품달해주시어 변통할 처분을 받도록 해주시기를 애걸하고 애걸합니다.

저희 군이 비록 근기(近畿 : 서울 근방)⁶⁹이라고는 하지만 이른바 읍의 모양이라는 것이 온갖 어려움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한 번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보충할 방책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실로 병 때문이니 본디 논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만, 비록 이후에라도 모든 변통할 수 있는 일에 특별히 염려해주시는 은택을 특히 내려주시기를 거듭 바라옵고 바랍니다. 이는 영집(令執)의 사랑이 아니라면 어지 감히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러러 환하게 헤아려주시심이 있기를 생각하며 이만 줄입니다.

의관 강영원에게 주는 편지 [與姜議官永元書]

삼가 일간 몸과 정신이 건강하기를 우러러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는 눈 내리는 창가에서 입김을 불며 특별히 좋은 즐거움이 없을 따름입니다. 상치회(尙齒會)⁷⁰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안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미 안전이 있다면 감히 스스로 사적으로 할 수는 없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장정한 8건을 각각 하나씩 보내서 소홀히 하거나 있는 데 대비합니다.

스스로 돌아보니 근래 기쁜 일에 있어 구구한 마음이 이와 같으니 그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백향산(白香山)⁷¹을 사모하였으나 전혀 배운 것이 없이 늙음이 갑자

68) 방보(防報) : 하급 관아에서 상급 관아의 지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이유를 보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69) 근기(近畿) : 경기(京畿) · 기내(畿內)와 같은 말로, 천자가 직접 통치하는 사방 천 리의 지역을 이른다. 이 글에서는 서울에서 가깝다는 뜻으로 썼다.

70) 상치회(尙齒會) : 나이 많은 사람을 위한 모임이라는 뜻이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가 형부 상서로 있다가 그만두고 호고(胡果) · 길교(吉皎) · 유진(劉眞) · 정거(鄭據) · 노정(盧貞) · 장훈(張渾) · 이원상(李元爽) · 여만(如滿) 등 나이 70이 넘는 노인들과 구로상치회(九老尙齒之會)를 결성하고 자기의 향산 별장에서 시를 지으며 놀았다고 한다. 《新唐書 卷119 白居易傳》

71) 백향산(白香山) : 향산(香山)은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의 호 향산거사(香山居士)를 뜻한다. 늙어서 아홉 명의 친구와 구로회(九老會)를 만들어 향산에서 모임을 가졌다.

기 닦친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이번에 다행히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연히 이루어진 듯 합니다. 이에 주변 사람들의 시비를 아랑곳 않고 이런 참람되고 경솔한 일을 하였습니다.

“유하혜는 괜찮고 나라면 안된다”는 말의 의미⁷²⁾를 특히 모르니,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어 어리석음을 바로잡아 주심이 어떠신지요? 회원들에게 각기 한 건씩 보내고 맡아드님께는 그냥 두었으니 마땅히 용서하시어 꾸짖지 않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나머지는 줄이고 안부의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송지 한창수⁷³⁾에게 답하는 편지 [答韓承旨昌洙書]

몇 년 동안 뵙지 못하여 항상 서글프고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곧 내려주신 편지를 뵈고 기쁨에 넘어지고 부끄러움이 느껴짐을 어찌 말로 형용하겠습니까? 삼가 동지 추위에 부모님을 뵈시고 계시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평안하심을 알게 되니 멀리 축원하는 마음에 흡족함이 기쁩니다.

저는 쇠약한 나이에 벼슬살이를 하여 이미 지내기가 어려운데, 거듭하여 먹지도 않은 포탈(逋脫)로 인한 근육으로 겹겹이 포위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벗어날 희망은 없고 처자식은 등지를 잃어서 가솔을 이끌고 와서 우선 이곳에서 겨우 버티며 지냅니다. 그러나 앞날이 아득하여 어떻게 할지 몰라 옆드려 탄식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지계(地契 : 땅문서)는 본 군에서 일을 끝내는 것이 다만 올 20일간에 있을 것입니다. 조만간이라고 말하나 지금 역시 뒷사람의 일일 것입니다. 밝게 살피신 후에 즉시 사람을 보내 바꾸어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근래 계소(契所)에서 독촉

72) “유하혜는 괜찮고 나라면 안된다”는 말의 의미 : 한 과부가 비바람에 집이 무너지자 이웃의 홀아비집으로 달러가 들여보내 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과부가 ‘유하혜(柳下惠)는 죄를 짓고 도망 다니는 여인을 하룻밤 감싸 안고 앉아 있었으나 그를 두고 문란하다고 하지 않았다’고 하자, 홀아비는 “유하혜는 진실로 그렇게 할 수 있거니와 나는 진실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내가 정차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유하혜가 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겠소. [柳下惠則可, 吾固不可, 吾將以吾之不可學柳下惠之可.]”라고 하였다. 《孔子家語 好生》

73) 한창수(韓昌洙) : 1862-1933. 대제학 한장식의 아들로, 우승지를 지낸 뒤에 한성사법학교·외국어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남작(男爵) 작위를 받고, 2만5천원의 은사공채를 받았으며, 이왕직 장관에 임명되었다.

하는 것을 보니 날마다 심해집니다. 모두 사랑하던 곳과 관계되니 과연 우울함이 간절할 따름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정은교에게 답하는 편지 [答鄭雅闇教書]

자성(慈聖)⁷⁴⁾께서 돌아가셔서 모두가 깊은 슬픔에 아파하고 있는데, 도리어 이렇게 후한 은혜를 입고 더욱이 품계를 배로 올려⁷⁵⁾ 주셨습니다.

한 번 이별한 후로 소식을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비록 편지를 쓰고자 해도 소재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니다. 지금 갑자기 주신 편지를 받으니 모르는 사이 반가움에 눈이 커집니다. 이어서 동지의 추위에 여행 중인데도 평안하시다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리고 상자가 더 풍부해지니 우리러 솜씨가 더욱 좋아져서 구슬과 비단수 같은 시편에 받들어 완상할 것이 많았습니다. 세상일 가운데 뜻대로 되는 것이 이것 외에 더 심한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근래 어지럼증 때문에 안녕한 날이 늘 적습니다. 그리고 힘을 헤아리지 못한 근심이 있어서 다만 스스로 탄식할 따름입니다. 행차가 가까운 곳에 이르신다고 하니, 혹시 찾아오시는 것을 따지지 않고 서둘러 만나는 것을 도모할 수 있으신지요? 감히 바라지 못하나, 감히 바라지 못하지도 못할 뿐입니다. 자리가 어수선하여 감사함을 갖추어 올리지 못합니다.

정은교에게 답하는 편지 [答鄭雅闇教書]

편지를 받은 기쁨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찾아오는 지팡이 소리를 듣는 기

74) 자성(慈聖) : 임금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이 글에서는 1903년 12월(음력)에 죽은 효정왕후(孝定王后) 홍씨(洪氏)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헌종(憲宗)의 계비로, 대한제국으로 바뀌면서 왕태후에 책봉되었다.

75) 품계를 배로 올려 : 1905년 5월에 종2품에 승자(陞資)되었다.

쁨이 진짜 기쁨이 되는 것만은 못합니다. 받들어 여행 중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소식을 들으니, 통곡하여 조섭을 잘 못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러러 염려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세모(歲暮)에 심사가 깃발처럼 흔들리는 것이 절로 많습니다. 술은 비지 않고 손님은 항상 가득한 정취가 없는 것이 한스러워 항상 돌돌서공(咄咄書空)⁷⁶할 뿐입니다. 글 부탁은 이미 잊어버리신 것인가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써주시겠다는 성대한 뜻을 받드니 미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송암(松庵)의 천수(天水)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바야흐로 관찰부의 첩보를 기다리고 있으니, 만약 할 수 있다면 어찌 잠시라도 멈추겠습니까? 잘 조섭하시어 합석하는 즐거움을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줄이며 삼가 답장드립니다.

전의 군수 권택수에게 답하는 편지 [答全義郡守權宅洙書]

국상(國喪)으로 모두가 슬퍼하는 것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똑같습니다. 제게 있는 도적의 겁박 때문에 특별히 성대한 편지를 보내주셔 꼼꼼하게 위문해주시니, 같은 도에 있는 교분으로 아껴주시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간절한 그리움을 잊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감사하고 흠모하여 감사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어 선달 추위에 몸과 정신이 건강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업무를 겸하고 있어 어지러움과 번뇌가 곱절이 될 것을 생각하니 그 사이 과연 돌아오실 수 있으신지요? 구구한 마음으로 우러러 바랍니다.

저는 갱신할 업무와 고질병이 날마다 이어지니 노쇠한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움을 깨닫게 되는 것을 어찌겠습니까? 이른바 도적 경보가 어찌 근래 다 걱정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겠습니까만, 제가 만나게 되니 홀로 당하는 것 같음을 역시 다시 어찌겠습

76) 돌돌서공(咄咄書空): 실의하거나 회한의 심경을 비유하는 고사이다. 진(晉)나라 때 은호(殷浩)가 남의 침소를 입고 유배되어 태연한 기색으로 종일 허공에 글씨를 쓰기에 사람들이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쫄쫄 괴이한 일이다.'라는 뜻인 '돌돌괴사(咄咄怪事)' 녀 자였다고 한다. 《世說新語 黜免》

니까? 선달 그름이 멀지 않으니 오로지 큰 복을 맞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벽하 방대철에게 주는 편지 [與方碧下大轍書]

에는 생략합니다. 삼가 지난 선달 현합(賢閣 : 상대 부인의 존칭)의 장례는 과연 잘 치르고 가성(佳城)⁷⁷⁾은 매우 흡족하셨고 진실로 슬픔이 병을 더하거나 근심을 끼치는 단서에 이르지 않는 않으셨는지요? 공교롭게 온갖 근심의 모임을 만났는데 끝내 심부름꾼 하나 안부를 여쭙러 보내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본래 마음에 달린 것이겠습니까? 저버린 것이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빨리도 해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정월 초하루에 몸은 슬프고 어지러운 끝에 손상은 없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는지요? 구구한 심정으로 우러러 기도드립니다.

저는 갑자기 진향관(進香官)⁷⁸⁾ 차원(差員)이 되어서 초하루 공산(公山)에 갔었습니다. 오늘 잠깐 본 관아에 돌아와 자리도 테우기 전에 다시 서울로 떠납니다. 신정(新正)에 분주한 것은 평생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 운명인 것을 어찌겠습니까? 이에 책 하나를 드리니 앞머리 작은 서문을 곁여보시면 대략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마디 말로 총괄하자면 진실로 영원한 우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디 말씀을 받아 홍조(鴻爪)⁷⁹⁾의 자취로 삼아 천리 멀리 떨어져 있는 얼굴을 대신하려 하니 어떠신지요? 이렇게 하여 도관(桃觀)⁸⁰⁾에서 다시 노닐 소식을 잇는다면 얼마나

77) 가성(佳城) : 무덤을 뜻한다. 한 고조(漢高祖)의 명신인 하후영(夏侯嬰)의 봉호가 등공(滕公)인데, 그가 일찍이 말을 타고 동도문(東都門)에 이르렀을 때 말이 가지 않고 발로 땅을 허비적거리므로, 그곳을 파 보니 석곽(石槨) 하나가 나왔다. 이를 깨끗이 씻어서 보니, “답답하던 가성이 삼천 년 만에 태양을 보았도다. 아! 등공이 이곳에 거처하리라. [佳城鬱鬱 三千年見白日 吁嗟滕公居此室]”라는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하여 등공의 유명(遺命)에 의해서 등공이 죽은 뒤에 그곳에 장사 지냈다. 《西京雜記 卷4》

78) 진향관(進香官) : 조선시대 국상(國喪) 때에 빈전(殯殿) 또는 빈궁(殯宮)에 제전(祭奠)을 올리던 관원.

79) 홍조(鴻爪) : 설니홍조(雪泥鴻爪)의 준말. 눈 속 진흙에 남긴 기러기 발자국이란 뜻인데, 정처 없는 종적을 이른다. 소식(蘇軾)의 《화자유면지회구(和子由澗池懷舊)》시에 “우리 인생 가는 곳마다 어떠한가. 응당 날아가는 기러기 눈 속 진흙 밟은 것과 같겠지. 진흙에 우연히 발자국 남기지만 기러기 날아감에 어찌 동서를 따지랴. [人生到處知何似 應似飛鴻踏雪泥 泥上偶然留指爪 鴻飛那復計東西]” 한 데서 유래하였다.

80) 도관(桃觀) : 중국의 장안(長安)에 있던 도관(道觀)인 현도관(玄都觀)인데, 당나라 시인 유우석(劉禹錫)이 좌천되었다가 십년만에 돌아와 복사꽃을 보고 감개무량하여 시를 지었다.

다행이겠습니까?

만약 끝내 죽루(竹樓)⁸¹⁾가 내년엔 그친다면 만나 뵈고 한담을 나눌 일이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출발에 임해 대필시키면서 말을 절제할 줄 모릅니다. 다만 내년엔 보증하시기를 빕니다.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윤초 이용의에게 답하는 편지 [答李雲樵容儀書]

앞선 편지에 감사드리지 못하였는데 거듭 편지를 받으니 송구함과 감사함이 교차로 두터워집니다. 이어 남은 추위가 여전히 매서운데 여행 중이신 몸이 연이어 건강하심을 알게 되니 우러러 축하드립니다. 옛사람이 이른바 공조(工曹)는 앉아서 휘파람을 분다⁸²⁾고 한 것이 어찌 찬미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새해 복을 실로 멀리서 기원하는 바입니다.

제가 옛 관아를 다시 찾는 것은 역시 형편상 부득이해서입니다만, 본래의 뜻이 아닌 것은 응당 헤아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감기의 남은 병증을 어지러운 중에 끼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납이 유아(柳雅)의 쌀섬에 반을 넘지 못하는데 오늘 장차 꾸러져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세가 날마다 준다고 하니 근심과 걱정할 곳이 아닌 것이 없으니 어찌겠습니까?

그 사이 농장에 돌아올 기약은 있으신지요? 거리는 가깝고 업무는 한가하니 우러러 오래지 않아 회포를 풀 것이라 생각하며, 이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석성(石醒)은 반 천리 되는 여정이니 반드시 다시 오지 못할 것이라 매우 섭섭함을 어찌겠습니까? 서울에서 출발할 때 편지 한 통 부쳤습니다만, 접수 여부는 역시 미리

81) 죽루(竹樓) : 송나라 왕우칭(王禹偁)이 좌천되어 황주태수로 있을 적에 대나무로 지붕을 덮은 누각을 짓고 이름을 죽루라 하고 「황강 죽루기(黃岡竹樓記)」를 지었다. 여기에서는 오형목이 평택군수로 재직하고 있는 일을 가리킨다.

82) 공조(功曹)는 앉아서 휘파람을 분다 : 공조(功曹)는 한대(漢代)에 군수의 보좌로 두었던 공조사(功曹史)의 약칭으로, 지방관이 정사를 속관(屬官)에게 맡기고 청한(淸閑)하게 지내는 것을 가리킨다. 후한(後漢) 때 성진(成瑨)이 젊어서 인의(仁義)를 숭상하여 일찍이 청렴하다는 명성이 높았는데, 그가 남양 태수(南陽太守)가 되어서는 잠질(宰陟)을 공조(功曹)로 삼고 그에게 공사(公事)를 다 처리하도록 맡겨 버리므로 그곳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하였다. “남양 태수는 바로 잠공호이고요, 흉농 성진은 앉아 울조리기만 하누나. [南陽太守岑公孝 弘農成瑨但坐嘯]” 공효(公孝)는 잠질의 자이다. 《後漢書 卷97 黨錮列傳》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뒤로 남기고 감사하는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벽하 방대철에게 주는 편지 [與方碧下大轍書]

가르침을 받든 지 이미 오래되어 그리움이 날마다 깊어집니다. 삼가 이른 가뭄이 우르스러운 때 건강이 연이어 왕성하시고 가족분들이 두루 평안하신지요? 우러러 바라고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현기증을 앓고 있는데 더하고 덜한 병증이 일정치 않으니 스스로 가련함을 어찌겠습니까? 매번 정무가 한가하면 소오현(嘯傲軒)과 십의대(十宜臺) 사이에 기거합니다. 풀자리가 적당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서 마침 부들을 얻어 자리를 짜려고 하는데, 새끼줄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러러 귀댁 근처에 만약 삼줄 자리가 있으면 하나를 베풀어주시기를 우러러 간청합니다.

그리고 당 앞 서쪽 담 아래 노는 땅 한 조각이 있는데 버려져 있는 것이 매우 애석합니다. 그러므로 향초를 재배하고자 하나 이 역시 종자가 없습니다. 귀 농장이나 이웃 마을에 널리 구해 두었다가 빗방울이 질 때에 귀 댁의 심부름꾼을 시켜 보내주신다면 매우 다행일 뿐이겠습니까? 근래 매우 일이 없어 날마다 약초를 심고 꽃을 키우는 경제에 종사할 것을 생각합니다. 이 역시 한가함을 푸는 방법이 충분히 되겠지요? 우습고 우습습니다. 나머지는 줄이고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정죽성에게 답하는 편지 [答鄭竹醒書]

어제 편지에 지금 감사하니 게으름을 알 만하지요. 이어 더위가 기승인데 복중에 집을 떠난 몸이 건강하시고 비의 혜택이 흉중의 번뇌와 울적함을 씻어주었음을 알게 되니 더욱 축하드립니다. 제가 앓고 있는 현기증은 한결같이 줄어들지 않아 쇠약한 상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을 어찌겠습니까?

이번에 온 두 소년이 한 번 문기를 요청한 것은 정리와 예의가 갖추어져 있으니 아마도 스승이 훈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것인 듯합니다. 하월루(荷月樓) 운은 병 때문에 간곡한 말씀을 외롭게 저버리기 어려워 이에 지어서 드립니다. 특별히 고쳐주시기를 지극히 바랄 따름입니다. 나머지는 남기고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공주 예라당 주사 이한용에게 주는 편지

[與公州禮羅堂李主事漢容書]

삼가 삼복 더위에 몸은 건강하시고 공무는 어지러움과 번뇌에 이르지 않으셨는지요. 우러러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쇠약한 증상이 날마다 침범하여 어지러움증이 심해져가고 있으니 진실로 괴롭고 괴롭습니다.

본 군의 신성포(新成浦)는 바로 둔포(屯浦)에 인접한 지역입니다. 예전부터 장이 선 것이 몇 차례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만, 끝내 실체가 없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지금 해당 동리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 원근의 장사치들이 모두 물건을 가져오기를 원하여 장차 다시 시장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시장이 없는 읍으로서는 역시 한번 개안(開眼)할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군에서 설치를 허락하는 것에 그칠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동리의 백성들이 부에 올려서 호소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허락하여 관대하게 지시해주시어 다행히 시장을 이룬다면 이것이 어찌 영원히 썩지 않을 공적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혹시라도 아산(牙山)에서 시비할 단서와 뒷마무리할 방도가 있다면 오직 좌하께서 곡진하게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례를 버리고 특별히 보호해주시기를 부디 우러러 바랍니다.

당헌(棠軒)⁸³⁾에 드릴 서울에서 보내온 서찰은 지난번 백(白) 주사의 편지 가운데 전

83) 당헌(棠軒) : 관찰사, 또는 관찰사의 정청(政廳)을 뜻한다. 주(周)나라 소공 석(召公奭)이 남국(南國)을 순시하다가 팔배나무 밑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었다. 후세 사람들이 그의 덕정(德政)을 사모하여 그 팔배나무를 차마 베지 못하며 “무성한 저 감당나무, 베지도 말고 치지도 말라. 우리 소백께서 쉬시던 곳이니라. [蔽芾甘棠 勿剪勿伐 召伯所蒞]”라고 노래하였다. 후세에 지방관의 선정(善政)을 칭송하는 고사로 곧잘 인용되었다. 《詩經 甘棠》

달하여 드리도록 동봉하였습니다. 서울로 가는 가마가 아직 받지 못하였다고 하니 아직도 돌아가지 못한 듯 합니다. 즉시 부의 관저에 투입(推入)하여 개봉해서 편지를 꺼내 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선 줄이고 문후의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정죽성에게 주는 편지 [與鄭竹醒書]

시원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래 복중에 건강이 과연 약을 쓰지 않고 나았다 하시니 우러러 축원드리는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직임은 어지럽고 병은 심하여 스스로 가련합니다. 오늘 파접회(罷接會)⁸⁴⁾에 나아가 참석할 생각이었습니다만, 큰 어지럼증이 비록 줄었어도 남은 병이 여전하여 일어날 방도가 없어 끝내 처음 생각과 어긋나게 되었으니 그런 형편을 어찌겠습니까?

참외 백 매는 소략함을 잊고 보내드리니 보잘 것 없다고 비웃지 마시고, 술을 황하에 부은 뜻⁸⁵⁾을 특별히 남겨 제생에게 사례하심이 어떠신지요? 우선 이만 줄이고 안부의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내부 회계국장 이용복에게 주는 편지 [與內部會計局長李容復書]

이별한 후 세월이 빨라 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이런 때 그리운 마음은 더하여 보통보다 갑절이나 됩니다. 삼가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몸과 공직은 왕성하십니까? 우러러 듣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쉬어야 하나 쉬지 못하고 계륵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사로 머리가 지끈거리니 갈수록 난감한 중에 있습니다.

84) 파접회(罷接會) : 책을 읽거나 글을 짓는 모임을 마칠 때 베풀던 잔치를 가리킨다.

85) 술을 황하에 부은 뜻 : 아랫사람과 동고동락함을 의미한다. 옛날 어떤 사람이 대장(大將)에게 술 한 병을 선사하자, 그 술을 강물에 풀어서 부하들과 함께 강물을 마셨다고 한다. 《三略 卷上》

근래 인부(人夫) 모집을 반복하여 민정이 소란스럽고 흉흉한 것을 어찌해야 할까요? 어제 신문(新聞)의 잡다한 보고를 보니 지방 개선의 의논이 있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결과가 어떨할지 알 수 없으나, 다만 한 가지 일을 우리러 간절히 청할 것이 있으니 부디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택은 호중(湖中)의 잔약한 읍으로서 땅이 좌우로 잘려 나뉘고 동서로 잃어서, 지금은 사방 십 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을미년(1595)에 직산에 합부되었다가 병신년(1596)에 즉시 다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면적이 지나치게 작다고 할지라도 형편을 궁구하면 역시 중대함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해구의 요충지이고 내포로 통하는 큰 길입니다. 요긴함을 논한다면 진을 설치해 국경을 방어해야 할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산으로 말하면 비록 삼남대로라 할지라도 동쪽 귀퉁이에 치우쳐 있어 대로부터 직산까지 거리가 십리입니다. 대로부터 평택까지 역시 십리입니다. 더구나 남쪽에 천안이 있고 서쪽에 평택이 있으니 대로를 방어하는 일은 비록 직산이 없더라도 할 수 있기에 충분합니다. 그러하니 중요성과 필요성을 평택에 비교하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평택에서 천안까지 50리가 되고 안성까지 50리가 되고 진위까지 40리가 되니, 그 중 직산은 등한하게 군더더기로 가지고 있는 군과 마찬가지로 됩니다. 평택으로 옮겨서 합부시키면 지형이 편리하고 길의 거리도 적당하여 실려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방의 제도를 고치는 자리에 의견을 내서 일이 만약 도모하여 이루어진다면 만년토록 썩지 않을 공적이 될 뿐만이 아니니, 역시 어찌 군으로부터 표준으로 삼는 정성이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이기에 상세히 설명하기를 피하지 못하고 이에 우리러 진술하니,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르고 바랄 뿐입니다. 이만 줄이며 안부의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방벽하에게 답하는 편지 [答方碧下書]

요사이 꽤나 안부가 막혀 그리움이 정말로 간절합니다. 곧 주신 편지를 받아 가을 추위가 점점 심해지는데 몸이 안녕치 못하시다고 하니 구구한 심정으로 우러러 염려스럽습니다. 만아드님의 종환(癰患 : 다리 붓는 병)은 근래 과연 완전히 아물었는지요? 실로 이마를 조아리고 기도드립니다.

저는 어지러움증이 늘그막 으레 생기는 병에 붙어서 진실로 다시 말하기에 부족합니다. 근래 몸에 병이 침투하여 기력이 따라서 소모되었습니다. 홀로 객관에 부쳐 살며 좋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좋은 계절을 만나 정서가 혼약하고 닿는 사물마다 감정이 생겨 도리어 평상시 심상하게 지내는 것만 못하니 어찌겠습니까?

부쳐온 서문은 받들고 읽으며 완상하였습니다. 이미 상세하고 막힘이 없어 초가 정자에 정체를 더하니 주신 것이 진실로 많으나 감사할 길이 없습니다. 언제쯤 다시 한 번 만남을 이을까요? 나머지는 뒤로 남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추지 못합니다.

참서⁸⁶⁾ 민충식⁸⁷⁾에게 주는 편지 [與閔參書忠植書]

편지가 막힌 지 한 달을 넘으니 그리움에 근심스럽습니다 삼가 서리내리는 추위가 점점 매서워지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관직생활을 하시는 몸이 이어서 평안하시기를 우러러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저는 늙어 시들어가는 끝이라 받들어 보여드리기에 충분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 20일 후로 전의(全義)에 삼검(三檢)을, 직산(稷山)에 참핵(參覈)을, 공주부에

86) 참서(參書) : 조선 말기 궁내부(宮內府)·중추원(中樞院)·표훈원(表勳院) 및 각 부에 소속된 주임관(奏任官)인 참서관(參書官)의 약칭이다. 종래의 정5품인 정랑 및 좌랑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주로 과거와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로 충원되었다.

87) 민충식(閔忠植) : 1881-1933. 본관은 여흥. 1917년 아버지 민영소(閔泳韶)의 남작 작위를 승계받았고, 1928년 자작으로서 히로 히토 천황 즉위식에 참석하였다. 조선 귀족으로서 친일파 명단에 올라 있다.

연명의식(延命儀式)⁸⁸⁾을 행하러 갔습니다. 이것은 노쇠한 자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어지럼증을 새롭게 앓아 분수 밖으로 더욱 제멋대로 하게 되니, 스스로 모르는 사이 고뇌할 뿐입니다.

다만 엎드려 들으니 황태자비궁의 환후가 윤직하라는 명이 있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삼가 어떤 증후로 인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간 회복하셨는지요? 춘부 대감[민영소]이 숙직하는 일이 많으신 끝에 건강에 손상됨이 있는 데 이르지 않기를 삼가 구구한 심정으로 염려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으로 남기고 안부의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전의군 의관 황두연에게 주는 편지 [與全義郡黃議官斗淵書]

일전에 헤어지고 나서 섭섭함이 간절하였습니다. 삼가 서리 내리는 추위가 심해지는데 몸은 건강하신지요? 우러러 구구한 마음으로 애써 기도드립니다. 저는 차멀미와 여독이 서로 침범하여 한결같이 쇠퇴한 채로 기운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스러운 것은 「귀거래사」를 일찍 읊지 못한 것입니다. 한 번 나란히 묵었다면 오래 쌓여온 마음에 위로가 되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병(門屏)을 어지럽게 하는 데 이르니 도리어 불안합니다.

지난번 아뢰 여수(麗水)의 일은 사람을 파견하여 주간하기를 기하여 생질인 참봉 박준용(朴準用)을 시켰습니다. 부디 직접 편지 한 통을 써서 좋은 말로 긴히 부탁하여 속히 빠른 우편으로 보내주신다면 감격하고 다행스러울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또 마땅히 여기에서 서울집으로 송부하여 뱃길로 목항(木港)에 닿게 할 계획입니다. 이를 헤아려 특별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정신이 혼미하여 대필시킵니다. 이만 줄이고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88) 연명의식(延命儀式) : 감사나 수령이 부임할 때에 결패(關牌) 앞에서 왕명을 전포(傳布)하는 의식, 또는 고을원이 감사에게 처음 가서 보는 의식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평안남도 관찰사 이도재(李道宰)가 1905년 6월 18일에 충청남도 관찰사로 임명되었을 때의 연명의식을 가리키는 듯하다.

고성군수 박진국에게 주는 편지 [與固城朴○○鎮國書]

몇 년 동안이나 편지도 만나지도 못한 채 때때로 바람을 맞아 정신을 내달리며 바라보는 경물마다 그리움을 일으켰던 것은 서로 마찬가지로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여행길 거치는 동안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아주 바쁘지 않으시며, 순찰사의 안부 역시 태평하신지요? 달려가 우러러 구구하게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부터 쇠약한 것은 많은 말이 필요없습니다. 저간에 겪은 바 고생과 고난이 아닌 것이 없으니, 이에 어지럼증이 되어서 날마다 약순가락을 일삼고 있으나 거의 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수로 나온 지 십여 년에 끝내 새벽의 굶주린 호랑이 같이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니 허리를 굽히는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평소 뜻이겠습니까? 도리어 우습고도 한탄스럽습니다.

다만 순찰사(巡察使) 안종덕(安鍾惠) 씨가 일찍이 밀양에서 친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직산의 참핵하는 곳에서 말이 순찰사무에 미쳐 제게 사람을 천거하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를 추천하는 것으로 책임을 하였습니다. 본디 그대의 치밀하고 자세한 재주와 힘이 이러한 사무에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과 국가의 대사에 관계된 것이니 역시 한갓 재능만을 믿고 삼시간에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부디 일마다 상세하게 상의하여 누락되고 빠진 부분을 보충하여 공사에 타당함을 기한다면 거의 그대가 승진할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니 역시 늙은 내가 사람을 추천한 빛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도리어 중대하지 않겠습니까? 신중하고 신중하기를 깊이 새겨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우룡당 채오에게 답하는 편지 [答雨龍堂彩五書]

눈보라가 추운 창가에서 정말로 그리워하고 있는데 귀한 편지가 홀연히 이르고, 구슬 같은 시가 아울러 왔습니다. 펼쳐서 두 번 세 번 읽으니 모르는 사이에 종이가 닳

았습니다. 원사(遠師)⁸⁹⁾의 맑은 풍도와 가선(賈禪)⁹⁰⁾의 높은 재주를 지금 우리 대사에게서 봅니다. 다만 백 향산[백거이]의 지극한 교분과 한 문공[한유]의 높은 안목이 없음이 한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바리때의 자본이 빈곤한 것이 부끄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이런 세모를 당하여 응당 느긋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런 척박한 상황을 돌아보니 마침 쌓아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서울로의 출발이 곧바로 있어 여러 모로 궁핍합니다. 다만 열 께미의 돈[阿睹]⁹¹⁾을 보내니 혹시라도 한 때 발우(鉢盂)를 채울 자본으로 삼으실 수 있으신지요? 한탄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돌아올 기일은 신춘에 있을 것이니 이때 마땅히 선문(禪門)을 두드릴 계획입니다. 번거로울까봐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죽산 승죽동 죽인 주사 경묵에게 답하는 편지 [答竹山勝竹洞族人主事敬默書]

편지도 만남도 모두 막힌 채 몇 년이나 되었는지요? 때때로 그리워하며 울적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주신 편지를 홀연히 받으니 거듭 통역을 거쳐 온 듯 황홀하여, 펼쳐서 두세 번이나 읽었습니다. 자세하여 마치 무릎을 맞대고 얘기를 듣는 듯하니 위로되어 뺨 뚫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더욱이 봄바람이 여전히 매서운데 타향에서 건강하시고 신년의 많은 복을 누리심을 알게 된 것이겠습니까?

저는 근래 쇠약하고 피로해 실로 말로 형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기증이 서로 공격하니 한 해를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비록 늘그막에 으레 있는 병이라고 하지만, 괴로움과 번민이 지극하니 어찌겠습니까? 지난 설달 서울에 올라가 일전에 돌아

89) 원사(遠師) : 당나라 승려 자원선사(自遠禪師).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가 「원사(遠師)」, 「자원선사(自遠禪師)」 등의 시를 지어 그와의 교분을 노래하였다.

90) 가선(賈禪) : 당나라 시인 가도(賈島). 본래 승려였으나 한유(韓愈)의 인도로 환속하였다.

91) 돈[阿睹] : '阿睹'는 '이 물건' 내지 '이것'이라는 뜻인데, 이 글에서는 돈을 뜻한다

왔습니다. 다만 서울 집 온 식구들에게 위급한 일이 없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석성은 작년 이단(履端 : 정월 초하루)에 이미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외롭고 적적한 공관에서 오직 병을 이웃으로 삼으니 어찌 취석(醉石), 향반(香盤)에서 소년의 풍미를 배우는 것에 생각이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른바 음풍농월이라는 것도 모두 파리변물(笆籬邊物)⁹²이 되었으니 가소롭고 한탄스럽습니다.

매번 아름다운 때와 풍경을 보면 풍모를 뵈고 우러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만, 무슨 연유로 앉은 곳을 옮기지 않으시길래 한 번도 왕림하심이 없으신지요? 근래 천마(天麻)를 복용하는 것은 여기 온 유묵(有默) 씨에게 이미 알렸으니 분명히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라옵건대 널리 캐서 한 열 근 깨끗이 말려 주시면 어떠신지요? 남은 얘기는 남겨두고 사례를 갖추지 못합니다.

직산군수 곽찬⁹³에게 답하는 편지 [答稷山倅郭璨書]

봄추위가 여전히 매서운데 건강하시다니는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위로와 축하가 되는지요? 실로 축원하던 바에 부합합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으니 달리 받들어 알려드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씨(柳氏) 일에 대해서는 다만 부지런한 가르침을 거듭하셨을 뿐 아니라 일이 풍화와 관계되니 분하고 놀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상세히 찾아 별도로 엄하게 징계하고자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원고의 대질이 없고 또 옆에서 참고할 확실한 증거가 어려워, 형편상 부득이하게 엄하게 장을 쳐 문초한 후에 은밀히 공적인 조사를 탐색해보아도 별로 다름이 없었으니, 앞선 잘못은 세 사람에게 달린 것이고 나중 잘못은 정씨 사내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을 쳐서 꾸짖고 지금 수감하였습니다.

92) 파리변물(笆籬邊物) : 울타리가에 버려진 물건이라는 뜻으로, 쓸데 없는 물건을 가리킨다.

93) 곽찬 : 郭璨(1854-?). 본래 이름은 광기(郭琦)이다. 본관은 현풍, 거주지는 한성이다. 1886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시독·이천군수·안성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1904년부터 1907년까지 직산군수를 역임하였다. 생애는 미상이다.

이제 청리(聽理)⁹⁴⁾의 방법을 받드니, 어찌 그 사이에 참작하라는 말씀이 없으십니까? 송사는 이미 조사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조사하여 모두 잘못이 있으니 어찌 한쪽을 보호하여 억지로 잘못을 끄집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임씨(林氏)가 길에서 한 여인을 마주치고 좌우에 사람이 없어서 가는 곳을 물었더니 동리 사람들이 잡아다가 꾸짖고 때리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찌 가는 곳을 물었다고 꾸짖고 때리는 지경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목격한 사람들이 전한 바는 그 사이 참작할 것이 없지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임씨가 맞던 상황에 유씨, 김씨 두 사람이 마침 이 곳을 지나다가 정가(鄭哥)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불분공직하고 함께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그 사이 참작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온 동리가 시끌벅적하여 곁에서 이유를 물은 것이 어찌 유, 김 두 사람에게 이르렀겠습니까? 그리고 아! 저 정씨 사내가 유독 이 두 사람에게만 악행을 저질렀겠습니까? 이것이 비록 임씨의 단독으로 저지른 것일지라도 유씨와 김씨가 공교롭게 동행하였다가 섞여서 함께 욕을 당하였으니, 혹시라도 괴이할 것이 없는 것은 정씨 사내가 자기 누이가 욕을 당하였다고 듣고 어리석은 분노에 격분하여 염치없음을 무릅쓰고 행패를 부렸으니 어느 겨를에 반상여부를 묻는데 미치겠습니까? 누구에게 범죄가 있겠습니까? 일이 결과적으로 이에 이르렀으니, 사적인 생각에 잘못 걸린 자가 애석하고 역시 몰지각한 사람과 짝이 된 한탄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윤직(李允植)의 일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범이 잡힌 일에 이미 휘방을 놓은 일이 없습니다. 또 송사를 하여 죄를 따지는 법정에 청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씨의 어머니가 잡혀올 때 순교 무리가 족채(足債)⁹⁵⁾ 등의 일로 끝없이 소란을 일으켜서 잡아다가 깨닫도록 타일러 그만둘 줄 알게 하였으니, 역시 폐단을 그치고 비방을 멈추는 호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내를 편들어 비호하여 유 아에게 죄를 더 돌리려한 것으로 만드니 탄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94) 청리(聽理): 송사를 자세히 듣고 심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95) 족채(足債): 먼곳에 심부름 보내는 사람에게 주는 돈. 여기에서는 죄인을 잡으러 온 순교에 관례상 주던 뇌물을 가리킨다.

저는 정집(政執)과 이우(李友) 사이에 더하고 덜한 것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하필 유씨 정씨 소송에 애증을 곡진하게 보존하여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책망을 사겠 습니까? 스스로 돌아보고 돌이켜 구하여도 그럴 리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은 다스리지 않고 앉아서 관찰사만 외우고 있다는 책망을 받기에 이르니 얼굴은 붉 어지고 마음은 부끄러워 입으로 스스로 변호하기 어렵고 일은 구멍과 어긋난 곳이 많고 말은 장황하여 다만 송구함과 한탄이 늘어날 뿐입니다. 부디 용서하고 이해하 여 처리하심이 어떨는지요? 이만 줄이고 감사를 갖추지 못합니다.

석성 김인길에게 답하는 편지 [答石醒金寅吉書]

공관에 우두커니 앉아 삼춘(三春)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우러러 서글픈 일념에 곁 에서 외로워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홀연 편지를 받으니 직접 만난 듯 황홀하니 위로와 기쁨이 어땠겠습니까? 게다가 근래 정양과 기거가 계속 평안하시고 집안이 두루 경사스럽다고 들었습니다. 만아드님이 편안하다는 소식은 오래 떨어져 지내는 사이 들었으니 이에 축하드립니다. 어떤 공정을 하고 있는지 과연 앞으로의 희망은 있다고 하는지요? 우러러 구구한 마음이 축원드림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연래 현기증이 여전하여 그치질 않습니다. 정신은 피로하고 귀는 어두워 쇠 잔해 시들어가는 끝이라 날이 다르고 달이 다르다고 할 만 하니, 스스로 가련한 것 을 어찌겠습니까? 지난 봄 이래 벗 유태경(柳泰卿)이 간혹 내왕하였습니다. 가을 후 로 직산의 관아 가운데 옮겨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거처하고 있 습니다. 백수(白首)는 부끄럽지 않으니 보잘 것 없는 녹봉이 어찌 몸을 비끄러매기에 족하겠습니까? 오히려 호연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다만 공채(公債) 한 가지 일 때문에 염치를 무릅쓰고 주저앉아 있으니, 마치 다시 경영하여 구하는 것이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정세가 이에 이르니 어지 불쌍하고 분하지 않겠습니까? 고요히 이를

생각하며⁹⁶⁾ 돌돌서공(咄咄書空)⁹⁷⁾을 할 뿐입니다.

그대 편지에 봄비가 지루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리 추수를 점치면 이 근처는 지난 가을 이래 비가 한 번도 호미를 적시게 온 적이 없고 눈이 땅을 덮은 적이 없으니, 보리흉년은 이미 결판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연안의 물가에 바닷물이 넘쳐 침해받은 전토에 떨어진 나락이 삼사백 석이 됩니다. 없어지고 또 없어지니 분명히 고을이 없어져야 그칠 것입니다. 민정 때문에 내 일 때문에 길게 탄식만 할 뿐입니다.

근래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읊을 계획을 이루고자 기하였으나 서울의 정부로부터 외읍 관제의 변통을 즉시 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좌우간 반드시 평소 생각한 것을 이를 모양입니다. 한 번 오시겠다는 말씀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살피니 아직 때가 아니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서울에 있더라도 한 번 돌아보아 주어서 남은 생애 쌓지 못한 회포를 이루는 것이 바라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 우편으로 부친 제 편지가 지체됨을 면치 못하여 저도 모르게 크게 한탄하였습니다. 이 편지도 역시 갈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대필시켜 쓰니 정신이 혼미합니다. 우선 이만 줄이고 사례를 갖추지 못합니다.

공주 정청각에 머물고 있는 여산군수 정관희⁹⁸⁾에게 주는 편지 [與公州澄清閣留鄭礪山觀喜書]

이별한 지 한 달이 넘으니 울적한 마음을 더욱 간절합니다. 삼가 초여름 단비가 미처 흠족하지 않은데 몸이 한결같이 평안하시고 공무 때문에 정신을 쓰는 것에 괴로

96) 고요히 이를 생각하고 : 가슴을 친다는 뜻이다. 《시경》 〈때풍(邶風) 백주(柏舟)〉에 “고요히 이를 생각하며, 잠에서 깨어 가슴을 치노라. [靜言思之 寤辟有擗]”라고 하였다.

97) 돌돌서공(咄咄書空) : 실의하거나 회한의 심경을 비유하는 고사이다. 진(晉)나라 때 은호(殷浩)가 남의 참소를 입고 유배되어 태연한 기색으로 종일 허공에 글씨를 쓰기에 사람들이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쫓쫓 괴이한 일이로다.’라는 뜻인 ‘돌돌괴사(咄咄怪事)’ 낙 자였다고 한다. 《世說新語 黜免》

98) 정관희 : 정관희(鄭觀喜), 충청관찰부 주사(1897)를 거쳐 비안(1899), 여산(1901), 동북·장수·군위(1902), 장단(1904) 군수를 역임하였다.

워하지 마시며, 관찰부의 모든 일이 역시 모두 강녕하기를 엮드려 구구한 마음으로 우리러 지극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한결같이 현기증을 앓고 있어, 시시때때로 괴로우니 번민과 가련함을 어찌하겠습니까?

어제 경부철도회사(京釜鐵道會社)의 청첩장이 왔으니, 이는 개통식 날에 손님으로 청하여 반열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보니 나이는 많고 병은 많아 다시 남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대한 상황은 다시 볼 날이 없을 듯합니다. 다만 한 번 관광하려는 마음은 있으나 가고 오는 데 며칠이 걸리는 모양이니 이로 인해 사유를 아뢰는 것은 도리어 송구스럽고 일이 커집니다. 그 때에 몰래 스스로 다녀오는 것이 제 생각에 좋은 듯 합니다만, 일의 이치와 정황에 걸리는 지라 이에 감히 제 마음을 아뢰입니다. 부디 헤아려 회답해 주시기를 엮드려 바라고 바라올 따름입니다. 이만 줄이고 안부 묻는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육영재 재장 죽성 정은교에게 주는 편지

[與育英齋齋長鄭竹醒間教書]

잠시 헤어져 울적입니다. 삼가 근래 조섭은 잘 하시고 몸은 한결같이 보충하시는지요? 우리러 구구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여전히 어제와 마찬가지로 용렬할 따름입니다. 제생이 서역(書役)을 어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검칙하는 점에 신경을 쓸 일이 많을 것을 생각하니 매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탁하신 각기병(脚氣病) 약 처방은 몇 조목 초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약제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용이하게 행할 것 역시 몇 가지 조목에 지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살펴보고 복용을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떠신지요? 안마법(按摩法)은 오래 행하여야 효험이 있는 듯합니다만, 그 주해 가운데 “數目” 두 자는 그 뜻을 모르겠으니 가르쳐 주시면 어떠실지요?

다만 국화·대나무·석류·장미 네 종을 이에 보내드립니다. 잘 심고서 저녁에 물을 주면 이 역시 육영(育英)에서 나오는 한 가지 일이니 기쁘게 성정을 기르는 바탕

이 되기에 족할 것입니다. 대나무·석류·장미는 이 군에서 드물게 있는 물건입니다. 몸체는 비록 작아도 성취는 클 것입니다. 다만 북돋우고 물을 주는 것이 부지런한지 태만한지 여하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이만 줄이고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방 벽하에게 답하는 편지 [答方碧下書]

오랫동안 소식이 끊겨 우리러 그리워하는 마음이 바야흐로 깊었습니다. 곧 편지를 받드니 위로되고 시원해지는 마음이 직접 뵈 것과 같습니다. 다시 안부를 물으니 편지 후 며칠 동안 여행 중인 몸은 한결같이 평안하신지요? 우리러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랜 현기증이 다시 발작하여 날마다 고통과 번뇌를 일삼고 있으니 답답함과 탄식을 어찌겠습니까? 귀댁의 평안하다는 소식이 그 사이 이미 오랫동안 끊어지고 근심스러운 일이 이어져서 매우 간절하게 대신 고민하였습니다.

지난번에는 공부(公府)에서 관찰사와 정여산(鄭礪山)이 귀 댁이 보살피 보호하는 일을 거듭거듭 여러번 부탁하였으니, 양해해주시면 어떠신지요? 어떻게 하면 만나 뵈고 겹겹이 쌓인 마음을 펴겠습니까? 벌써부터 간절히 공경히 바랍니다. 어제 윤총판 집과 주사 김도묵(金道默)이 서울에서 내려와 귀하가 아직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 라고 말을 하였으니, 역시 헤아려주심이 어떠신지요? 이만 줄이고 감사를 갖추지 못합니다.

주사 정태영에게 답하는 편지 [答鄭主事泰瑛書]

예는 생략합니다. 연제(練祭)⁹⁹⁾를 이미 지내셨다고 거듭 들었습니다. 우리러 효성

99) 연제(練祭) : 상제(喪祭)의 하나로,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먼저 돌아간 어머니의 소상(小祥)을 한 달 앞당겨 열한 달 만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과 그리움이 새록새록 더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래 병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으니 진실로 송구하고 부끄러운 바입니다. 이어 근래 날씨가 좋지 않은데 상중의 몸이 한결같이 평안하심을 알게되니 위로되고 축하함에 싫음이 없습니다.

저는 현기증이 끝내 효험이 없어 항상 근심하고 답답한 바입니다. 어리석은 자식이 어제 열차로 집에 돌아가고 홀로 외로운 관사에 지내니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주신 명품 술과 훌륭한 생선은 과연 진미입니다. 두터운 염려가 이에 이르니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의보감(東醫寶鑑)』 등본이 부족하여 온 사람이 전한 바를 통해 12장을 보내 드립니다. 제생이 많은 날 머리 아파하며 매우 편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공부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일이니 이것으로 위로함이 어떠신지요? 뜰가의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 색이 곱고 향기롭습니다. 이에 수백 송이를 따서 보내드리니 한 때 죽성(竹醒 : 鄭閻教)이 화전을 부치는 자료에 대비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나머지는 뒤로 남기고 감사를 갖추지 못하고 예를 소략히 합니다.

대신 김가진¹⁰⁰⁾에게 답하는 편지 [答金大臣嘉鎮書]

오랫동안 문안을 여쭙지 못하여 항상 울적함과 그리움이 간절하였습니다. 곧 문안을 받으니 삼가 위로가 되고 송구스럽습니다. 이어 엿드려 이 화창한 시절 건강이 한결같이 왕성하시다 아니 축하하는 마음이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저는 우선 직책을 보존하고 있습니다만 근래 현기증이 실로 버티며 지내기 어려운 것을 어찌겠습니까?

100) 김가진 : 金嘉鎮(1846-1922). 본관은 안동(安東), 호는 동농(東農)이다. 1886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1887년부터 판사대신 주일공사(辦事大臣 駐日公使)로 4년간 도쿄에 주재하였으며, 병조참의·외무독판서리(外務督辦署理)·전우국총판(電郵局總辦)·공조판서·농상공부대신 등을 역임하였다. 1896년 7월에 조직된 독립협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이때 독립문 현판서의 '獨立門' 글씨를 한자와 한글로 썼다. 1910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뒤 수여한 남작(男爵)의 작위를 받았다가 그 뒤 즉시 반납하고, 비밀결사인 조선민족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의 총재 및 고문으로 추대되어 상해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였다. 단원들이 붙잡혀 대동단이 해체된 뒤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고문으로 활약하였다. 한학과 서예로도 유명하였다.

부탁하신 일은 삼가 잘 알았습니다. 송사를 판결한 전말을 이계 갖추어 드리니, 보시면 환하게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일의 상황이 이처럼 상반되니 엎드려 송구함과 변민이 간절합니다. 나머지는 뒤에 남기고 감사를 아뢰는 일은 생략합니다.

다시 예전 소작인 정경화(鄭敬化)가 농사철이 되어 경작지를 빼앗겼다고 호소하고, 새 소작인 김성묵(金聖默)이 작년 겨울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경작지를 놓쳤다고 합니다. 전답의 주인은 호소하기를 “옛 소작인이 도박에 빠져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소작을 옮겼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이 나와서 대질하여 변론하니 도박을 한 일은 과연 없었던 것이고, 옛 소작인이 살던 동리의 백성들이 전답 주인 소유의 언덕 나무를 벨 때 정경화가 같은 집안 사람이라 금지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때문에 틈이 생겨서 전답을 옮기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소작을 옮긴다는 표지(標紙)는 애초에 옛 소작인에게 가서 보여주지 않았다는 설은 대질하던 데에서 나왔습니다. 이른바 나무를 벨 일이 3월에 있었으니, 한갓 소작을 옮길 계절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판별한다면, 만일 산 주인이 억울함이 없고 옛 소작인에게 어떤 쌓인 화가 있다면 소작을 옮긴다는 표지를 옛 소작인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다른 눈을 바꾸어 얻게 하는 것이 농사의 관례입니다. 새 소작인이 진실로 작년 겨울에 소작을 옮겼다면 무슨 연유로 감추어 두었다가 지금 서로 소송하는 지경에 비로소 꺼내 보이겠습니까? 일의 상황을 참고하여 따져보니 옛 소작인이 옳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답 주인의 소장에 판결을 써서 소송을 끝낸 지 오래 되었습니다.

공적인 논의는 덮기 어렵고 때 역시 조금 늦었으니 소송을 돌이킬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삼가 말씀하셔서 감히 침묵할 수가 없어서 정경화를 불러들여 특별히 깨우쳐 경계한 후에 지니고 있던 전답 21두락 안에 10두락을 그대로 짓고 11두락은 전답 주인에게 옮겨주도록 하였으니, 밝게 살피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진보 진사 허숙에게 답하는 편지 [答眞寶許進士壘書]

이별한 지 오래되어 그리움이 점점 더 간절해집니다. 생각지도 않게 편지가 우편으로 이르러, 두 번 세 번 펴서 읽으니 손을 잡고 훌륭한 가르침을 듣는 듯 황홀하였습니다. 이어 근래 여행 중인 몸이 한결같이 건강함을 알게 되니 멀리서 축하드립니다. 춘당(春堂)¹⁰¹⁾의 안부를 근래 다시 듣게 되니 실로 구구한 마음으로 원하던 바입니다.

저는 노쇠한 나이에 타향에 있으면서 현기증이 병이 되고 백성과 사직 때문에 번뇌를 더하니 일찍 「귀거래사」를 읊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정과 형편 역시 마음대로 거취를 정하기 어려워 몸의 운신을 막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을 어찌겠습니까?

한 번 찾아와 주시겠다는 말씀에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길이 머니 어찌 길을 떠나시겠습니까? 바야흐로 이번 그믐과 초하루 사이에 서울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헤아려주시어 떠나는 길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석성 어른이 작년 정월 초에 집으로 돌아왔으나 아직도 다시 찾아오지 못하고 간혹 여러 차례 편지로 안부를 물을 뿐입니다. 이만 줄이고 사례를 갖추지 못합니다.

시종 엄석주에게 답하는 편지 [答嚴侍從錫周書]

한동안 만나지 못해 울적한 마음이 어찌 잠시라도 풀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운 마음이 간절하였는데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래 날씨가 온화한데 몸과 정신이 건강하고 평안하심을 알게 되니 삼가 축하드립니다. 저는 노쇠한 상황이 날로 심해지니 어찌겠습니까?

말씀하신 뜻은 삼가 잘 알았습니다. 엄척하신 김교(金校)의 해당 논문은 이반(李班)

101) 춘당(春堂) :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에게 환급하였습니다. 헤아려주심이 어떠신지요? 이만 줄이고 정신이 혼미하여 사례를 갖추지 못합니다.

정죽성에게 주는 편지 [與鄭竹醒書]

예는 생략합니다. 삼가 봄비가 처음 그치고 객지에서 상을 입고 계신 몸이 한결같이 평안하신지요? 각기병은 근래 다시 어떠하신지요? 실로 잠깐 사이이게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우려려 염려됨을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현기증이 말하면 자질구레하니 노쇠한 나이의 으레 걸리는 질병이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할 따름입니다.

이번에 보낸 8종의 화초는 서재 좌우에 배치해 심고 저녁마다 물을 주면 모두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 어떠신지요? 지난번 부탁한 『동의보감』 등본은 이미 다 필사를 마친 것을 이번에 먼저 들여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줄이고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정죽성에게 답하는 편지 [答鄭竹醒書]

예는 생략합니다. 어제 편지에 지금 감사하니 형세가 매우 서글픈 바입니다. 다시 밤사이 객지에서 상중이신 몸이 평안하신지 여쭙니, 앞드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저 미약하고 무능하니 나머지는 무엇을 아뢰겠습니까?

여섯 등본은 살펴보니 제생의 공부 과정이 칠분(七分)은 경지에 올랐음을 알 만하였습니다. 다만 글자가 작아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한스러워 온 학생에게 평가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권면하는 일이니 용서하고 헤아리심이 어떠하신지요?

앵두를 보내는 문제는 과연 일반적인 정서이니 하필 줄 것을 기다려 품겠습니까? 외롭게 시골 관사에 부처살며 스스로 울적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바로 이날 과연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드리니 기록할 만한가 보시고 부디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줄이고 감사하는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의관 김홍식에게 답하는 편지 [答金議官弘植書]

안부가 막힌 채로 봄이 다 가고 여름이 시작되어 그리움이 매우 간절하였습니다. 곧 편지를 받고 삼가 근래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요즘은 과연 다시 평상시로 회복된 효험이 있으신지요? 우러러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현기증이 계속 더했다 덜했다 합니다만 근본을 없애는 데 약이 없어 스스로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정생의 일은 처음에 소나무 가래나무 때문에 서로 소송하였으나, 대질하여 조사하는 마당에서 동리 사람들이 심은 것이라 일결었습니다. 합하여 증거가 있었지만, 산은 이미 정씨의 산이기 때문에 이미 벌목한 열 그루는 놔두어 논하지 말고 나머지 소나무는 산 주인의 의견에 부처 주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농토의 여탈 문제로 소송을 일으킨 것 때문에 역시 대질 조사하니 새 소작인에게 옮겨 짓도록 한다는 표지(標紙)가 애초에 옛 소작인에게 가지 않았고 삼월 씨 뿌릴 때가 되어 논을 경작한다는 말 한 마디 없었습니다. 이는 경작할 때를 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전답 열 두락은 계속 경작하도록 하고, 산지기에게 지급하는 열댓 두락은 비록 옮겨짓는다는 표지가 없을지라도 이미 지난 겨울에 전해들은 말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빼앗아서 옮겨 경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의 공정한 판결일 뿐 아니라 정생에게 있어서도 남은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30여 두락을 모두 경작하려는 마음에 분주하게 경향을 오가서 장교(長橋)¹⁰²⁾에 계신 중신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102) 장교(長橋) : 중구 장교동 51번지와 종로구 관철동 11번지 사이 정계천에 놓였던 다리이다.

경화(京化)¹⁰³를 잡아다 다스리고자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도박 때문에 전답을 빼앗았다는 것은 모두 근거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 소송의 판결은 저절로 인근의 중론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무슨 말로 소송을 번복하겠습니까? 정 문교는 저 역시 안면이 있는 사람입니다만, 만약 학자라 이름하면서 이러한 분란이 있으면 소송하기 좋아하는 것을 면치 못할 테니 편안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미 증신께서 부탁이 있으셨으니 정생이 호소하기를 기다렸다가 이른바 정경화를 다시 엄칙하여 훗날을 경계할 계획입니다. 이만 줄이고 감사하는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성주군수 남궁억¹⁰⁴에게 축하하는 편지 [賀星州郡守南宮檉書]

한 성 안에 있으면서 여러 해 통하지 못하였으니, 비록 인연과 형편이 그렇게 하였으나 하더라도 서글픔과 한스러움이 깊고 무거웠습니다.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끝에 특별히 외직에 제수를 받으셨으니 지위와 명망이 추천한 바입니다. 비록 늦게 달성되었다는 혐의는 있을지라도 위로되고 감격한 바에 백열(栢悅)의 마음¹⁰⁵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삼가 엎드려 여쭙니 보리를 거두는 철에 부임하시는 곳에는 과연 잘 도착하셨는지요? 수령의 직임에 애쓰시는 몸에 온갖 복이 깃들기를 삼가 우러러 구구한 마음으로 앙축드립니다.

저는 4년째 여기에 주저앉아서 얻은 것은 현기증 하나입니다. 손바닥 같이 작은 고을에 치료할 계책이 없어 스스로 불쌍하고 불쌍한 가운데 도적이 일어날 기미가 보

103) 경화(京化) : 원문의 “京”은 “敬”의 오자로, 소송의 당사자 정경화(鄭敬化)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04) 남궁억 : 南宮檉(1863-1939). 본관은 함열(咸悅), 자는 치만(致萬), 호는 한서(翰西), 1884년 영어학교 동문학(同文學)을 수료, 1887년 전권대신 조민희(趙民熙)의 수행서기관으로 영국·러시아·독일 순방길에 올라 홍콩에 갔다가 억류되어 2년만에 돌아왔다. 1894년 갑오개혁 내각에 내부 토목국장으로서 중용되었다. 1896년 서재필(徐載弼)·이상재(李商在) 등과 독립협회를 창립, 독립협회 기관지인 「대조선독립협회회보(大朝鮮獨立協會會報)」의 발행에도 참가하였다. 독립협회가 해산당한 뒤인 1900년 「황성신문」에 러시아와 일본의 한국 침략 야욕을 폭로하고 경각심을 촉구하는 논평을 실었다가 경무청에 구금되었다. 1905년 3월 고종의 간곡한 요구로 다시 관직을 맡아 성주목사로 부임해 선정을 베풀었다. 을사조약 후 언론인, 교육자로서 애국계몽운동과 독립운동에 매진하였다. 만년에 일본 경찰로부터 받은 진독문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였다.

105) 백열(栢悅)의 마음 : 가까운 친구의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뜻한다. 육기(陸機)의 《탄서부(歎逝賦)》에 “참으로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기뻐하고, 아이 지초가 불에 타니 헤초가 탄식하네. [信松茂而栢悅 嗟芝焚而蕙歎]”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文選 卷16》

이고 의병이 소란스럽습니다. 비록 이 고을에는 없다고 하여도 이웃 군에서 놀라서 들었으니 답답함을 말할 수 없는 것을 어찌겠습니까?

관내의 증산면 황정에 거처하는 진사 김인길(金寅吉)¹⁰⁶은 친한 지인일 뿐 아니라 수십 년 고생을 함께 한 사람입니다. 문학과 범절이 더불어 말한 만한 사람입니다. 부디 관리를 보내 안부를 물으시고 일에 따라 곡진히 비호해주시미 어떠신지요? 그의 아들이 바야흐로 미국 유람 중인데 아직 여기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일 처리에 난감한 단서가 있나 염려스럽습니다만, 분명히 걱정을 끼칠 리는 없습니다. 김진사에게 가는 편지를 염치 무릅쓰고 같이 보내니 지체없이 즉시 전달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이만 줄이고 안부를 갖추지 못합니다.

석성 김인길에게 주는 편지 [與石醒金寅吉書]

지난달 우편으로 감사 편지를 부쳤는데 과연 부침(浮沈)¹⁰⁷하는 일 없이 잘 보셨는지요? 삼가 5월 건강은 한결같이 왕성하시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며 만아드님의 소식 역시 들으셨는지요? 그곳의 보리 농사는 과연 풍년이 들었는지요? 멀리서 우려르는 구구한 마음이 심상함에 비길 수 없습니다.

저의 현기증은 한결같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3월 18일 갑자기 해일(海溢)을 당하여 보리가 침몰되어 수백여 석의 나락이 떨어지고 무너지고 갈라진 제방이 삼천여 파(把)입니다. 이런 작은 읍에 재앙을 입은 곳이 반을 차지하니 마음에 번민이 가득합니다. 중춘에는 가뭄이 심해져서 육맥(陸麥)¹⁰⁸이 거의 형태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다행히 늦게 비가 와서 비로소 소생한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된 바 간신히 흉년

106) 김인길(金寅吉): 1842-?. 자는 경백(敬伯). 1882년 증광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07) 부침(浮沈): 편지가 전해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진(晉)나라 은호(殷浩)가 예장 태수(豫章太守)가 되어 임지로 떠나니, 도하(都下)의 사람들이 1백여 통의 편지를 부탁하였다. 석두(石頭)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죄다 물 가운데 던지고 말하기를 “가라앉을 것은 절로 가라앉고 뜰 것은 절로 뜰 것이다. 은홍교가 편지나 전하는 우체부는 되지 않겠다. [沈者自沈, 殷洪喬不爲致書郵.]”라고 하였다. 《진서(晉書)》 권77 《은호열전(殷浩列傳)》 은호가 이와 같이 남의 서신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일 편지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것을 부침(浮沈)이라고 한다.

108) 육맥(陸麥): 일찍 뿌리는 보리를 가리킨다.

을 면하였으니 이것 역시 하늘이 내린 바입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다행인지요. 농사는 이제 모심기 중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비가 흡족하게 적셔주지 않으니 매우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근래 의병 도적 무리가 없는 곳이 없어 가지가지 듣는 바가 놀랍습니다. 이 읍은 비록 이런 경계가 없으나 사방 이웃이 소란스러우니 젖어들 염려가 없지 않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정경을 돌아보니 즉시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읊어야 마땅하나 거취가 자유롭지 않으니 이 몸의 운수에 관계될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탄식한들 어찌겠습니까?

어제 집에서 온 편지를 보니 상(上)께서 손자 제영(梯泳)을 인견하시고 “네 할아버지의 치적이 넉넉히 드러났으나 드러낼 방법이 없으니 특별히 한 등급 가자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황송하고 감사한 바에 어찌 보답을 하겠습니까?

귀 군의 새 군수는 일찍이 안면이 있기 때문에 안부를 묻고 특별히 비호해달라는 뜻을 편지에 써서 긴밀하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효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만 줄이고 안부를 갖추지 못합니다.

지지난달 27일 제영이가 해당 원[표훈원(表勳院)]의 주임기사로 승진하였으니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아들 극선(克善)이 집을 수동(壽洞) 영당곡(影堂谷) 초입 북쪽 첫 번째 집으로 이사하기로 정하고 이번 보름날 후에 이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의 군수 권태용에게 답하는 편지 [答全義倅權泰容書]

가뭄 더위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리움이 간절하던 차에 곧 먼저 보내주신 편지를 받으니 직접 뵈 듯 위로가 됩니다. 삼가 초복에 몸이 더위 증세로 편치 못하고 공무가 매우 번잡하시다 하니 헤아리지 못하였던 지라 염려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러나 정후(庭候)¹⁰⁹가 안녕함을 걱정할 것이 아니니 우리러 매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이보다 더 축하드릴 것이겠습니까?

저는 현기증이 계속 더하였다 덜하였다 합니다. 이는 곧 늙어서 앓는 병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가한 관아에서 조섭하고 양생하니 오히려 성은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외람되게 금비(金緋)¹¹⁰를 받았으니 두려움이 앞서고 감격이 뒤따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답을 도모하겠습니까?

이 군의 형편은 저보다 먼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읍 동쪽의 두 면이 비록 조양(耒穰)¹¹¹이라 할지라도 병충해를 유독 심하게 입어서 남김없이 다 사라졌고, 서남북 세 면은 이미 해일을 겪은 여파에 오히려 모심기에 흡족한 비가 부족해 한결같이 모내기를 못하였습니다. 절기를 살피고 묘삭을 헤아리면 비록 한 번 흠뻑 비가 내린다 하여도 전체 경지가 흉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누가 있어 원망하고 탓하겠습니까? 진실로 재주없는 사람이 오랫동안 관장하고 있음을 탄식할 뿐입니다. 이만 줄이고 감사하는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석성 김인길에게 답하는 편지 [答石醒金寅吉書]

지난달 27일 보낸 편지를 이달 4일에 받들어 읽었습니다. 그리워하던 차에 성대한 소식을 받을 수 있으니 기쁘고 위로되는 바가 과연 심상하지 않습니다. 그 후 며칠 간 삼가 가뭄이 더 혹독해지는데 건강은 한결같이 왕성하시고 모든 일은 다 평안하신지요? 지난번 신문을 보니 대구, 성주 등의 군에 가뭄이 심해서 불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이 과연 큰 비가 한 번 흡족하게 왔는지요? 다소간의 염려를 이기지 못

109) 대궐 뜰에서 웃전에 문안드리는 예이다. 조하(朝賀)에 비해 규모가 다소 작으며, 경사(慶事)뿐만 아니라 상사(喪事), 환후 등에도 두루 행하였다. 아랫사람이 웃어른을 대하여 돌아래에 나아가서 안부를 물어 살피는 일, 상대방 부모의 건강도 정후(庭候)라고 한다.

110) 금비(金緋): 금으로 만든 인장과 붉은 비단으로 만든 관복. 높은 벼슬을 가리킨다. 비(緋)는 붉은 색의 관복으로서 정1품에서 정3품까지의 문무관을 말하므로, 금비(金緋)는 2품이다. 고종 42년(1905) 5월 25일자 <승정원일기>에 오형묵이 종2품으로 승급한 기사가 보인다.

111) 조양(耒穰): 다른 벼보다 일찍 여무는 벼를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만아드님의 소식은 그간 또 들었으니, 어떤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지요? 몸을 떨쳐 바다를 건너 문명을 유람한 것이 장차 앞으로 나아갈 기초가 될 것이니 어찌 매우 칭송하고 축하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일 먼저 오갈 때 드는 비용을 가지고 간 것이 없음을 생각하니 어떻게 감당하며 지낸다고 하는지요? 역시 우울한 점입니다.

저는 지난 24일 특별히 종2품에 승자되었다는 알림을 받고, 이달 13일 손자 제영(梯泳)이 또 정3품 품계를 받아, 수십 일 사이에 한 가문의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품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노쇠한 나이가 이미 칠순을 넘었고 현기증은 날마다 더하니 보답할 기약이 없어 다만 두려움이 간절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보름에 오래 알던 분이 급한 객란을 일으켰다는 기별을 받고 듣고서 놀라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열차를 타고 형편에 따라 상경하니, 증상이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다행히 좋은 의원을 만나 약을 조제하여 연달아 시험하니 19일에 비로소 양기가 회복되었습니다. 22일에 이르러 형편이 부득하여 관아에 돌아왔습니다. 근래 다시 연달아 우편으로 편지를 받으니 앓던 병환이 근래 웬만큼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래 병을 앓아 기력이 계속 망가져서 문을 출입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니 평상시로 회복되려면 몇 달 며칠을 써야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래 또 이 군의 형편이 가뭄이 너무 심하여 읍 동쪽 두 면이 비록 조양(早穰)이라 할지라도 두루 병충해를 입어서 소생할 희망이 없고, 서·남·북 세 면은 해일 후 여전히 비 한 번 내리지 않아 여지껏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걱정거리 아닌 것이 없으니 어찌겠습니까? 못난 아들이 이미 수동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만 줄이고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정죽성에게 주는 편지 [與鄭竹醒書]

어제 변 리(卞吏)를 통해 답서를 받고 위로와 감격이 매우 깊었습니다. 이어서 장마 더위에 상증의 병환이 미처 회복되지 않으셨고, 객지에서 몸조리가 실로 편하기 어려운 것을 압니다만 오직 상을 주관하시니 반드시 많은 사람이 돌보는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하여 이것이 우러러 위로가 됩니다.

절삼(切蓼)¹¹²⁾이 마침 저장해 둔 것 세 냥쯤이 있어서 이에 보내드립니다. 만일 달여서 즙쌀 미음에 넣거나 계고(鷄膏)¹¹³⁾ 등의 약제에 역시 일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합죽선(合竹扇)¹¹⁴⁾ 한 자루가 이미 서울에서 왔기에 과연 받아들이 쓰기에 합당하여 이에 드리니 어떠신지요?

삼가 들으니 「춘우실실기(春雨室實記)」는 거의 이렇게 평안하지 못한 중에 날마다 정신을 소비하는 것이 매우 불안하니, 다만 서안에 던져 두셨다가 완쾌를 기다려 살펴보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전한 지 오래된 것이 걸리신다면 반드시 별도로 남겨두어 실제 효과를 보시기를 바라니, 서차를 베낀 정간지(井間紙)¹¹⁵⁾ 1장을 함께 드립니다.

이날 역시 명절이어서 반드시 제생에게 응당 때에 맞게 지은 좋은 제목이 있을 것이니, 다만 간절히 부러워할 따름입니다. 저는 그사이 더위와 설사를 겪었고 계속 현기증을 더하여 원기가 다 사라지고 입맛이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귀거래사」를 생각하나 뜻대로 할 길이 없으니 다시 어찌 미련이 남아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매우 부끄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지난번 아뢰 장편시는 그 사이 응당 고쳐주셨으리니, 이번에 주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이만 줄이고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112) 절삼(切蓼): 인삼의 본체 등급에 따라 천삼(天蓼), 지삼(地蓼), 양삼(良蓼), 절삼(切蓼)으로 나뉘는데, 절삼은 등체를 이등분하여 쓴 것이다.

113) 계고(鷄膏): 닭은 닭의 살코기를 발라 도라지, 생강, 밤 등과 함께 푹 고아 낸 닭곰탕의 일종으로, 그 국물만을 복용하여 원기를 회복 하던 약제이다.

114) 합죽선(合竹扇): 얇게 깎은 갈대를 맞붙여 만든 살에 종이나 형겅을 발라 만든 질부채이다.

115) 정간지(井間紙): 글씨를 쓸 때에 글자의 간격을 고르게 하기 위해 정간(井間)을 그어 종이 밑에 받치던 종이를 가리킨다.

장의 김장옥에게 주는 편지[與金掌議章玉書]

잠시 소식이 끊겨 우려러 울적합니다. 비 오는데 부모님 대은 몸을 잘 돌보는지 알지 못해 축원드리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고통에 신음하니 사적인 고민을 형용하기 어렵습니다.

이공의 수연(壽宴) 시 편차와 서문은 이미 세상에 계실 때 부탁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저버리기 어렵습니다. 한달 가까이 마련하여 이제야 서문을 시작하였으니, 안목은 낮고 문장은 서툴러 안목있는 이의 비판과 꾸짖음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누구든 무엇이든 논하지 않고 쫓아서 고친다면 진실로 매우 다행이겠으니 저를 위해 널리 도모해주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시권과 본고는 나란히 보내드리니, 그 본가에 전하여 부쳐주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성적도지(聖蹟圖誌)』는 사적으로 다시 받들어 보고싶은 바람이 있으니, 분향일에 마땅히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마땅히 명륜당에서 만나뵙게 될 것입니다. 이만 줄이고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비서승 민충식에게 주는 편지 [與秘書丞閔忠植書]

하직한 이래 며칠 지나니 그리움이 더욱 간절합니다. 삼가 근래 비가 온 끝에 부모님 모시고 계신 몸은 한결같이 건강하신지요? 우려러 기도드립니다. 저는 현기증이 조금 물러난 듯 합니다만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못하는 것이 사적인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번 비바람이 친 후에 농민이 재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매우 많아 우려스럽고 탄식하는 바입니다.

학정대(鶴頂帶)¹¹⁶⁾의 용처가 자주 이어지는 것은, 교궁(校宮)의 분향 혹은 제관의 탈복 후 관찰부의 행사에 모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올라갔

116) 학정대(鶴頂帶) : 심해의 물고기인 학어(鶴魚)의 진한 붉은색의 두골로 만든 진홍색의 띠이다.

을 때 사적으로 얼굴을 붉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자리가 복잡하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신 간청드립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널리 구하여 쓰고 남은 한 권을 얻어 못한 자식 극선에게 내주신다면 저절로 내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굵어 살피시고 반드시 내려주시리라 부디 믿고 있습니다. 이만 줄이고 안부를 갖추지 못합니다.

종인 파운 경묵에게 답하는 편지 [答坡雲宗人敬默書]

잠시 소식이 끊겨 바야흐로 울적하였는데 생각지도 않게 여기에 종족이 와서 편지를 받게 되니 기쁨과 감격이 교차합니다. 이어 장마 끝에 몸이 건강하시고 집안이 고루 넉넉하시다 하니 어떤 기쁨이 이와 같겠습니까? 저는 분수가 아닌 은혜가 하늘에서 떨어지니 사적으로 감사하고 축하함이 이미 할 말이 없었습니다만, 보답할 길이 없어 괴롭고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말로 하겠습니까?

지난번 성절에 잠시 올라가서 3일에 다시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피로에 현 기증이 겹쳐 여전히 이렇게 떨쳐 일어나지 못하니 매우 고민입니다. 영주 완장(阮丈)¹¹⁷⁾ 대상이었으니 우려러 고통이 평소보다 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싸고 갈 양식을 세 번 방아를 찧어야 할 정도로 먼 거리라 어찌 도보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미처 곡을 한 번 못하였는데, 세 번째 향을 사르는 일이 어느덧 다가오나 평소처럼 헤아리니 슬픔과 송구함이 그지없습니다.

믿는 바는 나를 생각하라는 말씀이니 과연 실제의 말입니다만, 모처로부터 일찍 공론의 설이 있어서 앞서 간략하게 진술한 바입니다. 조만간 반드시 좋은 바람이 불 날이 있을 것이니 허물함에 늦어진다는 마음을 갖지 않음이 어떠신지요? 서울 집에 있을 때 선동(仙洞)의 종씨가 근래 기별을 들으니 모두 무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지어서 보여주신 문장은 평소 어찌 큰 솜씨를 몰랐겠습니까만, 지금 작품이 더욱

117) 완장(阮丈) : 남의 집안 아저씨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진서(晉書)》 완적전(阮籍傳)에 “안함(阮咸)의 지는 중용(仲容)인데, 쾌활하여 세속에 구애를 받지 않고 숙부인 적과 함께 죽림 칠현(竹林七賢)이 되었다.”는 데서 유래하여, 남의 조카를 안함(阮咸)이라고 부르는 것과 함께 쓰인다.

사람으로 하여금 낭송하여 그칠 줄 모르게 만드니 감동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열 냥의 돈을 드리니 가배일(嘉排日 : 추석) 음식 준비에 보탬이 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봉투 80장 및 4본의 꽃 종자를 날마다 쓰는 척독과 내년 봄 풍경에 대비하시라 우러러 드리니, 5두(斗)의 녹봉¹¹⁸⁾을 받는 상황을 이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만 줄이고 감사의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진보 참봉 방산 허훈에게 주는 편지 [與眞寶舫山許參奉薰書]

첫 벼슬을 감축드리고 감축드립니다. 몇 년동안 뵈 길이 막혀있던 끝에 지난달 서울에서 만아드님을 만날 수 있어서 그간 두 소식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지금 또 방문해 주신다니 진실로 매우 위로가 되고 감사합니다. 삼가 장마가 지나고 서늘한 기운이 생겨나는데 유람하시는 건강과 정신은 어떠신지요? 우러러 기원하며 구구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종2품으로 승자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적인 마음은 황송합니다만, 지니고 있는 계륵을 여전히 물리칠 수가 없으니 이 어찌 처음 의도가 이룬 바이겠습니까? 다만 간절히 스스로가 가련할 따름입니다.

만나뵈 기약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집사 같은 재능과 포부로 이미 첫 길을 열었으니 이를 이어 승진하고 승진할 수 있어서 서울에서 악수하며 만나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있었던 일은 이만 줄이고 안부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118) 오두미(五斗)의 녹봉은 아주 작은 녹봉을 말한 것이다. 진(晉)나라 도잠(陶潛)이 일찍이 평택 영(彭澤令)으로 있을 때 군(郡)의 독우(督郵)가 현(縣)을 순시하게 되어 아전이 도잠에게 의관을 갖추고 독우를 뵈어야 한다고 하자, 도잠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는 오두미 때문에 허리를 굽혀서 향리의 소인을 정성으로 섬길 수 없다.” 하고, 마침내 현령의 인끈을 풀어 던지고 현을 떠나버렸던 데서 온 말이다. 오형묵이 평택 군수였으므로 평택 수령의 예를 가져다 쓴 표현이다.

손자 유영¹¹⁹⁾에게 주는 편지 [與惟孫書]

그 후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일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며늘아이의 괴로운 일은 점차 효험이 있느냐? 아기의 학질 역시 걱정을 끼치는 데 이르지 않는었느냐? 네 처가 병을 앓은 이래로 합하여 한 번 내게 편지를 보내 알려주고 그만이었으니 어찌 이리 몰지각함이 심하느냐? 알 수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빠뜨려도 상관없으나 근심과 병 등의 일에 이르면 집안의 기별을 그만 둘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제영(梯泳)¹²⁰⁾으로 말하면 그 사이 공영사(公領事)의 직함을 받아서 머리를 깎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내가 알도록 하지 않았고, 이어서 일본에서 훈장을 주었는데 상당(相當)하지 않아서 받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이른바 상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속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결코 상당하다 안하다를 논할 만한 것이 없으나 네가 무슨 소견으로 이런 해괴하고 이상한 일을 하느냐?

나는 네가 요즘 급작스레 승진하는 것을 마음으로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한다. 너의 이번 일은 손해를 가득 부를 기초와 원인이 아니겠느냐? 절절하게 개탄스러우니 이 역시 사전과 사후에 마땅히 상세하게 내게 알려야 하는 것이다. 헤아려 하도록 하고 이만 줄인다.

벽하 방대철에게 주는 편지 [與方碧下大轍書]

봄 사이 받은 편지 한 통이 이미 종이에 보푸라기가 일었습니다. 하물며 가을 기운이 맑고 밝은 달과 맑은 바람에 그리운 이가 우리 벽하 영감을 버리면 그 누구이겠습니까? 삼가 근래 객지에 있는 몸은 한결같이 평안하십니까? 다만 다들 평안하다

119) 吳惟泳, 1900년 9월 21일(양력)에 위관(尉官)으로 보직을 받아 같은 해 9월 24일 무관학교 학도대(武官學校學徒隊) 참위(參尉)로 배속되었으며, 통감부 설치 이후 1907년 7월 26일 정위(正尉)에서 해임되었다가 11월 27일 금성군수(金城郡守)에 임명되었다.

120) 1904년 2월 5일 6품 표훈원 기수(表勳院技手)에 임명되고, 1905년 2월 14일 훈7등(勳七等)에 서임되면서 팔괘장(八卦章)을 하사받았다. 7월 24일 훈6등에 서임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받았다.

는 소식이 계속 되기를 머리 들고 빙니다. 이번에 동창(東倉)에 간 것이 아침의 잠깐 사이가 아닌데 그 후로 막연하여 어떤지 소식을 듣지 못하여 오직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할 따름입니다.

저는 요즘 중2품으로 승자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적으로 감사하고 감축하나 보답할 길이 없어 다만 절절히 송구스럽고 두려울 따름입니다. 이른바 현기증은 전적으로 약에 의지하여 버텨야 합니다. 근래 또 설사병에 걸려서 베개에 엎드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마땅히 조물주가 사람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니 또 어찌 의심하기에 충분하겠습니까?

매번 영집(令執)께서 산과 물이 이름난 고장에서 한가롭게 지내면서 길이 쉬며 읍조리고 세상의 먼지를 벗어난 것을 생각하면 계륵을 관장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거리가 어찌 단지 삼십 리 떨어진 것만이겠습니까? 부러우나 좃을 길이 없으니 어찌겠습니까? 어느 때에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모습을 직접 뵈고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마도 이루기 쉽지 않을까 걱정이니 부디 한 번 도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시를 보내드리지만, 병든 상황이 삭막하여 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보고 웃어나 주시고 화답시를 받는다면 더욱 감격할 따름입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훌륭한 목소리를 드리워 이 갈증을 적셔줄 것을 오로지 기대하며 우러러 이만 줄입니다.

죽성에게 답하는 편지 [答竹醒書]

(원주 : 마땅히 이 주사 한용의 편지 아래에 있어야 한다)

문안하지 못한 이래로 감히 의심할 수 없었는데, 마침내 먼저 베풀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객지에서의 몸이 건강하시고 정신이 왕성하시다니 우러러 위로가 되고 기원하게 됩니다. 저의 지난 병은 여전히 남은 재앙이 있으니 늙은 걸 어찌겠습니까?

어제 전최(殿最)¹²¹⁾ 중에 보니 이런 노둔하고 열등한 재주로 본디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귀향할 계제가 있었으니 호남 2천석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석성은 만류하지 못하여 어제 이미 떠났으니, 서글픔과 섭섭함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발길이 곧 재촉하여 감사하는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예라당 주사 이한용으로 인한 편지 [因禮羅堂李主事漢容書]

계절이 이제 막바지를 향하니 평소보다 그리움이 배가 됩니다. 삼가 가을 추위에 벼슬에 계신 몸은 간절같이 평안하시고 관아의 모든 일은 강녕하신지요? 우러러 구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늙어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병도 가지가지 없으니 창랑(滄浪)¹²²⁾을 어찌겠습니까?

이번 전최(殿最)에서 거토(居士)¹²³⁾하였으니 황공하여 할 말이 없습니다. 갑자기 나루에서 헤매다가 뗏목을 얻은 것과 같으니 부처의 은혜가 끝이 없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돌아보면 하(下)보다 아래인데 중(中)에 두어졌으니 품계가 높기 때문이 아니면 중이 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뜻입니까? 더욱 지극히 송구하고 부끄럽습니다. 마땅히 곧바로 떠날 준비를 해야 하나 틈이 없고 또 현격히 차이가 나서 부득이한 일이 있어 따로 기록하여 드립니다. 굵어 살펴주심이 어떠신지요? 나머지는 줄입니다.

다시 사는 것을 앞서서 얻었으니 본디 족함을 알기에 족합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역시 설 만합니다만, 하지 못하는 것은 실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탐욕과 미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옳드려 늙음을 가없게 여기고 경계하는 말씀을 받드니 어찌 감히 반푼이라도 지연시킬 마음이 있겠습니까?

121) 전최(殿最): 관찰사가 지방 수령의 치적을 보고받고 평가하는 일을 가리킨다.

122) 창랑(滄浪): 은거함을 가리킨다. 《초사(楚辭)》 어부(漁父)에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 씻으면 되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 씻으면 되리. [滄浪之水清兮 可以濯吾纜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라는 구절이 있다.

123) 거토(居士): 고과에서 성적이 중을 차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 군의 공납에서 납부하지 않은 개수는 오히려 이포(吏逋)¹²⁴⁾에 달린 것입니다. 현재 바야흐로 경환(京換)¹²⁵⁾을 추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달 안에 찾아서 납부할 것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저로부터 깨끗이 씻어 없애지 못한다면 지방 관리의 책임이니 결단코 짧은 시간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읍의 일에 혹이 생긴 것에 관해서는 달포 가량 걸릴 셈이니 매우 개탄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남이 살펴본다면 매우 참고 견딘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한번에 아홉 개의 대장기를 꿰치면 부곽전¹²⁶⁾ 한 이랑을 도모할 수 없는 것이니 어찌 박봉의 자리에 기꺼이 연연해 하겠습니까? 여기에는 변명할 것이 있는 듯하니 오직 영집께서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아들 극선에게 주는 편지 [與克兒書]

그간 매우 적조하여 그리웠다.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네 어머니의 건강은 더욱 나아졌는지, 큰집 작은집 모두 평안한지 궁금하구나. 손자 유영의 처가 앓는 병은 조금 나아졌는지 걱정이 덜어지지 않는구나. 네가 맡은 일은 무슨 연유로 직함을 잃었느냐? 이러한 어려움과 근심을 당한 때에 이렇게 생각 못하게 내쳐지게 되었으니 매우 개탄스럽구나.

내 현기증은 전에 비해 조금 덜하나 천마환(天麻丸)을 연이어 복용해도 끝내 상쾌하게 효험이 없으니 매우 고생스럽고 답답하다. 권 의관이 편지로 부탁한 것은 큰 망발이라고 할 만하다. 이것은 너희들이 말로 상의한 일이라 하지만 나로서는 크게 잘못된 것이니 어찌 잘못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현재 시국으로 말하면 이른바 군을 합치는 일이 반드시 멀지 않은 때에 있을 것이

124) 이포(吏逋): 아전들이 사사로이 이용하여 축낸 것을 가리킨다.

125) 경환(京換): 서울서 시골로 부치는 환전(換錢)을 가리킨다.

126) 부곽전(負郭田): 성 밑에 있는 밭을 가리킨다. 전국 시대 소진(蘇秦)이 여섯 나라의 정승자리를 홀로 차지하고서, “나에게 성 밑의 밭(負郭田) 두어 떼기만 있었더라도 오늘의 이 부귀는 없었을 것이다.” 하고 한 고사가 있다.

다. 설치를 하든 옮겨 가든 반드시 쇠락하고 가난한 데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어찌 살림이 넉넉한 동지에 참여하여 채무장 끝을 막을 희망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전날 지나온 것과 비교해 보면 나에게 아무 뜻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무정한 곳에도 공연히 스스로 울고 있으니 어찌 저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겠느냐? 설령 뜻대로 옮길지라도 의지할 추봉(秋捧)¹²⁷⁾은 이미 전관에게 속하니 애만 쓰고 이익이 없다 할 만하다.

그리고 상납할 돈은 탁지부의 기한이 임박하였으니, 재무관이 순시하며 독촉하면 돈을 돌릴 수단을 부릴 수가 없다. 내가 만약 다 갚기 전에 한 번 이 군을 옮기면 예전에 납부하여 빚을 갚은 것은 기한이 없으니, 이 곳 각 군수를 뽑아서 임명한다고 할 때를 당하여 어찌 거토(居士)를 할 수 있었던 것이 특별히 옮겨서 추천할 이치가 있어서겠느냐? 관찰부에서 전최(殿最)할 때 “노(老)” 한 글자에 불과하니, 내가 늙었기 때문에 남이 늙은이 대접을 하는 것이지 어찌 “불착(不着)”이라 쓸 수 있었겠느냐? 나는 이제 노쇠하고 병에 얽매어 있으나 끝내 스스로 각오를 풀 수가 없어 그칠 곳에서 그칠 줄 알지 못한다. 주저하며 앉아있다가 모욕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록 창랑(滄浪)일지라도 어찌 큰 수치로 여겨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을 당하지 않겠느냐?

우리집이 넉넉하지 못한 것은 전부터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니, 분수 외에 바랄 것이 더는 없다. 다만 일관구휘(一串九麾)¹²⁸⁾를 생각하며, 삼가 스스로를 다잡고 한결같이 규정을 지켜서 일찍이 메마른 밭 한 이랑 산 적이 없으니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하기에 충분하다. 스스로 청백함을 집안에 전할 바탕이라고 여겼는데 호연하게 무리를 벗어나 세속과 같은 길을 가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만하구나. 이로 인해 근래 늘그막에 후회하니, 항상 지목하여 경계하고 반성하는 것이 이

127) 추봉(秋捧): 가을에 조세 걷는 일을 가리킨다.

128) 일관구휘(一串九麾): 미상. 아마도 전국시대 소진(蘇秦)의 고사에서 나와 나중에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소진이 벼슬하는 데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냉대를 받았다. 그 후 육국(六國)의 왕들을 합종설로 유세하여 종약(從約)을 체결하고, 육국의 재상 인장을 차고 낙양을 지날 때 그의 형수 등 가족들이 그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채 행차 앞에 엎드려 있었다. 소진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가령 나에게 낙양의 부락전 이경만 있었다면, 내가 어찌 오늘날 육국의 상인을 찰 수 있었겠는가. [且使我有洛陽負郭田二頃 吾豈能佩六國相印乎]”라고 하였다. 《史記 卷69 蘇秦列傳》

것이다.

근래 적의 무리와 의병이 없는 곳이 없이 사방에 만연해 있다. 이곳과 안성, 죽산 등지와는 거리가 불과 4,50리이다. 지방 군대가 토벌하여 잡고 있어서 하루도 이 경계를 지나가지 않는 날이 없다. 보고 듣는 것이 위험하고 두려우니 실로 노쇠한 사람이 날마다 감당할 바가 아니니, 너는 이를 아느냐, 모르느냐? 반드시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근래 들으니 관인이 입는 의복을 모두 새롭게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나 역시 옷을 바꾸면 그만이다. 전에 입었던 것 가운데 약간 염색해서 보내기 바랄 따름이다. 이군의 세금은 이미 발령을 하여 지금 열흘 가까이 되었으나 도무지 한 푼도 거두지를 못하여, 누차 독촉해도 끝내 효과가 없구나. 아마도 돈에 관계된 일을 융통할 수 없기 때문인 듯하다.

매년 이 무렵 각 장사치가 돈을 가지고 시장에서 쌀을 사는데, 이 때문에 농민들이 쌀을 만들어 수매한다. 세금과 허다한 비용이 모두 여기에서 나온다. 그런데 오늘 백미 한 말미 6냥 5전에 거래되니, 어제 거래는 값이 낮아서 4냥이었다. 그러나 말 사료로 쓰이는 콩과 보리는 갑자기 값이 뛰어올랐고 각 물건에 이르면 따라서 값이 내려가니, 도무지 사서 옮기지 못한다. 시장에 내놓은 곡식이 대부분 팔리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장에서의 거래가 두절되니 이 같은 모양이라면 결국 세금을 거둘 방도가 없구나. 이를 장차 어찌겠느냐?

이런 시세가 균색한 때를 당해서 모든 일들이 이에 따라 생각과 어긋나는구나. 상납하는 등의 일에 이르면 저절로 정해진 시기가 있으니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다. 그러나 수서기가 범포(犯浦)¹²⁹한 조목에 가장 알맞으니, 역시 다 깨끗이 털어버릴 희망이 없어 더욱 절절히 고민스럽다. 이것은 신세 소관이 아닌 것이 없으니 이 때문에 초조하여 밤에 잠을 못 이루니 어찌겠느냐?

그리고 올해 농사 형태가 수확에 이르면 벼단 수가 전부 감소했을 뿐 아니라 빈 겹질의 곡식이 거의 삼분의 일이 될 것이다. 더욱이 세 차례 해일이 지나갔고 한 차례

129) 범포(犯浦): 국고에 바칠 전곡을 모두 다 써버리는 일을 가리킨다.

우박이 내렸고 네 차례 바람과 병충해가 있었으니 결국 흉년이 될 것이다. 백성들의 사정이 불쌍하니 읍의 일이 걱정스러워 분하여 탄식한들 어찌겠느냐? 우선 이만 줄인다.

아들 익선에게 답하는 편지 [答翼兒書]

지난달 우편으로 온 편지로 모두 읽었다. 하는 일은 다시 마땅히 기회에 따라서 알리겠다고 하였으므로 답서가 이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하구나. 어제 아들 극선이 내려와서 이틀을 묵고 갔다. 그때 함께 말을 하다가 간혹 경주에 가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으니, 우편으로 부친 편지가 분명히 부침하고 있는 모양을 헤아려 알겠다.

그저께 신문에 처음으로 금고 설치로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설이 있으니 매우 의심스럽다. 오늘 아침 편지가 우편으로 도착하니 요즘 괴로운 상황에서 듣고서 느긋해지는 마음을 이길 수 없다. 다시 물으니, 이사하며 하는 일은 과연 잘 되어가서 혹시라도 갈등으로 고민하는 일은 없느냐? 절절하게 염려가 된다.

내 현기증은 계속 나아지지 않고 근래 독감을 더하여 신음하면서 날을 보내고 있다. 오직 서울 가족이 모두 무탈하다니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손자 지영(志泳)이 그 사이 임용되어서 측량사무 때문에 의주에 부임하였다가 다음달 초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하더구나.

이 군의 세금은 과연 월초에 발령하였으나 지금까지 바친 것이 삼백여 냥을 넘지 않는다. 그 사이 엄히 독촉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돈이 고갈되어 시장에 내놓은 곡식을 팔 수가 없으니, 이 때문에 거래가 푹 끊겼다. 그리고 가을 수확은 절기가 늦은 탓에 지금까지 반도 되지 않았다. 비록 한 포의 벼도 도무지 팔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 농사 형편 및 수확이 전에 벼 백단이었던 것이 지금은 오륙십단에 불과하고 빈 껍질이 다수를 차지하니 흉년을 면치 못할 것을 어찌겠느냐?

또 서울에서 훈령이 내려왔는데 세금을 매 결(結) 새 화폐로 8환씩 납부하라고 한다. 이 시기에 어찌 새 화폐가 있겠느냐? 근래 쓰는 것은 잡전이 아닌 것이 없는데,

좌우간 다른 도리가 없으니 이를 장차 어찌겠느냐? 박건모(朴健模)의 편지를 보니, 간성(杆城)으로부터 칠천 냥의 돈을 겨우 입수하였으나 가져오기 어려워서 길을 바꾸어 명천 등지로 향했다고 하였다. 매우 걱정스럽구나. 이천여 냥 조목은 마땅히 세금을 바칠 때 섬에서 제하고, 이윤식(李允植)에게는 편장현(片章鉉)으로 감독하게 해야한다. 그러나 수확이 미처 끝나지 않아 거두어 둘 수 없으니 어느 겨를에 쌀을 만들어 올려 보내겠느냐?

현재 이 군의 사정이 이달 안에 약간 거두어들이면 이미 논할 것이 없어 말미를 달라 청할 필요가 없으니, 속히 마감을 하도록 기한 후에 올려 보내면 좋을 것이다. 경향의 공론이 필경 백미 한 되에 백전(白錢)¹³⁰ 2푼 값으로 치면 그만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사이 쌀 한 말 값이, 상미(上米)는 5냥, 중미(中米)는 4냥 5전, 찹쌀은 6냥, 벼 한 포는 32냥이라고 한다. 도무지 팔 사람이 없으니 어찌겠느냐? 나머지는 이만 줄인다.

죽성 정은교에게 답하는 편지 [答鄭竹醒闇教書]

가르침을 받은 지 이미 오래되어 그리움이 정말로 사무칩니다. 편지가 훌연히 떨어져 붙들고서 깊이 새기며 읽었습니다. 삼가 요즘 객지에 계신 몸은 여전히 강녕하심을 알게 되니 위로가 되어 우러러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랜 현기증에 독감이 겹쳐서 더했다 덜했다 일정치가 않습니다. 쇠락한 상황이 아닌 것이 없으니 스스로 가련한 들 어찌겠습니까?

춘우실(春雨室) 글과 평은 장정하여 운색하였습니다. 경물과 정경이 모두 다 하였으니, 입신한 경지의 신묘한 글솜씨가 아니라면 어찌 몸이 그 안에 노니는 듯이 모사하였겠습니까? 다만 비단을 짠 듯 이루어진 문장이 춘우실에 광채를 더하여 빛나게 해주니 우리 집안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이 충만하여 내려주신 것이 큼

130) 백전(白錢) : 백통(白銅)으로 만든 돈.

니다. 거뜬거뜬 감사드리는 일을 그만 둘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병이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죽산 승죽동 종인 경묵에게 주는 편지 [與竹山勝竹洞宗人敬默書]

편지도 없고 만나지도 못한 채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지요? 음력이 새로 시작하여 봄이 또 반을 지났습니다.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앓은 자리를 감돌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종인 유묵(有默)이 온 편에 쉬고 계신 기거가 별 탈이 없으시나 아드님이 감기에 걸려 걱정하는 날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약을 복용해야 쾌차하여 완치될까 우러러 간절히 염려스럽다는 것이 구구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현기증을 앓았는데 봄이 되니 특히 심해졌고, 추위로 천식 때문에 온갖 병이 달려들어 침상에서 전전한 지 두달째입니다. 정신은 소모되고 몸은 피로하여 이승에서 좋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해 전부터 경영이 벼슬에 얽매어 있어서 산을 짊어진 모기가 되었으니 날개를 펼칠 길이 없습니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쇠신할 방법이 없고 울타리에 걸린 물건이라 머리를 내밀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 배꼽을 물어뜯기¹³¹⁾에 이른 것은 「귀거래사」를 일찍 짓지 않았기 때문이니 풍진 세상이 꿈속 같은데 이처럼 고뇌한단 말입니까? 한밤중에도 잠을 못 이루며 다만 돌돌서공(咄咄書空)할 뿐입니다.

다섯 자루의 붓과 한 개의 먹은 빈 주머니에 남겨두었던 것이라 이에 보내드리니, 아드님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한 때 글쓰는 연습에 쓰게 하시면 어떠실지요? 불러주어 쓰게 하다보니 정신이 혼미합니다.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131) 제 배꼽을 물어뜯기에 : 후회해도 소용없음을 의미한다. 사향노루가 사람에게 잡혀 죽을 때 배꼽에 사향이 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하여 자기 배꼽을 물어 뜯었다는 고사가 있다.

죽성 정은교에게 주는 편지 [與鄭竹醒闇教書]

어제 정 아(雅) 편에 소식을 보내시니 이에 위로가 되고 감사하였습니다. 다시 문자오니, 밤사이 객지에 계신 몸이 감기에 걸리신 것은 어떠신지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약을 드셔야 빨리 나으실지요? 우러러 기도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래 현기증을 앓았는데 감기가 겹치니 더욱 심합니다. 노쇠한 기운이 얼음장처럼 녹아 흩어지니 지탱하는데 대책이 없어 스스로 고민하고 가련해 할 따름입니다.

춘우실(春雨室)의 평 가운데 또 이해하지 못한 글자 약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변(卞) 아전을 시켜 보내니 부디 상세히 가르쳐주시면 어떠신지요? 이번에 드리는 과일 종자는 망한사(望漢寺) 재에 공양한 곳에서 제게 준 것이라 나누어 드립니다. 빙그레 웃으며 받으시고 맛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이만 줄이고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청풍에 머물고 있는 벽하 방대철에게 답하는 편지 [答淸風留方碧下大轍書]

벌써 헤어진지 한 해를 지나 봄이 되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에 목을 길게 늘이고 그리워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주신 편지를 받으니 같은 자리에 앉은 듯 위로가 됩니다. 삼가 날씨가 때와 맞지 않아 꽃소식이 조금 늦어지는 때에 여행 중 기거가 계속 평안하시다고 하니 우러러 위로되는 마음이 실제와 부합됩니다. 저는 쇠약한 병이 날마다 침범하여 산으로 지는 해와 같으니 자연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매인 줄을 풀 수 없어 여기에 여전히 주저앉아 있습니다.

스스로 탄식하고 변민하는 중에 흉년 끝 백성들의 사정은 더욱 굶주려 부황이 뜨는 지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토지와 호구에 매긴 세금을 거둘 기약이 없으니, 앞으로 일어날 갈등과 근심을 앓아서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늘그막 사람 일에 다만 스스로 매우 탄식할 따름입니다. 맡아드님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였으나, 들으니

태평하다고 하였습니다. 언제쯤 고향으로 돌아오겠습니까? 미리 간절히 바랍니다. 현기증에 정신이 없어서 감사의 말씀을 갖추지 못합니다.

미국 사돌¹³²⁾ 항에서 유학하는 손자 혼영(恂泳)¹³³⁾에게 답하는 편지 [答米國사들港遊學恂孫書]

지난 겨울 서울 편에 네가 미국으로 출발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울적하여 염려가 끝이 없던 차에 음력 2월 초 무사히 미국 사돌항에 하륙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적이 염려를 놓았었다. 어제 12시에 편지를 보게 되니 다시 네 얼굴을 대한 듯 한편 기쁘면서도 한편 서글퍼서 마음을 안정치 못하겠다. 더 알지 못할 것은 이역의 풍속 다른 땅에 객지 생활은 이어서 편안하고 거처와 음식은 아주 편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하나 혹시 풍토와 물이 맛이 않아 위가 상할 염려나 없는지 멀리서 걱정을 잠시라도 놓지 못하겠구나.

나는 현기증과 화병이 근래 더욱 번갈아 심하여 기력을 수습하지 못하는 중에 공적으로 사적으로 근심과 염려에 정신을 따라 소모하니, 이 같은 현 상태로 장차 며칠을 지탱하여 지낼른지 다시 너를 보지 못하겠으니 슬픈 마음이 끝이 없다. 다만 내가 바라는 바는 네가 이미 온갖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만 리를 건너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니, 먼저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굳건히 먹어서 부화한 일을 멀리하며 착실한 배움에 힘써서 몇 년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날 실제 효과가 있으면 다만 일가에 다행한 일일 뿐 아니라 일국에 빛을 내는 일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서 외국의 변화함만 탐내서 그르치고 자신의 행위를 닦지 않으면 다만 외국인이 침을 뱉

132) 이 시기에 서양 지명은 원래의 발음을 가차문자(假借文字)로 표기했는데, 손자 혼영이 한글로 표기해 보낸 듯하다. 《서유견문》을 비롯한 이 시기 지리서에 용례가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사예들'을 이렇게 표기했을 것이다.

133) 오흔영(吳恂泳) : 1908년 7월 14일자 《공립신보》에 이승만 · 박용만 등과 함께 덴버 한인 모임에 참석한 기사가 보이고, 일본 외무성에서 편찬한 《要視察外國人ノ舉動關係雜纂 韓國人ノ部(八)》에 한인애국동지대표회(韓人愛國同志代表會)에 참석하여 발언한 기록이 있다. 1912년 07월 15일자 《신한민보》에 콜로라도 스폴링중학교 졸업생으로, 1914년 09월 24일 기사에 스탠포드대학 입학생으로, 1919년 3월 20일 기사에 자유공채 100원 구입자로, 1935년 02월 14일 기사에 뉴욕한인공동회 발기인으로 이름이 보인다.

고 꾸짖는 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아비에게 수치와 모욕을 끼칠 것이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를 항상 생각하여 탕자라는 말을 듣지 말고 실업의 학문을 닦아나가면 훗날 귀국할 때 어찌 친족의 환영과 친구들의 축하를 받지 않겠느냐. 또 내가 혹시라도 세상에 살아있다면 어찌 손을 잡고 기뻐하지 않으랴. 모쪼록 명심하고 잊지말아 더욱더 정진하고 면려하기를 밤낮으로 기원한다.

일년 후에는 의술(醫術)을 학습한다 하니 이 기술이 널리 베풀고 다 구제하는 일인즉 매우 좋으나 이 학문 외는 다시 배울 학문이 없는지, 혹 수공업(手工業) 학문 가운데 유리제조법이나 제지법이라도 정밀히 연구하여 배워 터득하면 이는 온 나라에 많이 사용되는 물건인즉 훗날 우리나라 부유함의 근원이 될 듯하다. 종이 가득 긴 말이 마음만 번뇌하게 하니 도리어 무익할 것이요, 오직 네가 이 시대 시급한 일을 알고 이 시대 사정에 맞는 것을 헤아려서 실제 마음으로 해나가기만 바란다. 몇 달에 한번씩 안부나 알려주어라. 본국에 쓸 우표 6백장은 보인대로 봉하여 보낸다. 정신이 혼미하여 많이 언급하지 못한다.

응교 홍사필에게 주는 편지 [與洪應教思弼書]

예는 생략하고 편지를 받습니다. 그사이 있던 일은 적막하여 들은 것이 없습니다. 비로소 도적이 잡힌 후에야 상세한 사실을 알고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사당(祠堂)은 지금 이미 봉환하였다고 하니 다행이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어찌 이런 헤아리기 어려운 변괴가 있습니까? 절절히 대신 걱정이 됩니다. 삼가 요사이 상중의 몸은 여러 가지로 축나지 않으셨는지 알지 못하여 엎드려 우러러 기도드림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현기증이 어제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모양입니다. 내일 서울로 떠나는데 돌아올 기약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만 줄이고 대략 아웁니다.

석성 김인길에게 주는 편지 [與金石醒寅吉書]

지난 가을 이별할 때 이미 겨울에 한 번 왕림해 주시겠다는 정성을 받들었습니다만, 한 해가 지나 또 봄이 되었으나 편지를 아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울적한 것은 분명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삼가 여름이 시작되는데 정양하는 몸은 계속 평안하시고 온 집안이 다 안녕하시며 맡아드님이 안녕하다는 소식은 그 사이 또 들으셨는지요? 가지가지 염려가 되니 어떤 것인들 잠시라도 염려를 놓겠습니까?

저는 노쇠함과 병이 침범하여 오랜 현기증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이른바 세정(稅政)이라는 것이 날마다 몽둥이로 때리는 듯한데, 여전히 마감을 하지 못하였으니 장차 어떤 지경에 이를지 모르겠습니다. 이 때문에 고민하느라 잠도 못자고 밥도 먹지 못하여 실로 감당하기 어렵게 지내니 어찌겠습니까?

형편상 의사에게 물어 병을 조절한 후에 일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이에 출발하여 서울 집으로 갑니다. 이것이 어찌 늘그막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다만 한스러운 것은 일찌감치 <귀거래사(歸去來辭)> 읊을 일을 도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만 줄이고 안부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도적이 막을 의견서를 부기함 [附 戢盜意見書]

도적이 일어날 걱정이 어느 때인들 없었겠습니까만, 근래처럼 날뛰는 적은 없었습니다. 크게는 백 명 열 명이 무리를 이루어 총을 끼고 칼을 차고, 작게는 한둘이 작당하여 주먹으로 치고 몽둥이를 놀려, 죽여서 생명을 없애고 재산을 노략질합니다. 부(府)와 군(郡)에서 금지하고 막을 방도가 전혀 없고, 마을과 동리에서 안도의 즐거움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말을 하다가 여기에 이르면 어찌 놀랍고도 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근원을 궁구하면 탐욕스럽고 간사한 관리가 질리지도 않고 백성들의 재물을 뺏는 데 있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교육하고 인재를 양성함에 개혁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에 관계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사람들의 마음은 옛날같지 않고, 습속은 더럽고 낮습니다. 선비는 학문을 닦지 않고 농민은 근면하게 일하지 않으며, 공장이는 공역을 치르지 않고 상인은 시장에 물건을 두지 않으니 바탕이 될 생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분수가 아닌 재물을 도모하니 곤궁과 고생이 무슨 이유로 이르지 않으며, 굶주리고 헐벗음이 무슨 이유로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음으로 시작하였다가 폐약으로 끝을 내니 도적질을 하면서 생사를 돌아보지 않고 또 외세를 빙자하여 동포에게 악행을 저지릅니다. 단결한 사회가 왕의 교화를 따르지 않고 약간의 향약이 단속을 할 수 없으며 지엄한 국법이 징계하여 막을 수 없으니 본성이 본래 그런 것이겠습니까?

지금의 방책은 오직 관에서 지키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거둬 법률을 밝히고 엄하게 과조(課條)를 세워 사민(士民)으로 하여금 각기 제 직분을 닦게 하여 혹시라도 나태하고 안일하게 노는 습속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량한 백성이 있어서 이전 습속을 고치지 않으면 다스리고 사면하지 않아 요행히 면할 길을 막고, 달려갈 바를 알면 주륙하는 형벌을 베풀지 않고서도 전날의 순박한 습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지하고 막는 데 요긴하게 힘쓸 것입니다. 다만 막아서 잡는 데만 힘쓴다면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흩어지고 동쪽에서 나타났다가 서쪽에서 나타나는 무리를 어찌 쫓아가서 체포하여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본 군은 땅이 좁고 작으며 풍부한 생산이 없어 큰 도적이 걱정을 만든 적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간혹 익명으로 투서하거나 문을 두들겨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있으나, 종적을 따라 찾아가면 한두 명의 폐약한 무리가 풍문을 듣고 흉내내서 요행을 바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순교(巡校)를 발동시켜 밤에 순찰을 돌아서 각 동리의 경비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더욱 신칙한다면, 비록 반드시 체포할런지는 알 수 없을 지라도 불어나 퍼져나가는 폐단은 없을 것 같습니다.



水鳥圖(四十景)



부록

총쇄叢瑣

제19책

영인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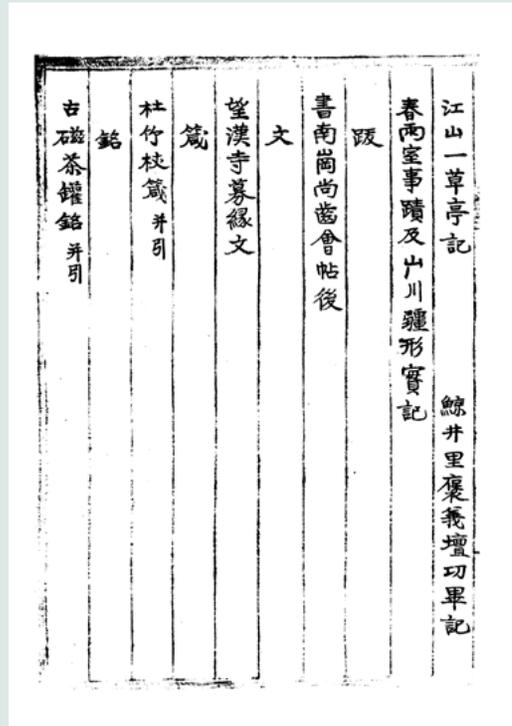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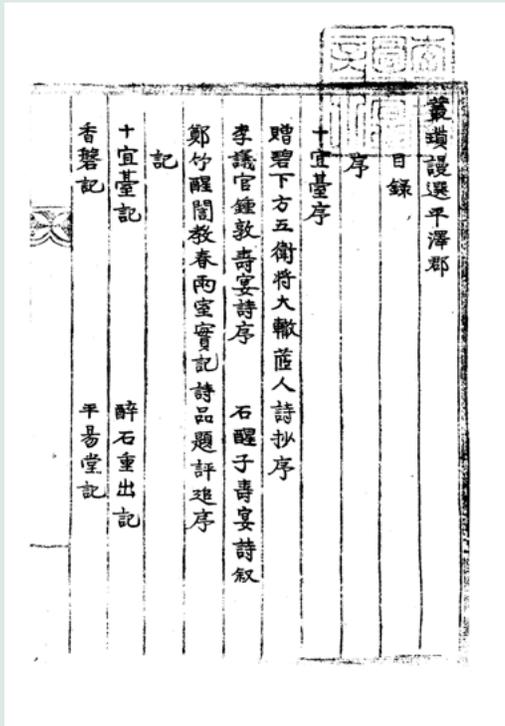
오희묵의 문집 《총쇄(叢瑣)》 소장처인
장서각에서 공개하는 이미지를 허락받고 편집하였습니다.
영인본은 윗줄 왼쪽 오른쪽, 아랫줄 왼쪽 오른쪽 순으로 편집되었습니다.



叢 瑣 十九

❖
총쇄
제19책
❖

평택군사 오회목의 사문집 《평택 총쇄》



辭

稷山郡三谷里礦夫作擾後按數使查覆跋辭

牙山郡縣內面貢稅地致死男人朴正甫覆檢跋辭

題辭

牙山鄭斗鎮山松圖形狀題

褒義祠壇長鄭昌寧泰璉等稟狀指令

勤孝谷鄭必錫妻慶州金氏孝烈事前枝理洪思弼等稟狀題

明禮官收稅派員韓用箕狀題

虎峙洞韓道衡家事查報狀指令

贊

詩境贊

怪石贊 并引

說

澤妨說

自問窩說

晚悔堂說

平易堂閑酬酢說

辭

日涉園辭

跋辭

天安郡小東面宮里致死男人鄭鉉允獄事覆檢跋辭

全義郡北面中大夫里致死男人金相烈獄事三檢跋



判決書

告示北面面長及近乃洞鄭民宗中

報告

農形文

稟狀報府災政文

因日人軍用人夫募集事訓令到付復報告

因日人募集事據實報府 因日人募集事報府文

甲辰年分稟狀報告 因海滋事報府文

報小北面海滋事狀 小北面電史報告書

因稅錢收捧及上納事稟緊直報度支部

照會

近乃洞安熙天議訟狀到付指令

新成浦設場訴狀題 鋤斤里頭民朴仁圭訴狀題

南面長李允種以都約長擇定代面長改差狀題

內需司苗查檢時西北西面大小民人等狀題

新昌孝班訴狀內里鄭德洙震野推省訟題 院井里農旗頭例等狀題

金教哲狀題

軍勿浦在奎等設場市訴狀題

小北面東堰水口完等狀題 金教成查稟狀背題

水原金殿成狀題 慶陽張燕訴狀題 西面滄內年耕依等訴題



許狀繕呈事告示 因治道事告示首枝

代平澤停車場驛長許斐里次郎廣告

軍勿里尊位洞長監考慶新設場市訓令

條規

申飭考卜書負條規

因益山郡辛丑稅錢替納事照會該郡文

下帖

年七十以上人米肉代錢頒給帖喻文

傳令

因租價錢濫濶事令飭各面大小民人文

令申左右支社掌務負文

因俾利輩買米多弊措辭令飭于各面

因虎時洞韓道衙家傳令 因巡枝作弊令飭各面

因朴準大紅價推尋於張燕事查質于本在洞文

因兩後移秧事令飭大小民人

遊春曰避暑曰觀稼曰賞雪曰看山曰望海曰觀月曰聞鐘此八者與人同之景也曰挹澤曰援城此二者惟我獨之情也一臺而其十宜并人我而備景情臺斯可矣何必凌虛起然之高且大而後足哉且斯臺也窈奧靜寂宜於專精方其退閒嘿坐也思其臨政之宜而有得焉則其宜又不知為幾十宜此余病未能為而後來之賢於隗者必將登斯而有思乎

贈碧下方五衛將大轍管人詩抄序

北高世拔倫之才且行而能自韜晦者余於方令公碧下見之美碧下富有文詞與一世諸公并駕馳逐既而脫艷

平澤

序

十宜臺序

余嘗搜括勝覽等誌撰與要十丹一閱卷而到那驪形名勝瞭如指掌以是彭城之無他形勝只有觀稼一亭而亭亦墟固已知之矣及到那果一與紙上看相似而所樓堂宇亦湫隘僅能容膝每公暇雖欲暫還遺情辭辭無可適之所真令人輒興歸思爾夫臺榭有無非必守宰之責然其於時觀遊第勞佚蓋亦有那而不可少者也今年春既五柳館之北曠外滌荒穢闢小園築土為臺名以十宜曰

詩而以心豈復計汎俗顧瞻之高哉

李讓官鍾敦壽宴詩序

壽而宴人家之至慶也為子者張而歸之慈可已乎然其所以歸之之義有大小遠近之不同或其饒豐其觴悅堂闈而責觀歸之小而近者也敬其質認其煩後筦輒而耀未後歸之大而遠者也故凡有此宴者既極供具之力而又欲其多得感作飾之載恠使後人讀之瞭然如目覩其事詩可以觀不其然乎故中樞院議官李公鍾敦凡河八鄉之賢大夫也性恬澹忠厚隱居養德與世無求而其幽香逸韻自有不可掩者有壬寅秋余承乏于茲下車先

塵修初服珠璣錦繡歛若無有以故余復茲踰年而後始知郎有碧下而又見其非公事未嘗至僊室而後知碧下非惟文詞之富而已是豈非抱高世拔倫之才且行而能自韜晦者歟顧蘭契昔晚萍緣易失靈芝之別行將必至而無可持贈以慰相思儘一苦事也噫人之相知知心為貴心之著而可見者其有逾於所自記述者乎是雖有工拙之不同而發於其心著於其跡則同故曰觀其詩讀其書不知其人可手茲就余所謂畫瓊錄中詩若文抄得一丹子奉呈碧下一以請教一以為異日替面之資而露無筮之醜經西子之眼非愚則妄矣然吾知碧下非我不以

何恨於公而抑有一說可慰者向使膠舟六月之日而不於三月之辰則是值甲午而父歸喜之舉在孝子而抱靡遠之慟乃能挽夏進春迨近朔而稍年觴有差有誘然者茲豈非福善人獲佑於天者耶顧余有謬托未及副之債且聞其允哀亦以此事必待於余噫是有所愛也尤豈可負諸茲以俯仰幽明披涕揮管而其於文辭荒陋自述佛頭之誦何哉然公之名德敬之在南州人士之口巷之在此詩其傳不傳宜無與於一叙文工拙是余終不辭也繼之以輓曰長夜成千古哭君淚滿巾同心同病苦一死一生幸可笑桑榆晚復歎唇齒因筋骸雖化土名德不為塵

訪遂托晚契山陰乘輿之棹僊室因公之駕源源如者迄茲四祀矣公之壽甲即乙巳六月四日而以其故夫人生期在三月十七日公意欲於是日合眾稱彌其胤某甫極遵無違設酌廣達余適病未赴邀後數日有自宴所歸者津津說當日事甚感余曰以若人享幸福不亦宜乎一日公謂余云伊日所得詩多至七十篇而兒子欲緘而壽之意不可遏其弁首之文竊有望於君侯也余笑而許之容俟病間迨挽未果豈知長年之災仗在冥冥而又有所謂人事之不可期者在於其間耶五月日公之暴音遽至余踴愕切怛不能起有間既又自解曰倏短天也時至而行

後乃能遂後凋之節而或支厦之材然則白之蓬蒿之困
非困之也乃所以固其精也霜雪之厲非厲之也即所以
確其體也故曰物不更變材不成人不涉難智不明又曰
貧賤憂戚用玉汝于成吾亦曰詩之於石醒子窮之使達
之病之使壽之請歸而載之心待疑者微露而讀之也

鄭竹醒閣教春面室寶記詩品題評進序

鄭竹醒閣教嶺之舊遠也玄冕夏遊金剛路出湖通余過於其狹
人前昌亭養珪庄上一見便契嘗因文字飲一再過余于
彭城之平易堂一日見春面室寶記諸作歎賞不已曰一
字字是誠孝溼血余曰願得尊評以潤也之其肯乎否竹

頽覺添新恨頓知少善親佳域今已開回憶點傷神序壽
宴而附哀辭恐涉未安而在今日地為公慶之之意淺而
歌為公哀之之意深而功是又念欲已而不能已者也

石醒子壽宴詩叙

石醒子既以壬寅歲人日設壽酌于星山之其本第詩以
賀之者眾余雖遠莫之赴而詩則亦嘗構呈爾其右歷四
歲不為之編曰郊島之病寒瘦詩為之崇也使吾命薄如
紙不能辨一束而載壽詩亦詩使之然也蓋傷貧憶敬之
辭也余聞其言而悲之與之紙而為之辭曰易嘗觀天松
子方松之生而長而也因作蓬蒿之底屬於霜雪之中而

平澤記

十宜臺記

郡有八無山其一也治之後有曰暮山山雖小而望之秀
麗如一朶芙蓉出水挺立宜乎其錫茲名而主一鎮也迤
邐至穀武積聚成岡彎形也似向南而開五柳館適在其
下館之北牖與岡之面勢可謂飲食起居朝暮相接而見
其樽櫛凡卉之披榛蕪荒穢使安石倦蠟屐之興子猷滅
狂笏之趣余是病之節命徒隸惟竹是存而他皆伐拔之
雖濂之枯是一區爭土宛從斧劈中出未四來杜鵑幸夷

醒曰非日能之動於油然之感無暇計工拙也因首首下
筆使已俚短唱頌增陽春品題其為息良足羨頌姑聚其
頽末如右

其二余死吟而曰曰挹澤曰護城是也嘗按郡誌有感動池在東五里世傳靈異祈雨必得每上元前一夜視龍耕驗豐儉顧余不才既無以澤民則思效挹彼而注茲又聞縣西五里有土城古老相傳三國戰爭之時居民籌斯而藏穀以防掠奪余雅好古蹟此可以援之想像夫是二者自餘人觀則固不足與八豆并稱而自有民社之責者觀則其耶保反有大於八豆余所以取而足十焉者此也于以名其臺而記其事

醉石重出記

余雅好古蹟行過可異亦必採訪乃已此非故采多於人蓋

及各種花之有可愛者排植成行然後詬其高且中半處等土為臺鬱諸徒事試一登眺四會景致凄集於臺而其甚宜於人者有十蓋方東風胎着手種之羣芳競發是曰遊春宜庚鳴燭矣西邊之槐陰廣張是曰避暑宜若夫百播均登黃雲遍郊徐四佳耶云野已深杖足稻杭之日也是曰觀稼宜六花載降玉屑通明鄭東漢耶云昨日開門風堂中之辰也是曰賞雪宜至於郡本無山而登是臺則四隣環翠斯為看山之宜地雖處陸而登是臺則萬頃涵碧斯為望海之宜以至野寺嘈喧耳得之以為聾耳壘徘徊目寓之以成色茲豈非聞鐘之宜詭月之宜乎從事請

謂夥矣然而耶云醉石終不可得見耶強之使仍掘至半丈餘有聲硬然挑起爭拭而審視之其文治不甚磨礱而姿溫潤色淡青割斷削平長三尺五寸廣三尺厚九寸面有篆刻二字曰醉石又有二字在其前而傍刻缺莫認因訖崇檀香三樹下安之其題目也讀格也宜乎為尚友人所愛也若是譚者莫不異之曰物之顯晦儘有其時而蓋其發聞於無有之地固難矣試掘於然疑之場又難矣掘之得一石而不止為尤難矣歷此三難而竟得其耶欲得者其豈天誘吾使歟此是吾州不偶之異兆可敬之至寶也前之埋沒莫詰其由而今既出矣自當傳久與邑偕存

性然也以是往在東南諸郡郡蹟之古而泯沒者往往發於余俱載於余耶撰叢噴錄而遂以為耶至之常規及至此耶耶小事簡又無文獻可考明年春為公暇遠聞滌庭院種花卉以寓日眺之趣而獨恨無古蹟抹而寶吾規者問從事曰彭城以名郡五柳以稱館前徒之取於淵明不應止此今乃絕無何也曰舊有醉石云而不可得見相傳其然疑者現在面牆下就視之乃碑蓋也余笑曰指屨為寶何足然疑乎試使掘其底尺許得一石方未起也觀者爭以為彼其是歟出則是 皇明弘治己酉秋七月來使結興館宇創建事蹟碑也此亦此耶不可少之古蹟耶得可

有樹非檜非柏亭亭然挺立在嘯傲軒前曰紫檀香有石
矩方準平鑿鑿然撐臥在檀香樹下曰香磐矣以曰香磐
在檀香下生得盤如也石胡為乎樹下莖老置之也名之
者誰莖老自命也莖老好奇古過會心輒忘寢食人規之
若不聞及至是耶無適在恣者惟此樹為可愛日來盤桓
以憇息無其所尤是石安其下公退之暇必於是焉嘯傲
嗒然忘莖老莖老為誰嘯傲軒至人也嘯傲軒乃五柳館
東角知此則知莖老願學何許先生不願學廬陵歐陽脩
也

平易堂記

此不可無徵後之文使其識哉余曰後人之於陶令動欲
慕效況在比郡耶可援引者其事甚多然而必取醉石是
其氣味古故也治之存其天形刻之必以篆書亦古也無
年月浸名雖亦忽於傳而篤於古之義也今雖偶然為吾
之所得然吾何可掠人好古之美而謀吾傳久之寶也耶
余令人也日間猷為率出於令人如十宜臺日涉園尺取
現在遊觀之景而已至於香磐附刻莖老詩境玉石床附
刻澤船是未免有意於傳而其不及古人處亦惟在是是
余所不能辭也

香磐記

鼓米多於人也願以陳安膚淺根靡民社之重凡百施措
無一可補辦得此一事庶幾為此來之蹟而時復思存或
為臨民之一助且此郡俗本和平易於為治亦平易之一義
也噫不佞之年今七旬矣木腕花眸固不堪書刻之後而
猶且不倩而親手者實出於苦心自盡不暇顧工拙也後
之君子弗之笑愚則幸矣

江山一草亭記

余既治平之年年迫七旬蒲柳屢質有何損益擬報涓埃
之萬一警勵倦志退暇猶人之聽得館宇初建碑與醉石
美璞因起十宜臺臺上點坐靜言思之山水仁智之樂亭

野蕭乎堂室高楹者以其常日在之願名思義也本郡政
堂肇錫之名無籍可徵而中年金僕斗烈揚五柳先生館
其後權使宅泯改以五柳館是雖有增減之不同而要皆
郡名彭城之故取諸淵明者也山谷云彭澤千載人東坡
百世師古人之見慕淵明蓋如是矣今以淵明之號名彭
城之堂夫孰曰不可乎可謂高則高矣可謂華則華矣然
而究以政堂之義則無涉焉夫政堂者遠民之所也蓋聞
周公之訓曰平易近民民必和矣况此郡現方囑傲平澤
則曷若因地名遵聖訓之為并行而不相悖乎余故不揆
僭妄存其金權二板而復以平易堂三字揭諸軒楹此非

方悟若彼鐵路輪車閃爍轉迤知梯山航海之隣域貴
璞其浮玉沒羽而至也第其要津東回一墩許名曰軍門
沿以接黑浦昆池繫以洞白石屯浦陸聯素沙清坪界通
茶院周行上徹 皇城下達湖南地坦程道而之屈曲陸
續行旅者趨趨躡躡躡躡躡躡躡躡躡躡躡躡躡躡躡躡
嗚呼世間甚事時不以忙後錯了若然則與此者而病點
靜休息者疾徐得失果何如苟不知止則渠渠履屋亦復
奚為消遣世慮偶見閑鷗過江倦鳥還山遂以愛吾廬之
意述一草亭記

鯨井里褒焉壇功草記

蒼蒼臨之趣擬慕乎大聖及前輩僕為面是則時曩心迹
挽近十有九載南征北渡踰嶺泛湖棲遑迤邐不啻玉黃
州奔走之四年噫斗米無心鞭笞堪悲復駕言方焉來歌
詠 聖德於斯扶護病軀於斯起居飲食與斯相接詎非
晚暮一樂有書記朴惠淳為余休息建一亭於臺之東上
試策扶老日涉而遊憩松篁參差視柳柳約閣里阡陌繞
繞相雜原麓溪澗週遭共錯北望華城 陵感松柏之鬱鬱
蒼東指尉禮城想風雨之洗磨南出孤寺芝峯樵唱不絕
西匯廣德柱洋漁歌遠聞曉露看花芙蓉星態秋涼入郊
薰蔭包懷賴感應於穹壇農談可慰聽空寂於漢寺說法

補助吳寧默亦補助其若干金贊成其築塔香舍之儼然
享祀之如禮雖因 朝令之不遵暇舉然人人所矜式者
存焉 朝家作成之化洋溢乎州縣十室彭城彬彬多文
學之士出而朝行于世為名世之碩甫云爾

春雨室事蹟及山川疆形實記

有白茅一屋子在洞陰郡二東面白雲萬山之中曰春雨
室故孝子 贈判中樞府事 昭漢吳公及其配 貞敬
夫人金氏西位墓閣而余不肖孤竑野等也始此地為
本郡 鄉校香炭之所余為葬 親每有借地之孀遂廉
立其歲收之本而易之使朝野咸知為吾有蓋暗屬于公

嘗聞太上立德次立言次立功如有其人則莫但鼻鐘鼎
汗竹簡而止雖家俎豆尸綸嘗處乎其可夫哉丙子之禍
危如一髮當時秉鞭者莫不喪膽獨洪公尹公吳公奮然
而起伸大義任天下臨白刃入湯火死而不悔其忠義之
氣與日月爭光事載 國乘不敢贅論是以 朝家立祠
祀之郡西鯨井卽洪公杖履之鄉也三先生因以安享歲
西魚混入於殿撒吁亦恪矣越光武四年 上時為設壇
焚香非但公曾日之誠可以感神明抑亦 祖宗朝在天
之靈實照臨之以此舉也前昌寧鄭恭廷實左右之鴉
財設壇營建郡人士誦之而記其後前郡守南萬里捐出

圖繪焉記述焉或至棲身終老而不返况余於白雪乃
 先考妣體魄所安之地而重之以揚蓬萊金三賢清塵芳
 躅有足以復溯而自娛者乎顧名雖尚廩初服莫修增霜
 露之愴而托猿鶴之譏噫亦久矣倘幸天假之年謝事有
 日則托依歸於楸下賦遂初於雲間或庶幾可得而芻未
 知命物者慮分茲錄其大槩以俟夫異日如何耳夫白雪
 之山祖全剛而據畿甸觀於名山之實可際矣自上頂左
 旋為道摩時新路巖國望峯道成峴姜氏峯清溪山光平
 山懸燈山峩峩山錦珠山可數百里右轉而曰廣德峴紫
 巖龍華山德峴孤峴麝香山觀音山可有餘里與錦

勢且峻形家者睨而過而已是以舊無一坏人塚而林樾
 蒙密巖岫者真視之有洪荒未闢之心焉余乃鏃陳醫滌
 襟蕪等傾仄補罅缺自洞口至 登域垣夷可行別置守
 塚戶數屋子於廩巖洞業之使掌護又於西麓傍近及野
 從路之左右手種松檜栢屢數萬株今皆脫蓬蒿掃雲霄
 蒼鬱可觀而第其自拜仙洞第相距稍間巡審者拜之行
 倍費逶迤香火酒醬之具未甚便易此春兩室取由作於
 西岡相望之近也於是陀峇泉石名迨遍花卉果木種植
 無遺以至石儀誌碣凡可以為 尤壠盡心者畧皆殫力
 而未焉者惟紀實一事耳余觀古之人遇一佳山水往往

登其原岡嚮曰與小鷲麓盡處相制此是內外龍脊因
 之而開作兩局野謂環山八九十里者此也又自魚登山
 更起精神別立峯巒名曰四方山中立一圓峯是為良坐
 內窠又自懸燈山分枝數十里橫帶論拜峴內拱雙峯為
 補運之金且莢蓋山逶迤有餘里特立三角為生座之火
 凡良坐五重窠也且自石廩一脉向北雄馳為迦尼山為
 良原樂山又鐵原之寶蓋山儼然特立為乾方補拱之勢
 且小鷲背起一支北遷向西開局拜仙洞在焉即余野謂
 永平鄉第也水之自新路巖出者至伏虎洞與洞之水合
 流下為龍瀑三層皆鋪盤石又下仙相川即春雨前谿盤

珠山拱抱此為二十里外水口有卧龍巖又與一東面水
 會而合流為一二東都水口自白雲中心一轉而起新路
 巖右為兄弟峯石廩大小鷲峯自小鷲峯特立一麓即廩
 巖洞後岡 贈判中樞公墓良坐與錦珠山紫對春兩室
 適在其下軒廊春兩室板室揚 昭溪先生座右銘板燕處
 超然板玉醴泉板碧溪青嶂館板柱面珠聯板柱門巖洞
 口碑巖又有鶴飛臺鹿循石室之東北陽鑿石確引玉醴
 泉灌之適用酒醬之具且新路巖更轉而為國望峯仙人
 峯白仙人特立一麓即儲廩洞 貞敬夫人墓已位與德
 峴列朝帶又國望峯元脉分一枝而未為外青龍山曰魚

心出牛角峯下麓弟嫂河氏墓亥坐洞名甫羅鷹鳥登山
下麓弟嫂崔氏墓乙坐洞名龍蟠傍置塚標石廣左橫麓
俚婦池氏墓卯坐洞名桑谷且光平山右麓下柳洞里伯
考妣合墓癸坐左麓仲從氏玩山墓辰坐左聽松左翼
善寓居第拜仙洞有一屋子是余棲息慶門楣豎立 贈
判中樞公孝行旌閭門外舍曰麓成齋又偏室曰朝出耕
暮歸讀古人書內舍曰自怡堂又漱石枕沅室之左右多
種卉木前岡梧桐桑樹等又以負土等墓被該名曰望雲
臺蓋與小鷲峯相望又於室之東果林下川畔等墓鑿池
灌川渠而為潭錫名曰栗潭安與村老溪朋歡娛取適此

陀絕勝懸木桶于巖頂引水灌漑蒙利其自仙人峯出者
為鳳樓瀑川皆盤石過已坐原前川與國望峯下儲窟洞
左邊出水合至洞口交會慶與仙相川合而至五里鷹巖
白雲之水出自木平洞過曹溪瀑直下內院庵至僊游潭
過桃李岬出龜頂灘由鶴巖過楊巖轉彈琴橋入玩漪臺
至鷹巖與僊相川下流合流過七松亭入白龍潭由新觀
岬至卧龍巖與一東面水合流轉出沙根橋此其山水之大
畧也又自廣德峴右轉身分枝確立明月巖笏朝項又起
蕪菁峯峯下谷名后岱洞後岡即阿弟聖中墓及子寧善
墓并見坐前川之東僊游潭前野上下桃李岬蔚香之中

平澤

跋

書南岡尚齒會帖後

叢玉曰世事惟偶然者最佳今此之會非故有意於效頌
而與吾山故事種種相似真是偶然中之不偶然也滄山
序已詳之無容絮末而白公事之至今照耀以其有長慶
集也如吾輩遠散之日跡便空空寧不可惜茲綴諸作或
句泐與與會共之藉以斷差強耐久誠亦愚計想叢一笑
甫

皆吾家局內所有也至於寺觀堂臺及前輩古蹟別有詩
句附之此不架床焉

有全鄉之恤竊惟此時財政之窘非敢曰不知道幸今年歲物之豐差失則莫可然卧待自然之望理所無焉茲辛災不已之行諒庶燭矣是所謂十家木鐸孰不日十匙五殮特書於募緣之文是黃金大宛主寔出於報佛之計乃白納一尼心使之資塲修屋完菩薩皇無其感從此見種鳴鳥食閭闔亦與有光不惟克寺撥凋殘子以驗是運興旺如水和水莫云佛道虛無種亦得於自有福田利益雲如而未鳥如而去小僧便同一時竹過春於斯賞秋於斯遊會尋自是百年管頌此非無功妄施蓋亦而善最樂自求多福野寺即兜率天時密覆恩平澤是功德海

平澤文

望漢寺募緣文

梵宇有廢興相尋之數蓋自蒼梁而已然君子嘗施捨不報之恩差舉禮越者此也非全為趙請試前陳依以望漢孤庵實惟彭城獨制為眾生祈祝蓋願以此斷不可無與本郡或表相關於古聞有是說茶昔三園寶座慶今一隅荒臺法殿無簷籬之逸每見嗟於行路者厨之錯騎之屬早過奪於偷兒而釋迦供餉之多愆常差無地可惜况諸宮祝願之所无宜如天是尊此美但寓僧之憂宜若

成道碧梧之兀傲傲其局最要扶老惟杖而已相隨似友全恃若子曰視可者無如杜竹姜公以之終躋壽域余雅好古抹斷三莖昂戴丁乙存厥天形一戒二誰雲樵石醒非唯效頰可愛冬青不斃不替歲有義存乃職維何持護年尊造次戒謹動輒相循如舟利筏若尸要樞用捨行藏無往匪宜錫名靈壽僧造期頤

平澤菴

杜竹杖菴并引

余往在全馬郡得杜竹一杖治之為短杖而生得稍大嫌其重難用者有年矣近從彭城野老求得三枚與雲樵石醒各一分持蓋林叢可杖之材何限而必取於杜竹者嘗觀博物新誌姜太公用此杖且其冬不改青亦壽之符也以其古以其鄭非尋常閑卉木可化此余所尤愛也為之箴曰

我將歲甫先論性質適宜曲直龍閣堅鄭出為人用便利

平澤

贊

詩境贊

彼日涉園中十宜臺修一丘白兮是楚璞之未琢者歟是
萃羊之見化者歟胡而予不達于和而實連城不從初平
而遊瑤圃乃為彭城老吏詩境中一物然而以往時泥塗
埋沒較今日文壇愛賞未必非賦形後一遭遇也吾以澤
躬附庸之左爾如有靈勿使蝕於花鳩并沉芳於千春

怪石贊并引

寒山一丘石堪可與語文之謂也余於此石愛之也甚

平澤

銘

古磁茶罐銘并引

有一童子持一磁甕茶罐請置于余腹容一枕體削八
隅玉其色而撻其文蓋高麗時制而用之茶罐者也茲
亦與解石之通出值我無異焉優其直貨之為之銘曰
邠用陶甕所尚者素山出螺殼可愛其古惟茲之磁甕與
古其價越雲壘用通翠釜不我後先千載一過造曾其誰
悔亦甚故視同尚友將子無怒聊之茶之亦高之趣

平澤

說

澤躬說

余既刻詩境二字於日涉園石床又以澤躬為自號而刻
其傍基有請其義者曰澤止水也躬小舟也不其近於苟
而直歟余曰首究其義其說也長吾且聚之夫人之處世
如舟在水方其臨津解纜也孰不欲利涉普濟而有未能
盡如其意者所謂才與命者豈其間也故舟稱濟川才與
命俱全者七輪艘火水有才而無命者也然才不才在我
命不命在天君子尤其在哉不尤其在天今我所過之地

愛之欲其語欲其語捨文而奚以哉茲作贊辭使之憑之

頂自星精結以雲根其來迥凡此已可尊矧爾賦形愈着
愈奇醜類匹茶甕頭學端紋蒼絡白頰背腰有胡不見知乘
之若捐我來相汝千載一過挂敗壘等置近堂字拜其祀
笏執云米顛與鄒亦轉揮守永年

之聖必資學問而知之故經著審問之訓史取好問之語是皆問於人之謂非自問之謂也由是而言則自問有反鏡之失問是求應之為而以吾問吾應之者又誰耶由是而言則自問有和泥之嫌此皆子之所知而今乃云爾必有說焉可得聞歟曰卷之病自問是有一字為之祟請自自家受崇處說將來可乎噫走知而失學早鶻子世方年少任氣之日遇事直行輕車遠棹齊夷險而一洩深惟求眼前之快不計事後之悔其克類蹈陷溺不出於幸者幾希矣既而難涉世故之多且久則心轉小而氣轉約稍稍有却顧之意始乃自惟曰世間萬事皆有當行之路而吾

非但其名是澤其殘薄也在卦為澤水困象曰困亨是必有處困而亨之道矣然則亨之也當何以曰不當肅其在天當肅其在戒者而已矣按月令勸者習水人所操也行年七十作習水人其計以迺然此偶有言曰台首而抱小學未為晚豈欺哉抑又有一說焉歸宗祥師曰須彌納芥子芥子納須彌苟習之不已使在我者足以載重而致遠安知不水革火而為帝礦芥化舟而納須彌乎然則不可以澤躬而曰局而畫也

自問高說

紫霞山人說自問高卷有語之者曰自非生知

問而進一步二問而進二步至於問漸多而步漸高端倪呈露觸目朗然自問亦不用則古人所云能自得師其亦如是而反鏡和泥之謂有可以辭者矣然此事如人飲水冷暖自知不有吾許多經歷不用吾許多扣索信不得吾言故曰可與知者道不可與不知者說也

平易堂問酬說

畫漏桶開鈴索不動隱几而坐讀新聞紙數葉忽接公府來本郎今年春夏考績云云未改署中宇適時工曹人在前瞭然以此郎有何近似於居中之事余曰子以吾居中為異事耶對曰聞明府自作宰以來一副為政之規

之既往先陰在摘填中拋去可惜也及此乘偷所可收拾者惟在問焉行之而其無明師常隨何哉又自惺然曰天既賦我以攸同之性而心為之宰是曰天君也天君既在矣則吾何外是而他求哉自是以後凡事之疑似難處如辭受取予伸屈推挽之類未到面前必先自贊在心如既有道而正焉之為其果安矣則付之其所不安置之斯乃所謂自問者歟也蓋嘗自驗其下工之初往往為情欲所牽不能無交戰時節而惟其心帥之正足以制之故彼邪日却一舍吾軍日葵一凱今則自以為遠過了此一關而知有幾重迷塗又在前面苟能一依此法隨邊隨問一

之少日則有間矣吾之衰雖不至癯瘠之極而較諸丁年則不遠矣其精神取體不能不與之俱下以之臨百姓之上徒然糜五斗之廩雖燈下之不明詎背後之無議然而觀使捨吹毫覓死之筆用對症投劑之口欲使脫塵籠而卧雲雲絕鷄肋而尋鸞盟是誠愛我非外我也但浩然矣歸之不自戒早而地連躡冒以至今日竟遭俗所謂筆下之困是乃滄浪也非所以尤人也吾固安矣子其休哉近日苦無日錄可記之事巧因宜默不宣言之會與子戒一場開酌魚亭備叢璫中一說也同誦王陽明詩自擬曰陰夷元不滯曾中何異浮雲過太空夜靜海濤三萬里月

恩威并行廉明西至前後九郡二十年之間所得最每居上蓋有讚未盡善之美未見其略涉如何之句今以本郡言之三載雍容一心撫字雖 息論裁激未效陶彭澤歸田之賦而邑小閑適方做汲淮陽卧閣之治因夙績而 上有陞賞之褒閑合郡而民懷或失之憂大都是臧乎云若則不可奈之何今茲府評顯然有可警之端隱然有宜去之意不亦異哉之甚乎余日子真見得前面不見得後面見得外面不見得裏面也吾觀其遠辭至為十二言之多而其實則不過是老一字為之題也我老故人老之惑得曰不者云也自顧吾之聽雖不至充竄之甚而此

悔一字殆非暑題目壽踰稀而任躋台孝無憾而護有裕出而臨民編頌騰歸而入重琴徽偕人生在世斯已足矣何悔之復有耶第吾子有可悔事其或以是歎余曰云何客日子昔出入 禁闈也人望之若帝傍仙郎子於是時志首營私一瞬目而銅山可挖矣而子乃清白自持越沉俗於賸貨儲家聲於忘錢及其藍堂素苑也所掌按木價值三四萬金此吾自有之物而視同草芥散分憐閉吾觀今世之人苟一握詩家便說足而子一事九塵家無負郭田一頃其他捐滿宮施農畝恤貧獲賙窮交行之一平生如印一板此亦敬之雖微合之甚大矣今子儂鉅莫副室小

明飛錫下天風

此章當在晚悔堂說下

晚悔堂說

余少也人以好粟賦補之余亦自負便有病老於子何之心焉昨今年來些些疾累困仍伴任最是眩氣尤甚枉費刀圭愈復侵尋始乃瞿然却顧曰以吾而有是耶是必所由未者漸矣李尚書憲鏢文嘗月期余以才大如海心細如髮其言似戲亦頗有理夫以髮之細汨沒乎海之大其究也安得不潛銷暗鏢病隨而作也是誠可悔獨恨其未早也遂自號以晚悔堂客有扣其義者曰以余觀於吾子

我信凡此幾件妄想纏綿繞線在方寸之間首尾六十年于茲矣一身之微而衆憂攻之如膠漆若火煎膏幾何不真元內馮神精漸耗以至百病交侵一眩難治此果非吾之大可悔者乎使我悔之差早得以優遊自適保耄餘年尚可為也而今焉膏肓在身符到在前雖欲悔而改之其勢已無及矣行將浩然賦歸瞻依楸枰者矣諒燕或廢幾無愧在茲號此在命物者處分又非吾與予之可知也

僅容此居可悔然乃世俗之怪豈吾子之悔耶余曰吁吾豈為是也無已則第言二若夫讀書而成文章也設學而育英才也急流勇退也田園樂志也皆余有志未就宜若所悔然又有大於此者余方弱冠之年志氣焉聲聲衝霄才思焉雕水鏤月謂青紫之可拾視軒如若固有如將壓西卿之橋倒鄧禹之策一躍躍先據了上頭顧乃不然薄試民收年僅中身志猶未已觀慕陶廣州運甓故事允保勞筋骨費心膂必親手執豈不自惜紫而忘疲者蓋有待於異日致力不幸未盡如意而時局變矣於是揮新哥之淚抱衾室之憂奮身啟前而不任其位彈愚欲言而人不

觀世人為園而用是名者甚多然其趣之所成未見其有如於不園時吾故曰為宦者東坡而後九日湖之湄可也為容者西子而後蘋可也

平澤

解

日涉園解

日涉名其園是欲學陶也然園日涉而成趣乃淵明歸田後辭也今學陶而不學歸田先學為園無乃所謂退之之倒學乎曰歸田是學而未能者也為園是學而可能者也學佛者捨頓悟而先念誦豈不知起三乘遂成佛為可欲哉亦升高自卑行遠自邇之意也特愚夫所謂可能者反亦未能為爾夫所貴乎學園者不在於園在於成趣若徒知學園而不知學成趣是類買櫝而遺珠惡在其學也吾

動轉則尺見絲筋纏骨絡欲解第其脊骨一片腐肉
僅付於骨滑之上圍圓長八寸二分按指柔軟也黑狀如
水泡似是未消之餘滓也憑何而執定實因獄情到此无
功取惡第以據證指而推之照法又而勘折無冤錄四條
補註曰凡傷下部之人其飛骨現於上男子之傷現於上
下牙根裡骨傷左刺居右傷右則居左傷正則居中又曰
牙齒脫落小腹皮傷同令此屍首上齒正中脫落者為五
箇下腹當中之皮傷明若觀火以詞證言之則鄭執李髻
額沛階下李髻之撞著鄭骨甚勢似然以其擦着為言則
曾欲隨沛暴撞之膝自撞於仰沛者之下腹腎處抑有說

天安縣小東面官致死男人鄭鉉九獄事覆檢跋辭

為寺如各人等招辭臨事之懼何事不懼按獄之難此獄
尤難犯者曰有同惡難辨孰首孰從痕損未能的見真分
差輕差重情之險毒案之疑眩未有若此者矣實因折定
質之屍首故準備法物光明處出置屍身則渾身腐消皮
肉不存只存骸骨而首體相離痕損之有無初非可論左
肋有小片皮貼一處而形如柿菜圍圍為九寸三分按指
微堅也黑故另付法物而又後除去指一起則仍舊其色
比近於足陽之痕仰面之消指既如此無德合面之無驗
自可揣度其在審慎之道不可置之勿論故表手扶攀手

一夜泡漚之滅雖曰目取情目檢則李景直改聽言觀顏
未必謂之惡人以其杖事之未畢言其枉役之不可逢杖
不意之怒醉漢梓髻自沛隻身隨沛委身事勢即欲暴顛
之膝撞於沛首下腹亦其勢也雖非用意猛等鉉九之死
不測一日之內如非猛等胡至此連二次膝等李寡立證
犯者莫諱李景直改以正犯論折李胤未改見其叔之被
執其髻便成泥狀之闊袖手傍觀亦係人情之外則其在
護叔雪憤之義一踢二踢之開陽之高快也或無怪既為足
陽則足勢之猛不言可收灑折去踢反勝脫者語不近理
自沛者不搭通叔之髻其叔尚在鄭哥之腹上憤頭所踢何

矣既非數尺之童且被執髻之人膝何及於膏體乎若如
眾指而撞背則膏體是必死之處下腹是速死之處則如
無下腹內損鄭哥之命何不保一日之內乎死者生前醫
藥與五內牽引煩劇叫痛非但屋主之立證亦有金奉學
之親聽二等死者之膏腹犯者自服落齒之症吻合於下
腹內損之文下腹內損無容更議故實因毆以杖算內損
致死懸錄死者鄭鉉九改即一浮浪之徒也不顧事有漂
泊西南入宦於此枉切權事惟待主人之指揮以其客黨
之跡執主集媚之論殆焉烟竹欲銜燕乃醉曠之先失終
焉梓髻自沛豈料性命之難保以其四旬強壯之軀遽作

屍親本家而李景直膝辱光景鳳未足陽之狀這這實言
無隱納招者也李順甫既以首證月洞中縛置者而泊於
糞投全珠木事云則別無可問之端金奉學鄭李相開時
挺身挽解扶曳鄭哥而歸臥主家目覩叫苦之症檢屍鈞
招一從聞見而無隱故并與吳致云李台史李順甫并捧
再招置之省證屍親初未待故申飭該郡刑鎖使之未
待而不來待不得取招景直之兄說證據招事當質問
而亦有證弟證子之嫌故置之勿問本郡天字號屍帳三
併勘合成出一件待屍親出給之意給付該郡刑吏一件
官上一件并與囚徒成丹一體上送干犯李鳳未正犯李

及於合面之勝肌乎一直以勝肌漫漶納招乃於三招始
候脇肋之說屍首之左肋腐餘之皮尚著於肋骨之上者
此是陽傷之痕一踢之狀金奉學目擊二踢之狀李寡立
械而犯者目服一痕兩犯不啻法外等踢自有緊款痕預
已著輕重既有下腹內損之證據而正犯有歸辜道首惡
干犯之目渠焉得免孝鳳未毆以干犯惡跡面任實未候
劫隣金正文別無更問之端故只捧再招洞任兵致云鄭
哥死後登時發報而一從聞見隨問納招者也鄭哥雇主
李台史鄭李兩人開問時盡力挽解鄭哥痛卧時用藥散
寮而現納藥方支即當歸屍散解藥之劑變出後傳計於

下衆招同然形痕難執於屢檢之餘疑滋甚於箇中實因
折定不得不質之屍首故出置屍身醋糟法物如法行檢
皮肉消盡骸骨顯露仰面猶可掃視合面隨手骨散無以
運動既無皮肉之可據形痕之強覓可謂捉影無形人命
暴死徒古何限而未有如此屍之危死者也夜半開閣而
秘宿聖朝黃往而歸家午後頭絕者是曷故焉如無皮傷
於必死速死之部位則豈有是哉足踢之證衆招一辭形
痕莫執疑胸多鴉服滴之說出於犯復之口加添一端疑
惑如果服滴而使人歸於殺死之日則生者寬矣若殺足
踢而犯者倖道則死者冤矣此等處尤當屍毀幽明間期

景直具格分囚該郡欲嚴節民情亦所當念故面任實承
倭潤任吳致云雇主李台史劫隣金正文并姑保放者證
李順甫金奉學係是為人雇工而既無擔當者則有難保
放故仍囚該郡候屍身段覆檢後還入房中死印封標送
按身直郡守自此還郡歸由茲以成兩案報告查照伏望
全義郡北面中大夫里致死男八金相烈候奉三檢
改詳
為等如各人等招辭蓋凡按獄之法起疑於無疑之地
鉤情於隱情之處使疑不得眩情不敢遁然後始為定
竟此獄段兩人共關殘骸遂絕於一宵之間便致命於當

數梳之滴酒痕故執不得踢證顯著法之服酒一款便歸
無實實因段以被踢致死懸錄死者金相烈勢本不贖七窮
蓋甚前實之坡石以潰欲推潰亦未捧救亦相左以其峽
中無識之質不解老吾老之義只有我自我之心不擇之
語碎口而發達彼之怒而足踢轉加梓髻或地弱不敵強
止宿彼家強徒勒和而忍念駭家無語已夫省覺而顧計
以其踰涼客驚之跡觸此盤居洞虎之怒使此青春
強壯之人透作黃壤無休之現情且憾矣金相烈之妻嚴
苦更段見其天之被踢而意欲挺身挽解拘於班名內外之
體面趨起而旋止云者容或無怪若直前挽解慰護歸家

使無寬故左詰右嚴至於質面服酒之說便歸無證應無
所不到常見其牙齒之脫落落格可劈破疑端可新實目上
齒之落至為九箇下齒之落亦為四箇此非足陽及於下
部之明證乎無冤錄四縫註曰男子之傷現在於上下牙
根裡骨傷左則居右傷右則居左傷正則居中雖無皮肉
外現之形乃有莫掩之法又肋臂之陽犯人輸款腦腹之
陽苦主自鳴苦主警視之言未必盡信以檢帳觀之則牙
齒之脫落自露下腹受損之證以指以證更無可究犯家
之罪酒藉說者即不過逆毋依佛之見死者痛時煩惱如
狂煎沫成盞令於檢場非但酒跡之已消無憑假使能飲

服酒之說至於質面而終歸虛無而足陽渠既自服牙齒
脫落法又昭載正犯之日渠烏得免尹昌鎮以正犯懸錄於
本郡地身號免張勸合三件成出一件給付屍親一件官
上一件並與囚徒成丹上使法之將施情亦宜察對親時
辱孰能塞身不聞和手傍觀手只為暫時之憤憤宜料翌
日之必死恐合惟輕之典管領風憲高鎮德聞此枝變追
往該里隨聞約招別無更問之端故只捧單招功隣柳元
甫聞闕而往問其爭端息聞後勸和而同宿者也看證柳
仲文柳命吉寺俱是聞開時參省者而隨聞隨見約招者
故並與功隣只捧再招尹諾曾尹應七尹昌鎮之族黨也金

斬上之陽雖不可救場遺之曳陽似可防禦而安知不為
不至於此境乎若以死崇言之則斬上擠陽非特謂之不
死場遺曳陽非特謂之必死其在抗儂之義耦匹之情只
念區區之體面趨起而旋止者人情天理可謂俱滅惡狀婦
無足深誅免親金相穆聞變而未慌忙發告悲切到半之
痛而為靈反兵之警隨聞而納招別無更問之端故只捧
再招尹昌鎮既經委負之啣不無自重之意金相烈雖曰
同是班名汨於耕田樵山擔負資生平日酬接未必善軍
律見對親悼說感愈陡起先為足陽經有拿下之號令而
兄陽弟梓伊時光景氣焰高人以其死中救生之計藉托

機同非由己所召一郡之爭殺兇犯縱云義氣成俗三谷之延燒屠毒可見殲獎殊非偶然政或監茲大凡復讐之業先究結讐之源是白如手蔡元寶之初非狡斃眾口同然署理官之先行檢驗傷痕甚微四日行動一夜奄忽有是理乎自往買醫作羹頓服決非時刻將死者之行逆也謹稽醫書黨由合鷄蛋食之殺人元寶之自作蟹湯也誤和鷄子卷究無怪而看証無人有難臆料是白手乃蓋非杖毒則無疑矣殲夫之勳奪人妻罪合重劫假使猛施管罰逾逾致斃是白衣置為其弟者焉敢自擬報讐擅殺長吏乎蔡仁石設罪干法紀甚刻難貸是白手矣但其兄

相春金相烈之四寸也俱是服瀆等說問各傳播者故並為一次盤問而別無深覆之端故只擇單拏不填也目付之諸拏之末端尹昌鎮之弟雄鎮關時執金相烈之髻曳出場邊者有近助傑之孺謂以挽解亦非手犯而其兄既犯首惡置之勿論屍身送入房中灰印封票申飭守直正犯尹昌鎮首證柳仲文柳命吉坊隣柳元甫等符該郡刑鎮郡守自選任緣由仰報查照伏望

稷山郡三谷里礦夫作獲後按覈使查覈跋辭為善如各人等拏辭是白置有如十五度管校本非濫刑數百名擬刃何多同仇五年監理可謂為法自弊一朝禍

之不重複念後患之難免相府直刺倘報仲子之仇兵家善走思用禮公之策一念之思二人同死吾實實論其情鄭游於仁石是白手矣巧古如簧金事掉脫咬牙忍杖終不承歎畫地指的獨有衛奴之口登時者証更無傍人之眼縱擬惟輕之典難免為徒之律是白手蔡金聖權設白中叢中相牽向來紅箭門外何心獨歸礦軍之毆打威脅非所危於頭目衙庭之跳跟橫行終莫掩其蹤跡先入行兇雖遲於蔡仁石手法大呼任免竟露其相強面質罪著助惡合施重律是白手蔡金昌俊設助仁石之報仇與聖權而同歸恭以情跡略無異同是白如手以上三漢並

之死別有他故則其弟之惡應非真情糾眾攔入直下毒手以非惡詆之所自辨疑有從中慙思激成禍變者而一時踏殺凶徒逃散終不得究覈情實破其根窩分別首從明正典刑是為可恨是白加尼及夫趙聖才之供一出皆實之罪單露四五年親近既以利合六十兩橫擔或成隙末是白加喻進徒於牢屍之行聲言救禍晚到於刺腹之後伴差打逐稟差真有救禍之心能操打逐之權則何不禁之於三谷未發之前而始乃逐之於萬事已非之後也至使別鴉將絕之魂反有執手情救之象究其情狀已極陰慘是白手謀乃於獲道相對又有暗地密語猶嫌下手

避匿情狀可惡是白子矣愚駭焉勞無足深責是白子游
鄉長鄭養錫段閣變直入受遣托於內衙知機捷應急往
告於校儒飛通閃出閭境震動曾未半日會者數千俸望
郡中之復起先囚兇魁而待命創傷漸肆莫延二日餘縶
義憤激遂舉一場痛哭大號而起眾怒山聳一舉而跣
兇首齏粉是白如子臣在按事之初先問擅殺之人是白
子則鄭養錫毅然自供有慷慨託義之意而一郡多士同
聲稱覓觀其處事頗有應變之才察其辭氣亦見不備之
勇殆近於殺人而義者也其實萬幸齊奮莫知下手誰先
是白子則擅殺之律恐無可擬是白子所以以上四人並再

着枷移囚於忠清南道裁判所是白子游其外徐春甫梁
用西朴奇先元用俊趙七或李元一文明元七漢段俱以
蒙默同作礦夫既不恭於入邑混被捉而在囚多致盤問
終無罪狀並再招後晚諭放送是白子游首書記李濟亨
段身而首吏未能先事防患不為無罪是白子乃變起蒼
卒先被縛打擔負入衙已無可觀察其情跡容有可原是
白子游亦長書記宋李玉段在家聞變蒼皇入門先縛仁
石又捉督實諸吏之未敢下手而獨自猝致辱辱傳捕無
罪而抗言不屈義勇過人可補解事是白子游巡校校具相
猛段職在巡緝既未能先機警察賊入官門又不免苟且

馳往郡東七里許三谷里礦所躬審形址是白子則非石
礦乃土礦也良田沃土在在掘鑿高者成邱陵深者為川
澤此世界不可復為田疇通計一郡礦陳為九十二結三
十六員六束同礦連界天安郡礦為二十四結七十五員
一束未蒙甄減結民稱覓是白子游蓋地中產金本自有
限非若穀粟之年種生而無窮者也欲求有限之產永
失無窮之利其得失果何如也况其所費者 國庫之原
額所得者好細之私囊所以各礦所得輒不能償其所費
上損國計下失民業未有金礦善也好民萃集利來利往
梭越之變竊叢之患皆出於此大抵金礦不可為也伏聞

招而放是白子游稅監金鍾益改初無參涉於礦獲亦免
釐明在民會圖得院訓非渠所謂招集礦軍亦無實施一
招即放是白子游礦夫金永西韓昌信池連白李時明吳
小成崔允寬裴泰益金昌用鄭容熙吳吉明金太山朴啓
根等十二漢段委出囚招明是作變之人而俱以地道之
民在逃未捉不得取招是白子故另飭該縣告示各面使之
隨現捕捉是白子游竊伏念礦夫之變何地蔑有而至於
本郡而極矣臣謂礦獎有三一曰國結日感得不補失也
二曰田野被掘農民致怨也三曰沉民企集盜賊滋熾也
前明之末礦民之弊終成流賊可以鑑矣臣在按事之暇

詞證明於符契正犯有歸實因斷定不得不質之屍首故
光明處出置屍身先以乾檢繼以法物候時準或按摩諦視
則仰合兩面便無完膚自右乳下至右肋血瘡堅硬色黧
形如巨履處圍圓長為一尺四寸五分小腹之血瘡堅硬
色黧處圍圓長亦為一尺四寸合面右腿之杖痕狼藉皮
肉潰爛赤腫周匝於仰合之腿延及於右膝臍肋脚腓腿
肚此是毒氣攻注左腿之杖痕皮脫色紅圍圓亦為寸似此
許多重傷之痕能延六日之命亦云幸免實因之執執之
以被踢可也執之以杖瘡亦可也無完錄曰致命之傷當
速死處不得過三日凡打著分寸稍大則可約得一兩日身

聖聰深察礦獎封閉之 令已下三南赤子欣然若更生
臣在所到布告 德意與民同賀是白在果臣請稟山天
安兩郡礦陳一百十七結十一員五乘坐令該部既減以
示 朝家軫恤恐合事宜是白子孫臣在姑運部已費多
日晚到本郡是白子則首犯經斃餘黨已逃 草草成案嚴
謹未備伏不勝悚惶萬萬是白子孫臣自此復路緣由謹
上 奏奉 旨

牙山郡縣內面貢稅地致死男人朴正甫覆檢跋辭
為等如蓋允按獄之法素疑則毫以千謬情究則言可斤
折此獄案無可疑情無可冤者杖殺春於槌刃傷損畢露

頓無平日親知之情韓口不慎乃遭怒烹之禍魏叔不至
誰憐驚推之魂使此五旬無恙之軀奄作九原非命之鬼
事涉滄浪情固憐惻屍親朴夏永聞四寸之凶音與諸族
而趕來纔到津頭轉探四寸兄之枉死直走半煙乃因崔
元律之口傳始知枉死之根因期欲復警奪奪走道路隨聞
納批別無更問之端故只捧再批朴奉順本以年以頑將
之漢披托於西教之權門蛇蝎於無辜之平民常時仗倆
聞根成習伊日舉措頑惡俱備根莠不鋤嘉穀不感惡人
在傍良民不安朴正甫之悖說及於死母聞若不聞知若
不知者鮮矣既非生育之母即是其父之殘畜與豕當墮

死若分寸深重則可以當下致死今此右肋是必死處小
腹是速死處而右肋小腹之痕損分寸若是稍大深重以
傷損論之則可以當下致死又不得過三日被打後步行
十里之半煙改造一個之網巾而六日後身死似非被踢
則實因自歸杖杖瘡無完錄杖瘡死條曰杖瘡周圍毒氣
攻注青黑色更者陰囊而脇助腰小腹等處有無血瘡痕
今此杖腫若是濶大右肋小腹之血瘡吻合於杖瘡死條
而上下探紋色俱不變故實因以杖瘡致死懸錄死者朴正
甫靡室靡家身勢淒涼之東之西生涯凋殘奈無守瓶之
閃掉信斧之舌酒中戲譚寔出多年主客之誼意外禍色

個為母而然則以為母之心移於其父自當爭死之不暇
 仍即逃避者此莫非故意而殺人者也遠較百惡俱備可
 殺漢若不於現發處如法償命則無以謝殘民申飭該郡
 刑杖差使之別披詞擬補致官本以迫父之灰種衆言可
 畏投身洋館而孤傲弗威謂時可乘挑聚之爭諍在於房
 內狂夫之無禮出於料外念氣彌中怒眼無物批頰逐出
 緇有逆子之踢打餘愠未解宿火復燃於劉家風波更起
 於平地稍知事理則其子之前後行兇自當禁止不惟不
 禁并力共打幸隻身之不能證拒下毒手之何其狼藉其
 父好兵其子殺人正謂此也前後情節平問之下一供輪

已作鄭女之遵路倚門迎客何賞衛婦之賣笑設或著忿
 交收警之責之何患無辭至於以殺心用殺手而必至於
 賊殺而後已哉始以長斫打之緇以石塊打之猶云不快
 乃於笞罰也父子并力父焉勒繫子焉執杖以其豺狼之
 性將肆蠶叢之毒以真木之杖不待坐堂之發蹄不計杖
 數而恣意亂打人之符毒胡至此極深雖在逃執杖亂打
 其父莫諱衆招亦然不可以免口之姑未輸款有疇持難
 故正犯以朴泰順懸錄又有疇有可殺無一可原者其
 父固念厥息之頑終有斥慶之慈過子之罪犯挺身并擔
 將陷死地閱月苦楚尚不現影倫義數敗前後行兇若真

隨處挽解云者語已窮而計亦拙矣如無告館之舉則
 自無笞罰如無笞罰自無殺變使彼至獲至毒之漢任此
 過重過格之杖致此殺變今此殺變一則由於成辰之告館
 一則成辰之坐堂而不能挽止苟究其情罪均奉順伊時
 光景坐堂者便作尸位槩之疇供難難準信在傍之金永
 先挺身促杖而渠則始終挽解初無手犯干犯之目在疇
 難免故劉成辰亦以干犯懸錄切憐沈頓乞朴千奉等一
 則為人雇工者一則東西費傭者繞經一宿該洞而見捉
 者也其疇為供說橫說豎說旋非一無可信十問無取
 管頤風憲李正由隨問納招別無可問之端故并與切憐

欺惟覆逮死可知其神目在傍惡骨已盈而然與其子奉
 順為究其罪兩無輕重實因既執杖毒正犯自歸於執杖
 亂打之奉順則獄無兩犯之故幸違首惡干犯之日渠為
 得免朴致官以干犯懸錄該洞疇謂座上劉成辰稗聞朴
 正甫之特說見念思難之此箇道理牧渠難責稍有一半
 分介則設或駭恠罔測之言出於醉乘不擇之口聞而
 掩耳可也隱而弭口可也素以浦陽之潑皮敢作頑鄉之
 周慶聞此時說鹿念陡起心神戰栗大呼惡頑之奉順使
 之往告洋館及其笞罰也任其奉順之猛杖坐堂而莫禁
 今於人命枉死之後以其掉脫之計只有座上名色而已

地字髑屍喉勒合三件成出一件給付屍親一件官上一
件并與囚徒成舟一體上送屍體覆檢後還入房中灰印
封票申飭守直諸人之寒節久滯亦好當念故崔光律張
彥允兩人等并保族於各其食主人均隣沈順毛朴千奉
等既無根者故并與朴致官劉成原一體出付該郡刑
鎖郡守自此還任緣由報告

只捧卑拙崔光律偶逢親知之朴正甫見其身軀之重多
般紋療及其奄忽通報其四寸者則別無可問之端出於
屍親之托故置之詞連并與屍親只捧再托張彥允為以
網中邀入朴正甫於其家二日留接之人而因屍親之供
有巧托指者而無關於獄事故一次盤問後不填色目貢
稅地居生金永先李明云金聖順金聖根林正元等五人
出於諸托而俱係可問之人故并令托指矣或云逃走或
隱洋嶼一不來待詞證因此未備獄案未免疎忽誠切悚懼
大抵湖民痼疾專由於朴致官輩之嚆矢前乎耳此若不
別設防微杜漸則末流之弊必將難救於滄葦之後本郡

觀此稟辭金章甫慕賢之誠誠取欽仰而此係夾政攸重
不可以諸民自顧之故而遽然轉移真是愛莫助之向事
勤孝各鄭必錫妻慶州金允孝烈事前校理洪思弼
等稟狀題
鄭允象之世篤以孝前所稟聞而知見又有此覆金之孝
烈似此卓異之行足以樹風聲於一世播芬芳於百代
特歎或夫至於褒揚之節係所審慎更加博採以重事體
向事

明禮官稅沙負韓用冀狀題

雜稅董罷商民之惠澤大矣而至於今前所收藉而不給

平澤

題辭

开山鄭斗鎮山訟圖形狀題

大抵此訟禁者曰步殺至近葬者曰坐立俱不見屍其圖
形而觀之葬之禁之果各有可據之端然張說賣山於鄭
則山是鄭山非張山是去乙乃反暗葬於已賣之山豈非
法外之故犯乎所當即令掘去是矣既以待杖掘移是如
慈辭若懇而念情勢特姑放釋是在果如或過限不掘必
當有追悔莫及之日向事

褒義祠壇長鄭昌寧泰融等稟狀指令

近乃洞安熙天議訟狀到付指令

千株植木鄭氏之供不變始終千兩償還頭民之論共稱
合當是疎在囚民放送府題乘暮到付翌朝放釋汝必無
蘊而今閱議訟狀辭則植木萬餘株討償數萬金之說果
到付放送之府題而未得放還豈有差無嚴無誓之習乎
云云者是何無據是喻汝之誣捏健訟推以可揣如此民
習不可歇勘而止若當報府懲處向事

新城浦設場訴狀題

郡稱八無無市居先雖使逆旅之官亦不無慨歎之心而
况居此土而興販資生者乎輿情既為若是商旅亦云願

非但人心無據不知公幹事例且不知竟致後悔也今此
諸作豈皆沒知覺之人其中必有一魚混濁全沒事理竟
致衆人之害者也巡校一名眼同出送為去子令前所報
來設這這推給俾即上送是矣如有改或稱拒者即為捉
待向事

虎峙洞韓道衡家事查報狀指令

事實至於如此非但驚駭其非致慎之道不可以私和勿
論且以本洞任長言之不即馳報至有官筋而後應之者
合有警責是矣今姑恭怒是在果韓景八自該洞期於跟
捕捉上向事

辨有字於一鄉久矣必使無幹即優餘力向事

內需司苗查檢時西北西面大小民人奉狀題

兩坪田苗之公土二字邑無可據而緣何混入於查檢中
是喻字號第次昭在於郡董案則其非滄業變幻亦可推
知也今待公文檢查之地官不報曰可曰否然而松土
昭然則豈或有無緣屬公之理乎必有昭曾之日向事

新昌李班訴狀內呈鄭德洙處所推苗論題

汝雖給債彼不輸款而任相反未即次折之際有承依訴
推給之府題故推給次使之同待矣汝不入庭抑何事由
是喻不可以一違之言遽爾處斷至于今日而汝以往府

藏此可謂謀成之機會也設市日子指的更訴事

勸斤里頭民朴仁圭訴狀題

向於李哥之告訴也揣知其狂悖之談而即令招待者繁
由其畧量者存及其面查之場李也誣告情節十分產無
故招待諸人當場放送至於汝矣之牢囚者非為信聽誣
妄即欲懲後者也今此呼冤特憐其情而放送是在果吓
謂汁物破傷者亦為備給無至更開向事

南面長李允種以都約長擇定代面長改差狀題

鄉約一款皆是面長之常行規則以之而副約長則各面
面任兼任何獨以都約長有此舉報乎該面長之風儀論

查辦之場邑洞則謂之甲戌創設云然姑無可據則不可
以一任葉言判決故依前以朋友例施行旗頭旗幅并令
遷給該洞向事

軍勿浦庄在奎等設場市訴狀題

場市者有邑之不可無本郡之初無一場常耶慨然即見
汝矣耶訴認出於諸民攸同之願特茲許可是在果設場
之後條規井井馴致興旺之境則何幸何喜而若反惟利
是貪效未立而弊先作則無事生事徒亂政令之罪汝矣
難免知此惕念一心共濟為宜事

小北面東堰水口完策狀題

庭屢辨之句語反為論駁汝之主見難以測量然而有指
之下遠迤是閩卡實次被告更為捉待向事

金教哲狀題

汝之情勢非不可問而此非步數遠迤之相關但入葬後
一洞三十戶憂患相續死亡者為六七名云為念衆情豈
不矜憫特為該洞生命之存亡依衆願移葬可也事

院井里農旗頭例等狀題

野謂頭例亦勸農之一方便曾經他郡或有紛紜之弊則
招致該洞座上輩論飭和辭者多矣今見此訴則藉勢邑
洞蔑視外村壓制凌侮不分先後之別是豈成說乎及其

一端大抵失其物而反被盜名其疑一也負寬出而冒夜
逃竊其疑二也當人所不能當者而誣以務農隱匿不數
其疑三也曾云取物於水京市而還向南陽矣今稱欲賣
於水京場而不能如意轉向北浦何其言端之前後相左
也然且賣却於場市者則應無取物之鞍具若其曰還於
南陽者則必不迺路之作行其疑四也託中銀簪之屬本非
鄉曲販牛輩所帶持之物則要知其裡許真贗也蔽一言
捨此日用之器牛隨身之寶物况被控惡之名而十七朔
于茲擔置於汗漫之域寧有是理乎言辭乖理情迹無據
其疑五也由此五疑不可遽斷期於擔情實訴毋或隱寬

蒼桑之變常在潮汐蒼卒之間此若不察此完策則無此
近彼遠豈能無難保朝夕之慮哉所謂二西雖曰居遠似
此大聞之事豈可越視不顧將此曉語于大各洞一齊合
力不日完策是矣或有執迷不遵之民立即從上向事

水原金殿成狀題

果如北辭雖極寬屈而胡忍開歲昨秋今春間有舉狀之
說矣緣何隱避今又未是何事理且被奪之井主自在而
替人鳴冤前後情迹殊甚訝感明查入京稟俾無時寬而事

金殿成查稟狀背題

訟之安決必從明証今此查稟互相矛盾自致訝感非止

者而此頃彼頃拖至周年今來與高景叔相詰之際有中費一千二百兩是如補托不報云汝之當初設計此錢將欲盡銷於未頭浮費之計乎高景叔之安貼手票已在於朴準大慶而進有何關於汝乎指人強盜可謂賊反荷杖一言蔽之既有上院指錫自稷山官提囚汝子云過限不納云故致有舛汙物之卸任者也今既還官往訴究竟是矣和菜物段既解魚務故姑為出給向事

西面滄內年耕作人等訴判決題

象以面報與物議考諸衆托與對質是非立判芮德敏之灌水渠苗也隱穴滲漏延及隣牟即是無妄之過李公先

而差又巧辭歸非自有當律不可容貸向事

稷山鄉長鄭養錫到付狀題

頃因金民白法作弊之隸捉上拘留之民放還事傳令一晝夜諱不待民不放其所鍛鍊去益甚焉金訴著至更派巡校之舉其在舉行何若是漫漶且見來報傷人金班執留容或可矣團飭獄牟無弊拘留後連探被傷人病狀肝謂二名隸捉上一款初不舉論以若薦官權利初無懲隸之劍乎向事

慶陽張燕訴狀題

官於此訟誠覺支離缸價中當錢三十兩統是汝之當報

平澤

判決書告示北面而長及迄乃洞鄭氏宗中

本洞居鄭恭新松福鄭恭亨妻塚事因恭亨所訴從囚恭新是在果以若人稱孝友之門未聞讓田之風反有爭山之變非徒違平日之望亦不無閉閣之恩然而事有大小律有輕重至若私掘人塚固非在耶直斬自有報府論勘而既有宗中之松和著訴且有恭亨之解放請願其在無訟之義不無斟量者存論以刑律大違經法松掘人塚欲違當律是可忍也孰不可忍也所以恭新之子今牢囚焉其懲習而然也蓋以恭新言之罪犯掘塚則宜即自現

之見其滲漏故意疏決一坪牟田便成滄海是焉故焉無妄之過猶或怒也故作之孽不可追也論其輕重牟種八石十六斗理固殺微於李公先芮德敏曾以水由渠苗不無墻角之嫌五石牟種微給之意觀云有約其餘三石十六斗給微於李公先於此於彼緣於兩人之過失以致眾民之無秋為民情極為可憫往既勿追各安其業事

平澤

報告

報告農形文

本郡農形已為次第誤報半麥者三農之資本半年之命脈而黃蠶而實全無所收設或西成之得宜米先望秋而餓殍况客月瀑雨秧坂蹂躪於濁浪之中孤苗歎莖隨以腐爛則縱得時雨之降秧之不足苗之陳廢者殆居其半見今兩朔懸崖四野龜坼差干移種者未及暑帳而旋即枯焦小暑已過初度在道而意漠然禱事无情俱極可閔級由茲報告



而晏然在家者認居門內當行之事耶是亦難測且以恭亨言之變出閨牆則宜思外侮而經庭訴官者抑或憤頭難思之故耶是莫曉也大抵同祖同源由來互美互守之地今忽日彼日我以至相爭相鬪之舉君使先靈而有知想應啾啾於九泉且使後孫而不忘必當啾啾於百代矣可不吁哉可不歎哉囚已踰月罪固足懲故特從假釋之曲為觀敦睦之效在囚齋恭新依訴放送至在鄭恭亨妻塚之還羨與否唯在諸鄭之宗議如何官不可勸之禁之若彼此之間以此諒恚措處而事

含胎者縮而不發之且或穗者萎而不垂之水野色尚青川丘黃以無幾之夕觸目所睹則萬萬慘悶之是緣由是報告

因日人軍用人夫募執事訓令到付後報告

即刻到付內部訓令據訓令內際日本兵站監部公函內際今般義州安東縣附近使用為軍用韓國人夫募集方當部大倉組委任左記各地方至意訓令相候也等因詳察民情從願募集事等因准此本郡人夫五十名排定以今陰曆七月初十日內郡守領率交付于金義郡事等因承准即派吏校依訓飭另行募集計料而以人夫募集事

樂狀報府史政文

本郡農形以未免慘歉是已為課報以是外蓋此史政之便係民園以外無敢毫忽故且郡守外各面史處是逐處躬檢以外精實執摠之是後年分應稅或再量兩件修正之水實都吏處持以起上之是也外本郡以素以濱海野地互水源以本無之且地方以甚瘠之水幸使兩傷句適以外互難望豐稔之樂以是引至於今年他之秧坂以初而枯焦於兩朔亢旱之且後而埋沒於一旬潦雨之水秧之不足以未移者居半之是也其餘則閏五月二十七日兩澤以特水退中庚後晚移者外亦節既差晚之水

行事於此不敢依昂訓辭若是鄭重期限又此迫急威
諭之廣設募集之方以若目下情形恐難偕意郡守情
踪萬萬悚懼嗣後形止鱗次馳報計緣由報告

因入夫募集事據實報府

入夫募集之節已為連次報告本郡間於畿湖以此事先
自畿邑而紛競則駭訛轉甚驚駭尤劇如聞石集之令舉
皆懷漫散之心故各面面長及洞頭民一齊批致尚確募
集之方而若從自願難募一人故參互洞之大小計數分
定使之各自募納此亦便同勒募不此之為則徒致騷擾
終無實效故不得已行之矣于今五日不得役夫一人只

日本憲兵平井梅吉帶我國通辨一人來到郡衙出示廣
告要請募集通辨即中學校教官李能兩云而役夫募集
間閱新聞已知其要請此非指名勒定係是從願則不可
以無上府訓飭一直強斥故略叙裏面不得已成給告示
派分巡按以役輕雇厚之意無異含餌百端佈諭于今尚
日竟無一人自願率皆以奉率作罷吞刻難離本郡處在
野地無他末技徒事農業故雖轄下下駄厚雇難質中已
自振威先行募集四方逃散之民輻湊本郡安業之民便
成風鶴之驚舉皆唐慌荷擔佇立中際此承訓此豈非萬
萬悚懼處乎從願募集則初無自願欲行勒執則亦難強

據南者北走北者南走錯落奔竄交像愁膝故郡守徒步
躬行此非勒募必從自願去亦非戰受雇赴役則於民無
傷之意百端曉諭一無自願徒事奔竄具報事狀以謝日
人日今民情雖倍雇勸諭實難召募在郡舉行只切悚悶
緣由報告

甲辰年分緊狀報告

本郡甲辰條年分應稅成冊兩件修正實都更處上送今
年院缺乃在中庚之際穡事失時已無更論而七八月
之間專得雨暘之宜晚種禾黍稍有庶幾之望冷風凄凜
不及發穗而霜降縞巖於寒露之前半含半吐之穗直立

以奔竄幾至過半羣情嗷嗷等訴運至迨此農務之方殷
恐涉擾民無益募集故第當據實報府以俟處分之意更
飭各面長去者召還離者挽執使之姑令安頓既無自願
仍以責立一境漫散可期立見言念民情萬萬悚懼茲以
報告特念郡勢民情查照轉報入夫募集特為還嚴伏望

因入夫募集事報府文

本月一日到付第八十六號訓令承准役夫招募從願難
募之狀已為屢報既承轉報內部之指飭後散者復運動
者稍靜訓到之前委任日人今城傳七先到郡衙入夫募
集指日要求愚昧村氓認若勒募直捉一村驚動一境騷

極驚駭故五郎年卜躬審摘奸次且今方發行云云河嗣後形止七待者審麟次馳報計科之旨七緣由是茲先報告云云以查照云云是伏望

報小北面海溢事狀

即接本郡小北面長報告內開陰曆八月初二日潮水漲水兩次海溢禾種苗六十餘石落盡數沈沒迨此發穗之時已成之穀遭此非常之災言念民情萬萬驚悚初四日子時量急風暴雨急地大作乃至初六日止息山林拔木不可勝數人家顛覆亦多駭聽江川汎濫舟行陸里邑北西面乃是素沙連坪而一望十里幾百石落田苗白浪

乾涸若干早種者發穗之後未及入實酷被虫損舉皆蹲縮掛鐘者幾稀至若未移之苗非但地本瘠鹵餘餘民情力所不及耕不趁時秧亦不足竟致陳荒勢所必至躬行田疇精實執災茲以報告查照伏望

同海溢事報府文

即接本郡西面南面北面小北面各洞所報內開陰曆三月十八日晚間風雹大作云云終朝不息이을이이潮水漲溢云云白浪이陡起이蒼海是變或云外大小年麥이埋沒無形云云高低田苗이潰決如碎이云云此迨此惜乾之時云云早主沈誠이已屬禾粟而年麥埋沒이尤

五郎年卜躬往摘奸云云年電跡所通이無不殘滅이外且上之蹂躪云尚矣勿論이是滿地熟稻卜粒粒散落云云仰天祐葉小蕭蕭空立云云自災普以來五豈有若此之慘狀乎以外被災形止云茲以修成丹馳報云云此外海隅蒼生이所望者農粟而曾被海溢云云存恤電打云云多少各穀이一無食實云云言念民情叫萬萬慄慄云云叫摘奸之條多費日子云云以不勝悚問이云云查照處分云云外使此呀號云云云得保異接之方言伏望

因稅錢收捧及上納事舉察直報庶支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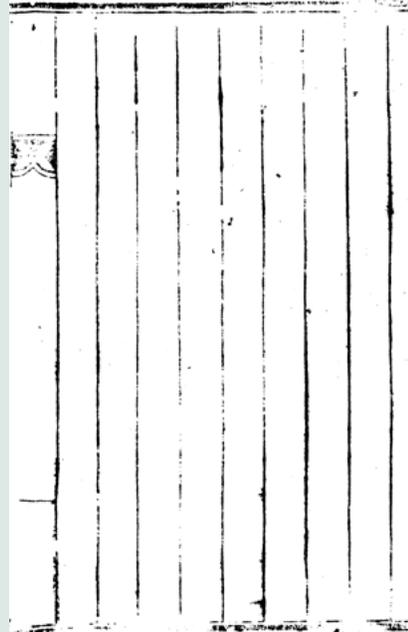
結錢之十月開捧隨捧趁納不啻新式之莫越且有近例

排空已發之穗隨而摧折胚胎之未舉皆腐爛食實無望西成永絕豈有如此亘古所無之災乎待水退并與海溢慶躬審摘奸麟次馳報計科緣由報告云云

小北面電災報告書

即接本郡小北面長宋學洙報告內開云本面이以濱海一幅上且今夏이已經海溢云云六十餘石落苗이并皆沉滅云云餘存者無幾이惟望食實이을이이不意今陰曆九月十二日叫天陰風急云云水日色晦暝이이忽地而雹이核時暴雹云云田苗各穀一無餘粒이이幸因이此迨此收獲之際云云電災之是孔酷이不勝驚駭故

隨捧直納于中央金庫有便無慮茲報貴查照處分伏望



之可操在郡舉行易鼓不盡心戮力本郡今年穡事水旱
之災已先失給而且况券被海溢又值電災穀粒之慘餓
民情之顛頽殆無接濟之望而無以貨幣之壅滯民無措
手稅錢閭棟已近一朔有萬死之訃無一分之納顧其情
則雖於揆以法則難貸故咸之論之多設方略假使民隨
提隨納新貨尚未融通則即納必是未免惡貨泉府貨猶
難又責正錢便同緣木而求魚也雖至經歲閱月恐難振
刷 國計民情俱極悚凜稅錢之移納支金庫既有定式
則不敢違越自郡距羣山至近四百里而欲舡則海賊隨
踵從陸則土匪截路其兩運細水陸俱難距京不過二日程

云故認若為公事萬幸矣未知于令何尚徑納乎令於上
却查正之日貴郡辛丑未收懸之於獎職名下碎至矣
免之境故違違如未及下白息息若無暇發明為先六十
而以每兩頭每朔一貫違得債替納姑免 重謹餘數不
日由若不準納其時生梗將不知何境若當問備之日何
殊貴獎之別庶可俯諒令此得債替納條勢不可緩晚理
不當延拖茲以委人委校原錢與利子并息駭與這問浮
費這這推送昨年獎職時雀成燒處願去羣港上納
錢縮條四十七兩與渠免食費十六兩一錢金泰鉉處願
去羣港上納錢乾沒條一百兩俱是渠免當納則何敢曰

平澤

照會

因益山郡辛丑稅錢替細事照會該郡文

貴郡辛丑條結錢未收嚴既值職亦徑遙刷納俱未清
帳獎職遺逸起身之日已納未納與已捧未捧區以別之
另成丹子一則報府一則存郡仰想閱悉未收中獎職帶
未條業已上納出尺則亦必更論而令者度支部調查現
錄一萬五千餘兩係是郡未收也獎既徑違貴則當局其
在共濟共公之義須無異此異彼之理獎職則一念在茲
恒而憂慮連次探問則昨午七八月已盡收刷出付差人

平澤

下帖

年七十以上人米因代錢頒給帖喻文

本年荒憂乃振古之耶無而今冬酷寒亦挽近之初見也生
民一大劫行將驅遣於爆竹聲中是則奠吾百姓酌糜廩
相賀慶然而窈念窮窮黎情際卒歲而益艱身為字牧豈
能無倍常之焯焯乎但長校廣履茶空言無補何哉自顧
不職曾於屢典七十以上老人及孝烈文學人許必有歲
間率以為常矣今於此郡不敢為兩截人切欲行一定規
然才鹵力綿捉余肘見種種有事與心違之歎僅就境內

不知亦一體嚴飭推送當該都吏金智煥雖是當年該色
其子昂夏自外代行令於生種之日責緣深罪責及官長
罪固當劾納必振刷在邑政刷其子自在則其父金智煥
此去巡按處擬付押送而令此責備貴獎一幾則似無稽
私宮公之理若不押送不得不報京却派送巡檢矣照亮
勿覓之地為要

平澤

傳令

因租價錢濫擇事令飭各面大小民人文

後郡之初巡行面里居民農形擊已揣知其所宿廢姑未詳
知而為先異問者貧民之報債一欵也歎先餘生末田穀
富人錢較重邊債用及其打租之場一年農作歸於報債
索俱整凍餒在前夫妻泣歎之伏難保正無先自邑下別歧
則商民卅元三本年七八月播租錢與資本并於貧民及今
秋成本錢十三兩代租一石本年一石代租二石式叔捧云
以為時勢量其利于近至三倍則何事價捧若此無罰乎寬

七十以上每負葉七式用表問儀嗚呼投河教飲物雖肥
於菲薄嘗海知鹹味不在於多少尚希領諒略茲輪告者

令申左右支社掌務負文

載盜一事有承 觀府別訓已令右社面置讖枝另加探
察使之間十日課報矣大抵匪類之假作行色非特標商
則殊常之窮搜讖詢何獨右社乎且本郡泰以一境標商
則少觀於各洞負商編多若於載盜同心戮力則力不
費而功可倍矣 茲庸別躬各面各里必以勤幹伶俐負標
商中別定讖枝調察跟提之節一依左開舉行毋或疎虞
生搜各洞讖枝姓名即為擇報以為自官成給差帖之地
今此令示輸示各洞後揭付通衢壁上以為常日之地宜
當事○再讖枝姓名到即日兩社掌務負會同商議立

厥牟利之習宜有施罰伊時情景情用者非也故姑為安
從捉致嚴罰後邑各洞頭民與諸官屬從公會議則錢與牟
其皆長利例施行安當眾議歸一租錢十三兩價還十九兩
五度牟一石代租一石十斗也木租一石還報一石十斗式
酌定并以代租從時價備報且昨春債用言之則昨午歐荒
前所罕有於聞其瀕死民情甚重 正供之隨時停捧于今
未納使使多錢射利者滿其慙而連捧式昨秋利者功勿舉
論始自今秋長利收捧而有所從公決定之後如有不遵者
捉致嚴懲報府嚴辦矣俾各惕合輸示各洞後仍揭掛壁各
洞到付形止這報來者

者也該讖枝施以知情之律以此若武各自警愓事○今
此洞置讖枝設法載盜即為民除害之意則豈可一任負
標商而該洞頭民洞長晏然不顧乎一洞綢繆齊力若不
勤調察致及勤罪之地該讖枝及頭民洞長一體當勤矣
以此另飭於各洞事○逢賊物品之計數分徵於附近各
洞既有載章程前已佈告則民亦稔知矣如遇此境依章
程分徵斷不可已亦復常目銘心毋致後悔事○各洞讖
枝之載盜勤慢閭里行旅間賊警有無本掌務負間十日
考據課報以為報 府事

因律判章習未多獎措辭令飭于各面

即擇定後修報次○無論某人察其行色如或殊常問其
居住及因何事往何處秘隨行跡轉進前洞使該洞讖枝
又復如是次次跟隨越境則止該人若或指東而向西言
與行不同此果殊常者也然後詰迫頭有可疑之跡即為
捉納官庭事○以流丐言之瘦瘠殘疾聾啞瞽聵等不遜
者之外若年富力強肢體健全者托以乞糧出沒村閭威
脅吼喝者安知非匪徒之畫行夜伏散則為丐聚則為盜
者乎另加詳察亦即捉細事○無論行旅與村里如有賊
警該洞讖枝煽發洞民率眾追捕若賊在咫尺警在隣比
而有若不聞不知又或力少難及恬然坐視是故知情跡

明多歧廉探難開真的之跡其在尖折疑感轉深根因之
有無究竟之如何必無不聞不知之理矣與本面面長詳
查從實報未事

目巡杖作獎令飭各面大小民人

大抵巡杖之設置專由於警察保衛民產者而所謂
本郡巡杖輩初不解警察保護之如何樣而惟從事於侵
漁誅求一出民間呼冤浪藉故除非重大事件一不出差
凡保民事審理或派主人或替狀民未嘗不未杜其源矣
稅近巡杖輩不帶公文暗白出沒執項平民討索錢財窮
苦蕩產惡聲載路云此果令老生奸而官不能緝飭而然

習遷交易各有其所有場市馬有客主馬隨其物之貴賤
而論其價之高歎即閱俸利輩設席於各殺出入要衝之
路不計貴賤高歌呼價輒給遂則勒買山隅田區便或人
海場市疎闊未見爭追此秋闈殺價之若是翔貴安知非
不由於此乎此不可怪然置之故茲以令飭自今以後街
路買殺一切嚴禁如是之後又有冒犯者該殺出付客主
待處分措處當該犯者別殺重繩惕念舉行形止馳報事
因虎時洞驛道衛家傳令
本洞居驛道衛韓公益家有怪底事有所入聞而事保慎
重閱極驚駭即為捉囚者已過三日而尚無當者之一訴辨

李俊京船隻夫同俊京橫罹於匪夫外叔李用甫之京債
上納米二十三石竟至欠逾後以船隻計價替納而該船
新買人本洞張燕不洋越價以致上納之生梗故移照稷
山捉因張哥對查質辦後督納船價而延見渠之訴狀則
橫豎說去全沒頭緒故已為題送狀辭中耶謂浮費云云
者即不過船隻推還次幾次上京之費云而既知其船隻
之相左欲有還退之心始終延延多殺動費抑何意思既
已是船則惟當還推其先給錢而已及其自京賣船之際
張哥趕進京江稱以乘之船隻使不得放賣單竟還治本
浦之後無意越價欲以浮費計除然則此船隻終歸於張

獄言念及此極甚痛歎諸巡杖為尤嚴杖懲勸茲又別飭
從今以後官隸之出村也先索其常持之贖如有公文但
行禁藥而止初無可據立即捉納禁杖局亦在警察而
若或不告官庭擅行鐵鍊者是亦法外也此後改技徒輩
雖或登時被捉如無公贖耶謂贓例給一不酬給以待
官決而愚昧之民恟於威勢拘且頗私右項諸現仍不遵
施而反至刑廉當該尊位洞長難免違令之罪該民與巡
杖良亦以同律懲治矣頃各協念將此揭壁感頌知悉事
因村準大船價推尋於張燕事查質于本本洞文
本郡所內在院院上納米二十三石裝發於本面居

因雨後移秧事令飭大小民人

初夏以來一直九旱四野龜坼暑刻可悶一帶甘霖慰洽
三農官民歡忭莫此為大迨此節晚穡事速畢然後可以
占有秋之望而竊念窮節之勢富人近弩而貧民是憂也挽
近以來俗習頓忘隣誼探取微利耶謂喂牛者是也溲耕
緩畢願赴於他洞勢家之捧贊不肯為此隣窮戶之使雇
自括廢農在在不無言念及此豈不慨歎自今各其洞齊
赴助後俾敦隣誼見今狹事耘政俱係當務則亦不無力
分未及之歎早種先耘之習一體嚴防俾存從次第隨先
後之規至若無牛之洞與其附近洞里知好相議務從公

哥更得之物上納將至烏有而止乎且以艇價中李俊京
處六百兩除給者及其艇隻是非之後不為出給還充公
錢之意已有宿約俊京則分錢而未推捧而今以艇價一
千六百兩先給之意具違欲推者是何人臨以具違專說
言之艇隻未不還推則容有其說艇既推給而渠自還退
之地有何違利之暇論乎事事念互究說不得故茲以傳
令本洞尊洞與某某知事之人齊會爛議訟理之如何張
哥之枉直邪費之幾何具意見論報未是矣浮費之邪
入幾許洞中雖難的知該艇涉格則必當詳知耶謂涉工
專亦一體會查俾無錯誤於決截之場向事

入呈之工未暇判給而經庭許府之改違章程則累承
部府嚴訓之日雖曰愚昧外開令已久之何以是執
迷不遵乎嗣茲以後之白紙或單張訴狀之一不接受之
列之無判失書往先上訴者之別般懲治矣咸復知悉之
事各面示

同治道事告示首校

向日沿道告示中有濫漫董勸延校之從重懲罰之語之
且日昨官行北路川又有西騎申而所謂修治者非但
于居一二外其云修治者草薈引還難之工界限引漸縮
之水坦坦大路以便成難收狹路之工而邊田引之築高

平實用今此令申視若文具執迷不遵之民當隨其摘發
施以重辟毫不容貸不能察飭之護尊洞難免嚴懲矣倍
萬暢念令到形止各即報來事

訴狀繕呈事告示

凡訴狀卷以印札紙豆兩本繕呈之外一本并存案列之
引尋常白紙或單張來呈者之一不接受引立不受理
夾書之工經度上訴者之遵章嚴懲事務務
凡訴狀紙本卷必以印札紙豆兩本具呈之外一本存案
憑後之引而復不服事案之或給判決書之引以便上訴
列之忌茲有違章而尼心之習古之引尋常白紙單張

且水陸之要路也亦開防之緊要處也外若通湖西大海
之左連安城巨市之川水產佳品以足可都會則足許
大開曠川未能發達之小見今交通以名存實無之且豈
不可惜也其擴張之小自本社立新設場市於軍門浦
之小以便留運則之即一壯觀也且平澤川本無場
市之節之立百物交易每多遠赴他節之小困難莫甚
以此聞此設市之之闊境人士之無不皆有歡喜之小歸
市者將如水就下之小從此物產之輻湊豈可見之小
場市之擴張豈可期也外望瀕水陸商旅之不較遠近之
之顧慮於此市之以一毫無困苦之慮之二十倍有與販

如埋之且一線路西之水敗成川之小一步難涉之小此
可曰有官奉公之道乎外按以舉行則良覺踴躍之小慢
不舉行之之觀校之固當嚴懲之小姑觀來頭之小別飭汝
矣之小先自南北大路且以至各處司依舊界限之小廣
濶坦治之小列而遠作溝之小且中而付之小之小則凸填凹之小
形如覆瓦而修治之小亦亟圖利涉之小列如是別飭之後
則有或末盡處則汝矣之小折當別設重繩矣之小以倍萬場
念四事

代平澤停車場長許斐里次郎廣告

宗釜殘道中平澤停車場下川軍門浦之即畿湖之交界

越而發無非從酒技場出來矣另加嚴束事一物之貴賤
自有時執或以歇價抑買或以外上勤執轉生響端者一
并嚴禁若不聽從捉回署取即為馳報事一即屬之無端
而進於酒肆技場行止不似者非但痛禁指名密報事一
市在鐵道之傍所謂後夫輩之詭譎致人難保必無矣列
缺嚴禁事一財之未往盜之隨後亦是必然之執也而况
今新設之際遠近人事無不踴躍而管中不無殊常者之
況難矣此則到底注目十分譏詞被則捉納官庭急則往
告于日巡查無或疎虞見漏之禁事一較價改必當聽於
上下市價務從公平籍托新市不可偏厚偏薄致有民究

之利矣之不亦美事喜

軍勿里尊位洞長監考處新設場市訓令

本浦即畿湖交界水陸通衢往昔與旺之地今作畧寂之
村多年開曠久未發達浦運回泰物議詢同自今二十日
行將新設場市云以若無市之邑足可側耳之聽其能克
念克勤倘可有始有終行望未效夫新設之市禁網疎濶
非徒為實反致生梗許多弊端從而曾疊矣其不得不列
加糾正故應行條件左開發訓汝矣三所住周行檢察無
或一毫疎忽亦當有別慮之道場念舉行事後一新設之
場耽酒賭技雖不可一坊禁漸甚則乃至末君之否也殺

平澤

條規

申飭考卜書員條規

結者國之大政也不念法意收重每因奸細輩謂以移去未許多作奸認若茶飯其所謂引卜預防已無可論甚至於難捧債錢雜杖錢酒債等付卜之弊居多莫重 正供歸於舊藤言念事狀寧不痛歎今番院第當依筭板結作伏矣以此知慮而加或有應去應來之卜備畫昭詳難把表之微無得錯誤大抵罪事

無論其公錢依舊如妻即納公定受訖尺以去而若或該

事一越津沙工之私價濫計其弊已尤痛癢故曾前送武非止一再而近日則愈恣愈甚暨又曾生呼竟浪藉沙工錢漢方在校因嚴勘越津私價各互物情量宜足給此外又或濫捧汝矣一一查察各別嚴禁第一步行一人赤銅二分持馬人赤銅四分牛馬卜馱赤銅七分空牛每匹白銅一分騎馬乘轎以待行下處分不敢言私價事

色廢私相與受至於絀露之境則駭雖已袖無印尺者必當再徵於該民後嚴懲之意而面申飭事

橋梁道路實是官政之所先生民之日由也必為到底修

算無至行李艱險即各洞之應行而日前官之巡面時親

審則或有如于修治廢又有拋置不治廢種種有之當此

秋成之日逐路修治時日最急必於各該地方任掌廢

明申飭期有實效無致後悔事

各洞之文學人及生存孝烈誰某姓名錄來事

酒及雜技與富主誰某及浮浪悖類一一探來事

各洞或有古蹟之可聞可言者其皆昭詳探聞錄來事

여 백



부록



총쇄叢瑣

제20책

영인본

오횡목의 문집 《총쇄(叢瑣)》 소장처인
장서각에서 공개하는 이미지를 허락받고 편집하였습니다.
영인본은 윗줄 왼쪽 오른쪽, 아랫줄 왼쪽 오른쪽 순으로 편집되었습니다.



叢取瑣子

총쇄 제20책

평택연구소 오희무의 사문문집 《평택 총쇄》

叢取護選平澤郡	
書	目錄
與公州觀察府鄭主 <small>事友</small>	答鄭昌寧泰珪書
與方五衛將大轍書	答鄭昌寧泰珪書
與鄭昌寧泰珪書	與姜象奉蘭秀書
與姜象奉書	與方五衛將大轍書
答勤孝谷李雅炳佐書	答禮山姜營將源會書
答方五衛將大轍書	與洪校理思弼書
答吳主事敬默書	與許舫山薰書

答永任書	答全注書鳴洙書
上閱輔國學部大臣琴 <small>來台</small>	與司稅局長李健榮書
答李委質喬赫書	答南委質泌祐書
答李雅士昂鎰書	答鄭昌寧泰珪書
答鄭雅竹醒闇教書	與鄭昌寧泰珪書
與鄭雅竹醒闇教書	與觀察府李主事漢容書
與鄭雅泰珍書	與鄭雅醒闇教書
與姜議官永元書	與李廷日晒權書
答方碧下大轍書	答吳主事敬默書
上閱學部大臣書	答洪校理思弼書

頃報幸望俯憐老物病情之末由善為僥倖期蒙頃免之澤則何莫非執事仗賜乎至望至望餘不備

答鄭昌寧奏書

座香衣歇函雲忽陞已極故儂况斛斛瑤瑤一時伴至擊讀詭味令人恣因何陶謝泔菜咸萃於一門也壯哉壯哉謹當存之几案暇之無射矣敬請夜禱愉省棧體節益旺仰禱病萬記下一例前者他無足奉潤訖耶云十區臺俗薄事簡若無消閑之法作此無事中心事既成之美亦不可遽已幸有耶錫然直是吾以名吾亭非欲使人聞之豈意竟頃榮聽政有撫髭之勞耶白幸之餘主臣居此耶謂

平澤

書

與公州觀察府鄭主事友燮書

向昔奉晤居然春盡每欲一書仰探而直恐無益寒暄之間有妨聽故茲以未果然歎悵則尋常懂謹詢此辰任體節一衛萬旺榮閣諸節一向康寧并均遠慕不任記下向自馳進行以後再惠甲瓜瘡因之益肆起行甚艱中重以風眩之祟往往暈倒瘥衰也甚私憐何喻託令伏承箋文預差負訓教伏舍當此慶會雖非因公果有趨造之願况此天借之機會乎奈何病狀萬無動依之望茲敢冒昧

答鄭昌寧奏書

在阻仰誦際承惠存慰感殊深擊害此天省體萬旺懼稱區區記下一味踈慵必無足奉潤耶謂韻語道聞中未定草何從而致煩崇覽耶既已入鑑蓋賜斤正而只以例套塗抹也仰呵仰呵夾教認出崇賢感議曷勝敬服但此係名目自別之物則有不致顯示許意稟目之題且當執此而為之矣若其旋輪做到得事狀十分無虧欠則何幸何喜此在倉章甫咸算中第當拭目恭俟矣耳金剛遊錄茲奉完不備

答鄭昌寧奏書

臺之主作之而已至於題諫姑未思到而向於訪戴之四耶構者及春盡日臺上所得者令於先施之地不敢自外忘拙呈上或賜勿靳介教則又何幸如之耶座護始此敬復

與方五衛將大報書

總因首振得十區臺記讀之其舖叙詳於作臺者而粧飾潤色使十區得幾層十區動問知自何未然後始知如令執之實在茲州而聞之未早又從以知懷球抱璞深自輻晦之為尤可敬仰息於識荆之願茲不避未面先書之媿恐未知如何耳仰惟清和令體護旺深所仰禱記下稟情不一殊不知邑小事簡耳餘留不備

樂善奉書

西似過當謹惟夜謝上堂體讀康寧愉省使倘無昨日應
耐餘瑕損石深庸貢禱記下後經大嚼繼又安寢現狀頗
自惺惺耳就此呈韻語荒拙無謂而慶賀之不能自己忘
陋效頻晒覽而介教之如何餘留淨土普拜不備

與方五衛將大報書

夜回謹惟令體護旺仰頌无射記下依狀耳就孫兒親事
享荷勤導至承領許益起呈使而使之先造責耶幸望帶
臨金氏家隨事指教如何剛儀此近無此例云故置之耳
留不備

與善奉蘭秀書

敬承審麥涼省體康度神旺仰喜仰喜記下一依前謀已
耳就詩文之芻奉讀牙頰生香臺園增彩為賜良多美止
百朋之得而已耶褒義壇記既詳且暢讀之不覺擊節意
欲奉置案上時後觀說流灌曾抱計矣容俟幾日如何鮮
惠使枯淡者加餐又何感如之耶留不備

堂舉壽酌天又喜而尊家今日之慶可謂圓滿仰賀仰賀
謹請壽堂體讀益享難老彩舞供歡掬得幾般慶喜也獻
祝區區記下依狀而旅厨榻腹待今日果然矣天賦之奈
奈仰呵仰呵留不備



已再結令體節神護康迪備寓凡百得無太止疎之數至
種種仰禱之摯記下宜休不休塵靡康傳尺自愧歎已耳
未此後與貴族奉壽可謂深源而杜令執一未語到實緣
闊別已久幾半記未得故也早晚聞光晴之教好事了好
事了而直惡做時不如說時耳此邑邑小無事惟以花卉
尋自娛且有取得醉石古蹟而因之記實為文此是此未
之取做事也茲錄上或可為一番博聚之資耶萬萬非促
膝不可都留不備謝禮

答方五衛將大報書

一 敬承審體安仰慰仰慰昨石記他賜茲此欲寫未能何措
留不備

答勤孝答李雅相佐書

阻餘惠訊喜敵一面擊審此辰體字神旺喜愜仰禱記下
日長如年欲效哦松之頌而每有末由之數奈何純呵純
呵純感作詩文一回奉讀如聞仙樂十宜景物全而得品
題仰謝之餘自喜之無已儘乎文人手段能使人鼓舞也
何當對展政功俟仰餘留早晏不備

答禮山姜普將源會書

自何一書葉省為難及所視三字而右始知為令執而達
師奉晤依然已十年前塵擊讀一回欣帳交并但書發在
三月而今始得到未知何處喬池致此也謹不審而後月



金不備

答吳主事敬默書

別來帳仰有倍於未晤時。朝於仲至。憑窗體節神旺。宅內
單安何等。慰喜之至。族從依樣。是顧唐人而壽孫親事。二
昨利成。而一節極。昨私自喜。幸耳。就兩篇製。作洛下。鉅匠
前。豈不知而此來之。述尤覺其纖錦成章。使醉石宜。臺藉
而益彰。受賜大夫。感蒙僕僕不能已也。然而者。警與詩境
若無同手之作。則豈無向隅之歎。耶。幸望毋拘。某文。體。隨
感。意。撰。出。以。惠。千。企。萬。望。耳。伐。柯。之。托。其。間。果。有。教。廉。議
及。姑。無。快。可。慶。第。當。廣。探。必。得。計。然。早。晚。未。可。的。料。諒。之。

高之至此也。甚感甚感。板本書。豈料子。數之。出於。王右軍
家。耶。賀。不。一。賀。耳。不。備。謝。

與洪校理思淵書

阻久。磨。頌。不。書。此。辰。躔。亨。康。迪。仰。稽。仰。稽。記。下。依。狀。已。耳
既。獲。義。壇。便。間。果。苦。竣。耶。徒。矣。檢。今。已。久。或。有。免。去。者。或
有。全。然。不。未。處。其。果。自。外。有。周。旋。之。道。而。然。歟。然。則。何。幸
何。幸。近。日。苦。無。消。遣。法。使。侍。童。在。傍。讀。書。倚。枕。而。聽。足。可
破。寂。矣。耶。讀。少。微。史。七。卷。已。畢。第。八。卷。之。未。得。未。免。停。讀
渠。之。浪。度。不。足。惜。而。郵。之。歐。閒。無。方。可。閱。實。件。錄。或。蠹。壞
亦。似。無。妨。暫。為。惠。借。則。此。不。出。旬。日。間。奉。還。錄。之。必。施。坊

蹟而埋沒幾百年。今始出焉。譚者謂之異事。咸欲記實。以
傳。久。而。姑。無。能。手。未。之。耳。窮。欲。以。此。仰。托。而。有。所。未。敢。甚
歎。甚。歎。嗣。音。之。路。此。去。季。念。必。將。有。本。第。便。因。此。或。不。至
寂。寞。否。唯。萬。加。頤。盡。副。此。遠。忱。不。備。候。禮。

答永恆書

即見手。畢。甚。慰。阻。戀。書。后。有。日。未。知。省。事。一。依。家。中。俱。告
違。念。不。已。此。中。衰。狀。如。日。下。山。是。悶。是。悶。但。曾。壽。之。婚。過
於。此。鄉。想。野。聞。知。而。一。節。甚。好。是。幸。耳。汝。之。子。婚。既。已。退
秋。而。女。婚。至。於。納。采。定。日。利。成。耶。素。無。之。地。隻。手。之。勢。其
何以。措。備。想。多。艱。繼。矣。在。遠。不。能。同。憂。可。歎。可。歎。從。述。便

如何餘歸。武立。促。不。備。謝。

與許躬山董書

一。自。判。秋。奉。拜。無。由。至。於。書。尺。亦。莫。之。憑。難。此。奔。忙。未。嘗
不。東。首。默。然。居。然。歲。月。滋。多。謹。不。審。觀。體。節。一。衝。萬。壯
替。弱。者。候。水。為。平。迪。種。種。仰。溯。不。任。勞。禱。記。下。所。謂。宦。業
便。成。鷄。肋。前。秋。自。全。為。移。茲。凡。百。粗。遣。而。苟。操。殘。薄。較。甚
於。真。城。所以。開。通。無。敵。為。之。事。春。間。拓。官。園。築。臺。名。以。十
宜。時。與。石。醒。命。酒。對。酌。輒。復。語。到。黃。邊。恨。不。得。有。以。諒。照
耳。且。此。郎。舊。有。醉。石。云。不。知。所。在。偶。然。試。搗。得。所。謂。醉。石
者。刻。古。篆。醉。石。二。字。而。石。品。青。玉。可。寶。愛。也。此。蓋。此。郎。古

強作事理人情大未安之舉耶吾意確定復諒此意彼設有誘脅更挽之端惟以好言辭却至可至可且以此紙輪示洞中辭事貪負必以同舟共濟之意酌定雜辭色之際勿勿示以罷軟先卧之狀至望至望至於隨機彌縫一汝足矣如吾在遠何用虛念而已耶心枕不多

答金注書鳴誅書

日前因閱雅士獲奉威作十宜臺記輒感不鄙方訟稽謝即又惠然垂訊驅之以先故文字驚喜歎作殆難名喻純審此曠僑寓體家神勞康地區區煩煩記下一味澳劣有不足奉瀾者耳野云十宜臺初亦閒中自遣之為而至荷

通奇京第使有幾許間野送計而以若窘甚無以如情只切傷哉之歎已耳野謂三人以山地事云云聞不勝駭然沈本見遂於武營佩錦浮浪者而今其以禍福恐動真見其浮浪之尤者也汝之以好言答遂真是善措處而慎雅之讓與無妨云者雖是地乃吾家之地非洞中之地故有此緩好之說然若至於他人入葬之境則豈可以一洞要害之地白奪於人而不思齊心并力乎且曾聞此地嘗有營葬者以石患狼狽而止云則今此金知事見欺於風水輩有野營擬然必將浪費覺悟不禁而自禁矣今日吾家之義只當好言宰非以待自起自滅何可以不當細之山

即懼望于禮以秋間為之伏計而怡泳則不如此久留故見方還送京第耳餘留夾不備伏惟崇下照

莅任後公核間合有一番上京而三郡督納尚未一分推尋緣此而利條與許多浮費又至數萬餘兩自顧私分非不知知足而到今事狀莫可奈何野以攢石握過姑此躊躇仍然畢竟則將不知至於何境自以為一平生謹慎者至於如此寧不究抑乎此箇情事業欲一次面達而一番之行雖略略計料野費不下一百元茲未遂誠只切伏歎

今年早事出於麥歉之餘民情違汲雖是大同而本郡

飢墨潤色之勞使一尺土尊便成登雪巖之李端端後賜固已多矣况春西室記舖叙有法境情兩盡除非妙入神之筆何以能描寫如身遊其中者乎以若黼黻之章重之以桂籍者名而沉淪避外未免以不平自鳴天之困丈人久矣可勝歎惜那當合席穩叙也偃室之樞詞不敢望而山陰之與亦被早魃敗了苦事苦事都留早晏而奉不備謝禮

上閱輔國學部大臣琴來台監書

久關修使胆庸撞撞休不審早炎比劇侍中崇體候履嘆之節近復康旺伏慕不任下忱下生姑保職狀而眩崇終未快桂伏切私悶而三探怡泳今初一日過婚於此解一

嗽之或倦不思見此將奈何能益山稅色金鼎夏提上事
因家書聞又發訓兼送巡檢云伙不勝感謝萬萬而其間
則未知如意擬來耶更思之則必不無自下謀避之慮此
必另加方便然後人可提而錢可推矣幸望到底軫念期
有終始之惠千萬懇乞懇乞而見益俸四哥則謂以何名
色替納云而辭語無非譏笑弄嘲以其本事則彼之所當
逮及於記下令反以悉報德寧不痛歎哉大抵此條自度
支觀之則雖曰已捧而有益俸觀之則乃是未納也雖用
記下之例拿而推之亦何不可乎十分另謀濟此瀆死之
命萬萬希祝平澤稅殘今幾單帳而以竟真益三郎替納

本無水源必得兩水而後方免未移之憂而自初五月
初一霖雨之後迨無滯塵之沾如干垢移已至龜圻其
餘未移者甚至於杖板枯白今雖得兩年事已判歎無
况天意邈然若加之以幾日則豈殺之屬亦將無秋由
此而市直日翔有錢難買云日下危癩之狀若將不保
朝夕萬萬憂懼不可形述

與司稅局長李健榮書

省禮近久阻候瘡頹靡日不憧憧謹不審比辰劇嘆哀體
第一街萬支公務能無太愒神用不任區區仰禱之誓記
下寒瘴困喝無足自憐而麥畝之餘日早又如此溢目故

此依樣度了春卿未留未幾現又還京在明再明聞耳石
醒之言曰同居洛里自多合席之日而如吾復見李怨泉
恐無其日其言足令人興悵耳日前過孫婿於此鄉而孫
兒方偕春卿上送耳髮都留不備禮

答南委負泌祐書

去三月因本郡人上京便修覆以付吳近日其人還納那
書云病未末京行雖緣事勢歉懷之私無容形喻茲更修謝
而安望諒及實狀耶思之愧怍謹詢此辰矣曠該體節神
樹萬莊責第安信續承而榮務果有實效耶仰頌匪匪記
下眩榮尚甫已極自憐而麥畝之餘日早又如此前頭事

條二萬餘兩尚無一分斂收捧利息也浮費也可謂齊大
於腹情勢苟非存亡之境豈可以此等悲辭苦語煩肩於
榮聽耶勿答怨詠如何餘不備疏禮

答李委員喬赫書

阻仰憧憧之中獲承惠音慰喜不下對展閱又有日更不
審日早孔醜體齊萬莊單內均謹仰喜貢禱而天水之覆
敵年之憂實不勝區區仰念記下也無足言而最是敵憂
溢目現方如坐井裡此將奈何能申委負復職何喜何喜
而各委負所道條何而恬然至此也此不容不推尋然後
可先生搜幸諒此另督期於出稍功企功企石暇四月未

餘不備謝

荅鄭昌寧恭珪書

即承審允瑛調體高遠康復雖知非時日間收效之惠而尋常負待果是賢際託下因賜轉劇不能無不病之痛殊憐何喻能春兩室頌與詩靡字中何以致此動擊感蒙衆以名謝心醒翁及松菴弟允并有製示同非全意指收到俾我先齋留作不朽之寶處謹當銘之襟心永世不敢忘矣耳餘不備謝禮

荅鄭雅竹醒閣教書

偶爾裁刺尚庸充然又拜不較先施益覺風沉儒雅亦吾

漠然無津夏數奈何問鄉歸耶奉際無期只將尺書替伸聽書蓋復依黯都留不備謝禮

荅李雅士勇弦書

向函追慰而特謝悵仰謹不審日曠此劇靜體卸一衝萬旺仰禱不仕區區弟衷狀轉甚已極自憐而早事如此憂懼之狀如坐野塊奈何能向書之尚爾未謝容使可為之道有多少問仰副之計矣麓其益三郡替納陳漸生曾卿左右塗抹汨沒無暇至於敘情等事更難措手墨竟則未免空簡修正此等事狀安可望諒及海濱耶思之慙怍無以形喻不熱則弟豈為泥俗甄甄輩耶想或弟之深誅耳

專音京第送來者也至若來禽差早微酸然既認有求不得之語故如是清菓子一封亦件上或助激藥之資耶竹翁旅節一樣錦典製作日常三復益覺其言之有味思欲一接芝字向書有野懇邀而讀書朱扉之行請之者固妄矣奈何然而前既不惜文字之惠後何必深靳破戒耶幸一勸起俾遂願言之私如何餘不備

與鄭雅竹醒閣教書

穹蒼德大一兩沛洽謹詢茲者旅體萬旺仰禱仰禱記下猶夫前昔耳向以妄想率有奉邀之語非不知此非遽易之事然神交默契自以為已到無間故如是者也天暗路

師也託審早天殊體節萬旺允樞仰禱至於清諱雅謹慰解主人之病仰認其利益多做了實地上一事此諸全剛之遊勝似無美駭賀獻賀記下合下踈嘯過此悠陽不如賦歸之久而乃反藉棋於五柳醉石之間有差效測明之嘯者寧不愧歎耶託悚示詩若文奉讀一回如入武庫清霜榮電令人凜眩姑不敢如何名狀幸望勿嫌坐屈一賜允願獲逐願學之核掃榻專等耳萬萬留而不備

與鄭昌寧恭珪書

兩斯善洽慶喜惟均謹惟春體度因此有醒蘇之漸耶區區仰頌記下依仗已耳就此呈幾種果品向自貴野還後

此頌慈幸望另善修達俾蒙頌光之處分千萬企仰企仰
餘不備

與鄭雅恭珍書

省禮似聞間又遭菌賊天不悔禍胡至此甚不審近日潦
熱侍餘服棟體不暇有損區區控禱記下寧城之行飲暑
作案圍圍不振殊憐何喻就此呈三疊輓詩雖甚荒拙而
傷惜之切無暇計不媚茲僕衷曲幸望領收如何石醒詩
亦伴上而不別作書庶或休咎耳餘不備狀禮

與鄭雅閣教書

閱畫胸界絀之溥暑此際旅體不審無損種種懸構生檢

淨即一賜枉切企餘不備

與觀察府李主事漢客書

聞頗阻候詹詠懷中因官報伏知宣堂運期有期兼有
橫來之遭依仰之餘恨慕化功護不審此日庚熱仕體第
倘不以援備有損去留亦云何居也不任控禱之呈記下
今伏臥天安那事覆檢秘訓業當奉行之不暇而向於早
毒中遭瘴屢直轉或痢業首尾一望漸敗無餘以此病情
萬無餘事之望且本郎所謂史筆至於從事等上全沒方
白設無病未能之故果難披檢檢事茲敢修上防報豈不
知事保使重而寧伏承嚴訓不敢自恣枉僭事之科故無

色白而鳴善者具雖以施則得其尤而置之為計并諒如
何餘不備

與李廷日兩權書

設蒼露白伊人之懷政勞謹維九天全體精神旺茲花汀
洲秋興想佳區區仰湖記下依昨已耳訖今二十五日
萬壽聖節設小酌粗伸微悃計幸以伊日暫在國慶陪樂
如何為此不備禮

答方碧下大轍書

乍但甚張際承惠訊感慰可量訖審此內全體錦旺恆喜
之至記下依昨已耳既魚鮮何從得之至此映念無示服

竹才還餘圍惜人悶憐難狀奈何昌令長逝久愈傷盡謹
構輓詩三載以寄松卷而蕪拙不能盡意只得咄咄書空
耳今掃那間動得計也滄炎如海直落未易矣幸於午間
光顧以續未了之紹如何企仰企仰餘留不備禮

與董議官永元書

近久阻音詹頌政勤謹請晚映令體韻康旺京株安信間
果得聆想切依閣記下依昨而最所難堪秋夜漸長嗟而
待晨思得鷓聲一快而此不可得良足笑歎似聞費里柳
氏家有雄健善鳴之白鷄白尤可奇矣以價以搜聞求惠
則第當依戒重不為荷愛同科人矣仰呵仰呵貴婿如有

迷藏之戲金弁指而笑曰似彼口乳婚是何說云吏吏以
事狀歸說一統於此未宗此此蓋只聞有閩秀不知其裏
許之如是故也然則更何足掛齒牙間耶一番虛行還切
代悶已也至於允玉親事之托其間果另注廣搜至為三
教慶而一無可意者然此是我一債也何敢忘諸心耶諒
之如何石醒一直恭平而深感其書中間及襟耳餘留續
不備謝禮

上閩寧部大臣書

久闕上書下情惶惶伏未審辰下秋氣漸涼氣體使一向
萬安老安堂寢啖之節連為康寧并切伏慕區區無任下

用扶元之方其為緊感美但佐錫而已哉明日之掃書中
可不提到也掃榻專等耳留不備

答吳主事敬點書

阻閱潦瀆漠然無嗣音之路政功磨烜匪意獲拜大函慰
感喜駭難盡名狀仍審秋涼備體動引節神護萬區尤庸
愜禱之摯族從外似閑適而內實熏懣以其諸慶替納迨
未究竟故也但家信續至備知無故耳純香簪大作竟荷
製酥使一團羣芳增光動彩讀之不覺老然感祝祝祝教
采婚托此本性非野能而鄭重難孤權送在囚能言之吏
使之探詳則金弁有西女一六歲一十三歲見在場中為

達超脫此境過只在一轉移間而日居月諸餘生漸迫
此將何如而為好耶怒燭伏望

伏念小人賤宦日邁餘年無多野望者只是迷息輩梯
進之榮及見於未化之前而階級如天惟俟教到矣今
伏聞俄語學校教官有以判任叙 奏任云矣則其他
各學校亦必一例矣以漢語學校言之迷息克善以首
教官例當叙任而有有力者在則不容不汲汲自旋然
後事也年前亦因語學教官 奏任說往告大監前至
承為克善 奏稟周旋之教而以克善其時卒業後未
經判任之故未果而事亦中止矣今則不似前時之無

誠之至小人夏間以眩氣甚苦失至口味欲試葷料無妨
而此近則有錢難買伏歎何速餘留夾白不備伏惟崇下鑑
今看 聖節業當上去而非但眩氣之難強實緣往返
之費無可區處茲以停躡當日略以酒至速鄉父老為
粗伸微分之地然私情悚感何以伏達

賤崇眩氣苟究所從來則都是債帳一款也年來替納
空費為數萬餘兩之多勢固無奈而報債都無其術每
念到邪頭神昏氣塞不省如何所以強名之曰眩氣然
其實憤病憂惱致然也自以為一平生謹慎而野得只
是債積如山凡此情由向何分訴乎只切悚懼何以盡

日凡係量事另加周旋情面務從便易野後野到頗有
至公無弊之稱伏幸而但量錢本郡野劃為二千兩而
公錢上納舉已了勤無他相撐之道不得已布無暇
顧窮鄉民情日前發令隨野捧出給伏計然此亦為折
半不足矣勢將致生葛藤乃已伏款何違

荅洪校理思弼書

座香未歇函雲忽墜擊審比京省體節康迪匪區惟禱之
擊記下伊日一暢既幸 天恩而縷絰一宿依舊是潸歎
人已自憐自憐能惠兩作詞讀牙香慶軒增重感祝感祝
權大雅迂鄙益狂否留不備謝禮

階直陞則伏想有依例區處之慶分然既聞此說則不
可晏然自處敢此冒瀆而大抵今此機會即克善前程
榮枯分路之界頭也伏望燭此情私珍餘生之不多念
好機之難失特垂眷注俾蒙 陞階之地千萬伏望
鐵道本郡地別無犯入而以振威沿途之故日人與本
郡民屢有支脚之鬧或往見或送言以示到底懇款之
意到今則可謂相孚凡係本郡相涉事必先商議無携
貳之端稍覺安閑伏幸伏幸
本郡量地去月初旬始役而其中有頃年同事者且習
知量負野到之邑必受苦厭冷視之侮故量負入境之

下揆以契分合即有踴躍之訣而所謂眩采遠復闕辟只
得向西長吁而止是豈初心耶惟冀襄事利成益受冥祐
郊需之蹟悲援中念到尤可感戴而旋功不安也不備謝
狀上

與公州主事李高陽卷元書

綬遂荆願列張隨之實勞體謹不審霜令令體節神護
萬狂宣堂諸節一向康寧伏溯且慕記下所嬰感崇尚不
痊可私憐奈何能聚扶還官後屢加詳衡期得十分精實
者尚至此夥然雖是向日所仰陳者然裝補康年之歲獨
也告災安鼓望深燭實然子只增民情切迫之念奈何幸

荅雲樵李五衛將容儀書

拜審夜回令體節保無昨日勞瘁之損仰賀仰賀生睡起
偶有泄崇方試養胃湯之劑因非衰秋使然憐歎憐歎耳
孰感什奉讀毅三典雅佳健愈往愈勝仰認有宿工夫何
可以卸地無或自引哉真是末至之上客也至令繕寫
上耳日間一狂之顧預當掃榻留不荏

荅鄭松庵恭承書

省禮方以兩疏而尊家今日事屢數際承先說之問實深
感怍此際寒暄不必言而上慰老堂疾懷下撫隸人往情
惟在尊虛想所素有講究而相愛之深不容不貢愚耳記

夜來不審令體家更若何仰待仰待記下依狀已耳兩缸
實未虛佳儘覺沒黨而所謂韻語得於消遣中聊替報瑞
之儀幸四覽示教如何兩事如此重陽陰晴姑雖不可知
而非甚兩必踏書中之約中仰申仰今見京來書新婦子
歸以今十七日擇來雖甚迫意此月內更無可用日云以
那究定矣然則必於十四日間自此滄發以此意傳喻于
斗并里俾免窘迫如何神挽不荏

與姜泰奉蘭考書

敬詢日間侍體帶益旺仰頌區區記下依狀已耳明日重
允不可寒寒虛度擬欲泛菊一暢雲裡碧下許已通選矣

望另諒岳恩向托生之一次上京事姑未見專京四奇尚
爾躄坐然弟俟下回去就為計也下諒留另為企耳餘留
不備候禮

荅方令碧下書

政爾張誦際承審合體護狂喜恆頂禱記下今日如昨日
樣耳惠贖三品俱各可口五柳籬自上達下并皆鼓腹感
荷感荷而本欲往計反連迎擊奈何仰呵仰呵醴酒沉菜
之味尤為佳好缸兒待其晝還奉計耳劬翁似在重允政
好必越那日擊狂效頌落帽人坊企企餘留不備謝禮

與方令碧下書

實多無益之仰慮弟衰年走域許多難堪之狀已無可論
而再昨年智麓等邑公錢三萬餘兩督納以後都未推尋
利殖也生費也又至為二萬七千餘兩緣此而如干庄土
家舍沒入於消融之中而所謂所帶之荷殘薄無形現今
事狀便是困在緩心凡此事樂知舊無不知之而吾兄則
或未及聆耶於此可知阻濶之久也今於情曲上示及之
地撥以誼分宜無秋毫所惜之心而其於雖欲從之末由
也何哉然而以外樣觀之身在守令也其誰怨與耶萬不
獲已只以京錢二百兩冒沒仰呈此不足日塞責安敢望
晒願而弗之誅耶此等叙情只在一轉移間也弟當好風

茲以警奇句令望眼欲穿趁早光顧如何萬留面叙不備

荅金高陽信點書

老未及朋之懷不似少時重之以近日秋聲浙濕無觸非
雲樹葭露之戀此非吾兄而其誰耶合座媿媿已無可望
而一字書尺亦莫之憑只有結韜依點而已矣匪意雲函
起予於潯寂無憐之中擊讀一回依然是落下角容而不
破顧聞之話津津若奉承談屑苟非一般底懷何至在是
耶但其間經歷有多不堪聽者此雖苦海無人戒之通惠
而豈意吾兄有此耶浩數浩數仍憑審合體帶在茲神旺
喜恆頂禱而所榦秋務果皆入量而無欠滯點惜之漸唇

答李令雲樵書

昨書緣擾得謝悵夜下更詢美慎悵驟勿藥仰慮且祝
生休狀而內行專伴昨暮來到以二十一日抵衙事遠定
云勢將十八日更自此送伴計美一番擾泪亦復奈何耶
除祝調將頌祺不備謝禮

與日人若松嘉吉書

向枉未免忽遽迨庸服仰謹惟秋晚旅體萬旺公務進得
幾許無是揣神周切溯祝生近以家累下未不能無梳揣
勢也奈何託鄙衙懸鈴索羊火爛絕此方補綴而無其道
貴所電線或可無餘存可買者耶如可慶通則限二十八

吹來期有贖罪之日以是我留另已耳餘鄰聞不備謝

與方碧下令大轍書

謹惟日閤令體益旺仰頌无財記下猶又前狀耳託全雅
仁珠以其本洞方雅大玉許有所推祖苞事向有苦懇聞
其事狀果保當捧也不容不使舉狀後歸結之事而若至
舉狀之境則雖是從論理決處有似出於阿好之嫌且於
令執頭面亦所難安茲以再三思量竟此仰議幸招論貴
獲人所謂相閱之物即為打疊無至托探對頭則豈非事
面俱平者耶貴獲人若不頌慶則勢將有訟乃已雖令執
勿為深咎如何餘滿此至臣

新查問也治下城南面新里居禹致洪許有書推租包十
餘石推睡不報不獲已舉狀為料茲以仰煩待其呈狀特
下嚴飭推給俾生光紫坊仰事既理真情又難恕有此昌
控恐諒特施之申仰申仰餘不備使禮

答方令碧下書

即拜審令體神旺仰喜仰喜記下公松無故是幸耳託榮
草可謂多多益善而姑無兩全之勢為先以所示踐中一
百九十八兩四錢送呈擇其勝者而買置企仰企仰瓊什
讀之不覺曰好好擊鄭何愈出愈奇也拙構自願亦可笑
茲亦呈覽勿斷了教如何迷息亦有填韻者故并與石老

把此去人許從方便相議示價惠鄰功企功企此無異空
惠也諒施之申仰申仰械於西川公許亦以此裁托想當
語到相志矣餘留不宣

與振威伴申錫賢書

阻幾乎忘形非秋自益山上京也巧值空官失拜其九月
來赴平澤也遇兩倥偬但瞻望仙閣而過一番裡叙其亦有
數存耶何後適在一舍強之迹而迄未一團尋常悵頌未
知亦或記存否謹惟秋暮政體鄰一街萬旺催課在即倘
無備用區區仰頌之誓弟衷願日甚報答無望公松閱懼
不可以閱適自幸耳託鄙鄰士人全仁珠即弟之末此後

與李令雲樵書

敬詢夜未令體益旺仰頌仰頌生依非耳韻語構拙以呈而不能盡所欲言者默驢伎止於此奈何感作若已成咏及為望餘不宣

荅李雅炳佐書

因警密訊感先於慰警審小春體守護旺尤庸樞禱記下家累添口已極頭重而絃有標上之劫懼是厄會寧付一笑但屢驚姑無其術祗悶耳目前小集貴里斯雅許一簡并邀矣俱失所望追坊輝悵也迷歎由限難達二取已治還雖未見利抵之奇而略揣其瓊輪達閱不費瑕念耳向

作伴呈耳姜晚石以今初五日依東倉小集齊赴之意臨政成約而令執亦祈總許云矣當日當待到借之計也諒之如何書至於此雪樵詩道至故茲并呈耳餘留不備謝

與開花里金注書鳴泚書

向在迨感而但恨稠擾未穩縹以判袂悵仰經屢日焯焯謹不審秋序向抄僑體益衝萬旺仰頌无射記下此諸前時似有團聚之樂而以古人不以家累自隨者觀之得無愧乎呵呵城北洞詩稿既承送示之教矣乞賜暫借如何矧謂鄙什向既露醜不敢終隱幸一覽批正申仰耳餘留不備禮

知致此悵缺奈何奈何綬遂識荆之餘奉晤未洽而遽成失而之別浮生事長足浩歎謹審比日萍寒令體神旺是惟仰禱而港行在備衡寒負慮不任區區記下近以捧選課日東西老人事殊可憫已耳惠饋諸種一一翼感無容名喻而荷腆念之至此深庸不安于中也餘冀行李順祺都閱不備謝禮

荅金注書鳴泚書

會達溪室有興未乘只坊詹碩際拜訊函結以瓊音實不下於奉並字聽軟語仍審文體神旺大惟仰禱而洛蹄在道不能無瑕慮是庸伏念記下閱汨捧選今幸倚樞實宜

集時少一石醒為尤悵今承尾問深以為感云耳肅此頌頌敬復

荅李令雲樵書

謹承審日未慎節天和仰祝仰祝生一依樣耳惠來西首詩不覺牙頰生香可見軀中錦繡眼前見筆下珠璣紙上飛之句也復何更道耶兩詩姑未來第待送覽許耳肅此頌頌恭祺

荅方振武時崇書

倉行慮過謂有回路及其回也又以薄稟未得如意苟知京蹄在明則薄稟姑舍雖至夜深決當入寂乃已恨不早

然憐歎何喻託今日伏見預差負訓教固當改越之不暇而現狀如右奉行無望萬不獲已冒修防報言念道理不勝惶悚幸望垂憐老幼週迫之狀善為稟達俾蒙變通之處分萬乞萬乞大抵鄙郎雖曰近畿而所謂邑振百艱具備每值一動補苴無策今番段實病之故固無可論而難於伊右允可變通事另賜特念之澤申仰申仰此非令執相變之地曷敢有是耶仰想有以泰燭者耳餘不備

與姜議官承元書

謹請日間令體神護仰頌功功記下呵凍靈憲殊無佳際耳託尚齒會既始之不可無業既有業不敢自私而已所

稍覺一遭清餉耳兩頁詩蒼健清楚固無可贊辭之如何至在尚齒序鋪叙有法深得古作者之體此會得此文而始感矣艷服艷服域北筆帖其間奉覽滿心誠不欲釋手而掠人秋菴有所不敢茲用兒壘然春台概有及我之餘波則預功喜行耳執錢事妻因石醒轉囑已有分付於該色者矣諒之如何餘祝行李往還順祺不備

與公州觀察府李高陽恭元書

久聞音徽詹仰益緊謹惟九天靈仍令體神護萬望閣諸節一向康寧仗慕且禱無任慚悚記下近以捧還幾度冒堂東西仍嬰毒感嚴備伏枕振作無期同非羨邁使

妻孥失業來作家累之隨姑此推過然未頭茫然不知為計伏歎無已耳就教地與本郡畢後只在念今念聞語其早晚今亦後人矣諒燭後即為送人揷去若何延見契所督促日甚一日凡係相愛處果切紆贊耳餘不備

答鄭雅閣教書

慈聖寶天普幼痛癆而顧此辱蒙 恩造七倍平品一自拈別音徽冀懇欲修書所在無的今忽拜惠函不覺眼青仍審至泣淚體字隨過神狂何等仰慰而中衍添富仰想到處益工而琳琅紋繡有多奉觀者矣世事之如意者外此有甚耶生近以臨崇寧日常少且種種有匪茹之虞

以粧成八件各一沙呈以備忽忘自顧近於喜事然而區區如是厥亦有由生早有慕白香山只恨百無一學而老奄至矣今幸此事無然偶以遂乃不願傍人是非有此惜率殊不知柳下惠則可而吾則不可之意乞賜賜論以之貶愚如何會負許各沙一件而於令亂則置之想當恭恕不誅耳餘縮不備候禮

答韓承旨昌溆書

積歲阻拜居常悵慕仰拜承下函敝倒愧感如何形喻伏審至泣侍餘令體神護萬安喜恬遠禱之忱世下生來年史域已難堪過而重以不食之適困到境心越脫無望

國家普痛中外惟均以室有綠林之劫持者大函學問周至是非但同省之誼遠處之地眷戀不能忘之致也既感且欽同知收謝仍審臘寒比劇令政體神護萬旺又當兼務想倍獲懽而閑果復路否區區仰禱生副務身病式日相仍轉覺表境難堪奈何所謂賊警豈不知近日通憲而及其自遭有似獨當亦復如何耶歲除不遠惟祝觀返鴻沐不備謝禮

與方碧下大轍書

省禮謹詢客臘賢閣衰奉果利成而佳城極暉允哀不至添病貽憂之端否巧值百憂之會竟關一併之問是豈初

只有吁歎已耳筆掃既云庚近或可不較坐屈坐圖對展耶不鼓望而亦不鼓不登耳餘適座擾不備謝上

答鄭雅閣教書

書音之喜非不喜矣不如楚音之喜為真喜擊審旅體有欠天和無石哭之痛而失攝耶仰慮仰慮生歲暮懷緒自多旌摧恨無酒不空客常滿之趣只咄咄書空已耳文字之托意謂已付忘域矣秋有克踐之戒意預用多荷而至於裕菴天水事方俟府題若其可為則豈容少歇耶餘冀將攝得宜越做合席之歡留不備敬復

答全義郡守權宅洙書

前書未謝荐承惠翰悚感交摯仍審餘寒尚峭令旅體節連謹萬旺仰賀古人取謂工曹坐哺豈不為讚羨之辭耶新年之兆實野遠頌記下還尋舊衙亦由勢不得已者而非其初意想應諒存矣寒感餘崇挾以眩暈中野謂上納未過半柳雅米包今將裝發然時勢日減云云無非憂惱屢奈何那間有還庄之期耶距通務間仰想非久奉叙以是自慰石醒之半千里程遠未必再來甚悵奈何自京發行時付一郵書然其接酬與否亦未可預料耳餘留后不備謝禮

與方碧下大轍書

心野在耶慚負慚負使爾歲搜更請履端令體諸節無損於悲擾之餘而茂膺新歲之休耶區區仰禱記下粹當進香官差員初一作公山行今日暫還本衙席未煖而仍發京行新正奔汜殆亦生平初有命也奈何此呈一弓俯覽編首小叙畧可諒悉而蔽一言置出於永以為好之謂也幸復受言作鴻瓜之留以替千里之面如何繼此而桃觀再遊之便則何幸而若竟竹樓明年而止則奉芝宇聽軟語未知在何時臨行呼借言不知裁惟祝晚節葆重不備狀禮

答李雲樵容儀書

昨書今謝其願可知仍審炎烘此熾眼中旅體連衛休旺
兩澤之至於洗滌膏中煩鬱尤庸賀祝生旰苦眩崇一直
無減莫非衰狀奈何就此米兩少年之請要一閱其情禮
備矣蓋由於文席熏陶中出米也荷月桂韻不可以病情
孤負勤教滋構以呈另加介示至望早餘留不備狀禮

與公州禮羅堂李主事漢容書

謹詢庚炎仕體連護萬旺公務無至擾惱仰湖無任頂祝記
下東症日侵眩暈轉劇良苦良苦就本郡新成浦此乃元
浦接隣之地自昔設市不啻屢度而終歸無實矣今見該
洞所報則遠近商旅皆欲願歲將次復設場市云以若無

奉誨已久瞻誦日深謹詢早早可憂令服體事連護萬旺
閣內均稽仰湖且祝記下宿眩扶滯若欲無常白憐奈何
就無於政暇起居哺傲軒十宜臺之間而非不知草茵之
為宜適得蕭草將欲織席若無結繩茲仰息貴邊若有麻
繩席于一立件施惠且於堂前西墻下有閒地一片而乘
置甚惜故欲栽香菸此亦無種貴庄或隣里廣探未置若
至兩滴即使費星專投則不啻聚幸也近頗無事日惟從
事於種藥栽花上經濟此亦足為消受之法耶奉呵奉呵
餘留不備狀禮

答鄭竹醒書

勿以菲薄而哂笑特存河膠之義以謝諸生如何餘姑不
備使禮

與內部會計局長李容復書

奉別修甫經春屆秋此際懷仰尤倍常品謹不啻侍餘令
體虔供職萬旺仰湖不任願聞第宜休不休便成鷄肋令
私重惱去益難堪中近復人夫募集民情騷訛奈何就昨
見新聞雜報則有地方改善之論雖未知來頭結果之如
何然初第有一事仰懇者幸望收納焉平澤以湖中至發
之邑左割石分東失西喪壞地今不過四方十里也故向
於乙未合附稷山丙申旋郭復設而願其幅圓雖曰偏小

市之邑亦一開眼處也然而此不但自郡許設而止故該
洞民呈府次賫訴委去特許優指幸而咸市則此豈非永
年不朽之蹟乎設或有牙山是非之端善後之方惟望座
下之曲矣按例另護千萬仰企棠軒約自京來札向於
白主事書中同封轉納矣因洛駕未納云若尚未返旆即
為推入府邸開封按簡以納之地如何餘姑不備使禮

與鄭竹醒書

涼意微動謹詢比天慎服體果臻勿藥無任頂祝記下職
擾病劇自憐誌今日罷接會擬欲晉參矣大眩雖減餘崇
尚貽振作未由竟違初料勢也奈何真瓜百枚志略送似

且望耳餘留后不備候禮

荅方碧下書

間頻阻候瞻仰政功即拜惠翰憑審秋涼漸緊令服體節
欠寧區區仰念胤友瘞患近果完否賢庸頂祝記下眩
暈付之老境例崇姑不足更道而近來身恙侵尋氣力隨
以棄耗孤寄旅箱頓無佳况當此令節情緒昏弱觸物生
感及不如平時尋常度了也奈何就寄末序文奉讀詠味
既詳且暢草亭增彩為賜良多無以為謝那間更續一語
耶餘留后不備謝狀

窺其形便亦係關重者海口要衝內浦通衢也論以緊切
足可為設鎮關防之地而以稷山言之則雖云三南大路
僻在東隅自大路距稷邑為十里自大路距平澤亦為十
里而況南有天安西有平澤則大路之關防雖無稷山足
可為之矣然則其輕重緊歇較諸平澤果如何哉自平澤
距天安為五十里距安城為五十里距振威為四十里則
箇中稷山便同汗漫贅有之郡也移附于平澤則地形便
宜道里均敵實為改善之一策也不置忘域提議於地方
改制之席事若圖成不啻萬年不朽之切亦豈無自郡表
準之誠乎眾人盱望不避觀縷茲以仰陳特垂另存切仰

湖區區勞績記下車眩路憊互相侵弄一任頹廢漸氣難
振只恨賦歸之不早耳託一宿聯襟足慰夙藎而致擾門
屏還誦不安向告麗水事期欲涉人往幹而今甥侄升奉
奉準用許幸須親裁一簡善辭繁托從速郵便惠投則不
啻感幸而又當自此送付京第木道抵木港許也諒此另
施切仰切餘神昏呼清留后不備禮

與固城朴

鎮國書

幾許年野書面俱阻有時乎臨風馳神觸景與懷想應一
般即詢伊來旅中履度連得護旺野務不甚鞅掌巡爺諸
節亦為太平馳湖區區願聞情記年來衰謝不復多言而

與閔春書忠植書

便阻踰月悵誦交動謹請霜寒漸肅重侍餘仕體上連護
錦安仰溯且祝生兼謝之極無足奉莞而自去念後作全
義三檢稷山泰藪公府廷 命之行此是老朽者之所能
堪耐耶宿眩新憊分外益肆自不覺苦惱而已第伏聞
皇太子妃宮惠候至有輪直之 命伏未知緣何症候而
間攀平復否春府大監多日直宿之餘諸節不至有損伏
不勝區區首慮耳餘留續不備候禮

與全義郡黃議官斗淵書

日者奉別迨切頰悵謹詢霜寒此肆令體度連護萬旺仰

風雲寒窓政甯懷想珮函忽至瓊韻兼披讀再三不覺
紙利而遠師之清度實禪之高才今於吾師見之而但恨
無白香山之至契韓文公之高眼遂用愧歎跋資之貧之
當此歲暮想應泄泄而顧此薄光通無餘儲寂寂在卽諸
般窘乏只以十斛何賄送之或可蘇孟一時之資耶可歎
可歎回期當在新春則伊時當叩禪扉計耳餘復不宣謝

峇竹山勝竹洞換人主事敬點書

書面俱阻幾何年耶有時磨昂不禁悵點惠函忽墜恍若
重譯而來披讀再三妮妮若促膝奉懇慰豁何似況審春
風尚屬備中靜穩守迓新歲膺者子族從年未衰疲實難

這間野徑無非辛酸苦惱仍成眩火日事刀圭殆難支保
且出宰十餘年竟致晨昴之勢未免托腰之恥是豈素志
也哉還呵且歎茅巡察使安鍾憲氏嘗於密陽已有契分
矣今於稷山參覈之場話到巡察事務而要余薦人故
以君塞責也固知君之綜詳材力無難於此等事務此係
民國大事亦不可徒恃其材能而雲眼間踈忽者也幸
須每事詳商補拾闕漏期於公私女當則庶可為吾君進
身之資階亦當有老我薦人之光也此顧不重且大歎慎
之慎之銘篆不忘切企餘留不載

峇西龍堂彩五書

一議他何奉流訕柳氏事非但勤教之申復事閱風化不
勝含駭期欲詳探根因別般嚴懲而既無原告之對質又
難傍泰之確據勢不得已嚴杖取招後客探公查別無異
同則先失在於三人後失在於鄭漢故杖之責之于今因
禁矣今承聽理之道豈無恣酌於其間之教訟既不查則
已查之而俱有其失何能偏護而勒若執過且林氏路逢
一女左右無人因問其去處至於洞人執捉喝之打之云
寧有問其去處而至於打之場哉目擊人之所傳似不
無恣酌於其間且林氏被打之場柳金二人適過此地問
其因由鄭哥不問由直問被毆打云此亦不無恣酌於其

形喻而第以眩火交攻經歲不瘳雖謂老境倒崇苦惱極
矣奈何昨臘作京行日前還抵而惟幸京第潭口之無警
耳石醒昨年履端已為還山孤寂公館惟以病為隣何能
念到于醉石香簪上學少年之風味且野謂吟風詠月都
付芭籬遺物可笑且歎每於令辰美景未嘗不臨風懷昂
而緣何坐之不遷一無枉顧耶近服天麻已悉於來此有
點氏則想必入聆望須廣採限十斤乾淨以惠如何餘留
不備謝禮

峇稷山倅郭 琛書

郭承春寒尚峭政體節萬重何等慰賀實叶勞祝生昨今

愛憎以取衆謂哉自顧及求萬萬無是理至承愛民不治
望謁觀察之責面辭心惡口難自訟事多孔鑿語涉張皇
只增悚歎而已幸瀆恕諒處之若何餘留不備謝上

荅石醒金宣吉書

茫然公雖三春已暮瞻悵一念無時不炳炳於座右矣忽
奉惠函悅若奉德慰喜何之更詢伊來靜養愛良連衡萬
枉關內句禮而令允安信得聞於久違之餘尚之歡賀而
做何工程果有未頭之望耶仰潭區區不任勞祝弟年未
弦火尚此不歇神疲耳聾兼謝之極可謂日異而月不同
自憐春何就昨春以末柳及恭卿聞或來往矣秋後仍為

間一洞喧詳在傍問由者何至柳金二人而噫彼鄭漢惟
獨施惡於此西人哉此雖為林氏獨犯而柳金亦值同行
混被其辱則容或無恠者鄭漢聞其厥妹之見辱惡憤野
激冒浚行時何暇問及其班常察否而誰人有犯耶事東
至此竊為橫罹者愛惜而亦不無浚覺人作伴之歎且李
允植事未知何以入聆而既無沮戲於原犯被捉之事又
無請囑於聽訟勘罪之庭而只因鄭母被捉時巡校輩以
足債等事無限惹鬧招致曉諭使之知戢則亦出於止弊
息謗之好意而便作袒護鄰漢歸罪柳鄭之科可勝歎哉
生則於政執與李友間曾無厚薄何必於柳鄭之訟曲存

一顧以遂餘生未蘊之懷是所企祝耳在京時郵付燕函
未免沉滯不覺浩歎而此亦未知其信去與否也餘吁情
神昏姑留不備謝禮

與公州澄清閣留鄭礪山觀喜書

奉別踰月張誦采勤謹請肇夏甘雨猶未洽滴令體鄭連
衡萬重公務不暇神用而棠閣諸郵亦為展寧伏潭區區
至祝記下一直眩暈時日為苦問憐奈何既昨日京釜鐵
道會社諸帖來到此是開通式日速覽衆列者也自願年
適多病無復餘望且如此感况似無更觀之日弟有一火
觀光之念而往往似費數三日樣則因此告由還涉煤仄

移寓于樓山衙中其時獨處至于今矣白首無恥區區五
斗何足為糜身哉尚不得浩然長歸者只因公債一事而
冒沒躡仍若更有所營求者然情勢至此豈不為矜憐且
憤愧者哉靜言思之咄咄書空而已貴函有春兩支離之
教則想有麥登之占而此迄則自昨秋以後雨不一鋤靈
不覆地麥白已判且於去十八日沿浦海溢田土之被侵
者為三四百石落則殘之又殘心至於無郡乃已為民情
為我事可謂長太息者也期欲從近賦歸計而且自京府
有外邑官制變通在即之說左右間心遂懷懷一節
之教不勝雀喜而弟觀未機更焉春告矣雖在京中惠然

且足為培養性情之資矣竹榴薇此即稀有之物體雖小
其成就甚長惟在於培養勤慢之何如耳餘留不備禮

荅方碧下書

久阻音微瞻仰方深即承惠書慰豁若奉穩更詢便後數
天旅艱宇連衡萬重仰溯且構記下宿復肆日事苦惱
悶歎奈何就貴宅安信間已久阻而憂故之連綿甚切代
悶向於公府觀察使與鄭礪山以貴執顧護事申中累托
也諒之如何那奉清範以叙裝積耶預切願念昨日尹德辦家金主事道
默自京下來以貴下來奉旋歸之意為言也亦諒之如何餘不備謝

荅鄭主事春珠書

與張大矣當伊時潛自往送在急似好而且碍事體故茲
敢告袁幸須諒下回教仗企耳餘留不備候禮

與育英齋齋長鄭竹醒閣教書

不但慎誦謹詢日內靜攝雅宇連衡萬重仰溯區區願言
記下姑依昨劣已耳諸生之書後何能善做而檢躬之地
想多神用甚功主臣教托脚氣藥子教條抄錄然未能知
其當劉與否是在此容易行之者亦不過幾條據也考覽
服試如何如何按摩法似是久行有效者而其詳解中數
目二字未詳其義也教示若何第以竹榴石榴蒿薇四種
為送呈善為培植日夕灌溉則此亦出於育英之一事而

積久阻使常切悵暮即伏承惠問伏慰且陳仍伏審際茲
暄和氣體使連寺康旺祝無任遠忱下生姑保職狀而
年來眩暈實難支過奈何教托事謹悉而聽訟辦決願未
茲具胎呈覽下可燭事狀若是相左伏切悚悶餘留后不
備謝白再舊作人鄭敬化訴稱臨農奪耕云新作人金聖
默訴以昨冬移得今未失耕云省主訴曰舊作人由來怨
賭今為移作云故三造下質則怨賭之事果是虛無而舊
作人野居洞民斫取者主印木時鄭敬化以同宗之人越
不禁止操因此生讐至於移者且移作票紙初不往示於
舊作人之說出於頭質之場野謂斫木事在三月也徒非

者禮荐承練祭已過仰想孝思益復如新近因病情以致
忘城誠野悚惡仍認此間日候不調哀矜度連衡支安慰
祝無數記下眩暈終無效恒野闕者而迷息昨從列車還
第獨寄孤館是何滋味耶就惠遺品酒秀魚果是珍常腴
念至此不知何而為謝也醫鑑膳本不足依米人所傳以
十二張送呈而諸生多日熏惱甚不安然此亦做二一中一
庶事也以此慰及如何庭際蒿薇爛開色妍者芥茲庸數
百葩珠取奉呈以備一時竹醒者儒之資為望耳餘留后
不備謝祝禮

荅金大臣嘉鎮書

諸節延復承聆寶貯區區願言記下裏年殊方眩暈作祟
民社深嗚恨未能賦歸而現今情勢亦難恣意去就莫非
身運巧閑奈何就一次責顧之教不勝感銘然而道路脩
復何以答神耶方欲此晦初間可以上洛為計也下諒停
驂為望石醒之昨年元月初還第尚不更顧而間或有屢
度書問而已耳餘留后不備謝

答嚴侍從錫周書

許久阻悵何嘗暫弛瞻誦際切得承惠書比認日使清和
令體節神衛恭康伏賀且祝記下裏狀日甚奈何就教意
謹領嚴飭金枝該者運給於李班諒下如何餘留神會不

移番之節從公慶辦使山主無克有何積愠於舊作移作
累紙之越付舊作使彼復得他番自是農例也而新作者
真若昨冬移得則緣何掩置今於相訟之境始乃出見乎
參究事狀仍舊為可故題判於番主訴狀決論久矣公議
難掩時亦差晚萬無及訟之道然勤教之下不敢泯默拙
致鄭敬化別般晚傷後相持番二十一斗落內十斗落使
之仍舊十一斗落移付番主下燭伏望

答真實許進士 塙書

奉別積歲瞻誦累切匪意尋函從郵惠至披讀再三恍若
握叙清誼仍審辰下茲體度連衛健康遠賀且祝而春堂

可知其七分入室但限宇細難辨未生許有野評論此亦
勸勉庶事恕諒如何就送櫻問題果是一般情緒也何必
待其贈遺而為懷耶孤寄鄉館自不無冲悵即於伊日果
有一詩之作故茲胎呈覽可擬寶幸復介教為望餘留不
備謝狀禮

答全議官弘植書

阻候春盡夏啓瞻仰政切卽拜惠函謹審比來令體節欠
和貢慮萬萬近日則果有復常之效耶旋切湖仰第眩暈
一直苦歇去根無藥自悶自悶就鄭生事初以松楸相訟
而質查之場稱云洞人之巧種合有證據然西山既鄭山

備謝

與鄭竹醒書

省禮謹詢喜兩初收旅中服體節連衛萬旺脚氣迄復何
如實非斯瀆間痊可之崇仰慮不任記下眩暈言之支離
付諸裏境例崇自以為慰耳就此送八種草花排植于書
齋左右日夕灌溉皆能生活以此申喻如何向托醫鑑贈
本已寫畢準者此回先為入送為望餘留不備狀禮

答鄭竹醒書

省禮昨書今謝勢野悵昂更詢夜禪服體在旅萬旺伏切
誦祝記下一味漚劣餘何奉喻就六膳依覽而諸生工程

托則待鄭生之訖巧謂鄭京化更當嚴飭懲後計早餘不備謝

賀星州郡守南宮穩書

一城之內積年阻澗雖緣勢使帳深恨重久屈之餘時蒙外除位望野推雖有晚連之嫻其野慰感不無栢悅之忱謹伏問麥秋美果穩稅視象體度勞攘餘萬穡伏湖區區無任仰祝記下四載躋此野得一眩暈而如掌小邑治療無計自憐自憐中賊警義賢雖無此邑隣郡駭聽聞不可言奈何就治下龍山面黃亭居金進士宦吉非但親知十數年同苦之人其文學凡節足可與語者也幸復遣

故已伐十株置之勿論餘松付之山主之意決給再以苗土與奪事起訟故亦為質查則新作人移作之景初不往付於舊作及其三月落種之時無一言耕畝此非奪耕之時故該苗十斗落使之仍作至於山直耶給苗十餘斗落雖無移粟已於昨冬得聞傳說云故此則奪耕移作非但訟之公決於鄭生亦無餘蘊而今以三十餘斗落并為勒耕之意奔走京鄉至有長橋重臣之教托匪不欲提治京化而懲賭奪畝俱無可據之說此訟判決自有隣近之衆論而今以何辭翻訟乎鄭文教弟亦有面分者而以若學考為名有此紛紜未免好訟矣不其難安乎既有重臣教

何幸何幸農形方在移秧中而一雨終未洽雲甚闊甚闊且近以義兵賊黨無處無之種種駭聽而此邑則雖無此等之警四隣騷擾不無漬水之慮豈不味懼乎顧此情景宜即賦歸而去孰不得自由無奈身教野閑也歎何如之昨見家書則自上引見悌孫以汝祖治蹟之優著無以可表特加一資為一教其野惶感何以圖報哉就貴郡新件曾有面分故存問另護之意裁書緊托然而未知實效之有無耳餘不備使 再去月二十七日悌孫陞任該院葵任技師榮感萬萬克兒家舍間為移定於壽洞影堂谷初八此邊第一家今望後搬移云耳

吏存問隨事由庇若何其子在美國遊覽尚此未還而慮或有調度難堪之端然必無貽惱之理金進士許野去書冒沒伴呈無滯即傳企望耳餘不備候

與石醒金寅吉書

去月郵便付謝果無浮沁入覽謹詢榴夏靜候連護萬旺軍節均迪胤君安信亦為得聆邦邊麥農果得豐稔并遠溯區區不比尋常記下眩氣一直無常而三月十八日伴當海溢年麥沈沒數百餘石落堤堰潰決三千餘把以若小邑被災居半滿心悶然中春早轉甚陸麥幾至無形幸於晚雨始得蕪甦日下野暗僅得免歎此亦天之野賜也

荅石醒金寅吉書

去月二十七日出書奉覽於今月初四日瞻帳之際得承
華滋其所欣慰果非尋常其後有日謹詢比未早災比酷熱
禮節違衛康旺洋度俱安否向見新聞則大邱星州等郡因
早騷不安云間果冷得一霽耶多少仰慮不任胤君安信
間又得聞做何所寧云否能湧身涉海遊覽文明者將為
來進基礎也豈不為萬萬頌賀哉然而第一盤費想無帶
去者而緣何堪過云耶亦所紆鬱也記下去二十四日
特頒從二品陞資之 諒今月十三日悌深又蒙正三品
階數十日內一門祖孫俱得變品果是非喜伊懼衰齡已

荅全義倅權泰容書

早炎轉甚瞻詠政切即拜先惠慰若奉晤謹審初庚令體
度以暑症欠和公務煩劇不出揣料百慮切切而庭使阻
安非悶伊寧仰慰萬萬何等更祝記下眩暈一直苦歇此
乃老病之無奈也開筍調養猶頌 聖恩而猥蒙緋金味
先感後將何以圖報乎執此郡形便先於我燭而邑東西
面雖云早穰虫災徧酷無餘盡消西南北三面已經海溢
之餘尚新秧雨一無移秧揆以節序揣以秧苗雖得一兩
滂沱未免金境歉荒矣有推悉心良歎不才之久典已耳
餘留不備謝禮

昨因卜吏致承荅鳴慰感良深仍審滂炎服中慎節尚未
更和採次調養實攝難使然想惟主哀必多眷眷于中以
是仰慰也切麥適有疇儲三兩重茲送呈倘用煎進粟米
飲或鷄膏等劑亦可以補益一助矣且合竹筴一柄既未
於京果合胤兒所把以之賜與如何伏聞春兩室實記殆
此欠寧中日費神精甚切不安第復拋置床諸待燕完考
閱未為不可者也果係傳久之物則必另留實效為望抄
冊書火并翰紙一張伴上耳是日亦名節必自諸生應有
酬辰之好題目只切健羨已也生間經暑泄絳添眩暈元
氣漸撒口味全却日思歸賦末由如意更有何係戀而然

諭七旬眩病日添報荅無期只切兢惕而已且去月望日
得見老荆急霍之傳奇聞不勝驚駭即從列車從權上京
則症情危劇幸逢良醫調劑連試至十九日始得回陽至
二十二日勢不得還官近復連接郵書所患近頗脫危稍
有向復之漸然久患之餘氣力積敗門闥出入不能自由
其早復之期始未知其費了幾許月日據云而近又此郡
形便早騷不甚邑東西面雖云早穰被虫災蘊生無望
西南北三面海溢後尚未得一帶始未移秧此無非怡惱慶
也奈何迷息家間已般移于壽洞耳餘留不備禮

與鄭竹醒書

與秘書丞閔忠植書

靜下有日詹頌更坊謹問比日而餘侍餘令體度一衛萬
重不任仰禱世記眩暈少似返聽謂之全祛則未也祕閣
而今着風雨後農民報定甚多是所憂歎託鶴頂帶用震
頻仍如校宮使者或答官稅版後觀府行皆不可無着也
而晉時窮欲而使之座獲未果茲以晉愍帝望履凡得用
餘一件出給迷息克善則自可下未俯諒必施千萬事特
餘留續不備候禮

答城雲宗人敬熙書

不但方悵謂外此誤未獲拜託函喜感交擊仍舊添餘靜

耶甚庸愧歎向告長篇詩間應斤置此回惠擲如何餘留
不備狀禮

與金掌議書玉書

不但悵仰不審而中侍體崇護溯祝無任記下一直吟苦
祕閣難狀就李公壽宴詩編次與并文既荷在世時所托
故有難狎負閑朔磨而今始就縮眼步文拙恐有方眼識
請勿論誰何遂下弁斷誠所幸甚倘為裁廣圖如何詩卷
與本稿并送呈傳付其本家為望耳 聖蹟圖誌竊有再
奉當之願焚香日想當入來矣第當奉教明倫堂上留不
備禮

仰備日用尺牘與明年暮色五年之況此可以諫怒耳餘
留續不備謝禮

與真實船山許恭奉 薰書

益仕感祝感祝積歲阻仰之餘昨日都下得奉令胤
喜聆其間二音今又歷訪慰荷良多謹詢滄涼生觀既
禮節神勞萬匪仰禱不任區區記下今夏獲蒙從二品陞
資之 恩情私慳感而好帶鷄肋尚未能卸却是豈初意
好到耶只切自憐已也奉拜之期謂在何時以若執事蘊
抱既答初路則或可嗣此進進庶可握叙於日下以是願
企耳餘非書可既不備候禮

禮萬旺單鄭句裕何等仰喜之至旅從匪分 恩賚有傾
自天私分感祝已無可言而報答無路神暢何言由於
聖鄭暫止初三又選衙餘德挾眩尚此莫振甚問永州阮
丈大暮仰想痛痛倍倍而三卷之遠何可徒步耶獲宗亦
尚未一哭三燈奄居按以平昔惶悚無已也所恃惟我之
教果是實際語而自某某處早有公論之說前所略陳者
也早晚間必有好風之日過勿有違之心如何在京第
時得聞仙洞從允近奇大都無故樣耳製示文字平日豈
不知大手段而今作尤令人朗誦不知止不任感蒙幾十
而呈上以佐嘉排日懸具如何封套八十張及四本花種

與方碧下大轍書

春間一書紙已毛矣胡茲秋氣沈寥明月清風之思捨吾
碧下令而伊誰也敬請際辰令旅體下衛萬典第信續聆
均安不任頂禱此去東倉曾未崇朝而一自伊復漢未聞
如何之消息惟是以無為好耳記下頃蒙從二品陞資之
恩情私感祝而報荅無路只坊使僕已也所謂眩氣全復
藥餌持扶近又嬰痢崇伙枕呻嚙合歸不歸宜其為造化
見困人又何足計也每念令執優閑於山水名鄉長暇嘯
詠耽吟塵累較諸鞍掌難助者相去莫但三十里健羨而

與惟孫書

未知伊來首仕俱甚婦阿所苦漸就差效耶孩瘡亦不至
貽憂耶汝之有妻病以來合有一書開我而不爾者是何
沒覺之甚也可聞不可聞者闕之無妨而至於憂病等事
家音之不可但已者且以涕孫言之間蒙公頓事卹至於
剃髮而不使我聞知縮者日本敷章賜給以不為相當不
史云所謂不為相當云爾者吾未知其理許然吾意則決
無當不當之可論而汝以何所見為此疑異事也吾以汝
近日驟進心常戒懼矣汝之此舉無乃滿招損之基因耶
功功慨歎此亦事前事後當有詳示我者諒為之也不

秋序向闌倉頡倍常謹惟菊涼仕體一衛萬莊棠閣諸郎

康寧仰禱區區生老而躄仍病亦種種滄浪也奈何今番
殿最居士惶恐無可言而頓似迷津獲寤旋覺端息無涯
自願宜下下而置諸中無乃秩高之故以示中便是下之
意耶无極悚惡宜即撤裝之不暇而又有延廷不得底事
另錄以呈俯諒如何餘不備 再生之前之得之固足以
知足者之以年亦可休矣而未焉者實有不得自由之故
非出於貪戀也今伏承憫老或教之下豈敢有一半分違
迤之念而本那公納之類數未納者尚在於吏道現方京
搜未推期於今朔內竟納而此而不自我刷清長吏之責

荅好醒書

當在李主事漢容書下

宋由從奈何耶問當有還旆耶奉芝宇聽軟語恐遂未易
幸一圖之如何此呈韻語病情索莫尤不成說聊博一粲
而倘蒙報瑞則老感耳餘惟冀時垂德音汝此渴仰不備
自以闕候不敢致訝竟殊先施感荷感荷仍舊瘵體攝護
神旺仰慰無禱記下向崇尚有餘硬老矣奈何昨見殿最
中以若魯劣固是倘未事且幸次歸之有梯多謝湖南二
千石也石醒抗之不得昨已上程悵缺不可形論也回武
立從不備謝禮

因禮羅堂李主事漢容書

吾則大非也何共做錯之至此耶現以時局言之所謂合
耶必在不遠間設或移遷必歸於殘薄何能恭覽實之策
而得有債帳了勤之望乎較者前日所經過則其無意於
我可知其無情之地空然自鳴豈不為見侮於彼耶設令
如意遷轉所類秋捧已屬前官可謂徒勞無益且上納錢
度支期限臨迫財務官巡視督促則不可容手循環吾君
未刷前一移此耶則舊約之清帳無期當此各耶半擇差
云云之時焉可以居土者將有遷撤之理乎觀察殿嚴不
過是老一字或老故人老之忌得曰不著題也或今衰老
病纏而終未能自解覺悟不知止於此處逃遑躡冒以至

斷不待旋踵且聞邑事之生疴所以為旬月之計浩歎浩
歎人自觀之甚涉濡忍之嫌而一串九釐不能謀負郭田
一項者豈肯保戀於斗小之苟耶凡此有若分疏然唯令
執可諒此心故如是縷縷耳

與克兒書

聞頗阻戀想即聞此未日後漸寒汝 慈此諸鄰益復康
壯大小家渾度俱安惟深憂所慮益有差勝為念不馳汝
之職事緣何失街當此艱虞逢此料外見亦良庸慨歎吾
眩眩此稍稍減而天麻尤速試終未快效甚苦且聞權議
官許書托可謂大妄發此是汝輩之語辭間商議事而以

一分錢收擇委文督從終歸無效蓋因錢政之不能徹通
故也每年此際各商賈帶錢留米於場市以之農民作米
輸賣結稅與許多所用皆首於此而近日白米市一斗為
大四五錢者昨日市則落價為四兩零而馬料所用太與
麥忽地高騰至於各物種種而塔價都無買運出布之難
舉皆未販以是之故市上與受社絕似此艱難果無稅錢
收刷之道此將奈何當此時勢窘絀諸般事從以違料至
若上納等事自有定期未能如何措廢然最中首書記犯
通條亦無刷清之望甚切迫迫此莫非身運所關級此焦
燥夜輒失眠奈何且今年農形及其收穫也非但東穀之

竟遭見侮雖是倉浪豈不為大羞耻照笑於眾中耶身家
之不贖無非前定更無分外之所望第念一串九釐謹慎
自持一副戒規未曾買菜田一項足可謂無規戒心自以
擬清白傳家之資而乃未能浩然超羣與世俗同歸一轍
是可恨也因近病晚悔當自警者此也近來賊黨義兵
無處無之蔓延四至此與安城竹山等地距無過四五十
里而因地方隊勒捕無日不經行此界聞見老懷嗚非哀
老日所勸當爾其知予至乎必復深謀可也近聞官人所
著衣服皆為實施云吾亦改服乃已取前日所着伴中如
干幣色製送為企耳此耶稅錢已為發令今焉返甸都無

渾無頭馬幸且志孫問泰被選因測量事務赴往義州未
月初可以還來云耳此耶稅錢果於月初發令至今所捧
無過三百餘兩其間非不嚴督而錢因竭出市之較不
能販賣以是而與受絕塞且秋獲以郵晚之致今至未半
雖一包租都無顧賣人農形及其收獲前之百來者今不
過五六十束中空穀居多未免歉荒奈何又京訓稅錢每
結新貨八圍收納事到付而此間有何新貨耶近日所用
無非雜錢左右間他無道理此將奈何見朴健模書則自
杆城七千兩錢才入手以輸來之難轉向明川等地云甚
可憫也二千餘兩條當於稅捧時計除而李允種許使尼

全減未穀之空較恰為三分之一况經三次海盈一次電
災四火風損災竟傷歉荒民情可矜邑事可憫也憤歎
奈何姑此不多

荅翼兒書

去月郵書覽悉所幹事更當隨機告反云故荅書因猶未
果矣日昨克兒下來二宿而去其時相與說到自以謂間
或作慶州行則郵付書必是浮沉樣揣知再昨新聞始有
全庫相持之說甚妙訝感今朝出書從郵未到這間若况
聞不勝死念更聞移寓幹事果能就緒倘無葛藤兩惱在
功功為念吾腦症一直無減近感憂感中望度日唯以京

盡如非妙入神之筆何以模寫身遊其中者乎第其織錦
成章佳春雨室增光動彩為吾家實用不覺充然受賜大
矣感蒙僕僕不能已也餘留埃病晉謝不備夏

與竹山勝竹洞宗人敬默書

書面之阻幾何日月莫曆肇新春又過半焯焯懷想無時
不繞繞於座下矣宗人有默之來憑雷靜養震艱不暇有
損而間以允王寒崇惟憂多日云試何藥餌快臻蕪完仰
切湖慮區區願言族從積久眩崇入春特肆以寒以疾百
般侵凌轉輒床褥月已再矣神耗身疲頓無陽界上佳况
而年來營苟於此級者曾為首山之蚊末由奮翼一日二

章鉞董督然收獲未單不得擇置則何暇作米上送耶現
以此耶事狀此月內如干枚則已無可論不必乞暇期於
從速了勘後上來為好耳京鄉公論畢竟自米一升白錢
二分價後乃已云而此近來價市一斗上米五兩中米四
兩五錢粘米六兩租一包為三十二兩云而都無顧賣人
奈何餘不究

荅鄭竹醒閣教書

奉誨已久瞻詠政切函雲忽際警讀銘感仍伏審際茲旅
居體節連護康寧伏慰仰祝記下宿眩杖感苦敬無常無
非東狀自憐奈何就普兩室文與評糴錯潤色其境情俱

鄉約莫可團束至嚴 國法不能懲罰則是其本性之素
然哉方今之策惟在乎為官守者申明法律嚴立課條俾
厥士民各修其職毋或怠惰逸遊之習而若有莠民不悛
前習從治罔赦以杜僥倖之路而知巧趨向則庶不施誅
戮之刑而可回前日之淳俗矣此乃禁戢之要務也但若
從事於戢捕則朝聚暮散東閃西忽之徒何能追捕而盡
誅哉本郡陔壤地褊小且無富產曾無巨盜之作梗近日
以來或有匿名投書或有叩關索錢而追捕踪跡則不過
一二悖徒聞風效颺幸望其僥倖者故現方發校夜巡更飭
各洞警備不怠則雖未知逮捕之必的似無滋蔓之虞事

평택군수 오형묵의 산문집 散文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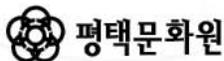
평택총쇄 平澤叢瑣

평택군수 산문집인 『평택 총쇄』를 읽어보면

그는 평택군 동헌에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내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민정을 살폈고, 공주관찰부나 이웃 고을에 불러다니며 도정(道政)에도 협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글을 지었기에 평택의 주민이나 다른 고을의 친지들에게 지어준 산문도 있지만 상의하달(上意下達) 하의상달(下意上達), 즉 상급관청의 뜻을 주민들에게 전달한 글도 있고, 평택 주민들의 실정을 상급기관에 보고한 글들이 특히 많이 실려 있다.

평택산문집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대한제국 마지막 평택 군수로 재임하면서 평택 관아의 여러 건물과 정원, 평택의 주민들과 풍광에 대해 서술하는 전통적인 산문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평택의 근대화와 조국의 주권 강탈이라는 양면을 담담하게 기록했다는 점이다.



평택문화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Tel 031.655.2002 Fax 031.654.8807
www.ptmunhwa.or.kr

비매품/무료

03910



9 788993 983708

ISBN 978-89-93983-70-8